



2015
플랫폼
아티스트

2015
PLATFORM
ARTISTS

2015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플랫폼
아티스트**

**2015
PLATFORM
ARTISTS**

2015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플랫폼
아티스트

2015
PLATFORM
ARTISTS

목차 CONTENTS

006 인사말 Foreword

2015 입주 예술가 2015 RESIDENT ARTISTS

시각예술 Visual Arts

- 010 강우영 KANG Woo-Young
- 018 기술기 KI Seulki
- 024 길다래 GIL Darae
- 034 김유정 KIM Yujung
- 042 나나&펠릭스 Nana&Felix
- 048 니콜라 마네티 Nicolas MANENTI
- 054 로미 아키투브 Romy ACHITUV
- 060 박윤주 PARK Yunju
- 070 박은하 PARK Yuna
- 078 백승기 BAEK Seungkee
- 084 사야카 오하타 Sayaka OHATA
- 090 안토니 워드 Antony WARD
- 096 예제 일디림 Ece YILDIRIM
- 102 염지희 YEOM Jihee
- 110 위영일 WEE Young-il
- 118 이주현 YI Joohyun
- 126 이창훈 LEE Chang-hoon
- 134 임선희 LIM Sun Hee
- 142 전형산 JUN Hyoung San
- 150 젯사다 탕트라쿨윙 Jedsada TANGTRAKULWONG
- 156 지희킴 Jihee KIM
- 164 최 영 CHOI Young
- 172 클라라 페트라 사보 Klara Petra SZABO
- 178 폴 주커 Paul ZUERKER
- 182 함정식 HAM Jeongsik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 194 김성배 KIM Sungbae
- 200 김성용 KIM Sungyong
- 206 배인숙 BAE Insook
- 212 앤드씨어터 A.N.D. Theatre
- 218 얼라이브아츠 코모 alivearts como
- 222 우현주 WOO Hyunju
- 228 이영주 LEE Youngjoo
- 238 판소리, '하다' PANSORI, 'HADA'

문학창작 및 비평 Literary Creation & Criticism

- 246 강효미 KANG Hyomi
- 252 김경해 KIM Kyounghae
- 256 이하람 LEE Haram
- 262 인진미 IN Jinmi
- 268 전강희 JEON Kanghee

2015 레지던시프로그램 2015 RESIDENCY PROGRAM

- 276 프리뷰전 :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 278 오픈스튜디오
- 280 결과보고전 : 〈2015 플랫폼 아티스트〉
- 282 지역 연구 리서치
- 284 플랫폼 살롱
- 286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 288 창작지원(협업) 프로그램
- 290 공연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쇼케이스
- 292 예술가 참여 교육프로그램

- 296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약력

2009년 개관한 인천아트플랫폼이 벌써 6기 작가를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구도심에 자리한 인천아트플랫폼은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들이 교류하고 소통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뜻으로 설립되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5년 3월에 입주한 9개국 38팀의 6기 작가들과 지역 연구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인천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고 인천아트플랫폼 인근을 함께 도보로 답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타지에서 온 작가들을 위해 개항장 일대의 옛 각국 조계지와 유서 깊은 공간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과 역사적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작가들이 1년 동안 인천에 머물며 개인 작업의 완성뿐만 아니라 인천과 연관된 작품들을 제작했으면 하는 기대도 가졌습니다.

〈6기 입주작가 프리뷰〉전시로 시작된 입주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활동은 개인 전시, 그룹전시, 문화예술교육, 쇼케이스,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더불어 3일간 작가들의 작업공간이 개방되는 오픈스튜디오와 1년간 창작의 결실을 보여주는 결과보고전을 통해 일반 시민과 문화예술계 전문가들과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은 ‘강우영, 박윤주, 배인숙, 이주현’ 작가의 그룹전 〈갈증이 나는 방식〉, ‘박은하, 기술기’ 작가의 그룹전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등 입주작가 간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와 ‘위영일, 이창훈’ 작가 등이 인천시 책의 수도 기념 사업과 연계하여 참여한 프로젝트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풍성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한 국내외 입주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6기 예술가들이 앞으로도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16년 2월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 윤 식**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예술가 2015 IAP Resident Artists

순번	분야	기간	작가명
1	시각예술 Visual Arts	장기	강우영 KANG Woo-Young
2			기술기 KI Seulki
3			길다래 Gil Darae
4			김유정 KIM Yujung
5			박윤주 PARK Yunju
6			박은하 PARK Yuna
7			백승기 BAEK Seungkee
8			염지희 YEOM Jihee
9			위영일 WEE Young-il
10			이주현 YI Joohyun
11			이창훈 LEE Chang-hoon
12			임선희 LIM Sun Hee
13			전형산 JUN Hyoung San
14			지희킴 Jihee KIM
15			최 영 CHOI Young
16			함정식 HAM Jeongsik
17		단기-A팀	나나&펠릭스 Nana&Felix
18			안토니 워드 Antony WARD
19			폴 주커 Paul ZUERKER
20		단기-B팀	로미 아키투브 Romy ACHITUV
21			사야카 오하타 Sayaka OHATA
22			젯사다 탕트라쿨웁 Jedsada TANGTRAKULWONG
23		단기-C팀	니콜라 마네티 Nicolas MANENTI
24			에제 일디림 Ece YILDIRIM
25			클라라 페트라 사보 Klara Petra SZABO
26	공연예술 Performing Arts	장기	김성배 KIM Sungbae
27			김성용 KIM Sungyong
28			앤드씨어터 A.N.D. Theatre
29		단기-A팀	판소리, '하다' Pansori, 'HADA'
30			이영주 LEE Youngjoo
31		단기-B팀	배인숙 BAE Insook
32		단기-C팀	얼라이브아츠 코모 alivearts como
33			우현주 WOO Hyunju
34	문학창작 및 비평 Literary Creation & Criticism	장기	인진미 IN Jinmi
35		중기-상반기	김경해 KIM Kyounghae
36			전강희 JEON Kanghee
37		중기-하반기	강효미 KANG Hyomi
38			이하람 LEE Ha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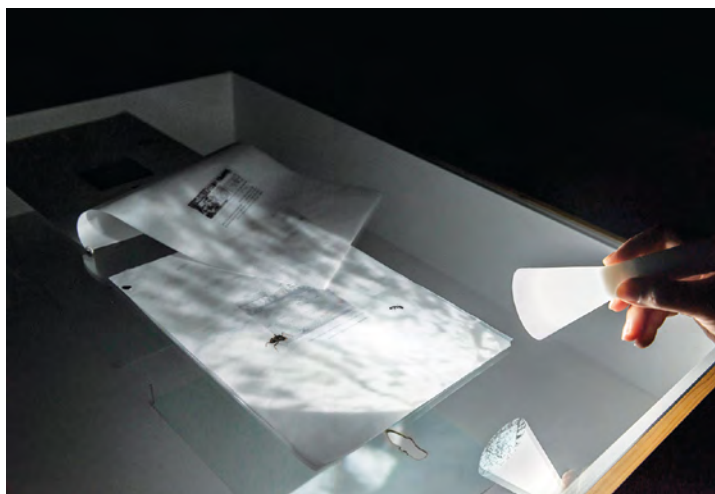
* **장기** 2015년 3월~2016년 2월
중기 상반기 : 2015년 3월~8월 / 하반기 : 2015년 9월~2016년 2월
단기 A팀 : 2015년 3~5월 / B팀 : 2015년 6~8월 / C팀 : 2015년 9~11월

강우영 KANG Woo-Young



야간채집_혼합재료_가변설치_2015
Nighttime Collection_Mixed Media_Dimensions Variable_2015

개인과 집단에 비극을 초래하는 편향성과 폭력성,
우리 삶과 존재가 흔들리는 균열의 시작점,
귀로를 단절시키는 것들을 어둠이라 규정하고,
이들의 실재를 조명하는 정보들을 채집한 후, '야행', '암중모색',
'귀소를 비롯한 12가지의 테를 덧씌워서 표본한 작품이다.
어두움에 잠식당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표본들을
빛을 비추며 재목록한다.



하나의 감각(一覺)으로 몰아오는 통감각적 회통의 한 생각 - 강우영의 '우물'과 'unspoken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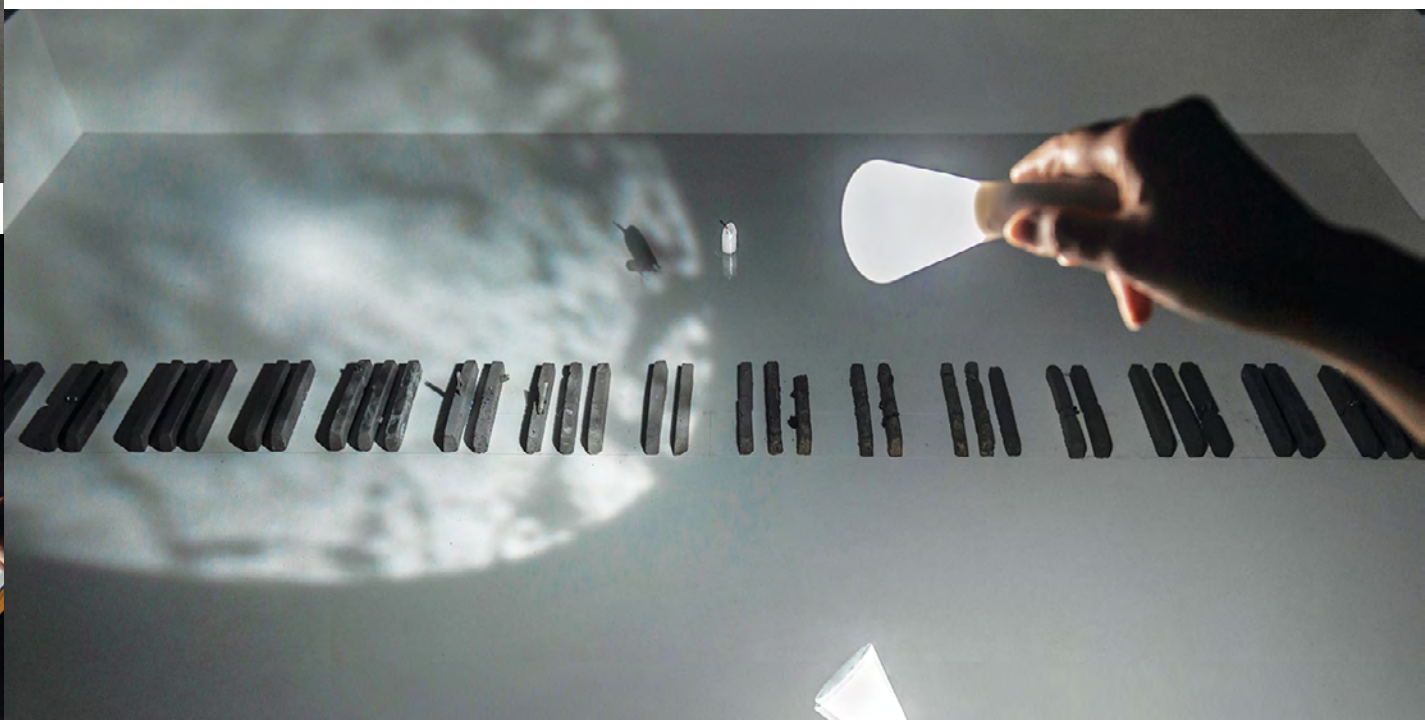
김종길 미술평론가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남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중에서

비평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요즈음 부쩍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는
비평의 행위가 작가나 작품의 말과 이미지를 과연 상징화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의문이다. 작가라는 존재도 하나의 상징이고, 작품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상징인데 말이다. 최근 나는 강우영을 비롯한 몇몇의 작
가와 작품을 보면서 비평의 언어야말로 그들을 '미학화' 하는 생각의
육체가 아닐까하고 고민했다. 이 글도 그런 고민에서 비롯된 강우영
과 그의 작품에 대한 미학적 사유의 여러 갈래들이다. '생각(生角)'이
살아있는 사슴뿔의 이미지이듯이 아래의 개념들과 개념풀이는 창조
적 주체인 '강우영'을 향해 뛰어드는 빛무리의 감각이고 언어다.

말의 침묵(沈黙)

강우영이 스스로 깨달아서 명명한 'unspoken words'라는 말의 의미



나는 개인의 사적인 순간 또는 집단적 기억 속에 부유하는
 발현되지 못했거나 소통에서 기능하지 못한 말이나
 메시지, 또는 주목되어져야 할 순간들을 채집한다.
 그리고 이를 'unspoken words'라고 명명하고
 작품의 테마로 삼고 있다. unspoken words에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은, 물성과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물리적 존재 좌표를
 획득하게 하여, 특정 시공간에 안착되어
 응시되어지고 다시 말하여지게 하기 위함이다.

강 우 영



달지 못한 말_에폭시 수지로 제작한 심장 형태의 점멸등, 분필, 우물 내부_지름100cm, 깊이 500cm_일본 군마현 기류시 모리요시 스튜디오의 우물_2005
 Unspoken words_Heart shaped light made of epoxy resin, white chalk, inside of well_Diameter 100cm, Depth 500cm_
 Well in Okazaki-tei, Funasaka, Nishinomiya, Hyogo, Japan_2005



목구멍, 또는 심중에 걸려있는 말들.

우물 입구를 막은 덮개의 틈 사이로 관람하는 작품이다.

우물 속 공중에 떠있는 심장은 심장 박동과 같은 속도로 점멸한다.

관객은 불이 밝혀지는 순간에 우물 속 돌벽에 적힌 글자를 읽어보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진다.

는 그가 고백했듯이 '말하지 못한 말, 말할 수 없는 말, 달지 못한 말, 받아들여지지 못한 말, 잊혀진 말'을 함축하는 개념으로 수렴되어서 이해된다. 그가 이야기한 이 다섯 가지 '말'의 상황은 다시 두 개의 안팎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말로써 '말의 묵(黙)'이 그 첫째라면, 달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또 잊혀진 말로써 '말의 침(沈)'은 그 둘째라고 할 수 있다. '묵'은 말하지 않아서 묵묵하고 고요하며 고독하다. '침'은 말했으나 가라앉았고 빠졌고 잠겼고 막혔고 침체되었고 무엇에 쏠려서 헤어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그의 말은 아니 그의 작품들은 '무언(無言)의 말'이라는 무형의 형상을 드러내는 적요(寂寥)의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의 언어로써의 미학이다. 그의 무언과 침묵은 무엇이며 또한 침묵의 미학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무언, 즉 말이 없는 것은 (강우영의 경우) 말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부재에서 비롯한다. 존재는 말을 품고 있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말의 씨앗이며 말의 바람이고 말의 열매다. 존재의 심부(深部)에서 말은 아직 말해지지 않는 말로써 존재하나, 그것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말은 가 달아서 흔들리거나 뒤틀리고 쓰러진다. 말은 뜨겁게 타올라서 느닷없이 소멸하는 잉겔불일지 모른다. 강우영의 작품들을 그렇게 뜨겁고 느닷없는 잉겔불의 마음으로 헤아리면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되 처연하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제 고향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푹니다.'로 끝을 맺는데, 강우영의 작품들이 또한 그렇다. 그

의 작품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오감이나 육감이 아니라 그 모든 감각의 체계를 하나의 감각(一覺)으로 몰아오는 통각각적 회통(會通)을 자주 일으킨다. 물론 그렇다고 그 회통의 한 감각이 모두에게 동일한 무엇으로 느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소름이 돋거나, 송고하거나, 공포스럽거나, 심지어 매혹에 빠지는 혼란이 동반하기도 했다. 소름과 송고와 공포와 매혹이 제 고향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라면 아마도 내 안에서 맥놀이치는 하나의 감각은 '님의 부재'가 불러온 침묵의 회오리일 것이다. 내가 느낀 서로 다른 이질적 감각의 언어들[소름, 송고, 공포, 매혹]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이마누엘 칸트는 『아름다움과 송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에서 감각이 아닌 감정의 언어로 서로 다를 것 같은 그것들을 묶어서 풀어 놓는다.¹ 그에 따르면 송고의 감정은 때때로 어떤 전율이나 우울함을 동반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갓 고요한 경탄을 동반하기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송고한 평원을 넘어서 펼쳐진 아름다움을 수반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첫 번째 종류의 것에 대해서는 공포의 송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고상한 송고,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화려한 송고라고 이름 붙이고자 한다. 깊은 고독은 송고한데, 그것은 공포의 송고에 해당한다.” 송고에 대한 칸트의 말에는 공포가 어떻게 송고와 만나는지에 대한 감각적 상상이 담겨있다. 그렇다면 소름은? 칸트는 그의 글에서 다시 이렇게 이어서 말한다. “거대하고 높은 것은 아주 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송고하다. 다만 아주 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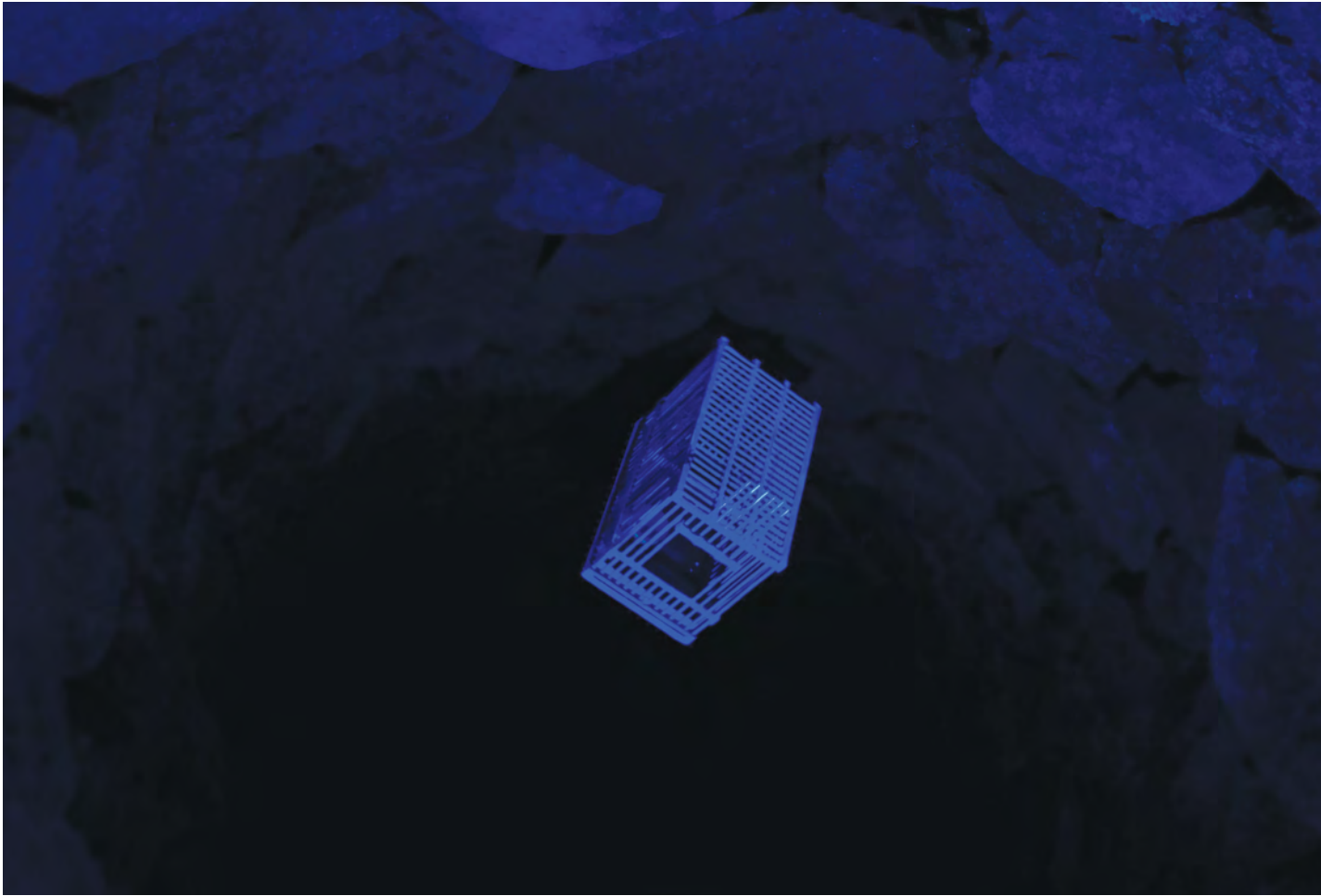
1 이마누엘 칸트 지음, 이재준 옮김, 『아름다움과 송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 책세상, 2014

것이 소름끼치는 감각을 수반한다면, 거대하고 높은 것은 경탄을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름끼치는 감각[아주 깊은 것]이 공포의 송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탄[거대하고 높은 것]은 고상한 송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우영의 작품에 '우물'을 대상으로 한 설치 작품이 있고, 나는 그 작품에서 앞서 느낀 감각의 감정들, 그러니까 송고에 관한 모든 느낌의 한 감각을 깨달았다. 2005년에 첫 우물을 만난 뒤 강우영은 수 년 뒤에 첫 우물을 다시 찾아가 작업을 이어갔고, 지난해에는 첫 우물과 다른 우물을 만나서 작업했다. 그 우물들은 모두 '님의 부재'가 불러온 말의 침묵 속에 놓여 있었다.

우물 속 푸른 빛

위의 뒷 문장에서 다시 시작해보자. '소름끼치는 감각 [아주 깊은 것]이 공포의 송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경탄[거대하고 높은 것]은 고상한 송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에서부터 다시. 강우영은 2005년에 일본에서 한 우물과 만났다. 그 작품의 제목이 'unspoken words'이었다.² 정확히 10년 전 그는 이 우물과 만남으로써 그 이후의 작품 전체에 어떤 전환기적 상황을 노정한 듯하다. 이 우물은 대지 위에서 우물 정(井)의 사각 형태로 존재했으나, 그 내부에는 둥근 몽돌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깊이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떠난 곳에서 우물은 '소름끼치는 감각'으로 존재했다. 작가는 그 내부에 말의 문자를 분필로 새기고 흰 빛 덩어리를 설치했다. 소름이 경탄의 감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칸트의 송고는 현실계의 시지각적 리얼리티를 근거로 하지만 나는 강우영의 작품에 그 개념을 대입하면서 상징개념으로서의 송고를 생각해 보았다. 눈의 바깥, 혹은 우물의 바깥 풍경이 보여주는 거대함이 아니라 눈의 안쪽, 즉 우물의 안쪽 풍경이 드러내는 깊이로 말이다. 우물이 '아주 깊은 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실제의 깊이가 아니라 소름끼치는 감각을 불러오는 '부재(不在)'와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부재와 상실, 그것은 사면리얼리즘에서 후경(後景)을 이루는 중요한 열쇳말이다. 전경(前景)이 삶의 현실로서 보이는 풍경이라면 후경(後景)은 삶과 맞닿아 있으나 삶의 이면에 존재하기에 보이지 않는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는 풍경은 육안(肉眼)의 이미지요, 보이지 않는 풍경은 심안(心眼)의 이미지다. 전경이 스물네 시간의 하루와 스물네 개의 절기, 그리고 삼백 예순 다섯 날의 한 해가 조화를 이룬 세계라면 후경은 그런 시간의 조화가 카오스모스로 뒤섞인 세계다. 예컨대 그것은 우물면의 위와 아래라고도 할 수 있다. 우물에 비친 우물 밖의 세계가 전경인 것이요, 우물 아래의 심연(深淵)이 곧 후경인 것이다. 우물의 진실은 우물 밖의 세계와 심연으로부터 표상되어 올라온 것이 우물면이라는 하나의 면에서 만나 풍경을 이룬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 밖의 세계가 거울처럼 우물에 비추인 것만을 진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³ 강우영

의 작품에서 우물들은 대체로 뚜껑이 닫혀 있어서 우물이 스스로 전경의 세계를 형성시킬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는 부재와 상실이라는 후경을 위해 전경을 창조하는 예술적 작업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에게 전후경이 만나는 것은 "번개 터지는 날의 용들의 축제이며, 막혔던 땅 우물과 하늘우물이 회통해서 거대한 신화가 쏟아지는 순간'일 수 있다. 또 "이성과 합리, 과학과 구조의 시대를 성찰하면서 신화와 직관, 자연과 카오스모스의 시대를 새로 결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왜? 그곳은 님이 부재하는 슬픈 영혼들의 우물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설치해 놓은 흰 빛과 푸른빛의 덩어리와 새장이 어떤 희망의 빛이거나 생명의 빛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상징화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그의 눈이 밖을 보면서 동시에 안을 보는 초감각적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때때로 놀라운 후경의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후경의 미학에서 만나는 말의 상징이 초현실이나 비현실의 상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주 노골한 일상의 겹질이라는 데에서 소름 돋는다.⁴



노래_대나무 새장, 블랙 라이트, 테이프, 우물 내부(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 후나사카 오카자키택 우물)_직경 100cm_깊이 500~700cm _2014
Song_Old bird cage made of bamboo, black light, tape, inside of well(well in Okazaki-Tei, Nishinomiya, Hyogo, Japan)_Diameter 100cm, Depth 500~700cm _2014

2014년 일본 후나사카비엔날레 참가작품으로, 2014년의 전시 테마는 지역성과 感浮風動이었다. 나는 후나사카가 직면한 고령화 현상, 산 중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곳곳에 쌓여있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대나무로 만든 새장, 오카자키 고택의 창고 안에 있는 수십 년 간 폐쇄되어 있던 우물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들을 우물 속 지하세계를 부유하는 빈 새나무 새장으로 이미지화했다. 관객은 작품을 바라보며 무언의 세계, 잊혀져 있었던 시간의 깊이와 마주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전시 공간 밖은 새 소리로 가득하다.

2 Unspoken words_heart shaped light made of epoxy resin, white chalk, inside of well_diameter 100cm, depth 500cm_well in Moriyoshi Studio, Gunma, Japan, 2005

3 김종길, 『뜻으로 본 한국미술 I - 달빛 아리랑, 이재삼』, 2015



Unspoken words_복합매체_가변설치_2012
Unspoken words_Mixed Media_Dimensions Variable_2012

얇고 반투명하나 매우 질긴 한랭사라는 천으로 제작한 거대 사이즈의 셔츠에 불꽃을 촬영한 영상을 프로젝션한 작품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성되나 그 안에서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개인들의 unspoken words를,
태울수도 찢을 수도 없는 거대한 외피와 효력없는 화염으로 드러냈다.

기 술 기 KI Seulki

프레임으로부터 세계를 지각하는 통로

심소미 독립 큐레이터

사진 작업을 해온 기술기에게 사진 매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손쉽게 표현하는 드로잉과 같은 동시에 완결된 프레임 구조를 요구하는 이중적 성향을 가진다. 사진가가 프레임 안에 대상을 풍경으로부터 분리하여 담아내면, 그 순간부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대상 간의 관계가 프레임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하기에 사진에서의 프레임ING(framing)은 사진 작가의 감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 기술기의 작업은 프레임ING의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감각과 경험이 세계를 지각하는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전개된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프레임하느냐'보다는 '어떠한 감각과 과정으로 프레임ING을 하느냐'에 집중된 것이다. 그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며 은유했던 한 이야기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암

흑으로 가득 찬 내부 공간에 어느 존재가 살고 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존재는 자신의 오감을 통해 외부를 간접적으로 경험한다.”(작가 인터뷰 中) 껌껌한 공간에 갇힌 이 존재가 감지하는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감각만을 통한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프레임, 사진,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과도 같다. 그에게 사각의 프레임은 공간과 대상을 구획, 구분, 구별하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프레임을 ‘손을 잡았다가 놓은 정도’와 같이 인식하여, 다른 세계로 향하는 통로와 같이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작가는 사진이 가진 구조적인 법칙과 한계로부터 소외되고 드러나지 않은 어둠 속 세계로 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시각의 한계를 너머 존재하는 감각들, 의심하지 않고 지나쳤던 감각들부터 탐색해 나간다.



지속의 순간들 9권_124×175mm(each)_2015

그 시작점에서의 작업 〈조작의 풍경 Imputed Scenery〉(2010-2011)은 작가가 런던에서 유학할 당시, 종이로 평평한 동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실제 풍경 속에 배치하여 촬영한 것이다. 그는 사진의 피사체가 가지는 형태의 차원을 현실적 차원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재배치함으로써, 현실-사진 사이의 간극에 접근해 보인다. 이 작업은 스트레이트 사진이 가지는 엄격한 질서와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관적인 감각을 탐색하고, 카메라를 통해 의심 없이 인식해오던 풍경에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된다. 이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단순한 공간에 담긴

끝없는 질문 Unfamiliar Corner〉(2012-2013)은 작가가 자신의 주변 공간을 인식하는 과정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익숙한 일상에서 발견된 모퉁이, 모서리, 후미진 공간에 대한 그의 시선은 전체의 맥락으로부터 각기 공간을 소외시켜 파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담아낸다. 파편화된 공간에 개입된 작가의 신체 또한 일부분만이 등장하여 익숙한 공간의 질서는 언캐니하게 변모된다. 후미진 공간에 개입된 그의 신체는 정제된 공간의 프레임에 균열을 일으키며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예고한다.



전시전경_아티스트파일 2015 동행_국립현대미술관(과천)



전시전경_아티스트파일 2015 동행_국립현대미술관(과천)

일상 공간의 이질성을 신체로 탐구한 과정은 기술기가 2014년 아일랜드의 한 레지던시에 머물게 되면서, 낮선 공간에서의 작업 〈포스트 테네브라 룩스 Post Tenebra Lux〉(2014~ 2015)로 확장되어 나간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도달한 낯선 땅 아일랜드에서 그가 경험한 짙은 안개는 마치 어두운 프레임 속 공간과 같다. 자신의 오감을 통해 이곳을 인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부터 작가는 자신을 보호할 얇은 장막(또 다른 프레임)을 들고 안개 속으로 들어간다. 안개가 가득한 숲 속에서 그는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이불을 둘러 쓰고는 마치 춤을 추는 듯한 다양한 동작을 취하게 된다. 이를 셀프 타이머로 촬영한 카메라는 신체적 움직임을 자연과 신체 사이의 기묘한 혼령, 유령과 같은 자취로 기록해 보인다. 시공간의 자국이 응축되어 드러난 대상의 모습은 시각이 우위인 세계의 질서로부터 배제된 존재의 다차원을 증명하는 듯하다. 기록된 동작의 자취는 시간-공간-신체-빛이 열기설기 짜인 촘촘한 다차원의 공간으로 포착되며, 프레임의 세계에 잠재된 우주적 차원을 홀연히 열어 보인다. 본 작업과 더불어 진행된 〈크리스탈레이크 Crystal Lake〉(2013~2015)는 프레임 내부의 질서와 구조적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구한 작업이다. 3x3cm의 작은 아크릴박스의 각 표면에 패턴을 부착하여 단면들을 연구한 본 작업에서 정육각형의 공간은 완결되고 폐쇄된 구조와 형식으로부터 벗어난다. 오히려 프레임 속 공간은 시각의 각도, 위치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드러난다. 작가는 여기서 프레임의 속성이 이를 인지하는 조건과 상황

에 따라 각기 다른 차원의 세계로 연결됨을 발견해 보인다. 그가 아일랜드에서 경험한 안개가 짙은 숲 속은 마치 변주된 정육각형, 그리고 이야기로 은유한 '검은 방'과 동일한 미지의 차원으로서 프레임의 세계이다.

이렇게 기술기의 작업에서 프레임으로부터 확장되어가는 감각과 시각의 차원은 근작 〈지속의 순간들 Ongoing Moment〉(2015)에서 각각의 작업을 위해 준비했던 과정을 소통하는 시도로 이어진다. 9개의 책으로 구성된 본 작업에서, 작가는 그간 사진 작업을 하기 위해 기록해 온 아이디어, 사진 작업의 스케치가 된 스냅 사진, 인용문구 등 최종적으로 드러난 작업의 배후에 쌓인 레이어를 각 작업 별로 담아낸다. 사진의 프레임 밖에서 벌어진 사유와 실험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완결되지 않았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기록한 흐릿한 작가의 필체는 그 비결정적 형태에 담겨 있는 상상력의 힘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전달한다. 이러한 과정은 가장 최근작 〈모래를 씹는 순간 The Moment of Chewing Gritty Sand〉(2015)과 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사운드 설치작 〈간극의 부산물〉(2015)에서 강렬한 영상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감각의 산물로 등장한다. 〈간극의 부산물〉에서 작가는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위태로운 공간, 상황, 색에 대해 사람들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타인의 불편한 감각으로 침투하는 길을 마련한다.

“빨강색, 짙은 회색, 하얀색인데 무채색에 가까운, 어둡고 진한 검정색, 검붉은 피 색깔 같은, 살이 칼에 베이는, 반지하 살 때 그런 색깔, 회색을 떠올리면 웬지 어둡고 칙칙한 느낌, 늪 같은 느낌, 명확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지진이 나 흔들리는 방, 간헐있는 느낌...”



전시전경_ Artist File 2015 Next Doors_National Art Center(Tokyo, Japan)



전시전경_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_인천아트플랫폼

작가의 질문에 내면의 저항을 무릅쓴 타인의 감각이 침묵을 뚫고 밖으로 드러난다. 입 밖으로 내뱉어진 답변에는 상세히 나열하기 어려운 불편한 감각이 몇 마디 짧은 단어로 응축된다. 어둠을 뚫고 나온 타인의 목소리는 어둡게 연출된 전시장(인천아트플랫폼) 속으로 은밀하게 스미며, 강렬한 시각적 환영을 눈앞에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각자의 내면에 갇힌 감각의 세계를 마치 피부 밑에서 들리는 듯 가깝게 열어젖힌다. 사진과 병행되어 온 그의 사운드, 설치 작업은 인간의 감각과 세계 사이의 통로를 오감으로 감지하는 공감각적인 상황을 연

출해낸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업의 방식은 마치 〈지속의 순간들〉에서 드러내었던 작업의 부산물, 감정의 부산물 마냥 교류될 수 없는 주관적 감정-기억-감각을 소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모래를 씹는 순간〉은 타자와 자아 사이에서 소통 불가능한 불편한 감각을 사진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본 작업에서 작가는 대상 간의 관계, 구조, 색채, 질감을 통해 무의식-의식, 자아-타자, 객관화-주관화, 주체-대상, 실제-허구 사이에 존재하는 분열, 대립, 부조화를 긴장감 있게 담아낸다. 즉물적 시선이 담긴 감각 자체에 집중



전시전경_아티스트파일 2015 동행_국립현대미술관(과천)

하는 것만으로도 촉각적, 공감각적 연상을 자극하며 내면에 감정적인 동요와 파문을 일으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기술기는 지각된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의심, 질문을 통해 대상의 프레임, 그리고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부터 은폐된 차원의 세계, 내밀한 감각의 세계로 다가가는 통로를 확장해가는 중이다. ♪

길다래 GIL Darae

2015. 11. 19. 3pm 장률, 길다래, 대화

대화 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F1, Le rayon bleu 파란광선, 화선희집

첫 만남

길다래(이하 길) : 한국에 들어오신지 몇 년 안되셨나봐요?

장률(이하 룰) : 지금 3년 반인가 되었고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인데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되요. 영화는 방화에 찍고 있는데 학교를 어느 순간에는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서로 웃음)

길 한국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초창 때문이었나요?

룰 연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한참 고민했습니다.

길 들어오셔서 <경주>를 찍으신 거예요?

룰 <풍경>을 수업 듣는 학생들을 스텝으로 데리고 찍었어요.

길 제가 처음에 <풍경>을 너무 좋게 봤어요. 처음엔 감독님이 30대 청년인줄 알았죠. 올 여름 <위로공단>이 성행하던 시기였는데, 그것은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여성 노동자를 다루고 인터뷰로 내용을 이끌어 가면서 감정이나 영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반면에 <풍경>을 딱 보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거야!”라면서 나는 장률감독님과 비평가 매칭을 하고싶다. 결정하게 되었죠.

룰 다큐 처음 찍었어요 그때. 다큐 너무 어렵던데요? 극 영화는 만드니까..

길 <중경>은 그럼 더 예전에 찍으신거죠?

룰 훨씬 옛날이죠.

길 저는 <풍경>이후 <경주>를 보고, <중경>을 봤는데 짙은 감성에 놀랐어요. 그렇다면 <필름시대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찍으셨을까. 너무 궁금해서 아침에 서울로 달려가서 봤어요.

룰 <필름시대 사랑>은 망한영화니까. (함께 웃음)

길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더욱 좋았어요. 제가 일반 관객이기도 하지만 미술을 하니까 이해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룰 인천에서 태어났으면 부모님도 다 인천에 계세요?

길 네, 인천에 계시고 아버지는 닳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인천수첩>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감독님께 드릴게요. 저는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어요. 단편 글과 시를 써서 넣었어요.

룰 시도 썼어요?

길 네.

(책에 사인을 해서 드림. 감독님은 책가방에 넣으신다)

길 <중경>은 여자의 시각이잖아요? 저는 여자기 때문에 공감했지만, 감독님 남자시잖아요. 그런 깊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인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여동생이나.. 공감대를 어떻게 잡으셨을까, 물론 남성 입장에서도 나오지만 말이예요. 룰 저의 영화 <경계>나 <망종>도 여성 관객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성의 각도로 만든 것 같다. 저도 원인을 모르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성장 과정에 집에 어머니와 누님들 뿐이 없었어요. 아버님은 한참 계시지 않았고, 어릴 때 나 혼자 남자니까 아무래도 여자의 감정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중경>은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었고, 여배우가 18세 때 중국에서 제일 큰 영화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고 락밴드 생활을 했어요. 그 여배우의 생활도 풍파가 많았어요.

공간

길 제가 만나 뵈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간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물론 영화 제목도 <이리>, <중경>, <경주>등 지역 이름이지만, 공간을 연출하는 법이나 감독이 뒤에서 조망하는 방법이 다른 감독들과 입장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들.. 감독님 개인의 경험이나 시선이 저희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들이잖아요. 진실성을 느꼈어요.

룰 가끔 사람들이 <필름시대 사랑> 영화를 보고 미술 쪽에 더 가깝지 않은가 얘기를 하곤해요. 미술과 전혀 관계 없는데..(서로 웃음)

길 감독님 영화가 상업영화인가요? 제가 느낄 때는 <중경>에서도 인형이 놓인다던가 하는 요소, 걷는 장면 등에서는 독특한 다큐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술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이 여자아이가 사진관에 와서 “저 아파요.”하는 장면이었는데, <풍경>이 그것을 슬프게 그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담담한 장면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같은 정서..

룰 사실 한국 문학은 모르고 시인이려면 중국 태생인 ‘윤동주’를 알아요. 한글을 아직 잘 못읽지만 천천히 읽는 장점이 있어요. 깊이와 달아요.

길 제가 쓴 시의 주제가 ‘걷는 시’거든요. 오늘 웬지 감독님 걸어오실 것 같았어요. (하하) <필름시대 사랑>에서 ‘필름’ 부분은 혹시 혼자 찍으신 건가요?

룰 2장. 스텝 몇 명과 다시 찍었어요. 그런데 스텝들이 내가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니까. 배우들도 없이 ‘빈 공간’을 자꾸 찍으니까 눈빛이 이상해져요. 이 감독이 정신이 나갔는가. 이것이 영화가 되겠는가. (하하)

길 저는 미술을 해서 그런건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향후 감독님이 무엇을 찍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의자가 혼자 도는 장면’이긴 했지만요..(하하) 이렇게 작가의 의지를 다 드러내시면 영화계(국내)에서는 혼란을 느낄텐데 분명. 낭독도 하시고 책이 병원 싱크대에서 불타오르기도 하구요. 저도 작업에 낭독을 넣거든요. (11월15일 있었던 Three little gesture 사운드 퍼포먼스 영상을 보여주며) ‘가라나타 고진’의 <윤리 21>, ‘보들레르’의 내용이 들어간 <눈에 비치는 세계> 그리고 ‘롤랑 바르트’의 죽음 전에 쓴 강의 중 ‘글쓰기의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읽었어요. 특히 ‘바르트’는 이론가, 철학자, 비평가로서 살다가 죽기 2년 전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창작자로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대요. 작가가 되려는 욕구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메모하기의 실현 등에 대한 기록을 하다가 세탁물을 실은 트럭에 치어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 죽음에 큰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삶’과 ‘창작자’, ‘죽음’에 대한. 그래서 낭독하게 되었죠. 인간이 가진 욕망과 그 표현에 집중해서 ‘작은 제스처’로 기획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마치 감독님이 <필름시대 사랑>에서 시도하신 공간, 기법, 화상적인,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언어를 감독님 나름의 시각으로 풀어내신 것처럼. 제 생각에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예술 작품이 전시장에 놓이는지, 2층 관람객이 1층에 놓인 작가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정적인 움직임들이 소리를 내고 책의 한 페이지처럼 보여지고 읽혀내려갈 수 있게끔. 그리고 관객이 상상해서 또 다른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작업을 하자’하는 의의가 있었어요. 이 발표가 일요일(15일)이었고 <필름시대 사랑>을 그 전 주(8일)에 보았어요. 감독님 영화의 소통법과 교차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미술의 실험적인 부분과도 닮았다고 느꼈구요.

룰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다녀 왔는데, 아시아영화 연구하는, 내 친구 킹스 칼리지 교수 Chris Berry와 ‘아핏차퐁’의 제작자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필름시대 사랑>은 실험영화가 아니다. 통상적 영화도 아니다. 그냥 다른 영화다.

길 실험영화와는 다르죠. 그래서 영화관에서 틀어질 수밖에 없죠. 아

니면 감독님 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국내에서)

룰 크게 보면 푸는 방식이 또 달라요. 어떤 감정 어떤 스토리를 그려도 쫓아가요. 실험영화는 아니잖아요. 더 깨버리죠. 나는 깨더라도 그 스토리와 감정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길 ‘씨네21’에 나온 감독님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필름통이 사라지는 역동적이고 큰 일이 벌어 지나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걷다가 속 집어가는 모습이 더, 충격이었어요. 저에겐..(서로 웃음)

룰 한국에서 상업영화 하는 분들은 실험영화라 생각 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길 그런데 중간에 화면비율이 달라지면서 공간에 대한 실험(?) 시도(?)가 나올때는 그렇게 느낄수 있지 않을까요?

룰 그거는 16mm 비율이 원래 그래요.

길 그런데 제가 <중경>을 보고 새로운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쓰시는 요소들이 그 지난 시간의 극영화에서도 나와있기 때문에.. 마지막 허공에서 연주되는 기타소리로 좋았어요. 왜이렇게 ‘소리’를 극대화 시키신 건가요? 저는 거의 모든 소리를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소리

룰 현장에서 감독 외에는 촬영팀이 최고예요. 제일 힘이 약한 것은 녹음 팀이에요. 빛이 없어진다면 조금 소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야 해요. 하지만 내 현장에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해가 떨어져서 촬영을 내일 하더라도 소리를 절대 우선해요. 실제 소리가 우리 감정에 시각보다 훨씬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길 거의 모든 감독들이 조율해서 평균치를 맞추거든요. 그런데 감독님 영화의 첫 장면의 소음의 시작부터 소리에 집중해 계신 것을 보고 도대체 감독님에게 소리가 뭐길래.. 궁금했어요.

룰 <필름시대 사랑>의 여배우 ‘문소리’를 그렇게 캐스팅 한거예요. 나는 항상 ‘소리’편이다. 그러니 그 친구 거절 못하던데요? (함께 웃음)

길 너무 진지하게 들었잖아요. 감독님. (웃음)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안성기’에 대해 묘사한 부분에 공감되었어요. ‘안성기’는 늘 그 시대의 사람같다. 늙지도 젊지도 않다.

룰 현장에서 정신병 환자를 하라 하니까 좋아하던데요? (함께 웃음)

길 3일간 촬영하신 거예요?

룰 ‘노인영화제’에서 연락이 와서 1장과 4장에 배우들과 3일 촬영하고, 그 이후 어딘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 잠을 이루지 못했고, 2장과 4장을 이틀 간 배우없이 공간을 촬영 했어요.

길 거울을 비출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를 어떤 공간에 거울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언가 또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문소리’와 ‘안성기’가 싸우는 장면은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거울 안과 거울 밖에 미묘한 것이 있어요. ‘박해일’이 복도를 가면 거울이 있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눈길이 갈 수 밖에 없어요. ‘박해일’이 걷다가 거울을 한 번 보지 않겠는가 그런생각.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간만 있어요. 그런 생각들..

다시 공간

길 (드로잉 작업을 펼치며) 이것들은 원래 하나의 장면이에요. 2009년 개인전을 끝내고 인천 항구를 봤는데, 그 한 장면을 9개로 분류해서 드로잉 했어요. 마치 감독님께서 공간을 촬영과 소리 등으로 분류해 내서 편집하듯이 ‘분류’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제 작업에서는 중요해요.

를 그렇다면 영화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길 감독님 영화 <경주>에서 보면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그 곳도 비어있어요. 보통 장례식장처럼 시끌벅적 하지않고 텅 빈곳에서 대화하고 공간을 속 비추는데, 장례가 없는 곳은 비어있잖아요.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고요함이랄까. 더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제 작업에서 구성된 것들을 재구성하고, 똑같은 공간안에 재정렬해서 다시 펼쳐 졌을 때 생경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서 느끼느냐하면 ‘길거리’에서 느껴요. 낮에 시장이나 차이나타운을 걸을 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있고 보여지는데 밤에는 모든 것이 가려지고 들어가있고 닫혀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저에게는 늘 생경해요. 어떻게 매일같이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특히 밤에 걷는 것을 좋아해요. 제 작업의 오브제들이 엉성하거나, 포장된 그대로 놓이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가진 다양한 시스템이라고도 느끼고요. 감독님만의 시선과 공간을 구축하신 부분이 재미있고, 소리가 순수하게 다가오는 것은 뿌리깊은 진실성을 느끼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품을 위한 작품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른, 본연의 고민과 진지한 삶에 대한 생각들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침성대와 돌하루방 작업을 보여드리며) 이것들은 제 전시 <쉬운정원>의 일부분이에요. ‘침성대’를 어릴때부터 좋아했는데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만들었지만 아니잖아요. 비과학적이고 하지만 아름답고 귀엽고 연인은 그 아래서 데이트도 하고요. ‘하루방’도 마찬가지래요. 왜 만들었는지 그 기원은 알 수가 없지만 만들어지고 구입하고 즐기고, 제주도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를 넣고 그것을 사람이 즐기고 또 그것이 역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친숙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 인간의 친밀성, 정서의 교류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제 작업은 완성적이지 않아요. 비정형적이고 덜 마무리된 상태, 마치 저 사운드 퍼포

먼스(Three little gesture)처럼 무대연출이 많지 않거든요. 과정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예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는지, 이루어 지는지, 이루어져 갈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필름시대 사랑>이 저에게는 열려져 있는 소스였고, 소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은 영화관 틀 안에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실험이라면 실험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신감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그리고 다음 작품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는 사실 정의내려져있지 않은 것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중경>은 틀을 주고 있어요. 저 여자, 삶. 그런데 <필름시대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열려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있었던 것과 없는 그 자리를 작업으로서 던져 주신다면, 저는 살면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윤동주>의 <새벽이 올 때 까지>))로 표현하신 죽음의 내용도 빈 병원의 공간에서 부유하는 카메라로 표현하신 것처럼 제 작업을 하는 방향도 그 쪽인 것 같아요. 열려있고 큰 정의를 내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생각하게끔 하는 지점이에요.

를 요즘 관객들은 생각하게 하면 싫어해요.

길 직접적이고 쉬운 것을 좋아하죠.

를 때로는 바보로 취급해달라 그럴 때도 있어요.

신포동을 걸으며

를 처음에 제의가 왔을 때 조교가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데요. 다른 분야에서 연락이 많이와요. 그런데 이번엔 웬지 오고 싶었어요.

길 <경주>보고 알았어요. 정처없이 다니시면서 느끼는 것을 표현하시는거..

를 <경주>에 찾집, 춘화 다 진실이에요. ‘신민아’집 간 것만 빼고. (하하)

길 <경주>에서 ‘달있는 작은 판화그림’ 한국화가예요?

를 중국에 30년대 유명한 화가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림. 사람이 없어진 다음에 그 흔적들, 그런 정서? 그 안에 식구가 있어요. ‘사람이 흩어진 후에 초승달이 뜨고 하늘은 물처럼 맑다’.

길 그러면 사람이 없는 풍경을 원래 좋아하신 거네요?

를 그런데 그것은 내 성장과정과도 비교가 되요. 내성적이었고 말을 거의 못했어요. 심하게 더듬거리고 혼자 빈 공간에 앉아있고, 그 것이 머물러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이 달라졌지만.. 어딜 가면 빈 공간에 내 위치를 알아요. 저기라면 내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길 그러면 <11세>(첫 영화)를 본인의 이야기로 찍으신 건가요?

를 그런 정서가 조금 있죠.

길 축구를 못하는데 번두리에서 서성이는..

를 나는 그 반대로 ‘말’. 소통을 못하는 것.

길 그래서 더 소리에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를 빈 공간에 있으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소리를 찾아가게 되고, 소리와 소리의 리듬을 또 찾아요. 그것이 어릴 때 정서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길 이 거리는 처음이세요? (인천 중구 신포동, 파란광선으로 가는 길)

를 네, 차이나타운 가봤는데 만들어 놓은 듯 인공적이에요. 중국의 색이 있다면 그 색은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 군데 전부 모아놓은 그러니 약간 이상한거죠. 이것이 뭐가?

길 저도 어릴 때 아빠공장 한 칸에 살면서 말도 없이 혼자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프랑스를 갔는데 말을 빨리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말이 많아졌고, 한국에 왔는데 습관적으로 길게 설명을 하고있어요.

길 중국에선 어떤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를 20대 후반부터 10년을 백수 생활을 했어요.

길 감독 안하시구요? 그럼 뭐하셨어요?

를 밥하고 얘기 키우고 했어요.

길 그렇게 10년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있으셨어요?

를 그저 쉬고싶다?

길 10년을요?

를 사람이 살다보면 일주일 한달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길 사모님이 이해해주셨나봐요.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를 하지 않았어요. 집안일을 다 해주니까. 중국은 이혼률이 훨씬 높아요.

길 당당하시네요.

를 그리고 나서 영화 찍으니까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길 저는 이곳(인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아주 오래된 것도 남아있고 없어지고 새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흔적들.

를 저기가 송도인가요? <풍경>에 잠시 나와요. 염색공장 노동자들. (자유공원 언덕을 지나며)

길 꿈에 대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영화에서)

를 사람의 꿈은 어떻게 보면 현실과 다른데 현실에 바탕이 있어요. 어떤 꿈이라도. 생활이 불안하면 불안한 꿈.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기억나는 꿈이 무엇인가 물었죠.

길 그 분들의 집에서도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를 그렇게 꿈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요. 월급이 얼마나 생활이 어떠냐 하고 압박하면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할거예요.

길 저는 그것을 보고 감독님 캐릭터가 느껴졌어요. 재치있고 귀여운 사람의 모습을 담으시잖아요.

를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 좋네요? (인천 거리가)

길 제목은 지역이름이 많잖아요. 거의 두자이고. (영화의 제목)

를 정하고 보면 이상하게 전체 공간과도 맞아요. 처음에 찍을 때 그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런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인천에서도 영

화를 찍어야겠네요.

길 여기 거리가 예쁘니까 부분적으로 찍기만 하고 전체를 조망해서 작업하신 분들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하시면 좋겠어요. 지역하면 낙후되고 번두리 감성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Le rayon bleu : 파란광선에서

를 그러면 여기는 다래씨 혼자 경영을 해요?

길 네, 다른 친구들 전년도 하고 제 작업도 하고 있어요.

를 공간을 따로 분류했다가 재정렬하고 배치하는 작업이 재미있었어요.

길 제 나뭇의 작업을 분류하고 공간에 재정렬하는 법칙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시장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정하기도 하구요. 제 나뭇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가는거죠. 4월에 전시를 할 때 전시장 화색 바닥에 식구를 적었어요. (하얀수성펜으로) 관람하는 동안 관객의 걸음에 의해 지워지게끔 했어요. 김광섭, 백석, 릴케, 심보선 등 제가 그동안 쓴 시도 적었어요. ‘쓰여지고 지워지는’ 행위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반복적인 구조요. 사실은 도시에서 살면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도시의 움직임을 느껴요. ‘대화’에 관심이 있어요. 만남도. 테이블은 원래 비워져 있는 것인데 물건들이 놓이면서 저희 사이의 ‘관계’가 조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흩어지는 현상들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작업을 하게 되는 모티브예요. 그래서 그림들을 그렸고(la table, les dialogue를 가라키며). 어떤 조각들 그런 조각들의 모임이 다시 흩어질 것들의 조각이며, 구성이며, 비워질 것이죠. 마치 대화의 잔상처럼..

를 어떤 공간이던지 실제 공간 전체를 담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뿐이 없어요. 인간의 시선 이라면 한 부분 한 부분. 하지만 전체 공간은 분명히 있잖아요. 한 부분을 만들어서 내 정서와 이 공간에 맞게 ‘리듬’을 만들어 주면 전체 공간에 그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는가.

리듬, 시

길 그 ‘리듬’이 어떤 건가요?

를 조율들.. 어떻게 배치해야 내 몸과 편하는가. 리듬이 있어야 편하고 리듬이 맞지 않으면 편하지 않아요. 큰 공간을 찾아가도 한 부분 한 부분을 ‘어떤 배치’로 이어가야 거기에 접근하지 않겠는가. 아까 그림과 같은 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림뿐 아니라 영화도 그렇죠.

길 저는 리듬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Rythme of blueblack’이라는

책을 만든적이 있어요. (책을 드리며) ‘시’를 보면 그 안에서 리듬을 느껴요. 낭독에도 리듬이 있고, 단어 단어마다 운율이 있고, 특히 시가 페이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저에게는 실제 공간에 놓여있는 것과 같아요. 빈 공간에 사물들이 놓이는 것도 단어, 텍스트가 가진 속성과 유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 책을 만들 때는 오선지를 그렸어요. 오선지에 음표는 없고 드로잉과 단어들이 정렬이 되면서 ‘리듬이 안에 있다’ 느끼게끔. 얼마전에 낭독 퍼포먼스를 했어요. ‘리듬 of 낭독’. 템포에 따른 의미가 하나로는 정의내릴 수 없는 애매모호한 박자들을 찾아서, 그 박자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스스로 발췌해 읽는.. 선택된 박자에 따라 ‘메트로놈’영상을 제작하고 작가들이 어떤 영역위에 서서 텍스트를 읽었어요. 책 속의 단어들과 공간에 놓인 구성품들이 내는 소리 그 리듬. 시선에도 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선에는 자극과 반응이 있기 때문에 소리와 리듬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의 완결판이 ‘Three little gesture’였던 것 같아요. 소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소리로 표현해보자. 작가들을 전시장 안에 넣고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시도해 보자는 의미였던 거죠. 길 표현법이 예술의 영역에 있잖아요 영화도. 언어만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를 마지막에 가서는 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는 ‘시’인 것 같아요. ‘시’는 문자도 있고 소리도 있고 공간이 무조건 다 있어요.

길 감독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반응하고 자주 표현하려고 하는지.. 공간이 뭔지, 내가 왜 말도 안돼는 부식진 것들을 만들고 예술 작품이라고 우기는지에 대한 공감대도 떨어졌고, 저 스스로도 설명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고집이되면 안돼는 거잖아요. 소통이 되어야하는 부분인데, 이곳이 카페가 되기 이전에 폐쇄적인 작업실이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질문이 많았어요. 작가가 뭐고 관객은 뭐고 갤러리의 역할은 무언가, ‘예술의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었고 20대에.. 30살이 되었을 때 이곳을 개조하면서 그 안에서 요동치는 고통이 사실은 이루말할 수 없었고, 그 상태에서 이런 작업들을 찾기 시작 했었던 거죠.

길 (2012년, 기획전 영상을 보여드리며) 이것이 첫 번째 기획이었어요. ‘김은’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듣기 쓰기 말하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이예요. 세레나데(Serenade)를 주제로 음력 칠월칠석에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빗속에 동네를 걸어다니며 확성기를 대고 읽었어요. 이게 텍스트가 너무 좋아서..

길 (Les dialogues 영상을 보여드리며) 이것 6mm카메라로 찍은거예요. 확실히 좀 떨어져요. 제가 프랑스에서 지방을 왔다갔다 하며 TGV(기차)안에서 쓴 글들이예요. 역, 대합실에서 느끼는 것들, 사람들이 오가고 그 곳에 앉아 ‘공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는 워낙 이동이 많기 때문에 기차가 오고 떠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떠나고.. 조르주페렉(Georges Perec) 이라고 아세

요? ‘사물들’ 쓴사람.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줄 알지만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행복은 역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말했데요. 공감아 좀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거의 다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것들.. 2007년 작업이에요. 글자가 지워지죠.

카프카의 공간, 꿈

를 카프카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기획할 때 어떻게 기획했어요? 길 ‘Serenade’라는 주제를 던져주었더니 작가가 책을 가져왔어요. 를 ‘카프카’라는 작가, 실제 그 사람의 범위는 더 커요.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서 출발했어요. 아버지는 강대하고 자신은 적고. 아버지는 어떤 공간에서도 꽉 채워지고 아버지는 전체 공간을 대표하는 사람. 하지만 카프카는 부분적 공간만을 가진 자, 그래서 어쩌면 예술가는 위에서 한 부분 한 부분의 리듬을 찾아서 전체 공간을 접근하자는 것도 있지만 전체공간의 공포감을 덜 하게 하는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길 그것도 공간으로 보시는 건가요?

를 그렇죠.

길 ‘성’이라는 것도 썼지요?

를 그렇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도 공간의 관계. 톱 털어놓고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예술가라고 보는 것이고.

길 혹시 그 단편 보셨어요? 어떤 여자를 따라 성당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와의 관계를 씨름하는.. 저는 그것을 보고 〈필름시대 사랑〉하고도 겹치게 느꼈어요. 영화든 이미지 언어든 책 안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 내성적이어서 혼자 책을 보는데 그 곳에서 이미지 영상 공간을 그려냈던 것이거든요. 얼마전에 ‘카프카’ 책을 자기전에 보려고 꺼냈는데 그 둘이 대담하는 것이 있었어요. 장면의 힘아잖아요. 열도당토 않는 상황과 관계를 얹혀내는 성당에서 뒷골목으로 이동하며 순간적 감정과 상황에 따른 관계의 완력, 공간의 분위기를 엮어가는 것에 압도를 당한거예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덮고 자버렸어요. 잊혀지지 않았어요. 글을 구성하는 방법 그것을 쓰기위한 쓰시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를 ‘카프카’는 소설가지만 예술가 쪽이다. 예를 들면 〈필름시대 사랑〉에서 남미의 작가 ‘보르헤스’도 예술가 쪽이에요. 어떤 소설가는 소설가예요. 정말 소설가.

길 저는 사실 소설만 쓰는 분에게 큰 영감을 얻지는 못해요. 하지만 〈생의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의 소설을 읽었을 때, ‘언니’가 보는 시점으로 글이 이동하다가 ‘편지’라는 매체를 통해 또 다른 일인칭 시점(동생 니나)이 되면서 입장이 변화잖아요? 과거 회상적이며 또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시점(화자와 공간)이 변화하는 것에

제가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소설이라는 장르보다는 그것을 이루는 구조 자체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던 거죠.

길 ‘카프카’의 〈돌연한 출발〉이라는 단편은 또 ‘시’(동시에 답하며)예요.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감독님이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을 때 〈풍경〉인터뷰에서 그것을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를 그렇죠.

길 형용할 수 없고 현실적 질문은 아니지만 또 다른 마음적으로 지배적인 공간에 대한 질문.

를 그것을 찾아 내야. 실제 타인과 타인이 소통할 지점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건 다 오독이에요. 잘사느냐 동정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소통점은 그곳 뿐이 없어요. 〈풍경〉찍을 때 정말 저 사람과 소통하자. 그곳에 서로 강자없고 약자없고.

길 그러면 ‘다큐’를 찍으셨을 때는 소통에 대한 것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 시절?

를 95년도에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국 거리에서 외국사람은 관광객이예요. 그런데 그 뒤에 노동자가 보였어요. ‘한국의 새로운 풍경’처럼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보고 오고. 그런데 실제 한국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사는데 같은 풍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같겠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꿈 속의 풍경은 어떻게 그런 생각들 하며 찍었어요. 소통을 하겠다고 같은 풍경을 찍었지만 그 안에 그래도 약자 있고 강자있고 동정이 있고 뭔가 있어요. 꿈 속의 풍경은 누가 강자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텍스트가 빈 공간영상을 보며

길 ‘부유’라는 것이 감독님 카메라에서 느껴지거든요.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꿈)이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의 상황과 가장 밀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시’라고 생각 했어요. ‘시’가 가진 단어를 알 수 없잖아요. 정의내릴 수 없지만 우리는 뭔가를 느끼고 있고, 그 시에 대해 알고싶어 하고, 하지만 단어의 연결성은 없고, 하지만 결국 하나의 문맥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를 학교에서 연출 강의 할 때도 좋아하는 ‘시’를 가져오라. 그 안에 공간 리듬 이야기하고..

길 어떤 공간이요?

를 ‘시’마다 다 달라요.

길 이해를 할까요?

를 좋아하는 ‘시’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시를 읽지 않은지 얼마나 되었는데가? 많은 아이들이 시를 읽지 않아요. 시를 다시 읽고 써라. 영화보다 더 중요하다. 일단 시를 보고 시를 낭독하면 감정이 작동이되요. 영상보고 어떨 땐 작동되지 않아요.

길 처음 낭독할 땐 힘들었어요.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내 안에 갇속

히 와닿는 느낌.. 내 안에서 깨닫는 것.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가 되서 내 안에 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를 그럼 들어오잖아요? 내 안의 공간도 구성 할 수 있잖아요.

길 처음 떨었던 이유는 외부적 시선을 생각해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안떠는 이유는 자기집중도가 생기고..고요하고..저만의 리듬을 찾게되는 경험을 했어요.

미술과 영화 사이에서

길 (Dies 주사위 영상을 보며) 이것은 죽음과 우연성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만들었어요. 주사위의 숫자를 없애고 계속해서 던져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으로 가요. 열리거나 닫히지거나.

를 재미있는데요?

길 (Doors 영상을 보며) 이 때 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를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미술 쪽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요. (서로 웃음) 〈필름시대 사랑〉생각나요? ‘윤동주’ 시집 비추다가 카메라가 나와서 욕실에 들어가서 과썹(보관함)이랄까요? 문이 열려 있는데 카메라가 이쪽으로 가면 뒤에서 소리가 ‘따다닥’나고 다시 보니 닫혀졌고..

길 작업이잖아요. (웃음)

를 스태프들이 그래요. “왜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내 이런소리가 들렸다.”

길 수술실인가? 깨진 거울과 낙엽같은것.. 그것 보면서 “아 설치미술을 하셨구나.” 공간을 보는 것이 분명 있고, 대체로 비어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해요.

를 실제로 설치미술을 거의 보지 않아요.

길 그런데 안에 계신거죠. 아까 질문을 해보니까 모르시더라구요. 그걸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중과 느낌으로..

를 그 수술대에 멀치랑 배추 있잖아요?

길 아~네. 그거뭐예요?

를 그건 다른거 아니고, 내 맥주 먹을 때 늘 배추랑 멀치가 먹고 싶어요. (서로 웃음)

길 이렇게 하시면(작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거는 우리들이나 이해하지요. (하하)

를 수술대에 올라가도 그 생각 하지 않을까. 자기 좋아하는 것. 평소 에 좋아하는 것..

길 (불규칙한 네모 영상을 보며) 이것이 이런 영상의 처음이었어요.

를 그런데 미술하는 사람들 혼자 작업 하잖아요. 영화는 팀이에요.

길 맞아요. 감독님이 이번 영화에 작가주요적인 부분을 넣으셨는데, 제가 협업을 4명이서 하다가 병들어 죽을 뻔 했어요. 마음 헤아려줘야지, 내 기획이지만 그 사람 색깔 흐트러뜨릴 수 없지, 하지만 약간의 요구조건과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하는데 조심스럽지..

를 배우들은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 직업도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길 감독님이 인터뷰에 각각의 역할을 세심히 바라본다는 부분을 읽고 그것이 가능 할까? 싶은 거예요. 다 받아줄 수 없는거고 내가 내 주장만 할 수 없는것이고.. 영화에서는 더욱 질을텐데..

를 저는 반성은 해요. 현장에서는 내 식대로 가요. 아니면 또 진행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정서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살면서 잊지 않는가가 중요해요.

길 하지만 심리는 느껴지잖아요?

를 보통 상업영화를 ‘파편’처럼 찍지 않아요. <중경>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상하게 스텝들이 처음에는 당황해하고 싫어하고 하는데 찍다보면 ‘리듬’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이 편하면 다 좋은거예요. 그런데 정말 몸이 편하지 않으면 그 영화가 문제있어요.

길 촬영을 하면서도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다들 가져가기 때문에 다음에 또 모이는 거겠죠?

를 그럼요.

길 감독님을 만쵸?

를 그렇죠. 나를 믿는데, 나를 믿다가 말할 수도 있는데...(하하) 그런 생각도 해요.

길 (어떤 소녀 영상을 보며) 저 소녀가 타고있는 바퀴가 ‘핸리루소’의 그림아시죠? 그 곳에 있는 바퀴예요. 그것을 타고 고민하는 모습..

를 미술하는 사람들은 저걸 보면(루소 인지) 알아요?

길 아니요. 저만알아요. (하하) 영화의 한 부분(엽서나 티켓의)을 떼어서 영상이나 그림에 넣었어요. ‘콜라주’라고 하잖아요.

길 저는 4:3과 16:9비율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필름시대 사랑>에서도 필름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남아있고, 기호나 기법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지난 것이고 태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저도 지배적인 것이 스마트폰 이후부터 6mm카메라를 건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단순하고 가볍게 찍어남길 수 있으니까. 그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편집(툴) 시작에도 문고있고, 심지어 6mm카메라도 비율조정 기능이 있었거든요. 얼마전 어느 작가가 너는 왜 이렇게 유치하고 촌스럽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길래. 충격을 먹었고, 24시간을 다뤘어요. 나는 4:3 비율이 그 작업에 맞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다. 그 친구는 제가 현 시대의 보편성을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땡 뚫리지 않았겠어요? 제가 할 말이 생겼죠.

길 (9개의 각기다른 영상과 소리를 모아 편집해 만든 영상을 보여드리며 : 분수, 놀이터, 악기연습, 길거리 소리 등) 아이들 소리를 좋아하는데, 2009년에 만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혼자 걸어나며 찍은 거예요. 그 <The fountain>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내

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자켓을 확 걸치고 연구실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걸어가는데 뉴욕의 아주 시끄러운 거리소리, 용접소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도로 위의 공사장을 걷는 남자의 소리만 아주 커다랗게 들리는데.. 그 슬픔과 절망이 발걸음 소리 하나로 압도가 되더라구요. <필름시대 사랑>에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희노애락을 느꼈달까. 저는 더 단순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를 기분이 좋은데요. 영화를 보던 무엇을 보던, 기분이 좋던지 몸이 편하던지 그것이 유일한 표준이에요.

길 (4:3 비율이 논의되었던 Shape 영상을 보며)

를 재미있는데요?

길 (Tempo x 11 영상을 보며) 죽음, 무게가 있는 Grave에 대한 설명이에요. Andantin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의 뜻이다. 전에는 조금 빠르게 또는 느리게로 사용되었고 베토벤도 이에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두 개의 상반된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Moderato 적당한 온건한 모데라토 칸타빌레 마그리트 뒤라스. 이 소설은 ‘보통 빠르기라고 알아들었어?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보통 빠르기로 라고’하는 내용만 나와요. 언어적인 실험을 한 것 같아요. 대화의 구조를 통해서. Animato는 영혼 정신을 뜻하고 프랑스어로는 아니메 라고 한다. 생명력이 있다는 뜻도 되요. Assai 아쌔 매우 충분히, 하나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형용사의 단어인데 한 박자를 지칭해요. 리듬을 생각할 때 삶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비슷한 지점이 많다. 박자들의 뜻처럼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편집을 하는데 (옛 테엽방식 메트로놈) 잘 안맞아요. 수동이라서.. 참 삶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박자 Presto는 매우 빠르게, ‘184박 전 후’라니 역시 정확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추가 가운데 멈춰서 끝나요.

를 미술 작품은 이런데 영화라면 끝나지 않았어요. 영화라면 정서와 스토리를 이어가야 하는데, 사람은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가 있어야 해요. 이것은 순수 미술 작품이고, 영화라면 이것이 끝나고 10~20초 후에 소리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또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요. 미술과 영화는 실제 또 달라요.

길 영화가 더 서사적 구조를 갖는다는 말씀이시죠?

를 그렇죠. 미술은 서사를 깨지만.

길 배제하죠. (일정부분)

를 영화는 서사를 깨더라도 이어서 다른 서사의 구조를 만들어요.

길 저는 욕심이 많은 걸까요? 배제해서 만드는 데도 그 안에서 어떤 것을 느끼길 바래요. 때로는 그것이 관객에게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텐데, 그 부분의 고민이 있어요.

를 실제 <필름시대 사랑>의 2장은 파편 같은데, 그 안에 연결성들이 다 있어요. 이미지와 이미지, 소리와 이미지가 연결되요. 정말 실험적이라면 그것은 실험 영화고.

길 그런데 왜 의자는 돌리신 거예요? (<필름시대 사랑> 내의 장면)

제일 궁금했어요. (하하)

를 그런 의자에 앉으면 의자를 돌리게되요. 그런 생활경험이 있어요. 혼자서 돌다가 일어나서 확 가버려요. 그러면 의자가 혼자서 돌게되요. 관객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을 못했지만 말예요. (웃음) 배추와 멀치는 솔직하게 얘기 했는데..

길 (그런 장면이) 무섭기도 해요.

를 (Easy garden 전시장면을 보며) 이것이 아까 본 회 사라(작업)잖아요. 예를 들어 영화를 찍는다 하면, 전시장에 가잖아요? 씽크대는 원래 있었나요? (원래 놓여있었음) 그렇다면 더 좋고, 나는 물이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장면을 보면 소리가 들려요.

길 이것은 ‘성별 박스’예요. 왜 아까 ‘백현진’씨 안에 여자(간호사 역할의 여성스러움)가 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저 둘(남자의 성기 오브제와 여자의 가슴부위 드로잉)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아침에 나간다는 생각의 ‘내 안의 성별박스’예요.

를 재미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종’이에요? 그렇다면 종 소리가 들려요. 현장(전시장)에서 소리까지 나면 이것은 영화다.

길 그렇다면 정말 이미지 보다 소리에 크게 반응하시네요.

를 저는 확실히 그래요. 저에게는 소리가 먼저 들려요.

길 그럼 긴 시간 작업 하시면서 소리가 극대화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를 아니에요. 다른 영화들도 그래요.

길 저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를 극장에 가면 느껴요. 예를 들면 <두만강>이라는 영화 처음 눈을 밝는데 눈 소리가 너무 셋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그러냐. ‘두만강’이라는 그 고요한 곳, 방금 내린 눈과 내린지 함참 후의 눈을 밝는 소리가 또 달라요. 그리고 그 공간에 다른소리 없으니까. 서울에서 눈을 디디면 그 소리만 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과장하지 않고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예요.

길 <두만강> 여주인공은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를 중국의 미술대학 1학년 학생이었어요.

길 일반인을 섭외 하실 때 느낌이 딱 오시나요?

를 고향 방송국의 피디가 소개해 줬어요. 느낌이 좋다고. 그림 그리면 내성적일 수 있잖아요? 한 번 해보자 했고, 또 대사가 없는 병어리 역이었어요. 러시아 영화제에서 최우수 연기상도 탔어요. 심사위원이 폴란드의 국민배우 80넘은 할아버지인데, 쟁쟁한 유럽의 여배우들을 제치고 상을 줬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연기상을 준 이유를 아는가? 예뻐서 줬다는 말은 농담이고, 유명한 여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것은 예측이 된다. 그런데 너만 모르겠다. 너무 신비로웠다. 표준에 벗어난 것이죠.

길 그렇게 무명 배우를 쓰시다가 국내 배우들과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를 장단점이 있어요. 배우가 아니면 그 사람 성격에 맞게 맞춰주고, 영화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래야 좋은 것이 나와요. 기쁜 대사지

만 기쁘다고 설명해 주지 않아요. 배우는 달라요. 얘기를 해주고 서로 만들어 가야해요. <두만강>의 주인공은 실제로 11살짜리 남자 아이예요. 너무 추워서 재미도 없고 절반 정도를 찍다가 그만하겠다고 했었어요. 배우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해야해요. 또 <경주>같은 감성은 배우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길 그 (남자)아이는 어떻게 섭외 하셨어요?

를 그 지방에서 팀을 나워서 남자아이들 공을 차게 했어요. 그럼 그 안에 성격이 다 나와요. <망종>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는 여배우를 고향에서 찾았는데, 촬영중 일주일일 일을 보려 다녀와야 한다고 했어요. 스태프 전원과 기다렸죠.

길 ‘노인영화제’ 엽서를 봤어요. ‘산악영화제’도 있었고, 기획이 좋다고 느꼈어요. 저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나는 늙어서 어떤 말투를 써야하고, 사람들은 늙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노인영화제’에 초청되었다고 했을 때 연결성을 느꼈어요. 삶과도요.

를 단편인데, 2천만원을 지원받고 3일을 찍었어요.

길 적은 것 아닌가요?

를 그리고 2틀을 더 찍었어요. 다른 투자자와 함께 후반 작업을 할 수 있었죠.

길 10년이라는 백수의 생활, 아무 타이틀 없이, 명칭과 직분없이 사신 시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를 지금도 그 때 생각이 나요. 매일 시간이 흐르는 것이 보여요. 무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 때는 나와 시간이 같이 있다. 지금은 시간이 떠났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것은 영화를 만들면 ‘시, 공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길 저는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에 처음 신식학교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시계가 있느냐고 물어요. 아니오 없는데요. 그것참 안됐구나. 하면서 태양의 위치에 따른 시간의 설명, 빛이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슬펐어요.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불을 끄고 고요히 있는 그 상태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를 10년의 시간동안 아침 햇빛이 어떻게 변하고 냄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바쁘면 보이지 않잖아요.

길 감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내가 쓴다는 느낌. (함정식 작가와 작업한 <무드라이트> 영상을 보며) 한 여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쉬는 모습인데, 저의 일상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이 친구도 눈의 편안함에 관심이 있어요. 화면의 부드러운 움직임..

를 이 것은 영화의 구성에 가깝네요.

를 시를 그릴 수 있어요?

길 모르겠어요.

를 ‘윤동주’의 <새벽이 올 때까지>를 <필름시대 사랑> 2장에서 찍었어요. 한 줄 한 줄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흰 옷과 검은 옷(시의 부

분)이 병실에 걸려있지요? 흰 옷은 <경주>에서 신민아 옷이고 검은 옷은 <필름시대 사랑> 앞에 나왔던 박해일의 작업복이에요. 영화 내내 한 옷만 입고 나오거든요.

를 (다른 작업들을 보며) 미술 전시는 다른 행복감이 있어요. 전시장 들어갈 때 고정관념이 없잖아요. 영화관 보다는.. 자신의 시각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이해 못해요.

길 저는 오히려 대화 중 미술언어의 한계를 느꼈어요. 너무 정적이다.

를 그래도 경계를 넘나들잖아요? 영화에서 넘으면 관객이 불편해해요.

길 미술도 너무 난해하면 소통이 안돼요. 왕따들이라고 생각해요.

를 혹시 ‘차이밍랑’ 알아요? 그는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나는 극장에서 틀지 않겠다. 그리고 벗어 났어요. 저는 아쉬웠어요. ‘차이밍랑’ 영화는 시간을 건드리면서 느껴야 하는 것인데, 전시장은 건드릴 수 없잖아요. 영화관에 관객이 들어오지 않아서 절망했을 거예요.

길 사실 <필름시대 사랑>보는데 한 명이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끝까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하고 견뎌어요. 수영장 공간을 밑에서 찍은 장면이 너무 좋았고, 결국 첫 이야기가 끝으로 구성 되잖아요. 허공에 기타를 치는 장면과 소리가 나오고, 역시 그렇지. 하고 일어나는데, 견뎌야 하거든요. (웃음)

를 ‘차이밍랑’ 영화는 내 영화보다 훨씬 건디기 힘들어요.

길 (백조가 지나치는 영상을 보며) 스위스인데 대학원 시험을 떨어지고 호숫가에 혼자 앉아 찍었어요. 전시장에서 백조가 반복해서 지나가요. 저는 최대한 짧은 언어를 써요. ‘카프카’의 글도 단편집이 좋아요. 그래서 시적인 언어를 좋아하나 봐요.

를 ‘카프카’는 장편을 한 번도 완성시킨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엮어내어 그렇지..

길 그 ‘야누흐’의 <카프카와의 대화> 좋게봤어요.

길 이것은 예전에 6mm필름들인데 보여드릴까요? 촬영도 직접 하세요?

를 저는 전혀 하지 않아요. 편집도 직접하지 않아요. 공부할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나와서 생각하려고해요.

길 24살, 카메라 처음 사서 신나서 찍었어요. 좀 미쳐가지고 계속 들고다니며 서울거리를 마구 찍었어요. 동근 이미지들, 극장..

를 저는 사진도 찍지 않아요. 찍으면 영화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거리에서 찍으면 생동감있고, 그래서 찍지 않아요. 영화를 찍으면 연출이 들어가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참죠.

길 습작같은 것을 안 남기세요?

를 전혀, 메모도 하지 않아요.

길 그럼 어떻게해요?

를 생각으로 해요.

길 ‘Eric Rhomer’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는 많이 넣어요. 감독님은 비어있고, (공간이)

를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재현할 수 없어요.

길 그렇게 하고싶지 않으신 거예요?

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영화가 아니겠죠. 먼 훗날에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영화겠지요. 길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담을 수 있다면 하는거죠. 새로운 영화.

길 그렇다면 계속 극장에서 상영 하실건가요?

를 그렇죠.

길 설득력이 떨어져도?

를 이런 관객도 저런 관객도 관객이에요.

길 저에게 영화는 스케일이 큰 언어였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보는것만 한 것 같아요.

를 처음 영화를 찍을 때 나만 영화를 모르고 다 전문가들 이었어요. 오전에 현장을 가서 아무것도 찍지 못했어요. 시나리오를 써서 전부 나눠줬지만 점심 때까지 하나도 지시하지 못했어요. 모두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때 나는 공간에서 출발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장소는 열려진 탄광이었는데, 첫 시나리오는 사람이 이야기를 위주로 했었어요.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스태프들이 모두 따라왔어요. 몸이 편한거죠. 저는 이러한 방식이 재미있어요.

길 짧은 단편이었죠?

를 15분.

길 아까 본 <무드라이트> 리닝타임이 ‘9분’인데 불충분 하지 않을까 (영화로서) 느꼈거든요. 서사적 구조가 크게 없으니까요.

를 예전에 어느 영화제에서 <해운대 소녀> 라는 5분 짜리 영상을 봤는데 확 들어왔어요. 길고 짧은 것 보다는 작품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길 (6mm 필름을 보며) Dijon이라는 곳에 어떤 가게가 있었어요. 특이한 오브제들이 진열된 것이 난잡한데 저에게는 그 구조가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듯 질문하고 주인아주머니의 답을 들으며 공간을 찍었어요. ‘니체’, ‘팡세’같은 얘기도 해줬어요. 이곳 이름이 ‘Mise-en-scène’ Praxis (‘연출’ 실천).

를 유럽은 알 수가 없어요. <망종>으로 프랑스 어느 곳을 갔어요.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다음날 시장을 갔어요. 땅 파는 노동자가 ‘잠깐 서라’ 하더라구요. 어제 당신영화 봤다. 30분을 대화 하는데,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한 번은 스페인에서 <경계>라는 영화를 상영했어요. 영화상영 하고 그 이튿날 식당엘 갔는데, 주인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 정말 다 예술가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국에 가면 주소가 적힌 엽서를 하나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그것으로 널 시험하겠다. 진심인지 아닌지.. 파리의 살롱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는데, 저는 부담이되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곳의 지나치게 매꿔진 공간을 보고 너는 빈 것(Le vide)에 대해 모르는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자신이 그것에 대해 한참 생각했다고, 넌 동양인이라서 그것을 아는거니? 라고 묻더라구요.

를 이것이 몇 년도 얘기예요?

길 2008년이요.

를 영화로 만들려면 지금 엽서를 보내면 되요. 그것이 영화적이에요.

신포시장, 화선희집

를 저는 시장을 좋아해요. 서울에서는 망원시장, 집 근처 수색역 쪽에 시장.

길 혼자 다니세요?

를 그럼요.

길 늘 지하철을 타세요?

를 버스도 타죠.

길 기록을 안하시는 대신 걷고 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푸시는 것 같아요.

길 학생들이 감독님 수업을 이해 할까요?

를 처음에는 힘들어 하지만, ‘시’와 관련해서 알아가기 시작해요.

길 우리나라에선 그런 정서(시에 대한)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를 영화인도 잃어버리기 쉬울 수 있어요. 가난한 마음, 정서를 잊어서는 안돼요.

를 인천은 멀지 않은데 잘 오지않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길 인천이 옛날엔 오히려 문화적으로 성숙했던 곳인데 낙후한 곳으로 보고있어요. 도시가 비워지고 바다를 막아 신도시가 세워져요. 그러한 움직임이 작업을 하게 해요. <경주>를 찍으셔서 그 도시를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감독님 영화 제목들이 생각거리를 줘요.

길 <필름시대 사랑>에 기계실 지하에 물 떨어지는 곳에 LP판이 있잖아요. 설정인가요?

를 네, 그 장면 이후 노래가 나오지요? 그것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마치 <경주>에서 ‘신민아’의 흰 옷처럼.. 그 노래는 사랑의 이야기인데, 중국의 1930~40년대 최고 여배우이자 가수였어요. 그런데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 영화의 공간이 정신병원이잖아요. 머릿속에서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스태프들은 모르잖아요? 한국노래를 넣자고 했어요. 그래야 한국사람들이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노래를 고집했어요. 한국에서는 2장을 어려워하고, 외국사람들은 3장을 어려워해요. 영화의 어려움은 그 곳에 있어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어떤 영화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와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영화들이 있어요. 마치 사람들 사이의 대화처럼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을 서로의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길 감독님 영화의 사랑의 언어는 조금 달라요. 요즘 그리는 극단이나 폭력이 있지 않고 순해요. 어렵듯이, 제 정서가 순화되는 느낌이에요. 웅달샘의 신선한 물을 마신 것 같은..

를 사랑으로 인해 남는 것은 무얼까..

를 제 영화 <망종>, <경계>, <두만강> 등을 보면 좀 차갑고 날카롭게 보일거예요.

길 예전 상황과 감성 아닐까요? 저는 ‘성장’을 봤어요. ♣

2015년 초겨울
길다래, 백주는 옮김



이 글은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된 길다래 작가와 장률 감독의 대화로, 구어체를 녹취하여 신게 되었습니다. 장률 감독의 백주는 조교가 편집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유정 KIM Yujung

회색성, 흑백 사이의 가능성 (Grayness, the Possibilities between Black and White)

정현 미술비평가, 인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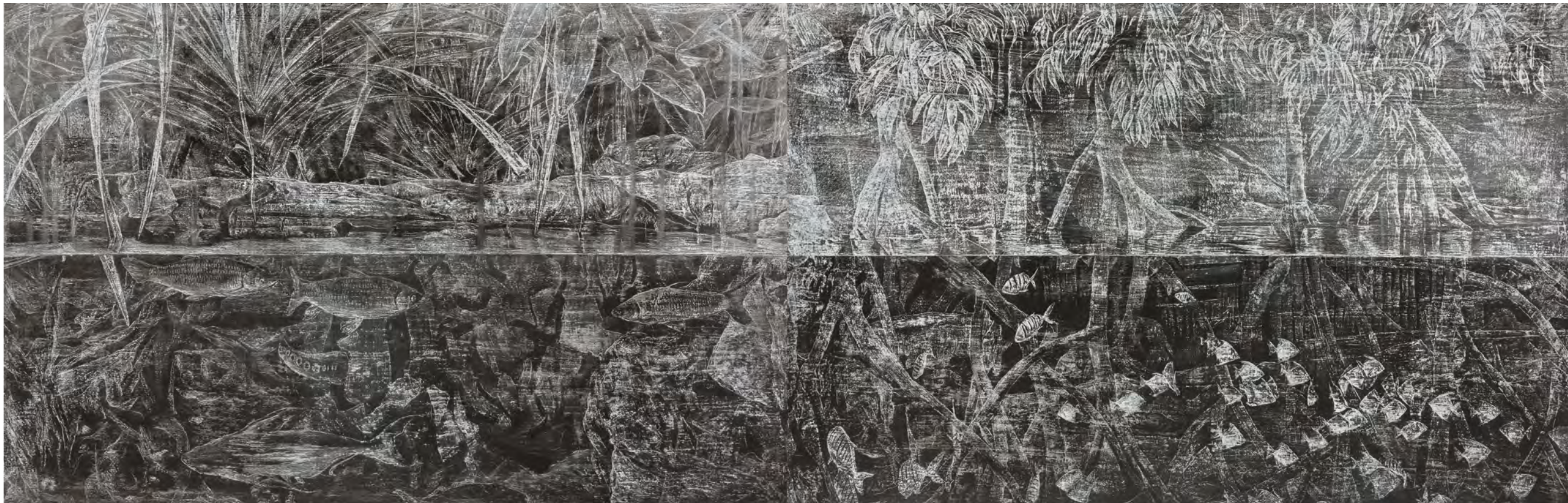
들뢰즈는 책의 시작은 첫 페이지가 아니라 중간부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시작을 '0'으로 놓고 계속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인생과 미래를 꿈꾸기를 즐기는 편이다. 이러한 생각을 놓고 나무랄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전진하는 인생이야말로 바람직한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한 눈 팔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미래로, 더 밝은 꿈을 향해서. 그러나 삶은 늘 꿈을 배반한다. 전진만을 거듭하는 삶이란 있을 수 없다. 들뢰즈는 이처럼 전진하는 또는 발전하는 삶이라는 일방적인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책의 중간이 시작일 수 있는 이유는 전진하는 삶보다 자신과 주변과의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는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그가 꿈꾸었던 미래가 '천개의 고원'으로 비유됐듯이 말이다. 그래서 들뢰즈에게 회색은 특별하다. 이념의 방향 때문에 논쟁이 심했던 시절에는 이분법적 사고관이 팽배했다. 옳거나 틀린 것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회색은 이 중적이고 모호하고 불확실하기에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만 했다. 그러나 들뢰즈는 이 회색이 바로 시작이라고 말한다. 회색으로부터 검정색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반대로 흰색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색은 의미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다 모든 것의 중간에서 가능성이 생성되도록 돕는 공터와 같다.



전시전경_개인전 <생존조건>_갤러리 도스_2015





공생_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_90.0×280.0cm_2015

김유정의 화화는 익숙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낯설게 다가온다. 낯설은 검은 화면 안에서 꿈틀대는 식물의 움직임이 자아 내는 몸짓으로부터 기인하는 듯하다. 이는 회화가 이국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흑백 사이 어디 즈음에서 꿈틀대는 식물의 모습이 마치 열대의 자연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에서 수목화와도 비교할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수목화라고 무조건 이국적인 것은 아니니 김유정이 그린 식물, 정원,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색채만의 이유는 아닌 듯하다. 또 다른 가설로는 그녀만의 특유한 작업 방식인 프레스코 기법과 관련을 살펴볼 수 있겠다. 알다시피 프레스코는 교회 건축물 내부의 벽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탈리아에서는 일반 가정의 실내 벽화를 그리는 상당히 대중적인 기법이다. 김유정은 견고하게 제작된 캔버스 형태의 나무 패널 위에 여러 단계(벽체조

성-모르타르-초지-화지)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라진 화지의 표면 위에 검정색을 도포한 후 석회(회벽이)가 마르기 전에 음각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이 쌓여 단순한 흑백회화로 규정 내리기보다는 화면을 만든 후 화면에 흠집을 내어 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해 풍경이 나타난다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가는 흑과 백의 공간 혹은 음영 사이에서 '회색풍'의 풍경 또는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풍경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과는 다른,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 이전부터 존재했으리라 믿고 있는 세계의 바탕인 자연의 존재와는 다르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풍경은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연의 형상이 아니다. 풍경은 이처럼 야생으로서의 자연을 인간이 사

는 도시에 맞도록 크기와 형태를 재단한 상태이며 네 벽 안에 배치된 자연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인공화된 자연 또는 도시화된 자연이라 부르는 게 더욱 올바른 표현이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풍경이야말로 대자연이 인류에 선사한 큰 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연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임에 분명하지만 시각적인 장관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정동(affect)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중심의 관점으로 생성된 개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풍경의 생성에는 자연의 해체가 전제된다. 자연적인 것이 옳지 않아서가 아니다. 자연을 인간이 사는 세상의 축척에 맞도록 재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풍경론은 서구적 세계관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다. 그렇다고 동양은 자연을 존중했기에 축척을 재단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을 재단하는 문화는 동일하게 존속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자연을 절대적 이상으로 대안적 미래로 생태학적 이념으로 소비한다. 그 중에서도 산업화된 풍경의 가장 작은 단위인 화분과 근대기의 식민주의적 성격으로 탄생한 식물원은 오늘의 시점으로 볼 때 인간의 욕망, 문명의 이기심, 도시주의 안에서의 자연관 등 각각적인 관점의 해석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야말로 풍경을 생성한다는 역설을 받아들이야 한다. 김유정의 프레스코 풍경은 자연을 재현한 회화로 볼 수 없다. 그녀가 선택한 대상들은 환유로써 자연을 대신하는 셈이다. 그것은 절대로 대자연을 대신할 수 없지만 자연을 우리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상이다. 다시 김유정의 작업으로 되돌아가보자. 버려진 화분들이 한데 모여 군을 이룬 〈Incubator-ownerless〉(2015), 건물의



온기_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_90.0×140.0cm_2015



온기_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_113.5×162.0cm_2015



온기_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_113.5×162.0cm_2015



전시전경_2015 코리아 투마로우_성곡미술관

창틈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들고 있는 식물들 다룬 〈Incubator〉연작(2014~2015)은 작가가 발견한 환유적 자연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이 가없는 생명들은 인간의 번덕으로 버림받은 소모품-자연인 셈인데, 생명을 유기한 인간에게 도전이라도 할 것처럼 울창하게 나타난다. 자연이 인간과 문명에 던지는 경고이자 찬란한 생명력이 주는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난다. 동명의 작업에서는 버려진 소파 곁에서 가지를 뻗은 상당한 크기의 화분은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준다(Incubator-ownerless, 2015). 수평이 강조된 화면이 인상적인 작업 〈공생〉(2015)은 위아래로 화면을 분할해 수족관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수중식물의 관계를 포착한다. 수면을 뚫고 나온 식물의 생명력에 비해 수족관의 물고기는 마치 도감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형식적이다. 작가는 식물의 번식력을 통해 무엇을 질문하는 것일까? 아마도 전시 표제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한다. 〈생존조건〉은 순전히 야생에서만 필요한 생명유지의 수단은 아닐 것

이다. 근대문명이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여 이를 지배하려는 노력이었다면, 현대는 자연과의 공생을 추구한다고들 말한다. 이렇듯 이성적이고 정당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모순적으로 세상은 무한경쟁을 요구한다. 세계화 시대에서의 도시의 삶은 냉정하고 위생적이며 이성적이고 세련됨으로 치장되지만 이러한 외연의 이면에서는 더 이상 치열하기 힘들 정도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게 현실이다. 〈운기〉(2015) 연작은 식물원의 혼한 장면을 재해석한 작업이다. 무럭무럭 울창하게 자란 식물원의 자연은 인공적으로 완벽하게 조절된 기후와 정원사의 각별한 배려로 생명을 유지한다. 장소는 더 이상 무의미한 것 같다. 세계화는 무역장벽과 언어의 차이만 없앤 것이 아니라 각 장소가 갖는 고유의 이야기, 발자취, 미래마저 잠식하고 있다. 식물원의 등장이 식민주의의 씨앗이자 제국주의자들의 권위를 보여주는 수단이었듯이, 이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은 연구의 대상이고 전시 가치로 채워진 소비사회의 또 다른 단면이다.



Incubator_프레스코 회벽에 스크래치_120.0x120.0cm_2015

김유정의 작업이 발산하는 이국적인 낯섦은 표현기법과 작업의 대상이 주는 '회색성(grayness)'으로 기인하는 듯하다. 여기서 회색성이란 흑과 백의 사이, 이분법의 경계, 가장자리이자 중간을 가리킨다. 프레스코 기법을 이용한 캔버스 회화라는 모순, 자연과 인위적인 상품 사이에 위치한 화분, 대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아닌 콘크리트 벽면 사이에서 자생하는 식물, 그리고 생명의 기원(origin)에서 이주한 식물의 전시장인 식물원의 장면 등은 이중적 위치에서 삶을 유지하는 생명체에 관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다. 이 회색성은 나약하지만 위험한 존재이고, 하찮은 존재이기에 늘 전복의 가능성이 잠복하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나 & 펠릭스 Nana&Felix

Nana & Felix is a Korean-Finnish artist duo, working on image-based projects. By combining our different backgrounds, we addres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rough the languages of photography and conceptual art.

All of our works are different attempts at understanding how social systems function, how boundaries are set, by whom they are set and for what reasons. It comes natural to us to mostly focus on visual propaganda, by which we understand practices ranging from restrictive images (passport/surveillance police register) to 'self expressive' images (social media, internet) to positive or projective images (advertising, political imagery).

Prior to arriving at Incheon Art Platform we had been working on a long-term project dealing with restrictive images. During

our residency, our main goal was to figure out how to expand this project. We wanted to produce new works that draw clear parallels between restrictive and projective images, works that reveal their same authoritarian (and *de facto* restrictive) nature. For 3 months at IAP we finished two new pieces, and started the production of a series of complementary works.

우리는 시각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핀란드 국적의 아티스트 듀오 나나와 펠릭스입니다. 사진과 조형이라는 두 사람의 각각 다른 이력을 결합하여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를 사진학과 개념미술의 언어를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작업은, 사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그 안에서의 구조적 경계가 어떻게 정해지며, 그러한 경계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또한 어떤 이유에 의하여 그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작업의 대부분은 여권사진이나 범죄 감시용 사진기록과 같이 '제한시키는' 이미지들부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자기표출적' 이미지들, 그리고 상업적 또는 정치적인 홍보와 같이 '긍정하는 혹은 투영하는' 이미지들까지 이러한 전반을 아우른다고 생각되는 시각적 선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입주하기 전까지,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제한적' 이미지에 대한 장기프로젝트를 진행해왔었고, 입주작가로서 이전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확장시키는가가 큰 숙제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작업에선 '제한시키는' 이미지와 '투영하는' 이미지를 동등하게 배치하고, 동시에 두 종류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같은 성향의 권위주의 (사실상 제한시키는)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 3개월의 입주 기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두 작품을 만들었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른 여러 작업들을 지금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1. New City 신도시

"Without continuous development, a city lags behind other cities. Relapsed old urban areas impede overall urban development. That is why all cities must be born again, through urban restoration projects." - So starts one of the many promotional videos at show in the three-story museum dedicat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 In this video-work we juxtapose IFEZ's official imagery with our documentation of the area, contrasting a perfectly designed city with its reality.

“도시는 지속적인 개발이 없다면 다른 도시들에 비해 뒤떨어지게 됩니다. 재발되는 낡은 도시 구역은 전반적인 도시 발전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도시들은 도시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 이 구절은 인천자유경제구역 IFEZ 개발을 적극 유치



New City_Multi-Channel Video, Sound_Duration Variable_2015



New City_Still from Viedo_2015



ImpeCable Lifestyle_Site-specific Installation_2015

하기 위해 만들어진 3층 높이의 송도의 IFEZ 홍보관에서 재생되는 한 홍보영상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번 영상 작업 〈신도시〉는 IFEZ 사업이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여러 이미지들과 우리에게 보이는 인천자유경제구역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들을 나란히 병치시켜, 완벽하게 계획된 도시와 현도시의 실제 모습을 대조해보았습니다.

2. ImpeCable Lifestyle 흙 집을때 었는 라이프 스타일

(The misspellings of both titles in English and Korean are intentional. 영문과 한글제목의 맞춤법 오류는 의도한 것입니다.)

This site-specific Installation consists of a mix of material (props, furniture, and etc.) commonly found in Korean housing-galleries as well as on sale at Swedish interior giant Ikea. The name of the installation, and it's misspelling, is borrowed from one of the prop books that we used. The installation takes the form of a set

stage, mirroring the industrially produced housing environments that dominate the Korean landscape. What interests us is how we build our lives within in these serially produced promises of individuality.

이 설치작업은 한국의 모델하우스와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진열상품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장식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모조품들 (모형책, 조화, 전시 가구 등) 과 이미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작업의 제목은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발견한 한 모형책의 제목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똑같은 모형책들을 설치작업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치작업은 무대 세트의 형식으로 진열된 모조품 쇼로서, 한국 풍경의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식으로 찍어낸 주거 환경의 미학을 조명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런 모델하우스나 쇼룸에서 약속하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춤'것들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공급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표방하는지에 주목합니다.



Real Estate(detail)_Inkjet Print_21×210x35cm_2015

3. Real Estate 부동산

A series of 17 photographs taken at two different locations on opposite sides of the world. Approx. Half of the pictures were made in Apgujeong, one of Seoul's most expensive neighbourhoods. The other half was made in Bellvitge, one of the poorest neighbourhoods on the outskirts of Barcelona, Spain. Real estate mixes these visually almost identical neighbourhoods with the aim of provoking questions on how value is defined and what constitutes a desirable property.

지그재그로 접히는 17장의 사진으로 구성된 이 작업은 거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장소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진작업의 반은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가장 높은 지역인 압구정의 아파트이고 나머지 반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외각 벨비체라는 빈민가의 아파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거의 똑같은 지역의 사진들을 나란히 보여주는 이 작업에서 우리는, 가치가 매겨지는 기준과 값어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4. Lunar Estate 달나라 부동산

An installation consisting of a framed certificate of us, Nana & Felix, owning an acre of land on the moon, a framed map indicating the location of our property and a portrait of us surrounded by another 11 portraits of celebrities that also own land on the moon (our moon-neighbours).

일련의 액자들로 구성된 달나라 부동산은 아티스트 듀오 나나&펠릭스가 달 토지의 한 부분을 소유하였다는 부동산 증서와 소유한 토지의 위치를 보여주는 증서, 그리고 우리의 사진을 포함해 달나라의 토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11명의 유명 인사들의 사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Lunar Estate_Mixed Media_130×105cm_2016



Perspectives_ImpeCable Lifestyle_Site-specific Installation(IAP)_2015

니콜라 마네티 Nicolas MANENTI

I am interested in the meaning of archetyps in what we call a 'westernized' society and the values they tend to convey, such as competition, employment, profitability, standardisation. But I also look on the sides, at the absurdities we can find inside this heroic image: idleness and boredom, anomy, obses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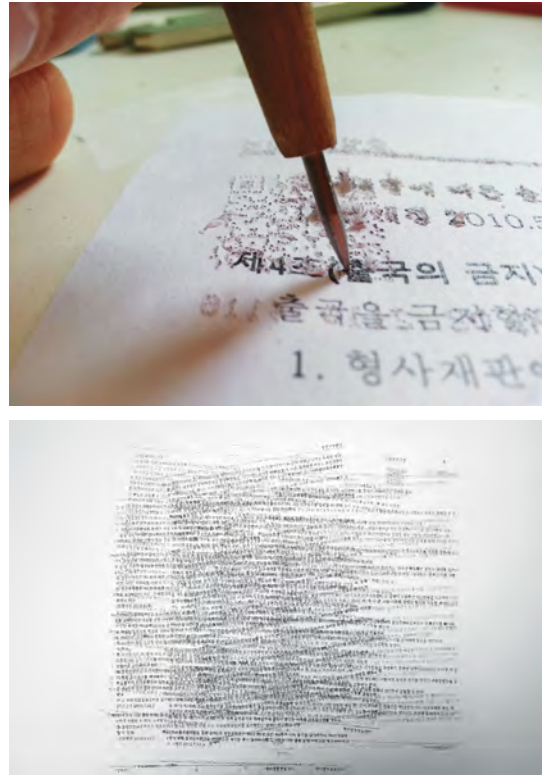
My first works were absurd actions done at a workplace I had in France: I was a night watchman there, with basically doing nothing, in empty rooms I didn't belong to. I felt like a sort of anti-hero, in a dialectical situation: being there and not belonging to the workplace, when nobody present, able to explore these corporate environment like decor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image and the everyday reality which we try to mold into our expectation. This creates a frustrating tension, which is the motor of many of my works.

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서구화 된' 사회의 전형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들에 관심이 간다. 말하자면 경쟁, 고용, 수익성, 표준화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주변부도 바라본다. 그 영웅적인 이미지들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부조리들, 예컨대 나태함, 지루함, 무질서, 강박증 말이다.

나의 첫 번째 작업은 프랑스의 일터에서 벌어졌던 부조리한 행위들에 관한 것이었다. 야간경비였던 나는 내가 속하지도 않은 그 텅 빈 공간에서 기본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난 그 변증법적 상황에서 일종의 반(反)영웅이 된 기분이었다. 그 곳에 존재하면서도 그 곳에 속하지 않은 상태로, 주변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실내 장식을 포함한 기업의 환경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의 기대에 끼워 맞추려 노력하는 일상과 그것을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간극이 좌절스러운 긴장감을 유발하고 그 긴장이 대부분 내 작업의 동력이 된다.



타포노미(II)_목재 테이블 위에 새긴 7장 분량의 대한민국 이민법_70×60×80cm_2015
Taphonomy(II)_7 pages of Korean immigration law carved on wooden table_70×60×80cm_2015

Taphonomy(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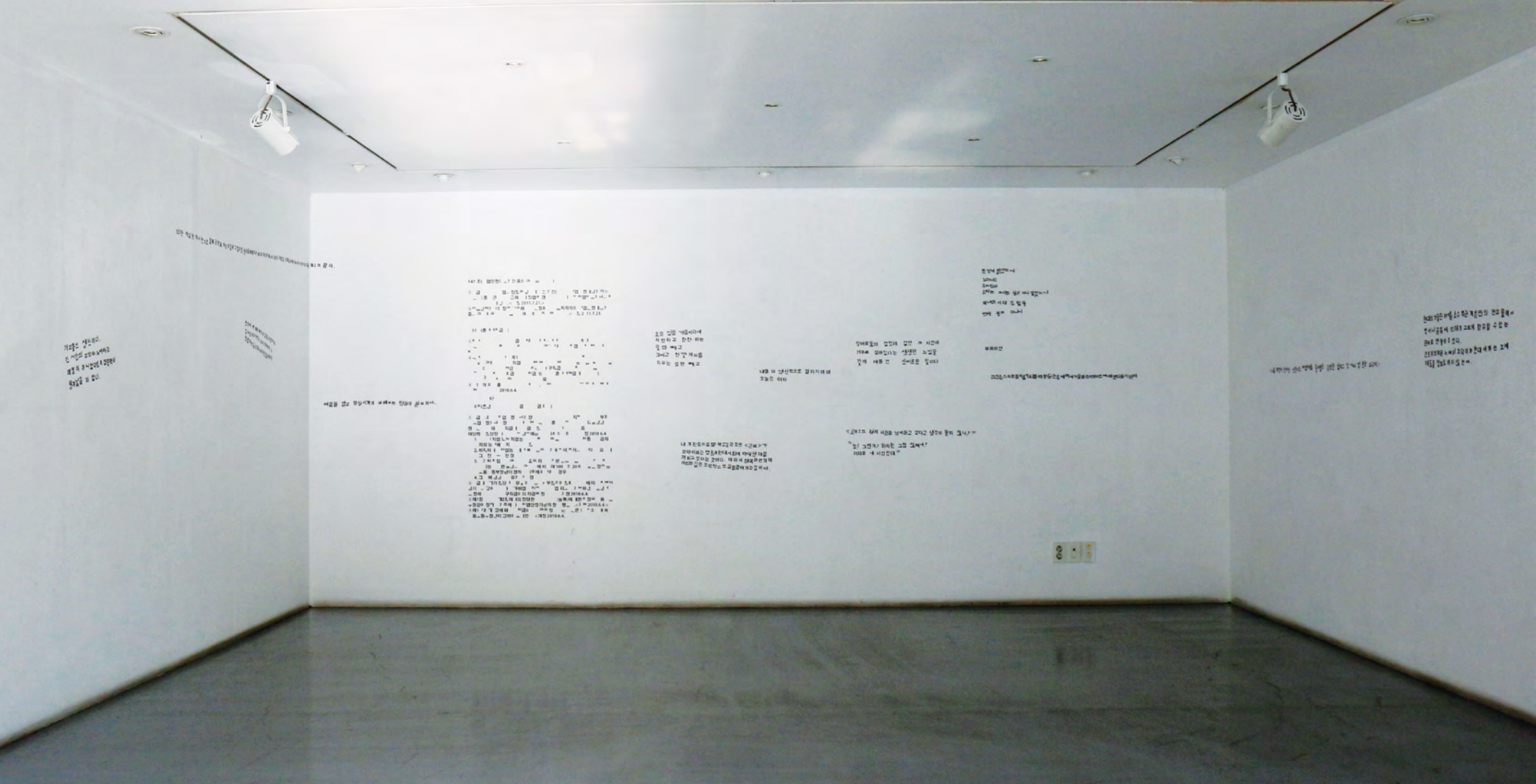
Copy is a mean of conservation. But in my artworks, the originals are degraded by the process of duplication itself: different sheets are overwritten on a single support, either with pens too large for the document, ink spreading through the paper, or, in the Taphonomy *series, by directly engraving the documents on the surface beneath, letter by letter. The mixed-up and overlaped texts become unreadable, but still recognisable as a picture of the documents, like a 'portrait'. Beyond that, it's also a testimony of the long, absurd work hours the copist had to endure.

* The taphonomy is the study of accumulation processes and preservation of fossilized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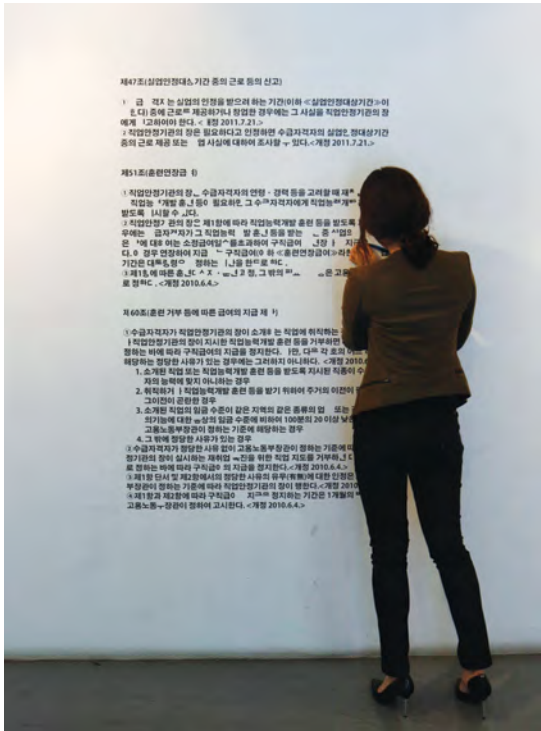
타포노미(II)

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보존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내 작품들의 경우, 복제 과정 그 자체로 인해 진본들의 품질이 저하된다. 각각의 종 이들이 동일한 받침대 위에서 덧쓰이거나 해당 문서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두꺼운 펜을 사용하거나 잉크가 종이 위에 스미어 퍼지거나, Taphonomy(화석생성론) 시리즈의 경우처럼 종이 아래 책상에 한 글자, 한 글자 문서들을 새기는 방식들이 그렇다. 온통 뒤섞이고 겹쳐진 활자들은 읽을 수 없게 되어버리나 여전히 활자들로 구성 된 문서의 형태로써 인식 가능하다. 그것은 마치 '초상화'같다. 또한 그 너머에는 그 길고 부조리한 작업 시간을 견뎌야만 했던 복제가의 증언이 있다.

* Taphonomy(화석생성론)는 화석화된 유해들의 보존과 축적의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법적 언급(한국어 버전)_벽에 문자 커팅 시트지 부착(현장 설치, 해프닝)_가변 크기_인천아트플랫폼_2015
Legal Mentions(Korean version)_Adhesive Text on Wall(Installation in situ, Happening)_Variable Dimensions_IAP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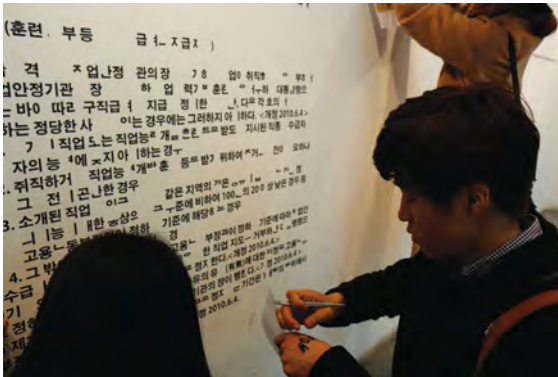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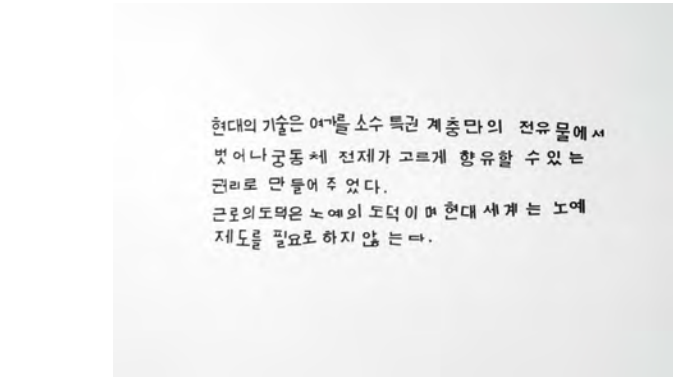


Legal Mentions(Korean Version)

Legal Mentions is an paradoxical homage to idleness which takes the form of a laborious happening: an extract of the employment law texts is pasted on the exhibition wall before the action. Then, the participants have to write literary citations praising laziness, using the letters taken from the law. To form their words, they must dismantle the paragraphs until they can't find any usable letter.

법적 언급(한국어 버전)

〈법적 언급〉은 역설적인 작품이다. 나태함을 찬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어가며 수행해 낸 해프닝이기 때문이다. 고용법 텍스트로부터 발췌한 문장들이 시트지로 커팅되어 전시장 벽에 부착되어 있고 그 앞에서 행위가 벌어진다. 참여자들은 법조문에서 떼어 낸 문자들을 이용해 게으름을 찬양하는 문학의 인용구들을 재구성(재부착)해야 한다. 그러한(게으름을 찬양하는)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 참여자들은 사용가능한 문자를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법조문의 문단을 분해해 나간다.





Offshored_HD 비디오_11'00" 루프_2015
Offshored_HDV_11'00" Looped_2015

Offshored, 2015

A character, dressed as an office worker, carries a table through the streets, in an endless search for a place to 'stay'. This improvised slapstick contrasts with the 'conceptual' works like <Taphonomy> or <Legal Mentions>. But it is part of the same personal universe, influenced by corporate imagery, in which the anti-hero figure is a key element.

직장인처럼 갖춰 입은 주인공이 테이블을 든 채 거리를 걷는다. 그가 끊임없이 찾는 것은 '머무름' 공간이다. 이 즉흥적인 슬랩스틱은 <타포노미>나 <법적 언급>처럼 '개념적인' 작품들과는 대조된다. 하지만 이 작품 역시 기업이란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동일한 개인세계의 일부로, 반영웅상이 주요한 요소다. ✎



로미 아키투브 Romy ACHITUV



Pillar of Ash_Ash, Suction Fans, Aluminum, Scaffolding_850cm×140cm×140cm_2015

“And the Lord went before them by day in a pillar of a cloud, to lead them the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hat they might go by day and by n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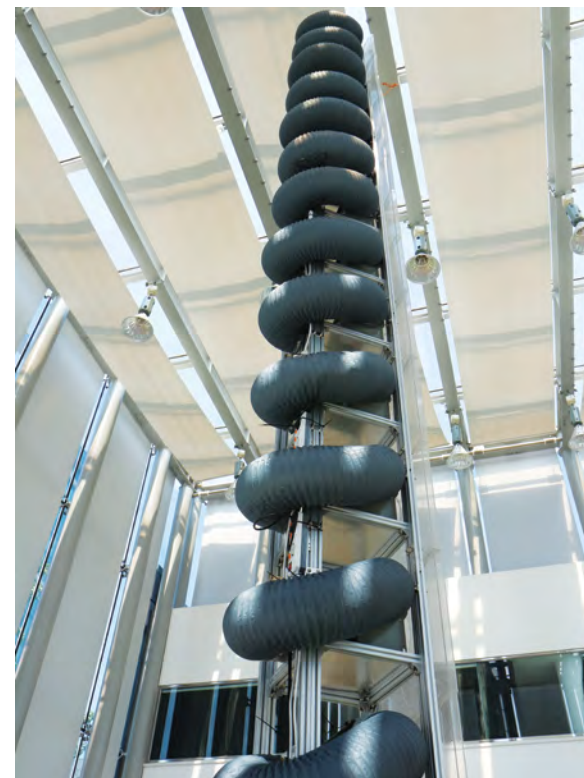
(Exodus 13:21)

In July-August 2015, I was in the midst of my second residency period at Incheon Art Platform, and at the end of a long academic stay in Korea. In the preceding years I had created a number of large-scale participatory projects that utilized rice-husk and rice-husk ash to address various aspects of Korean culture,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Korean social and cultural landscape.

In these last months in Korea, I was interested in utilizing the same

materials and hardware I had used in my previous installations to explore more distinct sculptural work. I had made my first couple of pieces—corridors of husk and ash—when two horrific violent attacks occurred in Israel, my home country.

On July 31, 2015 extremist Jewish settlers set a Palestinian home on fire in Duma village in the occupied West Bank, burning to death 18-month-old Ali Saad Dawabsheh, and severely injuring his parents and his 4-year-old brother. The father, Ali Dawabsheh,



age 32, died from his injuries one week later, and the mother Riham Dawabshe, a month later.

On August 2, 2015, Shira Banki, a 16-year-old Israeli teen, succumbed to her wounds three days after being critically wounded by an ultra-Orthodox Jew that went on a stabbing rampage at Jerusalem's Gay Pride Parade.

As happens in rare moments of creative clarity, conceptual, aesthetic, and material ideas coalesced as I realized the symbolic potency of constructing a tower of ash as a response to these hideous atta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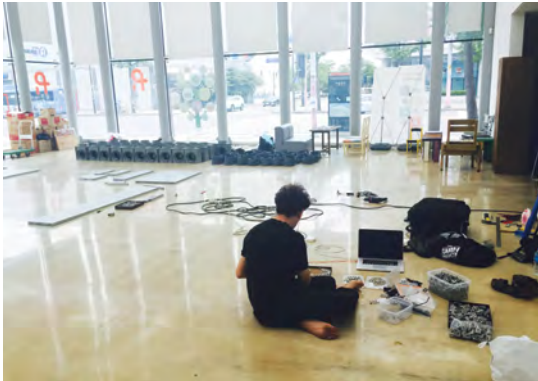
The installation complements a social action produced by Ilana Sichel and myself in August 2015 that consisted of posting mourning notices throughout Jerusalem and Tel Aviv. The notices resembled traditional Israeli mourning posters, but the expression of grief was coupled with a message of protest. Documentation of the project can be viewed online at: <http://gavaligai.com/Mourning-Notices>.

<Pillar of Ash> was created in memory of
Ali Saad Dawabshe, age 18 months
Shira Banki, age 16
Saad Dawabshe, age 32
Riham Dawabshe, age 27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두 번째 레지던시에 참가하고 있던 2015년 7월과 8월, 나는 학술 목적으로 오래도록 머물렀던 한국에서의 체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 동안 나는 겨와 겨를 태우고 남은 재를 이용한 큰 규모의 참여형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지형변화에 응답하며 한국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다루기 위한 작업들이었다.

한국에 머물렀던 최근 몇 달, 나는 이전 설치 작품들에 사용했던 재료들과 장비를 다시 이용해 좀 더 명료한 조각 작업을 탐색하는 데 관심이 갔다. 가장 먼저 겨와 재를 이용한 회랑들을 제작했는데 당시 나의 조국 이스라엘에서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있었다.

2015년 7월 31일,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은 서안지구 두마에 살고 있던 한 팔레스타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18개월 된 알리 사드 다와브샤가 사망했고 그의 부모와 4살 난 형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아버지인 알리 다와브샤(32세)는 일주일 뒤, 부상으로 사망했고 어머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의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 13:21)

니인 리함 다와브샤 역시 한 달 뒤 사망했다.

2015년 8월 2일, 예루살렘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선 한 초등학교 유대인이 광적으로 칼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다. 이 날의 칼부림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은 16세 이스라엘 청소년은 그로부터 3일 뒤 사망했다.

창의적인 명료성이 드물게 제 모습을 드러내듯, 개념적이고 미적이고 물질적인 발상들이 통합되었다. 동시에 나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끔찍한 공격들에 응답하는 의미로써 재로 탑을 쌓는 행위가 어떤 상징적인 힘을 갖는지 깨달았다.

2015년 8월, 이라나 시첼(Ilana Sichel)과 나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전 지역에 애도의 안내문을 전시했다. <Pillar of Ash>는 당시의 사회적 행위를 보완하는 설치작품이다. 그 해 전시했던 안내문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애도 포스터를 닮았지만 그 슬픔의 표현 방식은 저

항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 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기록들은 온라인 <http://gavaligai.com/Mourning-Notices> 에서 볼 수 있다.

<Pillar of Ash>
알리 사드 다와브샤(18개월)
시라 반키(16세)
사드 다와브샤(32세)
리함 다와브샤(27세)를 기리며. ♀



박윤주 PARK Yunju



유연_단채널 비디오, 설치_05'32" _2015
The last word_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_05'32" _2015



우연계승_단채널 비디오, 설치_05'40" _2015
Inheritance of Accident Short_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_05'40" _2015

박윤주, 사물의 지향성을 향해

민병직 대안공간 루프 바이스 디렉터

작가가 관심을 갖는 것들은 가시적인 일상의 사물들이지만 그 가시성의 원천이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기에 좀처럼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의 존재를 통해 오히려 타자와의 어떤 관계나 영향 같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들로 향한다. 이를테면 물, 중력, 바람과 같은 것들인데, 이들 대상들은 손에 잡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좀처럼 쉽게 가시화되지 않은 세상의 존재들이다. 그리고 과학적 인식의 대상들이지만 종종 그 한계들로 인해 시작이거나 예술적 접근들로 역설적으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작가 역시 이를 이미 주어진 과학적 혹은 사회적 의미들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물들이 본원적으로 향하는 것들, 그 내밀한 의미들이 지향하는 것들로 향한다. 이를 작가 특유의 궁금증 혹은 집요한 집착을 통해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작가의 사물의 본질적인 지향에 대한 관심은 단지 그 본질적인 의미 자체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엉뚱하지만 사뭇 진지

한 탐색 속에서 사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지와 자연, 혹은 우주의 어떤 흐름들이라 할 수 있는 것들마저 펼쳐 놓게 된다. 이는 서로 연결되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다른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들이기도 하다. 저 일상의 낯선 사물들은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관계들을 은밀하게 가시화시키고 있었던 것들이고, 작가는 이러한 사물들의 존재, 그 현존의 속내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서로의 원인이 되어 연결되고 이어진다. 이는 비단 불교의 가르침만이 아닐 것이다. 작가 역시도 이러한 세상 만물의 어떤 연결, 흐름을 주목한다. 모든 것들이 서로 상대의 조건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순환론은 세부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동서양의 인식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작가

또한 비록 겉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일지라도 각각의 사물들이 서로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작가가 세상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이자 동시에 작업의 주요 열개, 개념들로 자리한다. 이들 인식의 흐름들이 선처럼, 서로 상관없는 듯한 낯선 사물들을 시간, 공간을 가로질러 연결시키고, 또 작동케 하는 것이다. 작가의 설치, 비디오 작업 속에 등장하는 허름하고 낯선 사물들의 배치는 언뜻 통속적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일상적인 동시에 엉뚱한 느낌을 준다. 그 묘한 관계들의 배치가 눈길을 끄는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사물들을 인식의 흐름들로 연결시킨다. 선적이지만 움직임이 있는 이러한 인식의 흐름들이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일상의 사물들을 어떤 관계로 엮어내 일종의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모여, 전체적인 이야기, 곧 작가의 세상을 향한 이야기에 다른 아닌 큰 이야기들을 이룬다. 하지만 전체적이거나 통일적인 체계,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때그때, 세상을 향해 느끼고 고민하고 사유했던 것들을 조곤조곤 이야기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를 가로지르는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인해 모든 이야기들은 다시 서로를 연결하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작가의 말처럼, 이는 선형적인 것이라

기보다는 순환하는 원에 가까운 것들이다. 그렇게 시작도 끝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서로 다른 시간성, 장소성이 이질적으로 공존하는 독특한 장면들이 연출된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들이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들을 작가 특유의 사유의 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미묘한 감정과 본능적인 것들을 투영하는 것인 동시에 사물의 본원적인 지향성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기에 작업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사물들은 다시 묘한 균형성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낯선, 혹은 통속적인 사물들의 배치가 작가의 세상을 향한 어떤 발화처럼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로 분절된 이들 파편화된 언표들은 각각의 사물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어떤 관계와 그 연결흐름을 통해 자리하는 것들임을 반증하게 한다.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의미들로 향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들 관계들의 현존과 그 연결의 흐름들 자체가 작가 발화의 방향성이 자리하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은 이처럼 작가에게 어떤 본원적인 지향성으로 자리하는, 서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떠한 연결들로 존재한다. 이는 물론 기존의 사물들이 의미하는 방향과는 다른 지점에서 작동하는 것들이다.

작가는 작품의 공간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의



Occurred Future_Installation_2012



Going Gone_Installation with Performance_Imaginary Bauhaus Exhibition_Gorki Maxim Theater_Berlin_2015



Personal Space_Installation_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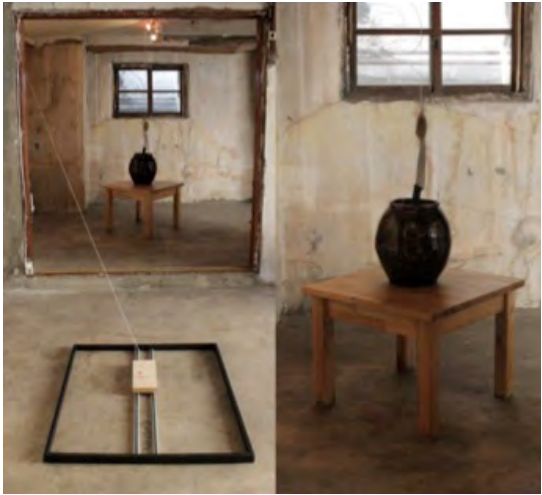
흐름을 스스로 개념화한 '샤워론'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샤워론은 물의 흐름과 인간의 인위적인 역사와의 충돌의 지점을 드러내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강이 되고, 댐이 생기고, 하수도를 통해 전해진 물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샤워를 하고, 다시 배수가 되어 강이나 바다로 흘러 수증기가 되고, 기화되어 구름이 되는', 이러한 물의 흐름이 다시 작가적 감성과 사유에 의해, '찬물이 따뜻한 물로 전환되는 시간, 미처 몸에 닿지 못한 물방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되는 현실, 소외계층 생성, 수압의 타이밍, 배수 순번을 기다리는 같은 시기의 물방울, 불평등의 시작, 시민의식의 생성, 불만과 폭동, 정부와 기업의 역할, 수압조절의 정부개입, 배수구 확장의 기업개입, 정제 불만족, 정신개입, 불법화 시작 등'과 같은 또 다른 다양한 흐름들과 겹쳐진다.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들처럼 이어지는, 이러한 물의 흐름에 단상들은 (사물들의) 흐름이 결국 물질과 비물질,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을 가로질러, 혹은 개인, 사회,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변환되고 순환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흐름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이 흐름들이 비교적 단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움직임들로 제시한다. 작가의 작업에 유독 움직임, 혹은 동력 장치들이 많은 것은 움직임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기초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 자연적인 동력을 통해 사물들 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떤 관계의 흐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단순한 키네틱이 아니라 영상 작업과 결

합되면서 역사적 삽화 등과 같은 사건들, 사회적 의미들, 그리고 각각의 사물들에 대한 개인적 의미들이 병치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물, 중력, 바람과 같은 자연의 흐름은 물론, 이들 흐름들이 사회의 인위적인 시스템과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집요한 물음을 놓지 않는다. 이들 자연스러워 할 흐름들이 인위적인 구조들과 상충하는 면모들을 가시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자연의 흐름과 상충하는 인위적인 시스템과의 충돌을 통해 개인과 집단, 사회, 역사와의 어떤 긴장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업은 앞선 물의 지향성에 대한 실험과는 다른 맥락을 가진 작업들로 작가는 이를 중력의 지향성에 대한 실험으로 범주화시킨다. 중력의 지향성에 대한 작업들은 주로 집단과 구별되는 개인성, 개인의 미묘한 실존, 그리고 이러한 개인성에 드러난 거대사회의 어떤 무게감을 가시화시킨다. 집단과 개인 사이의 긴장감을 통해, 벽처럼 자리하는 집단의 무게감과 구별되는 개인의 예민한 실존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작가 작업의 기본적인 존재이유, 역할이기도 하다. 그렇게 중력의 무게감 같은 거대 집단의 시스템과 규율, 권력과 구별되는 내밀한 개인성의 자유로운 흐름에서 어떤 자유를 찾는다. 미시적인 개인성들이 모여 이루는 자유로운 감각의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자연의 흐름과 순환으로 이들 거대 시스템의 벽을 가로지르는 소통의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관심을 두고 있는 바람의 지향성은 이를 다시 역설적인 그러나 어떤 희망으로 드러낸다.



Pink to Brown_Single Channel Video_Installation_13'50"_2015



동생의 애인의 아버지의 딸(A daughter of a father of a lover of a sister(brother))_설치_캔 파운데이션_2015

세상의 질서가 정해놓은 당연한 방향과 다르게 바람은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 물론 바람에 의해 세상의 사물들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로 인해 술한 흔적과 상처들을 남기기도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바람의 흐름 속에서 이들 관계들의 흐름으로 인한 역사적 흔적들을 확인하는 동시에, 인위적이고 일방적인 통제의 흐름이 아닌, 그 움직임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자유로운 (반)흐름의 존재를 확인한다. 작가는 이러한 바람의 다양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직접 작가가 의도한 것들을 작동하고 체험케 함으로써,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낸 흔적들을 확인하고 정해진 방향이 아닌 각각의 개인이 만들어낸 술한 방향의 흐름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공감케 한다. 스스로 세상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가로지르는 바람과 같은 흐름이 되도록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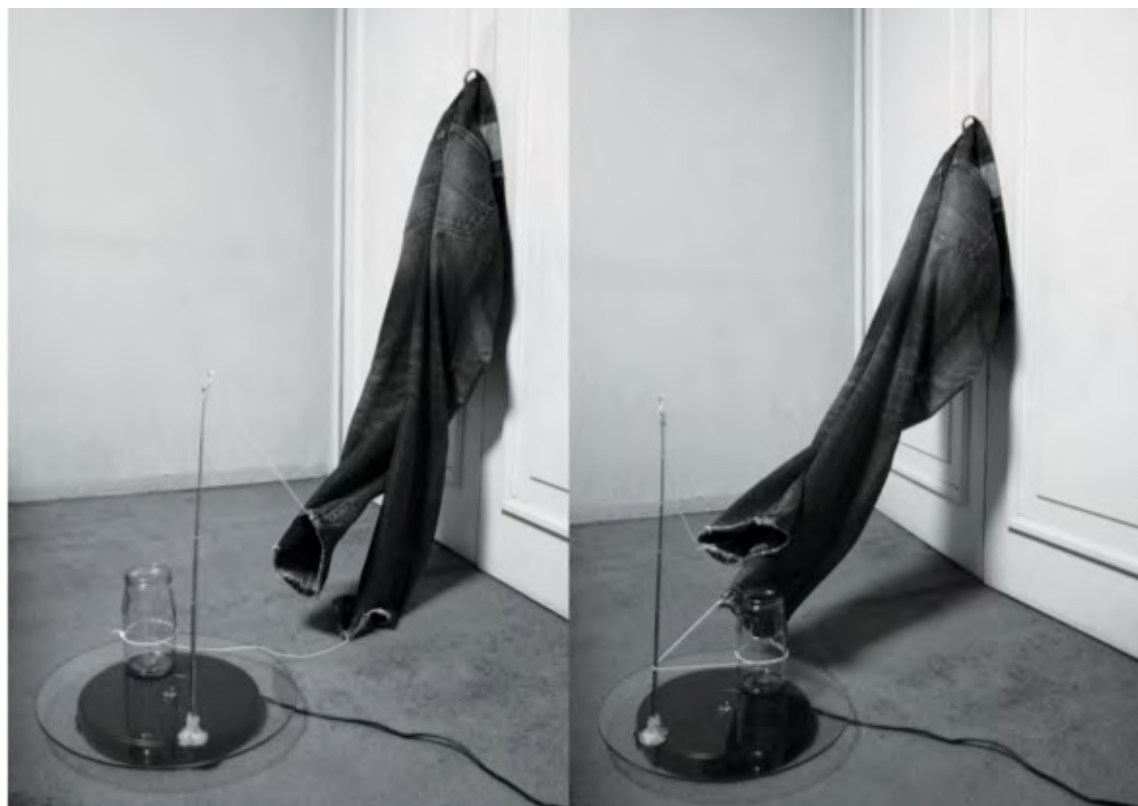
작가가 미묘하고 복잡한 흐름을 탐색해온 물은, 중력은, 그리고 바람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진다. 물, 불, 공기, 흙, 대지의 순환인 동시에 자연의 거대한 흐름들로 말이다. 이들 흐름은 비록 지극히 사소하고 미묘한 것일지라도 서로를 관계하고 이어가면서 끊임 없이 자유로운 연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단단하고 견고한 것들, 곧 질서, 체계, 규율과 통제를 가로지르는 자유로운 것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가가 전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자연의 그것처럼 순리대로만은 아닌 듯하다. 지수화풍(地水火風), 곧 대자연의 흐름은 대개는 인위적인 것들과의 상충을 통해서만 비로소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바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현실의 다른 동력 장치들로 인해 더욱더 바람의 존재를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들 자연의 흐름은 역설처럼 그 존재감을 각인시킨다. 작가의 주목지점도 이와 연결된다. 그렇게 이들 자연의 흐름을 사회와 권력의 흐름과 겹쳐내면서 이와 대비되는 개인적인 영역, 개인의 미세한 감수성의 현존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들 흐름은 자연의 흐름인 동시에 인위적인 사회, 권력의 작동이며 동시에 개인의 내밀한 의식의 흐름 모두와 연결된다. 물의 흐름처럼 증발되고 압축되고 기화되며 분산되는 다면적인 변화들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다채로운 변화, 곧 움직임을 갖고 있다. 작가는 이들 움직임, 특히 일상적인 사물들의 통속적인 배치와 움직임을 드러내는 연결 배치를 통해, 그리고 이들 움직임을 관람객의 현존으로 동시에 작동하게 함으로써 낯선 연결들조차 자연적인 흐름이자 우리를 둘러싼 현실사회의 인위적인 흐름일 수 있음을 겹쳐놓고 동시에 변화무쌍하고 동시에 다발적인 자연의 흐름이 그런 것들처럼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반)작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시화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 사물들에 투영된 개인의 내밀한 존재감 또한 드러낸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고립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산을 통해 순환하는 물의 흐름이자 억누르는 권력을 가시화시키지만 동시에 그러한 권력의 파장 속에서 힘들게

자리하는 개인성이 보호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영역 또한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결국 작가는 이들 자유로운 흐름들 속에 거대 집단과 사회 속에서 상충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 또한 역설적으로 실존케 함으로써, 이 거대한 순환의 흐름 속에 자신의 존재 또한 관계 맺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물의 흐름을, 중력의 무게를, 바람의 자유를 통해 그 흐름과 연결되고 동시에 상충하는 집단과 권력의 어떤 거대한 벽들을, 그리고 그 사이에 고립된 자신의 미시적인 감성의 영역을 대비시키면서 끊임없이 이들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 짓고 흐르게 하는 작업을 통해,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충하는 흐름의 충돌을 그저 충돌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긴장감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미시적인 개인의 감성들

이 엮어내는 또 다른 공동체를 못내 이루려 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 것이다. 대자연의 흐름은 결국 어떤 균형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을 테니 말이다. ✚



무제_설치_보안여관_2014



너에게 닿기를(Reach You)_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_00'32" _2013



Response_Video, Installation_00'40" _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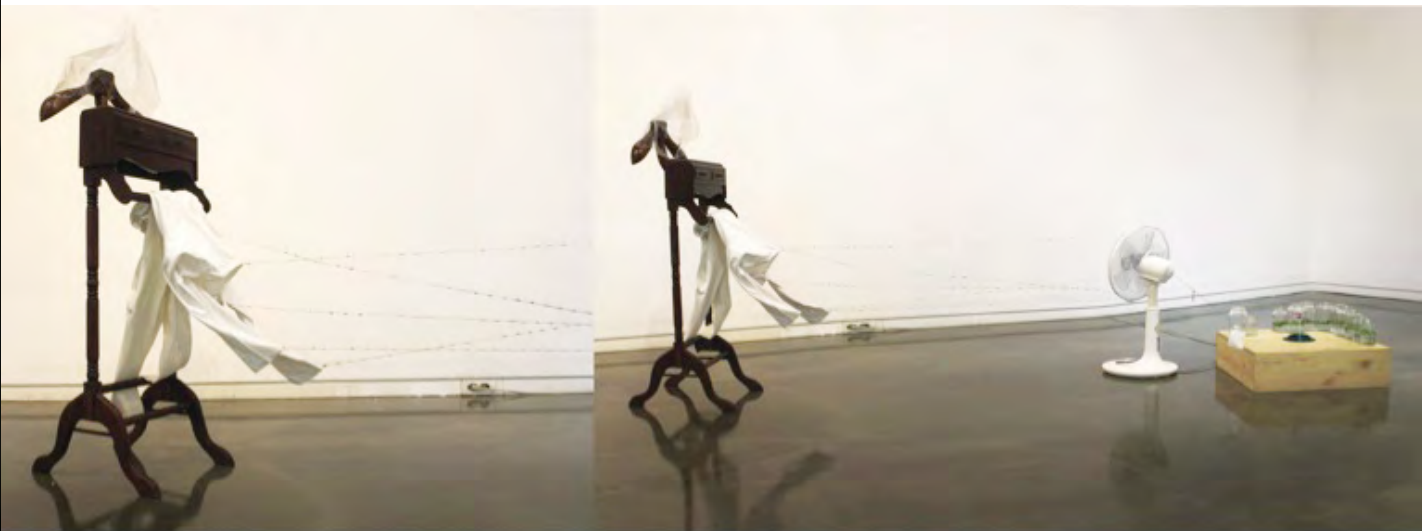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_Installation Drawing, Single Channel Video_01'14" _2013



죽지 않는 말의 기생(The Parasites of Undead Words)_Wine Bottle and Grey Coat, Installation_2013



우리는 터무니없이 희망적이다(We are impossibly hopeful)_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_02'46" _보안여관_2014



항상적인 비극(The Constant Tragedy)_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_03'55" _2013

박은하 PARK Yuna

박은하,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에서 찾는 희망

전성원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성공회대 교양학부 겸임교수



결정 지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5
(Can't Be Decided, Can't Be Thrown Away #5)
Acrylic&Oil on Canvas 254×112cm_2015

1.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Lasciate ogni speranza, voi ch'entrate).

나를 지나는 사람은 슬픔의 도시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영원한 비탄으로,
나를 지나는 사람은 망자에 이른다.
정의는 지고하신 주를 움직이시어,
신의 권능과 최고의 지와 원초의 사랑으로
나를 만들었다.
나보다 앞서는 피조물이란 영원한 것뿐이며
나 영원히 서 있으리.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지옥편』, 〈제3곡〉, 1~9행

화가 박은하로부터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와 관련해 자신을 만나 인터뷰한 뒤 그걸 바탕으로 짧은 글을 하나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던 것이 올해 6월의 일이다. 그 무렵 나는 단테를 읽고 있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옥(地獄)을 헤매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백하건대 그 이전까지 박은하란 작가를 잘 알진 못했다. 2013년 1월 무렵 인터넷 공간을 통해 처음 만났을 때, 독특한 느낌의 '마블링(marbling)' 기법을 사용해 작업하는 젊은 화가란 정도만 알고 있었다. 서양에서는 이 기법으로 된 그림 무늬가 대리석 무늬와 닮았다고 해서 마블링이라고 했지만, 본래 마블링이란 중동지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터키 지역에서는 물 위에 기름과 염료를 떨어뜨려 무늬를 만들고 송곳으로 그림을 그려 기름종이로 찍어내는 전통 미술방식으로 '에브루(Ebru)'라고 한다. 물에 젖은 노면이나 물 위에 떠오른 기름을 보면, 주변의 떨림과 흔들림에 따라 문양이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무늬로 변하고 다시 분화(分化)하고 확산(擴散)해 간다.

마블링은 이러한 표현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하는 무늬를 어느 한순간 종이에 흡착시켜 고정하는 기법으로 우연(偶然)한 운동(運動)을 눈으로 쫓다보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같은 착시



〈결정 지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연작(Series of <Can't Be Decided Can't Be Thrown Away>). 캔버스에 유채와 아크릴.
100×194cm, 227×173cm, 183×137cm, 60×73cm, 254×112cm, 73×100cm, 183×137cm, 153×108cm, 총8점_2015

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박은하의 마블링 작업들은 그런 우연에 기대는 작업이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그려 넣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우연성에 기대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 마블링처럼 표현된 것이므로 정확하게는 마블링 기법이 아니라 마블링 스타일이라고 해야 한다. 우연이 아닌 의도에 의한 표현이란 점에서 박은하의 마블링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유동하는 세계를 떠도는 삶과 일상의 공간감, 확산과 연결(連結)에 대한 욕망은 박은하의 세계를 구성하는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2. 플라나리아 오브제(Planarian-Object)

- 통속(通俗)과 반통속(反通俗)

프로젝트의 특성상 한 번은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끝끝내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을 리는 없을 테고, 나만의 게으름 또는 누군가에 대해 비평하는 작업에 직접적인 만남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뒤로 해두자. 작가의 아틀리에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 이후 나는 직접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연결에 대한 욕망 못지않게 은폐와 잠적에 대한 강한 열망의 소유자란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일단 박은하가 마무리 작업 중이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넥센 야

구팀을 좋아하는 인간적 매력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인천아트플랫폼 내부는 흡연금지공간이었지만, 우리는 선생님 몰래 숨어서 담배를 나눠 피우는 불량학생들처럼 작품세계와는 별 관련도 없을 법한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눴다. 기본적으로 나는 '문자로 된 텍스트'와 '내러티브 구조를 갖춘 텍스트'를 해독하고 비평하는 훈련을 쌓았을 뿐 이미지(image), 그 중에서도 회화를 독해하거나 미술작업에 대해 비평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문화한이다. (그러나 그건 보들레르나, 벤야민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그럼에도 '박은하'라는 텍스트(삶과 작업)를 읽어내는 작업에 기댈 만한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문학비평가 테리 이글턴은 『문학이론입문』에서 '징후적 독법(symptomatic reading)'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징후적 독법'이란 알튀세르가 정신분석학에 기대어 정식화한 개념으로 텍스트가 억압하였지만 완전히 억압하지 못한 것들, 작품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주목한다. 이른바 '텍스트의 무의식'인 셈이다. 신체적 증상(symptom)들, 오한이나 발진, 식은 땀 같은 통증을 통해 의사가 병인(病因)을 추측하고 분석하듯, 독자와 비평가는 작가와 작품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 그것을 말하지 않는 방식 또한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다.



결정 지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2(Can't Be Decided, Can't Be Thrown Away #2)_Acrylic&Oil on Canvas_227×173cm_2015



결정 지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1 (Can't be Decided, Can't be Thrown Away #1)_Acrylic&Oil on Canvas_100×194cm_2015

그와 나는 얼핏 주제와 관련 없어 보이는 대화들을 통해 나는 작가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었다. 재미있는 지점은 작가 스스로 말하길 자신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화가이며 그림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신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화(發話)하는 작가는 아니라고 수줍게 고백하더라는 것이다. (오, 이런 젠장... 그림을 소장한 고객이나 미술관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 건 영업비밀입니다.) 박은하의 초기 작품들(2007~2009년)은 대중의 현대적 일상과 오브제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 〈플라나리아 오브제(Planarian-Object)〉¹들은 전기스탠드, 의자, 테이크아웃 컵, 상담실, 자동차 카페, 오피스 공간들이다. 이 일련의 작업들의 표제이기도 한 '플라나리아'는 크게 세 가지의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동동체로 무성·유성 생식을 하고, 재생력이 강하여 몸을 반토막내더라도 각기 다른 개체로 재생한다. 무엇보다 이 생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배설기관인 항문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생물은 먹고 쉰다. 식으로부터 항문까지 하나의 소화기관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통속(通俗)'이라 할 수 있다. 황지우의 네 번째 시집

『개는 속의 연꽃』 뒤표지에는 시인의 인상적인 말이 있다. “그대 몸속 한가운데에 내부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입에서 항문까지 그 꾸불꾸불한 길은 외부이다. 그러니까 삶은 거둬되는, 커다란 ‘뽕꾸’이다. 여기가 바로 바깥인데 왜 안나가지냐.” 세계의 순환원리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는 체제의 바깥을 상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닫힌 체제가 되었다. 이 시기 박은하가 보여주고 있는 작업 경향은 캔버스에 일상의 공간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시점은 어안렌즈를 통해 바라보듯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풍선처럼 과장되게 부풀려져 있다.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지만 낯선 공간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의 작품 속 주인공들처럼 고립되어 있다. 그 고립감은 호퍼처럼 외부로 표출될 수 없는, 다시 말해 항문조차 없는 고립감이지만, 외부와 연결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은 마블링을 통해 초현실적으로 묘사된다. 나는 이 마블링을 ‘아우라(aura)’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것 - 분출되거나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는 것 - 이 ‘연결’에 대한 열망의 표현인지, ‘잠금’된 상황 자체이거나 세상과의 연결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애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²

¹ Planarian - Object V_Oil on Canvas_72.7×60.6cm_2007, Planarian - The Guest III_Oil on Canvas_130×194cm_2007
² Planarian - The Guest IV_Oil on Canvas_73×121cm_2007, Caravan Cafe_Oil on Canvas_130×194cm_2007



〈결정 지을 수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벽화 (Wall Drawing with <Can't Be Decided Can't Be Thrown Away>)
_캔버스에 유채와 벽면 설치한 면천에 아크릴_캔버스 크기 183×274cm diptych_2015



폐쇄적 씨클(The Closing Circle)_Oil on Canvas_148×194cm_2015



부드러운 지면(Mellow Land)_Oil on Canvas_148×194cm_2015



장면3(Scene#3)_Single Channel Video_02'03" Loop_2015

3. 중요한 것은 희망을 배우는 것이다

(Es kommt darauf an, das Hoffen zu lernen).

마블링 스타일을 제외하고도 박은하의 작업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전시 공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일련의 〈Wall-Painting〉³ 시리즈에 이르면 마블링 기법을 통해 표현된 아우라는 담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처럼 잠금된 세계를 뚫고 나가려는 강한 열망의 징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은하의 작품들은 캔버스 내부에 갇혀 있길 원치 않는다는 듯 사각의 캔버스 ‘외부로 탈주(Get Away)’⁴를 통해 서로 끊임없이 매개(媒介)하고 연결되길 희망한다.

박은하가 입주해 있는 인천아트플랫폼을 방문했을 때, 화가의 작업실에 상당히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삶의 고단함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작가는 아직 읽지 못했다면서도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의 『희망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블로흐는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추구하려는 바를 ‘인간의 자연화’를 풍요롭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역사의 뿌리는 바로 인간이다. 그는 노동하고, 창조하며,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를 추월하지 않는가? 만약 인간이 자신을 파악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속에서 소외 혹은 외화(外化) 없는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유년기에 갈구했으며, 누구도 아직 실현하지 못한 무엇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향”이라고 말했다.

작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경우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제법 흡사한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년의 고통’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유년의 고통에만 천착하여 스스로 헤치고 나올 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고통을 오로지 자신만의 경험으로 내재화하여 타인의 고통은 자신에 비해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 타인(사회)의 고통에 둔감해진다.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마음 속에 타인이 없으며, 남을 품을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다. 그와 같은 지옥은 작가가 담아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 깊게 패인 골짜기에도 있고, 깨진 항아리에도 있고, 혼탁한 물결만이 흘러가는 쓰레기처럼 부유하는 강물의 물결 속에도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모두스 비벤디 -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에서 이렇게 말한다.

3 Wall Painting I_2007, 휘젓다(Stir)_Oil on Canvas_150×150cm_2008, 흐름(Stream)_Oil on Canvas_150×150cm/150×150cm(2pcs)_2008, Kwanhoon Gallery_2008, Wall Painting with [Byte Cellar_Oil on Canvas_Total 125×998cm(4pcs)_2008]

4 달리는 욕망의 주체들_Acrylic on Wall_세오갤러리_2010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Water Flows into the Low Place)_Oil on Canvas_148×194cm_2015

“살아 있는 사람들의 지옥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옥에서 살고 있고 함께 지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받아들이고 그 지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끊임없는 경각심이 필요하고 불안이 따르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것은, 즉 지옥의 한가운데서 지옥 속에 살지 않는 사람과 지옥이 아닌 것을 찾아내려 하고, 그것을 구별해 내어 지속시키고

그것들에 공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박은하의 작품들은 평온한가? 우리는 작품에서 어떤 병증(病症)을 예감하며, 통증을 감지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인물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하다. 마치 이성복의 시 〈그날〉의 한 구절처럼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던 것처럼...”. 박은하의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개인전에 나온 작품들⁵은 그런 세상에 대한 담담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 같다. 세상은 병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작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신체와 영혼에 깃든 시대의 통증⁶을 감지한다.

5 Bystander_Oil on Canvas_130×194cm_2010, Emergency Exit_Oil on Canvas_162×130cm_2009

6 집단적 기억의 주인공(Protagonist of Collective Memory)_Oil on Canvas_183×137cm_2014

박은하가 담아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지옥도(地獄圖)일지 모른다. 작가는 가로막히고 잠긴 공간과 공간을 서로 잇고, 고통스러운 열망과 환멸을 반복하는 작업들을 통해 정작 자신의 희망은 상처받지만, 다시 그 환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몸부림을 계속한다. “낮꿈을 꾸는 자가 일어서서 그 꿈의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창조해 낼 때 그 행위 속에서 희망은 존재한다”⁷ 블로흐의 말처럼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희망은 어디에도 없지만 “tamen(그럼에도 불구하고)”

✎

백승기 BAEK Seungkee

시발, 놈 : 인류의 시작 (Super Origin)

제 작 ㈜옛나인필름, 꾸러기스튜디오
감 독 백승기
주 연 손이용, 김보리
제작년도 2015년
러닝타임 70분

시놉시스

4만년 전 지구, 동쪽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신비로운 불빛이 땅으로 떨어지고 굉장한 폭발과 함께 대지가 크게 흔들린다. 그날 이후, 평야를 뛰어다니는 한 무리의 유인원들 사이로 유달리 털이 없고 다르게 생긴 한 동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있던 그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 머리를 맞고 뇌에 큰 충격을 받아 갑작스럽게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인류는 거대한 잠에서 깨어난다.



시발놈 스틸(low)



C급 무비가 여기 있네!

〈시발, 놈 : 인류의 시작〉 백승기 감독

글 이예지 / 사진 박광희

본격 C급 무비를 표방한 〈숫호구〉(2012)의 백승기 감독이 인류의 기원을 파헤치는 신작 〈시발, 놈 :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왔다. 주변 모습을 C급 유머 코드로 담아낸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스케일이 크다. 선사시대, 원숭이들 사이에 최초의 인간이 등장한 이야기를 그려낸 〈시발, 놈 : 인류의 시작〉은 “C급 무비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펼치는 C급 영화야말로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장르다. 저예산으로 과감하게 큰 스케일에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가 말하는 C급 무비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찍을 수 있는 영화. 〈시발, 놈 : 인류의 시작〉 촬영 전 중학교 미술교사를 그만두고 온전히 영화에 뛰어들 백승기 감독은 “판에 박힌 어른들만 봐온 아이들에게 꿈을 좇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의 꿈은 최상의 C급 무비를 만드는 것. “주성치, 찰리 채플린, 남기남 감독이 그랬듯 저예산으로도 자기 색깔을 내고 싶다. 꾸러기 스튜디오(백승기 감독이 설립한 제작사)의 영화가 한국영화의 다양한 색깔 중 하나가 되면 좋겠다. 또한 일반인도 부담 없이 영화를 만드는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



출처 씨네21

‘재기발랄 독립영화’로 레드카펫 밟다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C급’, ‘병맛코드’로 불리는 2류 문화를 영화에 녹여낸 자칭 ‘인천사나이’ 백승기(33) 감독. 인천을 배경으로 개성넘치는 주제를 영화에 담아내고 있어 요즘 가장 ‘핫’한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술을 전공한 백 감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영화를 찍고 있다.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한 적도 연기를 배운 적도 없지만 오직 영화를 찍고 싶다는 열망과 열정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학생 때는 친구들과 70만 원짜리 캠코더 한 대를 들고 유명 영화를 코믹하게 패러디물로 만들었다. 영화감독 팀 버튼의 〈가위손〉을 〈망치손〉으로, 〈은하철도 999〉는 동인천 지하철을 세트삼아 〈은하전철 999〉라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다빈치코드〉가 유명했을 때는 인천의 절을 돌며 〈달마도코드〉를 제작했다. 패기 넘치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당시 이 영상물들은 UCC가 인기를 끌면서 네이버 메인화면에 소개될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실험적인 동영상으로만 여겼지 영화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영화제에 문을 두드렸지만 고배를 들기 일쑤였다.

그래도 백 감독의 도전 정신은 멈추지 않았다. 영화로 열정을 펼치고자 동인천 삼치골목에 ‘꾸러기 스튜디오’를 열었고, 옥상영화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극장 CGV를 패러디해 멀티플렉스동네극장 ‘DGV’를 열어 동네 주민들을 위해 영화를 틀었다. 부모와 친구들의 걱정과 우려가 들려왔지만 누구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의 철학은 변함이 없었다.



백 감독의 이런 노력은 2012년 〈숫호구〉로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을 타면서 빛을 발했다. 영화 〈숫호구〉는 그가 영화를 만들려고 남겨둔 마지막 종잣돈 100만원과 그의 친구, 가족, 지역사회가 합심해 만든 작품이다. 배다리, 동인천, 신포동을 배경삼아 촬영하는 동안 부모님과 친구들은 배우로 출연했고 누구네 집 아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말에 동네 어른들은 밥을 사주고 든든한 응원군이 되었다. 스토리는 백 감독의 자전적인 내용이다. 30년간 살면서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본 육구불만 청년의 이야기를 감성코믹 패러디로 만든 작품이다. 이 영화로 그는 레드카펫을 밟은 영화감독의 반열에 올랐다.



영화 〈숫호구〉는 그가 영화감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작품이다. 1천 만 원을 투자받았고 그 돈으로 현재 새로운 영화를 제작 중이다. 새 영화는 원시인의 이야기를 다룬 〈시발, 놈 : 인류의 시작〉이다. 이 영화로 해외 로케이션을 다녀왔고 원시의 풍광을 담고 있는 굿업도에서 촬영도 마쳤다. 앞으로 인터스텔라 같은 우주영화도 만들고 싶고, 홍상수나 김기덕 감독처럼 세상에 메시지를 주는 감독도 되고 싶다. 12월 5일에는 미림극장에서 ‘인천국제비엔나소시지영화제’를 열고 저 예산으로 만든 재기발랄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백 감독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중2병’ 때문이었다고 여긴다. 철이 덜 들었고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사춘기 소년의 마음 때문이다. 영화라는 한길을 걸었던 백 감독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취업의 문턱에서 암울한 청년이 많은데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유형의 꿈을 만들며 자기의 꿈을 이루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외침이 어느때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출처 굿모닝 인천



〈시발, 놈: 인류의 시작〉일러스트



촬영 현장 사진

장비 부족해도 일상 소재로 촬영 “앞으로도 인천 무대로 찍을 것”

“누구나 감독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영화다.”

[경인일보·인천문화재단 공동기획]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감독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인 백승기(33·사진) 영화감독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영화에 대한 철학이다. 백 감독은 인천을 무대로 한 SF영화 〈숫호구〉(2012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식 초청작)의 감독이다.

그는 “누구나 일상에서 영화를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감상하며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많은 사람이 나의 작업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어 영화라는 예술을 생활 속에서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의 고향은 충북 괴산.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언제나 ‘인천 사나이’라고 소개한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인천 만석동에 정착한 이후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인천에서 나온 그에게 인천은 고향이나 다름없다.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술 교사라는 안정된 길을 갈 수도 있었던 그가 영화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난 2005년 친구 셋과 함께 동네 영화사 ‘꾸러기 스튜디오’를 차린 이유도 그런 철학을 실천하고 싶어서였다.

야심차게 영화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가 가진 것은 동인천역 인근에 있는 월세 15만원 짜리 사무실과 촬영 장비라곤 70만원 짜리 캠코더가 전부였다. 장비도 돈도 없었지만 재치있는 아이디어와 고향 인천이 있었기에 자신감은 넘쳤다. 그는 자신의 영화 철학처럼 가진 걸 최대한 활용해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영화 〈다빈치코드〉가 유행할 땐 인천의 사찰을 돌며 〈달마도코드〉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동인천역 주변에서는 그곳을 세트로 삼아 〈은하전철 999〉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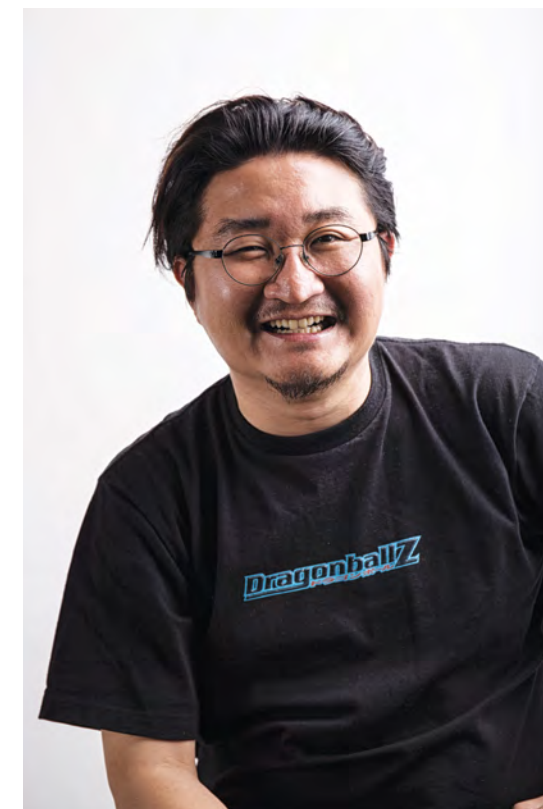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공개할 때마다 크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걸로 전부였다. 사람들은 그냥 재밌는 UCC 이상으로 봐주지 않았다. 각종 영화제에서는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고 아무도 영화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

김성호 경인일보 기자

그래도 백 감독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아예 자체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구멍가게를 고쳐 극장을 열어 작품을 내걸었다. 이런 그의 노력은 영화 〈숫호구〉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그동안 그를 지켜본 동네 분들이 영화 촬영 기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배우와 스태프들은 재능 기부로 영화에 참여했다. 그렇게 만든 영화가 〈숫호구〉였다.

백 감독은 “지금까지의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작품에도 고향 인천과 인천의 사람들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고향 인천에서의 도전을 많은 분께서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출처 경인일보



사야카 오히타 Sayaka OHATA

SPEECH BUBBLES

Sayaka Ohata (Japan) lives and works in Paris and Tokyo. She works on exhibitions, books, and performances. She graduated in media art at the Tama Art University in Tokyo (with Seiko Mikami and Yukiko Shikata) and studied Beaux-Arts (with Matthieu Laurette). Her work was exhibited in various group exhibitions in Europe and Asia. She had her work exhibited in a solo show in Taipei (2014). Sayaka Ohata was also an artist-in-residency in several places in France, South Korea, Taiwan and Thailand. She works together with Joseph Mayrhofer(Austria), forming Mayrhofer-Ohata, an artistic duo devoted to research on shaping and staging seeing, knowledge and communication. Mayrhofer-Ohata is deeply interested in questions related to space and otherness and spherical objects like balls are recurring elements in their work.

Social media have since the very beginning used sounds in their interfaces. Navigating on an app produces 'pops', posting 'shrings', and hitting the back button 'bloops'. The comic-strip onomatopoeias would have to be discussed, if I had have enough place here to outline an archeology of such sounds. The use of this kind of sounds is not a random fact. Onomatopoeias, within the context of the dehumanization of social-media interfaces, mimic the range of expression given by sound in real life communication.

The installation SPEECH BUBBLES(2015)(M-O), at the Incheon Art Plaform is indeed a 'pop-ing', 'blop-ing', 'bubble-ing' ensemble. Three video monitors screen the image of a close-up on lipsticked woman mouths, clicking their tongue. Those click



Drawing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Exhibition Detail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sounds melt with the one produced by a ping-pong ball machine that sends balls all over the exhibition space.

Marks on the floor evoke a table tennis. But those lines are not limits, they are not supposed to mark out a border between the visitor and the art work. Quite the opposite, the artists invites visitors to handle rackets and take part in the game. This 'experimental space of dialogues', as Sayaka Ohata calls it, proposes a reflection on language that exceed the dialectic between mediated human relationships and real life dialogue. Wittgenstein wrote once that "the speaking of language is part of an activity, or a form of life" and it is indeed life that is at stake here. The call for the spectator's participation gives a real social aspect to this piece or as Sayaka Ohata (in coll. with J. Mayrhofer) puts it : "coming into the world is like coming into language".

SPEECH BUBBLES take the shape of a game, a game that everyone is invited to play. This game is a didactic one, an amusing way to learn, using simple elements, mixing them up like

a student discovering a new language with words. It highlights the social function of language and this is why it evokes the digitalization of human exchanges. But it is also as a structural metaphor of the "game of language" that is a fair well known game to this polyglot artists.

The many physical exchanges taking place when the piece is activated, is of course a higher evocation of the language as crafting the world, the noosphere of game, of language, of exchanges.

Pierre Jacques Pernuit



Exhibition View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말풍선

사야카 오히타는 파리와 도쿄를 오가며 전시, 출판, 그리고 행위예술을 넘나드는 작업을 수행한다. 타마미술대학에서 세이코 미카미와 유키코 시카타와 함께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고 프랑스에선 마티유 로레트(Matthieu Laurette)와 함께 미술(Beaux-Arts)을 공부했다. 유럽과 아시아의 다양한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한 바 있고 2014년 대만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프랑스, 한국, 대만, 태국 등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했다. 조세프 메이호퍼(오스트리아)와 함께 메이호퍼-오히타라는 예술가 듀오(이하 M-O)를 이룬 뒤엔 시각적인 것과 사람들의 지식 및 소통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무대에 올리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M-O는 공간과 타인성, 그리고 공과 같은 구체(球體)에 질문을 던지며 이 소재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작업에 등장한다.

소셜 미디어는 첫 등장부터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소리를 사용하곤 했다. 예컨대, 앱을 둘러볼 때면 ‘팝(pops)’, 포스팅할 땐 ‘쉬릭

(shrings)’, 되돌아가는 버튼을 누르면 ‘퐁(bloops)’ 소리를 내는 음향 효과를 덧입힌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소리들이 과거에서부터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지면이 내게 있었다면 나는 이 만화적인 의성어들에 대해 논의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음향을 사용하는 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 인터페이스의 탈인간성이란 맥락에서 볼 때, 의성어들은 현실에 실재하는 소통에 근거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훑내낸 소리들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설치된 ‘말풍선’(2015), (M-O)은 그야말로 ‘퐁퐁(pop-ing)’, ‘퐁퐁(blop-ing)’, ‘부글부글(bubbl-ing)의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세 개의 모니터들은 립스틱을 바른 여성의 입 영상을 송출한다. 이 입들은 계속해서 툭툭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소리들은 전시 공간 사방으로 공을 던져대는 탁구머신 소리와 뒤섞인다.



Exhibition View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바닥의 선들은 탁구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선들은 한계를 짓는 선이 아니며 관객과 작품의 경계를 가르는 선도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으로, 예술가는 관객이 라켓을 잡아 게임에 참여하게끔 초대한다. 사야카 오히타가 일컬은 이 ‘실험적인 대화의 공간’은 현실의 대화를 넘어선 언어, 인간 관계를 중재하는 변증방식으로서의 언어를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언어를 반추해 보기를 제안한다.

언젠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발화하는 것은 행위의 일부이거나 삶의 한 양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삶은 현재 그야말로 위태롭다. 관객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이 작품에 실존적인 사회성을 부여하고 혹은 사야카 오히타가 메이호퍼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말했듯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언어가 되는 것과도 같다”는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말풍선〉은 게임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 게임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이 게임은 교훈성을 띠고 있지만, 단어들을 조합해가며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는 학생처럼, 간단한 요소들을 이용해 즐거운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 이 게임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며 이 점이 곧 디지털화된 인간들 간의 교류를 환기시키는 이유이다. 동시에 구조적인 메타포로서의 이 ‘언어의 게임’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가들 예겐 꽤나 잘 알려진 게임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진행될 때면 수없이 많은 물리적인 교류들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게임의, 언어의, 그리고 교류의 정신계를, 그리고 세계를 만드는 언어가 수준 높은 방식으로 환기된다.

피에르 자크 페르뉴

Created and installed in response to the environment of the residency at the Incheon Art Platform, <SPEECH BUBBLES / 2015> is one of Sayaka Ohata's (M-O) recent works which deals with language and its contemporary uses. It is well known that 'language' derives etymologically from the latin word 'lingua' which means 'tongue' and the tongue is without any doubt one of the most erotic organs. Three installed videos with click of tongue - sounds from Korean women wearing red lipstick and a ping-pong machine which throws out permanently ping-pong balls like speech-bubbles, open an universe that reminds all the language forms like 'news feeds', 'timeline', 'groups', 'notifications' and so on and so forth which have profoundly changed the way we interact with the world. During exhibition, the audience was invited to become, by playing pingpong, participants and it is not so fare to call the installation a language-game : we experience the desire of the artist to move viewers out of the role of passive observers into the role of producers and the white ping-pong balls provide a metaphorical depository of the individual voice of the player. In that sense, the installation at the A Gallery of IAP created a space for social dialogue and by playing together, the participants created groups of shared interests.

J.G. Hofermayr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공간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설치한 <말풍선>(2015)은 사야카 오하타(M-O)의 최근 작품 중 하나로 언어와 그의 동시대적 쓰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언어'는 어원적으로 '혀'를 의미하는 라틴어 '링구아 lingua'에서 왔으며 그 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예로직한 기관이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한국 여성들이 혀를 툅 툅 거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세 개의 설치 비디오들은 말풍선처럼 끊임 없이 탁구공을 던져대는 핑퐁머신 소리와 함께, '뉴스피드', '타임라인', '그룹', '안내'같은 온갖 언어의 형태를 환기시킨다. 이 언어들은 우리가 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을 엄청나게 바꿔놓은 바로 그 언어들이다. 인천에서의 2015년 레지던스 기간 중 전시된 사야카 오하타의 작품 속에서 관객들은 탁구를 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작품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그러니 이 설치 작품을 언어 게임이라고만 부르는 것은 그다지 정당한 일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관객들을 수동적인 관찰자의 역할에서 제작자로 만드는 예술가의 욕망을 경험한다. 하얀 탁구공들은 참가자들 각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은유적인 보관소가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천아트플랫폼 A동에서의 설치 작업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냈고, 참가자들은 함께 즐기므로써 공동의 관심사를 지닌 하나의 집단이 되었다. ♡

J.G. 호퍼마이어



Exhibition View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Exhibition View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안토니 워드 Antony WARD



Aftermath of the Platform Salon Birthday Party in Studio 14 on the 26th of March_2015



An Ear of Corn_Lollipops_Dimension Variable_2015

My practice consists of geometrical compositions painted or printed and cut into vinyl. These visual projects, which spread over flat surfaces in exhibition spaces, are a way for me to develop my research in confronting figure and space. It is also a way for me to question articulations between a pictorial grammar and vocabulary with the 'already there' of the exhibiting environment: for example the architectural and functional.

기하학적 요소들로 이루어진 나의 작업은 회화 작품과 인쇄물, 그리고 잘라 낸 시트지들로 구성된다. 이 시각적인 프로젝트들은 전시 공간의 평평한 표면들을 뒤덮어 형상과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회화적 문법과 어휘 사이의 표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때, '이미 존재하는' 전시 환경, 말하자면 해당 공간의 건축적이고 기능적인 면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던질 수 있다.

Antony WARD

안토니 워드



Archikids Workshop at IAP_Geodesic dome building during the second session



Installation of <Nurungji> in the rest area of the Incheon Open Port Modern Architecture Museum_May 2015



Installation of <Nurungji> in the rest area of the Incheon Open Port Modern Architecture Museum_May 2015



누룽지_유리 구조물에 시트지 부착_가변크기_2015 (설치장소 : 인천근대건축전시관 옆 쉼터)
Nurungji_Vinyl on Glass Structure_Dimension Variable_2015 (Installation site : Rest Area in Incheon Open Port Modern Architect Museum)

안토니 위드가 인천아트플랫폼 인근의 인천근대건축전시관에 설치한 작품 <누룽지(Nurungji)>는 인천아트플랫폼 주변에서 관찰되는 풍경, 건축물, 깃발 등 외부 요소로부터 여러 가지 패턴을 추출하여 CMKY 색조를 적용하여 문양을 창조하고 이를 시트지로 출력하여 인천근대 건축전시관의 유리 구조물에 부착한 것이다.

작품 제목 '누룽지'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원래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부대찌개' (햄 등의 미군부대에서 나온 음식을 섞어 끓인 찌개)로 할까 했었다. 그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시각적이고 질감적인 요소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그것을 함께 섞어 놓는 작가의 작업 방식이 부대찌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이 후반부에 이르면서 작가는 작품의 제목을 '누룽지'로 바꾸기로 한다. 이유는 작가가 부대찌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던 반면, 인천아트플랫폼에 머무는 동안 누룽지를 자주 먹어 누룽지의 특성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누룽지와 자신의 작품 제작 방식 사이에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일단 작품이 전시관을 다 돌아보고 가게되는 공간의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냄비 바닥에 붙어 있는 누룽지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작품이 작가의 입주 기간 후반부에 제작되었다는 것 역시 작품 제목으로 누룽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한 이유이다. 입주기간을 지내고 남긴 작품을 밥의 마지막 부분인 '누룽지'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The idea with the title 'Nurungji' is to add various points of interpretation in my work. Originally I wanted to name the work after another Korean soup: 'Budae Jjigae' - the soup composed of leftovers from US military surplus such as Spam. Why I wanted to use that title in the beginning was because I found there was a similarity between the composition of 'Budae Jjigae' and my way of working in this project: taking visual and textual elements from various random sources and placing them together on a chosen structure. But in the end I opted for Nurungji because I never got round to tasting Budae Jjigae. So, I preferred using Nurungji instead, which I actually ate that soup quite a lot during my stay at Incheon Art Platform. Even with Nurungji I still feel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how this soup is made and my way of working for this project in general. Another element is where the structure is placed: at the end of the museum's visit - when the visitors finish their visit of the Architecture Museum, they have to walk round or through the structure so it is some kind of last stop in the visit - 'le fond de la casserole' moment of the visit if you want. Also, chronologically the installation was made at the end of my residency so the title also references to this. Metaphorically it is the Nurungji of my stay at Incheon Art Platform. 🍲

에제 일디림 Ece YILDIRIM

인천스타그램 Incheonstagram

Sharing is the best thing in this world. If you share your experiences, you give memories a chance to grow and inspire other people. My dear friend and artist Ece, has introduced us a very beautiful project that she's created during her residency in Incheon. Once we went on a different journey in Korea with her but now she has added different locations to that journey. Which is pretty amazing... She carried the culture in Incheon to us from her point of view. With a different Korean culture perspective she showed us the cultural diversity, history and exchange. And she named it <Incheonstagram>. She combines the culture and technology together and created a different point of view about her residency experiences. My dear friend Ece, who has the best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e, I wish you a successful future following with your amazing project Incheonstagram.
(www.instagram.com/incheonstagram)

BEGÜM KAYTAN



Incheonsnap_023

공유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이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일은 당신이 가진 기억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자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나의 절친한 친구이자 예술가인 에제는 그녀가 인천에서 레지던시에 참가하며 완성한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었다. 일전에 우리는 그녀와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작업들이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장소들이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에제는 우리에게 또다른 장소를 여행하도록 해 주었다. 무척이나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녀의 관점으로 본 인천의 문화였다. 한국문화를 보는 남다른 시선으로 그녀는 우리에게 문화적 다양성, 역사, 교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인천스타그램>이라 이름 붙였다. 문화와 기술을 접목시키고 레지던시 경험에 대한 남다른 관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문화에 대해 굉장한 지식을 가진 친애하는 에제, 놀라운 프로젝트인 인천스타그램과 함께 성공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바란다.
(www.instagram.com/incheonstagram)

베굼 카이탄



Incheonsnap_041



Incheonsnap_045



Incheonsnap_152



Incheonsnap_058



Incheonsnap_141



Incheonsnap_064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

홍경한 미술평론가

1. 인간이 표현의 방법을 터득한 이후 줄곧 되물을 했던 것들 중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나(ego)’에 대한 탐미였다.

나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은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는 한 사라지지 않을 영원성의 축이며, 무수히 억압하고 옥죄는 현실적인 것들과 적당히 유지해야할 관계, 변화하려는 욕구에 대한 욕망, 작품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의 총체라 해도 그르지 않다.

그렇다면 나를 포괄하는 존재란 무엇에 의해 증명되며, 어떤 조타에 의해 유속을 달리하곤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하여 그것이 실존과 무관한 것은 아니요, 시야에 잔상이 맺는다하여 그것이 반드시 존재성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건 ‘나’의 사유 속에서만이 선명하게 그려질 수 있을 뿐이다. 즉 사유하는 그 순간만이 나의 존재를 종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염지희의 작업도 동일한 맥락을 따른다.

사실 내 속의 모든 것을 꼬집어낸다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나’라는 대명사는 곧 사유와 등치를 이룬다. 시각예술에선 사유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가시적 양태, 다시 말해 ‘형상’이 수반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그림 속 형상과 개념은 ‘나’와 동시에 수용되며, 이는 염지희의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된다.

그의 그림들을 보면 사유의 측면과 사건의 관점이 교차되고, 실재와 언어가 공존한다. 한편으로 각각의 역할에 충실한 재현성을 띠는 누군가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서성댄다. 그것들은 분열된 내적, 비판적 타자로서 중립적-중성적인 태도로 접근하거나 ‘존재’에 대한 시선이 라는 일관된 주제 아래 화면을 배회하는 유형학적 모습을 드러내며 콜라주로 인한 실제적 허구-구성적 변안에 머물기에 건조하고 차가운 외상(外像)의 언저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흔적들에는 삶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온기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어느 정도 간극을 유지한 채 염지희 작업의 근간을 이룬다.

그의 예술을 구체화하는 여러 알고리즘(algorithm)은 히스테리, 불안, 그로테스크, 허무, 죽음, 두려움 등이다. 괴팍한 모습을 한 등장인물들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히치콕의 <새>나 이브 끌랭의 퍼포먼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 만큼 다소 염세적¹⁾이기까지 하다. 일례로 그의 그림에 자주 모습을 비추는 사슴과 같은 연약한 초식동물들은 작가 내면에 드리운 낙약함과 어두움을 가리킨다. 한 거울에 서 있는 것 마냥 앙상한 나무들은 나에 대한 나 자신의 투영이며, 넓은 여백 안에 자릴 잡고 있는 질서 속 무질서는 불안을 상키게 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특히 <복합적 판타지-1(Complex Fantasy-1)>(2010)을 비롯해 근작에 이르기까지 그의 그림에서 자주 출몰하는 까마귀는 불안감의 소환이자 기시적 단초로 묘사된다. 물론 동물들 못지않게 주목을 끄는 여러 인물들은 나와 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찢어져 나뉘거나 갈라짐을 상징하는 언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다분히 호환적이며 상호적, 유기적이다. 흡사 염지희 ‘감독’의 ‘주관적 다큐멘터리’로의 확장을 도모하듯 서로 간 낮고도 진득하게 호흡하면서 객관적 기록(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의 예술언어를 생성시키는 주요한 분동(分銅)으로 자리한다. 당연히 그 분동의 무게는 나를 중심으로 한 무게-실존에 대한 끝없는 확인에 있으며, 그에게 그림은 곧 하나의 현실이자 좌절과 절망, 불촉지연의 조마조마함과 생의 의미가 교차하는 복잡다단한 ‘무대’²⁾이다.

2. 작가는 이 불완전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무대에서 자기 내부에 뿌리 튼 절망과 히스테리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한 자기성찰을 투영한다.

마치 일기마냥 일련의 전개를 통해 치유의 문제로 다가선다. 이는 ‘나’에 의해 촉발되어 우리의 해석을 담보하고, 그 해석의 자유로움으로 회귀하는 수순을 밟으며, 길고 긴 시간의 터널을 헤쳐해 처음으로 귀환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필자는 이를 ‘비인위적 모놀로그



Complex Fantasy1_Collage and Pencil, Charcoal, Iron Powder on Paper_75×105cm_2010

1 작가는 이와 관련해 “세계는 언어로 구성되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은 언어의 바깥을 경험할 수 없다는 허무함과 해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듯한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작품 전반에 풍기는 멜랑콜리한 분위기는 이러한 허무주의적인 상념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작가노트에 적고 있다.

2 작가는 이와 관련해 “본인의 작품 속에서 연극적인 무대는 교란되고 위태로우며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다. 그곳에 콜라주된 인물들은 죽음을 모르는 역설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상징적인 죽을 앞에서 죽지도 살지도 않은 기괴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분열과 해방의 모호한 경계에서 주체성의 상실과 획득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인 형상의 항상성 안에서 주체성은 존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Monologue)’라고 명명하는 게 적합하다고 본다.

비인위적 모놀로그(Monologue). 작가는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체로써의 심적 유재(遺在)를 부여잡은 채 새로운 조형언어를 만들고 있다. 앞서 거론한 히스테리나 불안과 같은 여러 키워드는 은유적인 동시에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며, 작품이 담고 있는 작가 개인의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동시대와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면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발현되는지를 가능하게 하는 증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표의 첫 번째 발화가 색(色)이다.

염지희는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을 가리키는 색의 개념에 충실한 편이 아니다. 굳이 색이라면 무채색 위주에 머문다. 그에게 색은 일정한 구조의 구성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색 자체가 본래적으로 구조를 함축한다. 또한 그에게 색은 구체적인 내용을 드

러내지 않지만 정신세계를 반영하는 추상적인 암호이다. 넓은 공간, 건조한 색을 통해 비극적 상황과 불안감, 두려움과 같은 주제들을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표현상 ‘콜라주’ 방식도 그의 그림에서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염지희는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빠른 작업을 위해 연필과 콩테를 주로 사용하며, 패브릭이나 종이, 캔버스 내 상주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을 콜라주로 처리한다. 그가 지금은 잘 활용되지 않는 콜라주를 표현 방식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 형상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을 직조하면서 이야기를 꾸미려는 의도에 따른다. 그렇기에 그의 그림들은 다양한 이야기, 내레이션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다변적이다. 어느 한 가지 정답만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에 다층적 결과마저 기대되는 흥미로움을 안고 있다.

새로움에 관한 또 하나는 해석의 여유로움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



Ophelia's Chess Board_Collage and Pencil, Iron Powder on Paper_112.1×162.2cm_2012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45×45cm_2015

은 동시상영을 넘어 영화의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상영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체사레 파베세(Cesare Pavese)의 시(詩)를 인용한 작품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2015)처럼 화면 중앙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구성의 작품도 많으나, 〈오펔리아의 체스보드(Ophelia's Chess Board)〉(2012)에서마냥 복잡하고 나열적인 구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작품들을 보면 관객의 다수는 해석이 모호한, 느껴지게 하는 장면들 탓에 혼란을 느끼는 반면 되레 이 지점에서 해석은 빛을 발한다.³ 이를 현상학(phenomenology)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작품들에선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요한 람베르트(Johann Heinrich Lambert)가 주창한 본체의 현상을 연구하는 수준에서 작업의 연속성이 있음을 읽는다. 형식면에서는 주관적 구성주의를 통한 ‘객관으로의 전향(轉向)’을 무의식 아래 의도하고 있음도 발견한다.⁴

그럼에도 그의 작업에선 선형적 현상학, 다시 말해 인식론적 시야에서 의식과 대상과의 관계를 넘어선, ‘자아의 의식’이라는 좁은 범위의 프레임에서 탈피해 물질과 생명의 원형적 질서를 탐미하고 존재론적 시야로의 스펙트럼과 삶-배경, 기억-환류 등을 염두에 둔 인간과 사회, 나와 세계라는 형이상학적 존재의 구조, 직접적으로 현존의 논리를 읊는 과정이 강하게 엿보인다. 필자는 이것이 바로 그의 작업을 정의하는 핵심이라 여긴다.

3. 오늘날 작가 염지희의 작품들은 단순한 재현(再現)을 지나 하나의 관념적 공간, 공감 가능한 인식공간으로의 전환적 매개(媒介)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그것은 어느 면에선 단순한 정지가 아닌 풍부한 상상력을 동반하는 도상학적 개념을 지니거나, 입체적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분자적 관점

3 이와 같은 필자의 시선은 작가의 발언에서 확실히 뒷받침된다. 그는 “허무함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나의 모순적인 태도는 흑백의 콜라주와 복합적인 구성으로 시각 언어에 해석이 지연되는 지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4 이는 기실 독일 관념론자인 게오르크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 언급한 감각적 확실성에서 출발해 후설(Edmund Husserl)의 선형적 현상학, 경험치 못한 세계로부터 이어진 순수의식의 범위로 확대되어 절대지(絶對知)에 이르기까지 의식 발전과정의 서술과 맞닿는다.



거리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물어뜯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다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112.1×162.2cm_2015



당신처럼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머나먼 언젠가 당신은 새벽이었다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112.1×162.2cm_2015



당신의 가슴에는 침묵이 있고, 집어삼킨 말들이 있다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112.1×112.1cm_2015

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여기까진 예술에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진 이라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다루는 소재들이 아주 정적으로, 내면에서 총위로 승화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즉, 동물과 콜라주 행위 인물을 비롯한 기하학적 도상 등, 다양한 상징체가 부유하지만 내적 상태를 투각해 자신만의 언어를 창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흡사 작은 퍼즐들이 집합을 이뤄내듯 가시적 관점에서 볼 때 파편적인, 그리고 그 표면에 부유하는 표현형식의 어울림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그 속엔 불완전한 속성을 지닌 대상(그것이 작가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기초로 한 우리일 수도 있다.)의 기저에 놓인 상황적 푼크툼(punctum)⁵적 요소들이 나지막이 들어서 있다. 특히 쉬르리얼에 가까운 듯하면서도 낭만적인 성격마저 엿보이는 조형성은 위에서 언급한 상징체들과 교합하며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달리 말해 염지희의 언어이며 때론 절망적 충동에 가까운 은유적 실체이다.

이처럼 그의 작품들은 형식적인 부분에 많은 눈길을 할애 받으나 자

유로운 타자의 상상이 이입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건 '상황(situation)'이다. 우리가 그의 여러 연작에서 우선적으로 인지 가능한 것은 정적이고 가끔은 지나치게 고요하여 역동성과는 거리를 두는, 즉 비극의 가장 감동적인 구성요소의 하나인 아나그노리시스(Anagnorisis)와는 다소 다른 연극적 '상황'이라는 것이다.(필자는 이를 '순간적 자연의 연속성'이라 부른다.)

이는 정지된 듯 순간적 자연에 몰입된 인물들, 스냅처럼 멈춰서 있는 경관들, 화면 곳곳에 도포되어 있는 인물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작가 내면에 놓인 피안의 틈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엔 일정한 흐름이 깃들어 있다. 읽기 쉽지 않음이 사실이나 느린 유속의 순환이 놓여 있고, 작가적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그것의 정체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잃어버린 사유요, 내면에 투각(透刻)되어 빛어진 삶의 단상들 혹은 존재론적 고찰, 그 자체이다.

염지희의 작품들이 특별한 색깔을 낼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간 정신작용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그것을 명징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나조차도 그와의 대화를 거치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거나 일부를 전부인 양 예단했을 것이 자명하다. 작가는 그의 모든 그림 속 장치들을 '교란'이라고 칭하는데 필자도 동의한다.) 흥

미롭게도 이것이 곧 그의 작품들을 그 이상의 매체로 끌어 올리는 고유한 철학적 근간이 됨은 부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 깊이를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여백은 제공한다. 조용하면서도 나지막한, 그러나 내면의 울림이 작지 않은 일종의 공명을 전달한다. 아무 생각 없이 다가서 마주할 지라도 그의 작업 속엔 그 만의 일렁임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 커다란 충격을 준다거나 시각적 강렬함은 나타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정신적,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신경증으로부터 빛어진 특유의 파동을 감지하는 것, 이것이 그의 작품에 대해 공명을 언급하는 이유로 아쉬움이 없다.

어쩌면 그건 작가적 삶을 반추하고 현실을 포겐, 실재자(實在者)로써 겪어야 하는 고독하고 힘든 여정을 보다 진하게 담고 있기 때문이며, 작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뇌와 불투명한 이중고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는 인생의 여정과 애환이 처마 아래 어둠처럼 깃들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존재자인 한에서의 존재자에 대한 원리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즉석에서 생성되는 혹은 연의 세세한 스킴마냥 마음 속 생채기, 뚜렷한 대상을 매개로 막연하거나 미완성 상태로 남은 감정에 형을 부여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5 푼크툼(punctum)은 철학자 롤랑바르트가 마지막 저서 『카메라 루시다』에서 언급한 것으로 확 찌르는 듯 강렬하게 다가오는 어떤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염지희의 작업에서의 푼크툼은 잔잔하다는 게 특징이다.



희망은 비틀리고 당신을 기다리며 부른다
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112.1×112.1cm_2015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지희의 작품은 개인사와 사회사가 맞물려 있기에 유독 시선을 끈다.

그 끝이 언젠가 비워지고 또 비워져 텅 빈 그릇만이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일 수도, 존재자가 존재자인 한에서 갖는 공통된 존재는 은폐되고 존재에의 물음은 잊히는 것에 대한 공명의 수단으로 예술일 수도 있다. 다만 중요한 건 그의 모든 표현은 나와 관계없는 듯싶지만 결국 나와 관계 깊은 곳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이고, 그것은 때로 관조적이고 망루에 선 듯한 여운도 있지만 자신이 하나의 사변적 시간과 물리적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변화하는 어떤 촉매에 능동적으로 다가서 발화와 산출을 거듭하며 파국을 향해 줄달음치는 내적 상황, 우리 내면의 깊은 무언가에 등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그가 만들어낸 화면은 타자와 화자 간 계층 없는 오감이 교차하는 장소이자, 실상에 존재하는 자신을 비롯한 인식으로서의 공간이며 연필과 콜라주로 응집한 다양한 흔적들, 이야기들은 작가 마음의

대리로 자리한다. 그곳에서 우린 지각하는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관념과 이성, 판단과 가치관을 함축한 '사유'라는 대화를 만나고, 늘 되묻고 부딪히는 자문의 틀에 갇힌 우리네 마음을 비시와 같은 인간 삶의 여정에 이입시킨 채 욕망과 욕구를 비롯한 다양한 현실적인 것들, 이상화된곤 해도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는 조건들과 조우한다. 작가는 이를 엉뚱한 인물들과 낯설고도 친숙한 풍경이라는 상징을 통해 역설적으로 전환시켜 놓고 있다. 비록 강요는 하지 않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약간의 주지는 가능한 서사를 함유하고 있으며 싫든 좋든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번뇌와 불투명한 고뇌에 노출된 채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가는 인간들의 애환이 처마 아래 어둠처럼 깃들여 있다. 따라서 그의 그림 속 내레이션은 작가의 것이지만 실상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사연에 얽힌 정신적 외상, 죽음으로써의 탄생, 날카로운 고통이 되곤 하는 새벽의 기상, 잠간의 행복과 돌아갈 수 없는 깨어남의 찌꺼기...⁶ 죽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자지 않고 귀머거리처럼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⁷, 그게 어디 특정인의 몫인가. 아니니까. ✎

6 체사레 파베세 『공상의 끝』 일부 인용

7 체사레 파베세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라』 일부 인용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_Collage and Pencil, Stone Powder on Fabric_53×45cm_2015

위영일 WEE Young-il

회화의 Gamification

– 위영일의 Anonymous Color

정수경 미술학박사, 인천카톨릭대 교수

최근 위영일 작가의 〈익명의 컬러〉전을 보면서 개인전이 아닌 여러 작가들의 그룹전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원, 삼각형, 비정형의 프레임에 어디서 본 것만 같은 친숙한 화법들이 한 화면에 등장하는 가 하면, 전시된 작품들의 색채와 표현양식, 주제도 일관되지 않아 전시를 보는 내내 마치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듯 했다.

전시장 초입에 자리한 주사위 판과 마치 암호처럼 나열되어 있는 수

열들 그리고 작업 시작에 앞서 행해지는 한 판의 게임과 같은 행위가 담긴 동영상에 마주하게 되면서 비로소 작가 위영일이 설정한 게임화된 회화세계 안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작업에 앞서 설정된 룰에 따라 작품을 그려나가며 작가 자신의 색을 철저히 지워나가는 위영일의 작업은 회화작업이 작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규칙에 따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알레아토릭 페인팅 그룹1_인천아트플랫폼 B동전시장_2016



〈수(數)를 읽다〉 전시전경_인천아트플랫폼 B동전시장_2016

Aleatorik Painting : 고정관념 흔들기

위영일의 작업은 기존의 체계를 흔드는 회화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회화작업은 자신이 설정한 작업의 틀로 만들어진 총 36개의 경우의 수의 조합에 따라 진행된다. 작업 스타일은 전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조건과 규칙에 따르며 작가 개인의 작업 성향이 반영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된다. 주사위를 던져 얻어낸 수열을 분석하며 작업 과정을 구상하고 표현법과 전달할 메시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풀이’ 과정을 거쳐 그가 작업 시 참고했다는 작가들의 사고와 표현양식에 따라 분석적으로 화면을 구성해간다. 알레아토릭 페인팅 프로젝트(Aleatorik painting project)로 명명한 위영일의 작업은 이렇게 우연의 결과로 얻어진 데이터에 정해진 틀에 따른 작가의 사색을 더해 완성된다.

“미니멀리즘 조각에 연극성이 있다면 나의 회화에는 연가성이 있다”고 언급했듯이 작가 위영일은 다양한 역을 소화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처럼 자신이 영향을 받은 화가들의 표현양식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옮기는 수고를 감내한다. 그의 알레아토릭 페인팅 매뉴얼에 등장하는 사실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추상, 뉴페인팅, 팝아트는 대부분 미술사에서 익히 들어 친숙한 미술사조들이다. 그러나 정작 그 양식을 표현해냄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와 테크닉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는 각 경향의 작품들을 매우 분석적인 시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의 매뉴얼에는 미술의 역사에서 이어져 온 새로운, 혹은 변하지 않는 팩트들이 담겨있다. 즉 그 표현양식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리는 것은 결국 캔버스 표면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물감을 쌓아올리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위영일은 회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기 위해 새롭게 짜인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설정에 따라 그리는 작업방식을 제시하였다. 제한된 창작 환경에서 자신의 색깔을 지우고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의 또 다른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의 작업과정에는 본능에 따라 표현하고픈 욕망과 그 욕망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 동시에 묻어나 있다. 작가는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완성한 작품들을 〈들러리들〉이라 명명하고 알레아토릭 페인팅 프로젝트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써 전시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주관이 표현된 작품들을 시스템화 된 규칙에 따라 완성된 작품들의 보조수단으로 설정한 것 역시 회화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작가의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회화, 행위의 개입인가? 관점의 제시인가?

위영일의 근작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들은 예술에 대한 매우 원초적인 것들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작가는 누구인가?’, ‘작품

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 만든 작품인가?', '작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험사리 입을 떼기 어려워진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작가가 직접 작품을 그리는 행위로 성립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작업의 조력자들을 고스트페인터라는 이름으로 전시회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작업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관람객들의 행위를 개입시켜 작가로 임명(?)하고 계약 절차에 따라 작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이양하는 퍼포먼스를 펼쳐 보이며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흔들어놓고 있다. 거대한 스퀘어를 6명의 참가자가 동시에 들었다 내리면서 형성된 스트로크로 인해 작가 소유였던 작품이 퍼포먼스 참여자들에게 이양된다는 설정은 작가의 그리는 행위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로 소유권 이양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작품을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작품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퍼포먼스 참여자들의 반응을 통해 작가는 예술작품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의 작업은 우리가 미술사에서 회화에 대해 규정해 왔고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총체적 회의이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위영일의 작업세계는 기존의 체계와 다른 설정 속에서 펼쳐지는 예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미술사의 오랜 흐름 역시 하나의 설정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 안에서 진행된 작품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그의 작업은 미술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작가들의 작품분석과 시대에 따른 양식의 설정과 분류 그리고 그



2-5-5-2-5-1(부분도)



2-5-5-2-5-1_변형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_122x244cm_2015



4-4-4-6-2-3_캔버스 위에 수성페인트, 실크잉크, 아크릴 스프레이_224x194cm_2014



M-Squeeze-Machine_철, 알루미늄, 와이어, 유니트, 고리, 스프링, 고무, 아크릴보드, 아크릴, 실크스크린_180×412×25c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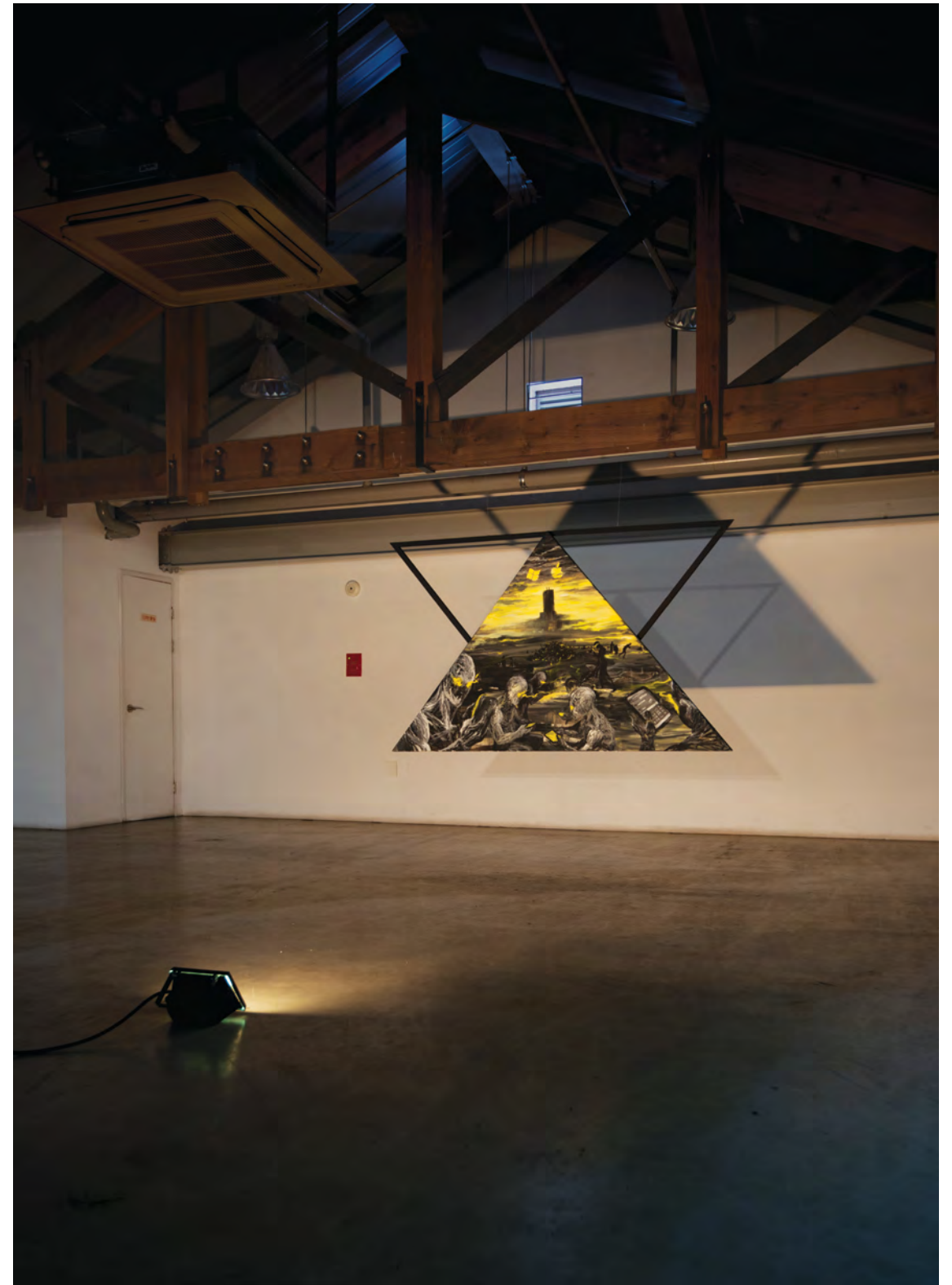
M-Squeeze-Machine(부분도)

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위영일의 회화는 주사위를 던져 얻어낸 우연의 수열과 그에 대응하는 조건들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게임이다.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주어진 설정 속에서 완성되는 그의 작업방식은 미술사의 대표적인 표현양식들을 이용해 자신만의 회화를 완성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회화 어플리케이션 같기도 하다. 자의적인 해석과 표현이 가미될 수밖에 없어 더욱 흥미롭게 게임화된 회화의 장에서 어느덧 우리는 익명의 작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의 진정한 역할은 작업의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회화는 게임이다.
게임은 설정이다.
설정 = 관점이다.
관점은 세상과 소통하는 작가의 눈이다...
그것이 회화이다.

익명의 컬러로 제시된 위영일의 작품들이 말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6-3-5-2-6-2_나무, 변형 패넬 위에 오일, 오일바_122×180c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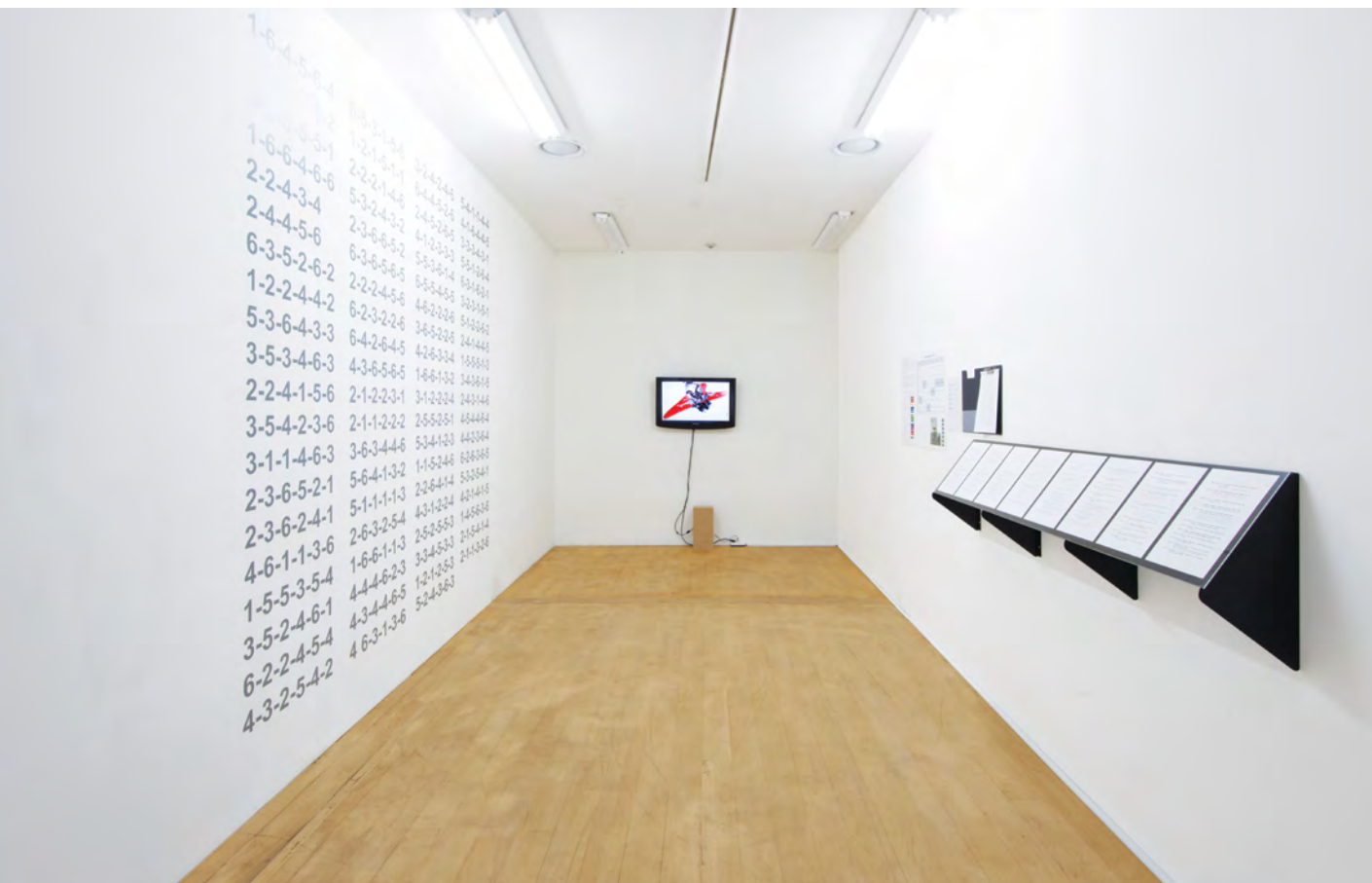
Aleatorik painting manual

	1. Subject	2. Frame	3. Style	4. Background	5. Mid layer	6. Top layer
1	Figure	Circle	Realism	Red color series	Red color series	Red color series
2	Landscape	Ellipse	Impressionism	Yellow color series	Yellow color series	Yellow color series
3	Still life	Triangle	Expressionism	Blue color series	Blue color series	Blue color series
4	Desire	Quadrangle	Abstractionism	Green color series	Green color series	Green color series
5	Abstract	Polygon (random choice above pentagon)	New painting	Mid color series (brown, orange, violet, etc)	Mid color series (brown, orange, violet, etc)	All colors
6	Narrative	Organic shape	Pop Art	Achromatic colors	Achromatic colors	Achromatic colors

알레아토릭 페인팅 매뉴얼_2013



2-1-5-4-1-4_변형 캔버스 위에 아크릴, 오일, 오일바, 락카스프레이_114×114cm_2015



알레아토릭 페인팅 아카이브룸(금천예술공장)_2015



6-5-3-1-5-6_변형 캔버스 위에 아크릴, 오일칼라_118×118cm_2015

이주현 Yi Joohyun

기억의 기술, 저항의 기술

– 이주현의 영상작품이 남기는 잔상들

어느 날 성인이 되어 발굴한 홈비디오는 기억 너머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다. 우연한 몸짓과 무심코 내뱉어진 말들. 이주현은 이를 조합하여 메시지를 직조한다. 여기저기서 음절을 하나하나 모아와서 가까스로 문장을 만든다.

“아.침.안.먹.고.가.는.거.야.”
“야.엄.마.말.은.들.은.척.도.안.해.요.”

〈불가능한 대화〉(2008)에서 말의 콜라주는 단순한 규칙을 따르고 단순한 패턴을 만든다. 어느 가정에서나 걱정 많은 어머니가 딸에게 귀가 아프도록 내뱉을만한 잔소리, 식사할 정도로 평범한 말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직접 들어보지 못한 문장들이다. 비디오 속의 어머니는 딸이 성인이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었다.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게임의 법칙을 배워가야 한다. 작가가 어떤 재료를 활용했고,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을지를 추리해간다. 추리에 따르면, 어느 날 성인이 되어 발굴한 홈비디오는 기억 너머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우연한 몸짓과 무심코 내뱉어진 말들. 작가는 이를 조합하여 메시지를 직조했던 게다. 여기저기서 음절을 하나하나 모아 와서 가까스로 문장을 만들었고, 그것은 하나의 제식 같은 절차였으리라.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아니 의사기억 만들기.

말의 질감은 프랑켄슈타인처럼 거칠고 어눌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작품의 ‘의미’는 ‘문장’이 아닌 그것을 구성한 ‘행위’로 양도되어 있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발생하는 대화의 ‘불가능함’은 관객과 작품과의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절차가 된다.

서현석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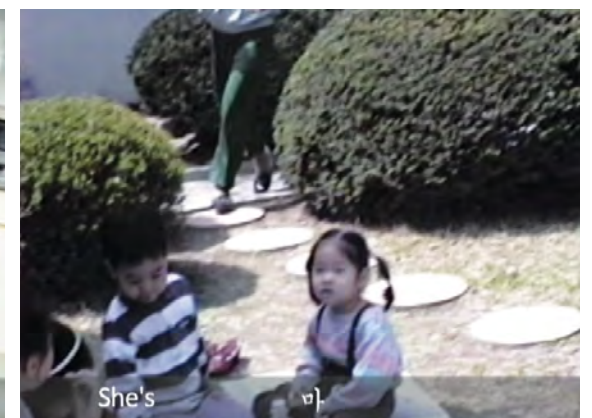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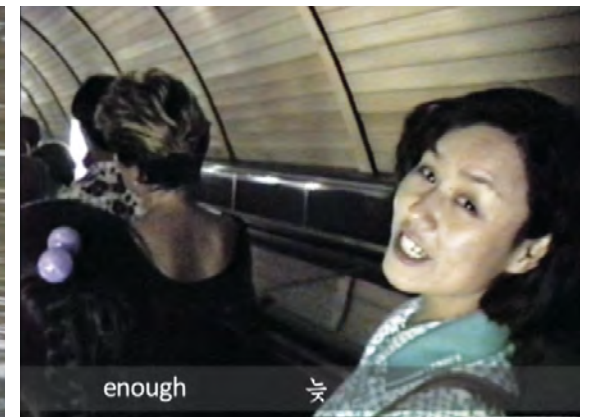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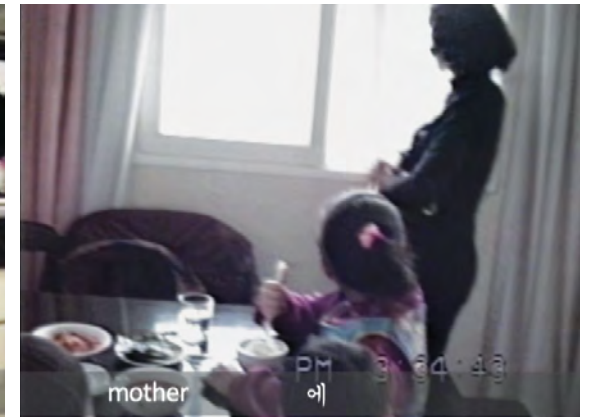
〈불가능한 대화〉에서 같은 음절이 반복되고 메시지가 증식되더라도 의사기억이 현실로 흘러들어오지는 않는다. 불가능한 기억. 불가능한 언어. 실로, 이주현의 영상작품에서 현실과 허구는 서로의 영역을 넘본다. 하지만 둘을 가르는 경계가 끝없이 흐트러지지는 않는다. 허구를 반복한들 기억이 되지는 않고, 기억이 흐려질지언정 밀도 끝도 없는 거짓으로 추락하지는 않는다. 누적과 열거는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바꾸지 않는다. 반복은 불가능함을 재확인할 뿐이다. 욕망의 절대적 원칙이랄까.

불가능함으로 멀어지는 대화는 가족의 (불가능한) 재구성에 대한 은유일까. 사실 끊임없이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작품’으로 구성하는 이주현의 방법론은 자연스레 가족의 의미에 접근해 있다. 가족의 ‘부재’를 포함한, 아니 ‘부재’로 인해 성립되는 가족의 실존적 의미체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다.

비디오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상징적 부재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는 도구로서 작동한다. 어쩌면 비디오라는 도구아말로 ‘부재’를 탐색하기 위한, ‘부재’를 역설하는, 가장 친밀하고 치밀한 장치가 아닐까.

비디오라는 매체는 현재에 부재하는 것을 탐색할 뿐 아니라, 과거 속의 부재를 들추어낸다. 비디오의 특질은 ‘소급’에 있다.

삶의 중요한 순간들만 하더라도 그것이 발생하는 바로 그 때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혹은 비디오의 재생을 통해 곱씹어짐으로써 특별함을 획득하지 않는가. 역사는 기록이 만드는 걸까. 이주현의 ‘역사쓰기’는 끊임없이 과거를 재발굴하고 재해석하는 제의적 행위다. 그 말은 곧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부재’를 재발굴하고 재해석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불가능한 대화(Impossible Dialog)_Single Channel Video_05'26"_2008

모든 '수행적'언술이 그러하듯, 이주현의 제의적 행위는 부재와 존재 사이에서 현실을 창출한다. 현실은 기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써 재구성된다.

〈웨딩리믹스〉(2014)는 결혼식 중의 한 의례적 순서에 집중한다. 이 역시 '관람'행위를 작업과정에 대한 추리의 과정으로 재편성한다. 우리는 통속적인 관습의 진부함을 곱씹는 동안 그것에 대해 작가가 구성하는 거리감을 추리해낸다. 여러 쌍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구성 원리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름 모를 남녀들의 결혼비디오, 그리고 이주현 본인의 결혼식에서 발췌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아상블라주다.

이주현 본인이 "삼각관계"라고 부르는 상황에서 신부의 아버지와 신랑이 포옹한다. 가족이 재구성되는 하나의 상징적 순간에, 무명의 촬영기사들은 세 사람의 엇갈린 감정을 포착한다. 포옹하는 두 남자 옆에서 신부의 눈이 뜨겁게 젖기도 한다. 사적인 정서는 기억의 밀도를 높인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기억인가?

'파운드 푸티지'의 숲속에 묻힌 한 순간의 사적인 기억은 개인의 고유성을 온전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나'의 고유한 기억은 아카이빙된 집단의 패턴 속에서 그 어떤 특별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부함 속에 묻혀 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는 한 순간은 실은 사회적 장치가 집행하는 반복적 패턴일 뿐이다.

비디오의 특질은 딜레마에 있다. 익명과 개인, 순응과 개성의 역학 속에 갇힌 우리 모두의 딜레마. 반복과 차이의 딜레마.

해변의 모래알처럼, 정서적으로 충만한 개인의 기억은 패턴을 이루는 작은 디테일로 전락한다. 비디오 기술의 권력이랄까. 개인의 아우라를 지우는 보편성의 폭력. 특별한 순간을 익명의 집단 기억으로 획일화시키는 불합리함. 홍보비디오는 개성이라는 사회적 디테일을 흐릿함 속에 묻는 극단적인 룻샷의 원리를 따른다.

오늘날 기억의 기술은 '소니'와 '파나소닉', '애플'과 '삼성'의 헤게모니 속에서 작동한다. 기록은 곧 소비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따라 발생하는 기생적이고 파생적인 행위다. 대기업의 기술은 온전한 기억을 보장하고 광고한다. '해상도'는 그러한 보존의 미학이 제조해낸 개념이다.

결혼과 같은 공동체의 진부한 관습, 그리고 그에 대한 순응의 이미지들이 '소비'의 홍수 속에서 생성되는 것 역시 자연스런 일이다.

가족과 개인.
군중과 개인.
자본주의 권력과 개인.

'개인'이라고 하는 발화의 주체는 일련의 대립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의 함수들을 발굴해갈 수밖에 없다. 필연처럼. 대립 구도 속에서 기억은 망각의 가능성에 의해 위협된다. 개인의 발화는 투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미지의 아우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죽어있다. '나'의 고유함과 더불어.

〈밀물과 썰물〉(2012)은 거의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된 이미지로부터 시작한다. 대기업이 선전하는 '해상도'의 신화적 권력에 대한 이의제기랄까. 기억의 기술에 대한 저항.

"할머니-"
어디선가 작가 본인인 듯한 목소리가 들리고, 그에 반응하는 듯한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어른거린다. 이 짧은 순간은 도돌이표에 의해 순환하듯 거듭 반복된다. 반복될수록 이미지의 해상도가 조금씩 나아진다. 반복의 구조가 보이고 나서야 이 작품의 구조와 작업 방식이 파악된다. 홍보비디오를 거듭 복사함으로써 이미지의 충실도를 훼손시킨 게다. 이주현은 이를 위해 마흔두 번씩이나 복사를 거듭했다. 삼킬 수 없는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기표는 현실을 더 이상 지시하지 못할 정도로 희고 닳았다. 하지만 기계의 폭력 아래에서도 기억을 놓지 않으려 한다. 이주현은 그 한계를 밀어붙였다. 낡은 책이 시간의 권력에 무기력하듯, 전기신호의 물성은 기술의 불완전함에 노출되고, 또 드러난다. 어쩌면 지금 곁에 없는 고인에 대한 기억의 불완전함에 충실한 셈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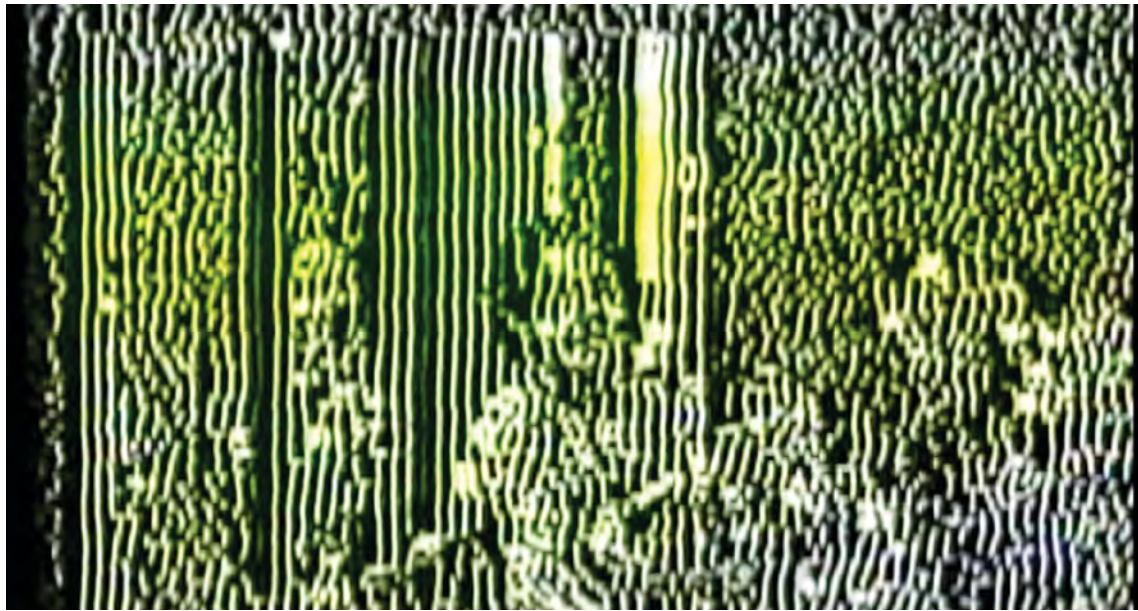
같은 영상이 반복되면서 화질이 조금씩 나아진다. 기억상실에서 벗어나는 환자처럼 트라우마의 충격으로부터 현실의 질감이 어느덧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각기호가 선명해질수록 청각기호는 반대로 점점 뭉개진다. 반복 복사로 일그러진 화면과 소리는 편집과정에 서 순서가 뒤집어져 다시 짝지어진 게다. 가장 극심하게 손상된 이미지는 가장 선명한 소리와, 가장 충실도가 높은 이미지는 잡음에 가깝게 뭉개진 복제음과 병치됐다. 서로 엇갈리는 시각 기억과 청각 기억은 "수직 몽타주"를 이루며 서로의 충실함을 훼손한다.

온전한 기억이란, 욕망으로 성립되는 텅 빈 환영이다. 다가갈수록 묘연해지는 신기루처럼.
"ㅎㄷㄷ..."

활자로 표시할 수 없는 소리의 먹먹한 물성. 무의미의 심연까지 소리에 손상이 가해진다. 모호함 속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점점 망각 속에



웨딩리믹스(Wedding ReMix)_Single Channel HD Video_ 03'20" _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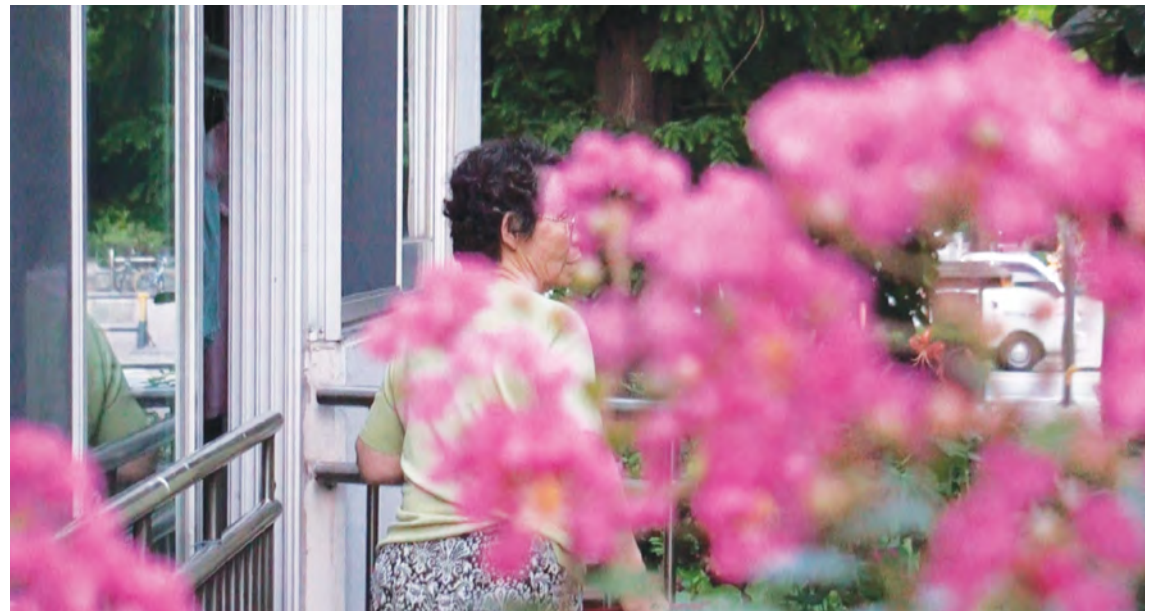
밀물과 썰물(Ebb and Flow)_Single Channel Video Projection_07'06" Loop_2012

로 빠져 들어간다.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까지. 시간의 주름 속에서 울리는 부름.

언어를 벗어난 물질의 순수한 현존이 구역질처럼 밀려온다. 언어가 닳고 닳아 의미가 소멸되고 문명 이면의 거친 야성이 스며든다. 그것은 롤랑 바르트가 말한 말의 그레인(grain)이자, 시간의 그레인이다. 그 생경하고 통명한 음성 기호는 할머니에 대한 손녀의 부름마저 희미하

게 마모시키며 둘 간의 공동체적 연결고리를 철저한 공백 속으로 몰아넣기 시작한다. 언어의 추락은 견고하다. 돌이킬 수 없도록 철저하다.

비디오라는 도구가 문명과 기억의 율타리 속에 존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결격되는 순간 그에 대치되는 역설적 기운이 존재를 위협한다. 이주현의 '비디오 제식'은 두 가지 힘의 대립을 중용한다. 언어의 결손과 회복을 동시에 부추긴다. 그것은 기억의 온전한 기술로



밀물과 썰물(Ebb and Flow)_Single Channel Video Projection_07'06" Loop_2012

부터의 도피이자, 새로운 기술의 모색이기도 할 것이다. 기억의 기술에 대한 저항은 기억의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 일까.

자본주의의 장치 속에서 모든 창작 행위가 필연적으로 곧 소비될 수밖에 없다면, 노이즈를 생성하는 이주현의 행위는 그러한 권능에 대한 일종의 이의제기이기도 하다. 기억을 기술적 불완전함에 노출시키

고 가족적 유대관계를 스스로 훼손하는 상징적 행위는 보존의 기술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다. 마르크스가 말한 '간극(interstice)', 그러니까 노동을 교환가치로 전환하는 자본주의의 시스템 속에서 가치가 누락되는 노동 영역이다. '창작'이랄까. '소비'로 환원되지 않는 생산. 이주현의 '창작'이 제의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다. 그것은 역설로서 성립된다.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망각과 손실을 체화해야 한다는 역설. ♣



신묘막측(神妙莫測, Marvelous are Thy Works)_3D 프린팅 오브제, 원형거울, 가변설치_120×120×50cm_2015



신묘막측(神妙莫測, Marvelous are Thy Works)_3D 프린팅 오브제, 원형거울, 가변설치_120×120×50cm_2015

이창훈 LEE Chang hoon

이창훈의 ‘ob_scene’ 전략 : 미학적 ‘간섭’들이 던지는 과제

고동연 미술사가

2012년 신촌 로터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 영상 선전 스크린 내부에 이창훈은 영상물을 비쳤다. 원래 거대 광고판에는 광고와 시사 뉴스가 돌아가기 마련이다. 대신 이창훈이 대여한 전광판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한 젊은 남성이 등장한다. 영화 트루먼 쇼에서와 같이 일상적인 인간들에 비하여 거대하게 확대되어 있는 남성의 시선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인간들을 내려다보듯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창훈이 제시한 남성의 이미지가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호기심은 배가된다.

〈V와 R사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이창훈의 거대 전광판, 영상 프로그렘은 작가의 코믹한 제스처가 돋보이는 작업이다.¹ 그러나 동시에 전광판 속 남자의 이미지 자체는 도로 위에서 이동 중인 일반인들의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한다. 전광판의 거대한 스케일과 높이에도 불구하고 신촌 로터리를 이용하는 행인들이 빌딩 옥상에 달려 있는 영상을 쳐다보게 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창훈의 간섭은 이와 같이 미묘한 차원에서 일어난다. 동일한 풍경을 찍은 두 개의 사진으로 구성된 〈또 다른 풍경〉(2014)에서도 풍경의 변화는 쉽게 감지되지 못한다. 작가는 '정상적'이고 평온해 보이는 풍경 속에 위치한 연못의 물을 전량 교체하는 수법을 썼다. 혹은 〈Ob_scene〉(2013)에서는 포르노 영상들을 합성하고 낮은 속도로 재생함으로써 기존의 이미지를 최대한 알아볼 수 없도록 해체하였다. 이와 같이 이창훈의 '간섭'은 모순되게도 시각적인 경험을 배제하거나 축소, 혹은 미세하게 변형시켜서 진행된다. 〈또 다른 풍경〉에서 두 화면의 차이란 결코 쉽게 시각적으로 감지될 수 없으며, 〈Ob_scene〉에서 작가는 기존의 영상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관객들이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다면 이창훈이 우리의 도시나 자연 풍경을 간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시각 예술가이면서도 관객이 시각적으로 잘 알아차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형을 꾀하고 있는가? 현대미술에



V와 R사이_단체널 영상_09'47" 반복재생_2012
Between V and R_Single Channel Video_09'47" Loop_2012

서 이창훈과 같이 '숨은 그림 찾기'식의 전략을 사용하는 작가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관객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도출해 내고 작업이 가변적인 의미를 지닌 수수께끼처럼 읽히기를 원하는 많은 현대 작가들이 이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각성이 최우선시 되는 현대미술에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작가에게나 관객에게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시킨다. 이에 필자는 이창훈 작업에서 간섭의 전략이 현대미술의 작가들이나 관객들에게 어떠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풍경을 간섭하다.

이창훈은 기본적으로 풍경을 간섭하는 작가이다. 아니 달리 표현하자면 이창훈의 설치 작업은 풍경 속에서 보아야 제 맛이다. 〈V와 R사이〉나 〈또 다른 풍경〉의 예술적인 의도를 그 장면, 혹은 풍경 안에 위치한 사람은 결코 인식할 수 없다. 대신 어느 정도 떨어져서 전체 도시 환경이나 자연 풍경 속에서 그의 작업을 바라보아야만 그 일탈의 경



V와 R 사이_단체널 영상_08'42" _2012(신촌로터리, 서울)
Between V and R_Single Channel Video_08'42" _2012(Sinchon-Rotary, Seoul)

1 V와 R사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를 줄여서 부르는 축약어 VR에서 온 것이다.



또 다른 풍경 - 헤테로토피아_해수(海水), 2700×2700×30cm_C-print_각 100×57cm_2014(소마미술관 인공연못)
Another Landscape - Heterotopia_Seawater, 2700×2700×30cm_C-print_100×57cm each_2014(An artificial pond at SOMA)

로를 비로소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V와 R사이〉에서 거대한 영상 이미지를 도심 속의 행인들이 인식해 내기란 쉽지 않다. 이미 도시의 환경은 이미지들로 그득 채워져 있다. 자연스럽게 이창훈의 작업이 관여하고자 하는 바, 즉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기이한 시선을 인식해 내기 위하여 우리는 거리를 두고 그가 만들어내는 풍경 속 일탈을 관찰해야만 한다.

〈또 다른 풍경〉에서도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적인 거리감을 유지해야만 한다. 작가는 소마미술관 앞뜰의 풍경을 일정 거리를 두고 같은 시각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하였다. 얼핏 보기에 두 풍경 사이의 특별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대신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미술관 앞 연못의 물을 바닷물로 교체하였다. 작가는 매우 평온해 보이는 푸른 하늘 밑 미술관 앞마당의 사진을 병치해 놓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시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금물의 존재를 암시하고자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전 과정을 기록하기는 하였지만 그 변화를 무엇보다도 두 개의 풍경사진으로 집약시키고자 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부제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결국 작가의 관심이 단순히 소금물을 교체하는 과정보다는 그 이후 만들어진 풍경의 변화에 더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여기서 이창훈 작업의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로 작가는 간접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일탈의 행위가 쉽사리 인식되지 못하는 평온한 일상적 풍경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2015년 인천아트플랫폼에 설치된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나 2013년 〈Para s〉에서도 ‘파라다이스’이라는 문구의 전구가 부분적으로 꺼져 있어서 일탈된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V와 R사이〉나 〈또 다른 풍경〉은 작가의 일탈적인 행위가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은 잘 인식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창훈의 많은 작업들에서 투명실이 사용된다거나 칠하는 과정을 지우는 과정과 동일시하는 대목들은 작가가 ‘드러내기’의 과정을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각에 반(反)하다: Ob_scene

최소화된 시각적 기재들을 사용해서 도시나 자연 풍경의 평온함을 깨뜨리려는 작가의 접근 방식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시각 예술작가의 주요 무기 중의 하나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하여 우리의 다양한 지적, 미학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또 다른 풍경 - 헤테로토피아_단체널 영상_07'13" _2014
Another Landscape - Heterotopia_Single Channel Video_07'13" _2014



Ob scene_비디오_00'35" 반복재생_2011

서 작가가 시각을 다른 공감각과 결합시키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Ob_scene〉는 원래 영어에서 외설적인 표현의 어원을 시각적으로 풀이하고 개념적으로 구현한 작업이다. ‘외설’은 ‘광경(scene)’에 해당하는 단어와 이를 보는 것을 저지한다는 접두어 ‘Ob’을 결합해서 만든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외설은 볼 수 없는, 보아져서는 안될 만큼 금지되어야 하는 이미지라는 뜻을 지칭한다.

작가는 〈Ob_scene〉을 비롯하여 〈1-Frame〉(2011)에서 기존의 영상 이미지들을 활용한다. 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영상 이미지들을 여러 번 겹치고 그것을 재생하는 속도를 달리하면서 작가는 원래 영상 이미지가 지녔던 감수성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치환하느냐를 실험하고 있다. 물론 그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모순된다. 왜냐면 그의 작업과정은 이미지를 보이게 한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관객이 이미지를 눈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느끼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작가의 의도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천아트플랫폼에 설치된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작가는 일반 문자가 아닌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표기방식을 사용해서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를 빌당의 입구에 설치하였다. 제목을 보지 않고서 일

반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지시하는 바를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이창훈의 작업에서 칠하기는 지우기와 동일시된다. 전시장을 비우고 그 흰 벽을 7차례에 걸쳐서 칠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작업으로부터 소마미술관 빌딩 옥상에 〈Para s〉라는 ‘파라다이스(paradise)’의 영어 철자 중에서 ‘죽다(die)’를 생략하고 불을 밝힌 작업에 이르기까지 이창훈의 작업에서는 내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우거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변형시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시각성과 시각 예술가의 딜레마

이창훈의 이와 같은 행보는 시각 예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예술가가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거나 잘 안보이게 하고 지우는 등의 행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1960년대 이후 현대미술에서 지속되어 온 굳이 새로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개체를 예술작업으로 치환하기 보다는 매우 간단하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하고자 하는 미학적 전략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평온한 일상성에 대한 우리의 소박한 염원을 재고하게 하려는 작가의

예술적 관심사에 비추어 보아서 적절한 전략이다. 검은 밤하늘에 저녁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내는 파라다이스의 영어 철자는 우리로 하여금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밤이 되어서야 밝혀지게 되면서 사인의 불완전함(파라다이스에서 다이를 뺀 철자의 전구만이 빛을 비추는)을 보여준다. 또한 평온해 보이는 미술관 앞 연못이 소금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우리의 도시, 자연 환경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스러운 요소들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나 ‘시각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현대미술의 작가들에게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지우거나 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현대미술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일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략이 보다 적극적인 관객의 참여와 대중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파라다이스는 밤이 되어서야 모습을 드러낼 테고 파라다이스의 불완전한 글씨는 관객들이 돌아간 시점이 되어서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인천아트플랫폼에 설치된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일반 관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줄 것이다. 문자이기는 한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반 관객들이 해독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풍경〉과 연관된 각종 사실들이 시각적으로 관객에게 전달되기를 쉽지 않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저 이해하기 힘든 두 개의 사진이 병치되어 있는 정도로만 인식할 수도 있다. 〈Ob_scene〉또한 작가의 흥미로운 의도에도 불구하고 감각적인 느낌을 시각적으로 치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외설적인 이미지가 사라진 화면은 작가 스스로가 사회가 허용하지 않은 외설적인 이미지들을 검열한 결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적인 간섭이 관객들에게 쉽고 명확하게 읽혀지고 인식될 수 있는 방식들에 대하여 고민해보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고민은 한편으로는 시각성 보다 개념성을 우위에 두어온 현대미술의 중요한 업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국 우리 시대 작가들의 중요한 과제가 개념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지에 관한 것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1 Frame-살과 죽음, 인생은 아름다워, 스틸 라이프, 삶의 의미, 아버지의 인생, 나의 장미빛 인생, 희몽인생, 인생, 오후의 일생_설치; 9 채널 비디오_1 Frame-Loop_2011~2013
1 Frame-Life and Death, Life Is Beautiful, Still Life, The Meaning of Life, Life with Father, My Life in Pink, The Puppetmaster, Life, The Life of Oharu
_Installation; 9 Channel Video_1 Frame-Loop_2011~2013



걱정이나 근심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_Led 채널_38×985×11cm_2015(인천아트플랫폼)
Any place of complete bliss and delight and peace_Led Channel_38×985×11cm_2015(Incheon Art Platform)



PARA S_Led 채널 사인_580×230cm_2013
PARA S_Led Channel Sign_580×230cm_2013

임선희 LIM Sun Hee

The Flat

한국 현대 회화에 있어서 '평면성'의 문제

김중호 두산갤러리 뉴욕디렉터

현대 회화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새로운 구상의 등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구상은 모더니즘 이전의 미술이 추구했던 재현을 통한 형상의 부활이 아니라, 회화의 역사성을 메타-비평적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는 개념적 구상성을 통하여 그 지평을 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시대 회화는 이후 형식과 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보다는 전통적 양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중요한 화두로 내세우며 전개되는 한편 그 형식의 해체 혹은 재구성을 통하여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회화는 근대 이전의 구상 회화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 전개된 바 있는 새로운 구상성을 모방적으로 재현하는 회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동시대 회화의 궤를 벗어난 지 오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회화를 동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획득을 통하여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선희의 <The Flat>전은 동시대 한국 회화의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는 한 작가의 관점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전이라 할 수 있다.

임선희는 화면의 해체나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동시대 회화를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외관에 대한 단순 재현을 없애려는 노력으로 시작된 회화, 즉 세잔 이후에 있어서의 평면성의 문제를 한국 현대회화의 흐름 속에서 다시 고찰하고자 한다.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들은 이를 보여주기 위한 매개에 불과하며 작가는 '색채'와 '붓질'을 통하여 평면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대상의 존재감을 놓지 않으면서도 이를 바라보는 주체의 시각을



Leaves CO_Oil on Canvas_116.7x91cm_2015



Exhibition View_Incheon Art Platform



Leaves OE_Oil on Canvas_194x130cm_2015



Leaves M_Oil on Canvas_145x112cm_2015

화면에 드러내고 있다.

즉 색채를 통하여 대상의 외관을 넘어서는 존재의 깊이를 드러내고자 하며, 붓질을 통해서도 형태의 본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화면에 재구성함으로써 3차원의 대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의 시각을 평면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임선희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면의 깊이와 무게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현대 회화에 있어서 화면의 깊이는 원근법에 의한 공간의 환영이 아니라 캔버스 표면, 즉 색채와 색채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드러나는 밀도가 화면의 전체적인 통일과 깊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윤곽선이나 그림자보다는 색채의 미묘한 단계적 변화를 통하여 형태




Leaves KH_Oil on Canvas_145x112cm_2015

를 만들어감으로써 깊이와 무게감을 가진 평면의 진정한 리얼리티를 획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개인적으로는 10여년 넘게 해왔던 미디어 작업을 그만두고 회화작가로서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회화의 평면성과 순수성의 문제를 한국 동시대 미술의 상황에서 되돌아 본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



Leaves BS_Oil on Canvas_130x97cm_2015

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시라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고자하는 바를 꾸준히 성취해 나가길 바라며, 한국 현대회화의 발전과 재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작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Pots_Oil on Canvas_126×91cm_2015

그려진 그림 속의 내용을 보여주고자하는 작품이 아니라 화면의 색, 선, 구도와 같은 시각적인 조형 요소들과 변화, 균형, 통일 등과 같은 회화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작업에 임한다. 처음에는 형태에서 시작하여 색의 풍부함과 깊이감 그리고 구도까지도 탐구하며 작업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Plants_Oil on Canvas_103×91cm_2015

보이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담고있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 재현의 문제에서 벗어나 화면 안에서의 구성의 문제로서 표현적 요소인 색과 붓질을 통해 그 깊이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Still Life with a Book_Oil on Canvas_102×71.5cm_2015



Study For Still Life with a Book I, II, III, IV_Oil on Canvas_101×71.5cm_2015

조형요소들이 가진 표현적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구성하고, 형태 짓고 등의 과정을 통해 순수한 회화의 요소들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화면의 구성을 위해 형태나 색채들이 변형되기도 하며 표현에 있어서의 거친 붓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화면 상의 안정된 구도를 위해 대상의 위치를 바꾸고, 재구성하기를 반복한다.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을
기집애가 막아?

난 니들이 없는 아들 있다 아들이.
아들!!

하어튼
너 대체 집에서 뭐하니?
니가 돈을 벌어오니 일을 나가니
내 자식 잡아먹고 내새끼 연금에 내 집 살면서
애들 하나 그거 아무지게 못키우냐?

우리 잘합니다.
아들도 제가 알아서 잘 키우고
신경쓰지 마

야 이 기집애야 똑바로 살어

팔자 셀년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야?
아후

이런 애가 뭐가 좋다고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어 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저서
너 같은 애랑 뉘어가지고.. 아휴 아휴
어디서 저런걸

어머



Reading Drama II_Video Installation, HD Video, Projection, Vintage Chairs and TV_09'10"_2015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 코드 속에서 사적이며 공적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본인의 드라마적 상상으로 재구성된 장면들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낸다.
이를 위해 드라마상의 몇 개의 스토리 파트를 뽑아서 연출된 장면을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다.
욕하면서 본다는 막장드라마, 어느새 우리 나라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린 막장드라마를 파헤쳐 드라마 속 대사들을 재구성하여,
드라마가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주입시키는 시대상이나 여성상 등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뤄 보고자 한다.

전 형 산 JUN Hyoung 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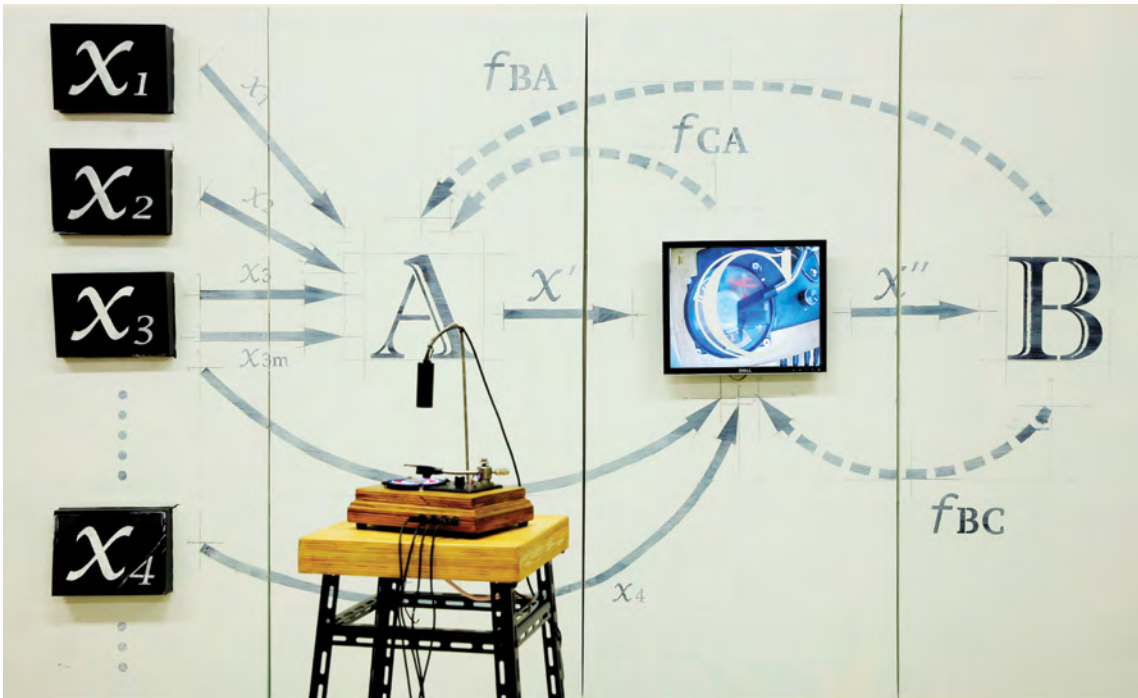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소리로 보여주는 세상 속 나의 존재

표신엽 미디어 작곡가

빛과 소리는 인류 역사의 여명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술가 에겐 영감의 원천이자 질료이며, 감상자에겐 예술 작품 향유의 매개 였다. 빛이 있기에 우리는 형상을 볼 수 있고, 색채를 구별할 수 있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본 것에 그들의 염원을 더해 동굴 벽과 바 위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돌을 쪼아 형상을 만들었다. 조형예술의 기 원이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가득 채우 고 있는 존재가 소리다. 음악은 대표적인 소리의 예술이다. 언어체계 가 확립되기 이전부터 인류는 소리를 의사와 감정의 소통 수단이자 생존의 지침으로 삼았을 것이다. 조형예술과는 달리 음악은 시간적 일과성에 구속되어 있었기에 비록 구전이라는 전승 수단이 있긴 했지 만 연주를 위한 기보법이 체계화하면서 비로소 기록 가능한 텍스트가

되었고, 녹음과 재생 기술의 발명을 계기로 물질계로 완전히 편입되 었다. 치밀하게 조직된 조성체계 위에 정교하게 발달한 화성법과 대 위법이 떠받치고 있던 서양음악의 전통은 20세기에 접어들어 쇠베르 크가 조성체계를 기반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혁명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그의 뒤를 이은 현대음악의 혁신가들은 더 이 상 익숙하고 예측 가능한 전통이라는 틀 안의 규칙에만 얽매이지 않 고 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음악의 지평을 넓혀 왔다.

한편, 미술에 있어서도 20세기의 도래를 전후하여 조형에 대한 새로 운 인식과 개념이 등장하고, 작가의 관념과 감정의 표현에 보다 충실 하고 자유로운 기법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조가 생겨나고 전파되면서



뜻밖의 소리#1 ; 웨슬리(Westly)와 맥린(Maclean)을 위한 드로잉_Mixed Media, Sound Installation(sound module, cam, monitor, speakers)_가변설치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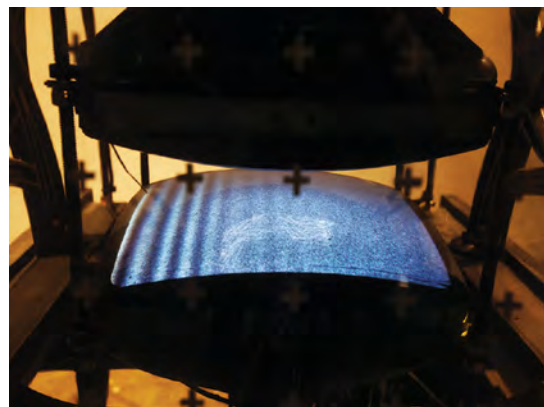


선형적 편린들 #3 ; Radius_Mixed Media, Sound Installation(radio receiver, transmitter, typewriter, coil, motor, speakers)_가변설치_2014



선형적 편린들 #3 ; Radius (detail)_Mixed Media, Sound Installation(radio receiver, transmitter, typewriter, coil, motor, speakers)_가변설치_2014

엄격한 고전주의적 양식에 기반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전통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표현 기법의 다양화는 현대 예술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주관적인 관념과 자아 주장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를 작품을 통해 표출시키고 구현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유를 부여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인류의 삶을 바꿔놓은 발달된 과학기술이 자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진술과 영화의 발명은 조형예술의 영역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키틀러가 지적했듯, 현대인은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축음기, 전화기, 타자기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혁신적인 기록 매체를 갖게 되면서 문학적 상상과 신화의 상징체계 바깥의 물질계로 사유와 감각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소리를 물성을 지닌 매체로 인식하고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음향기술의 발달은 현대음악의 변혁은 물론 전통적인 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소리까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기계 문명이 만들어내는 소음을 현대인의 감수성을 지배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그것을 음악의 주된 재료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 미래주의자 루솔로의 '소음의 예술(Art of Noise)'선언에는 과학기술과 산업화가 가져온 음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징적으로 천명되어 있으며, 자기 테이프와 녹음기를 이용한 피에르 셰퍼의 구체음악을 통해 소리는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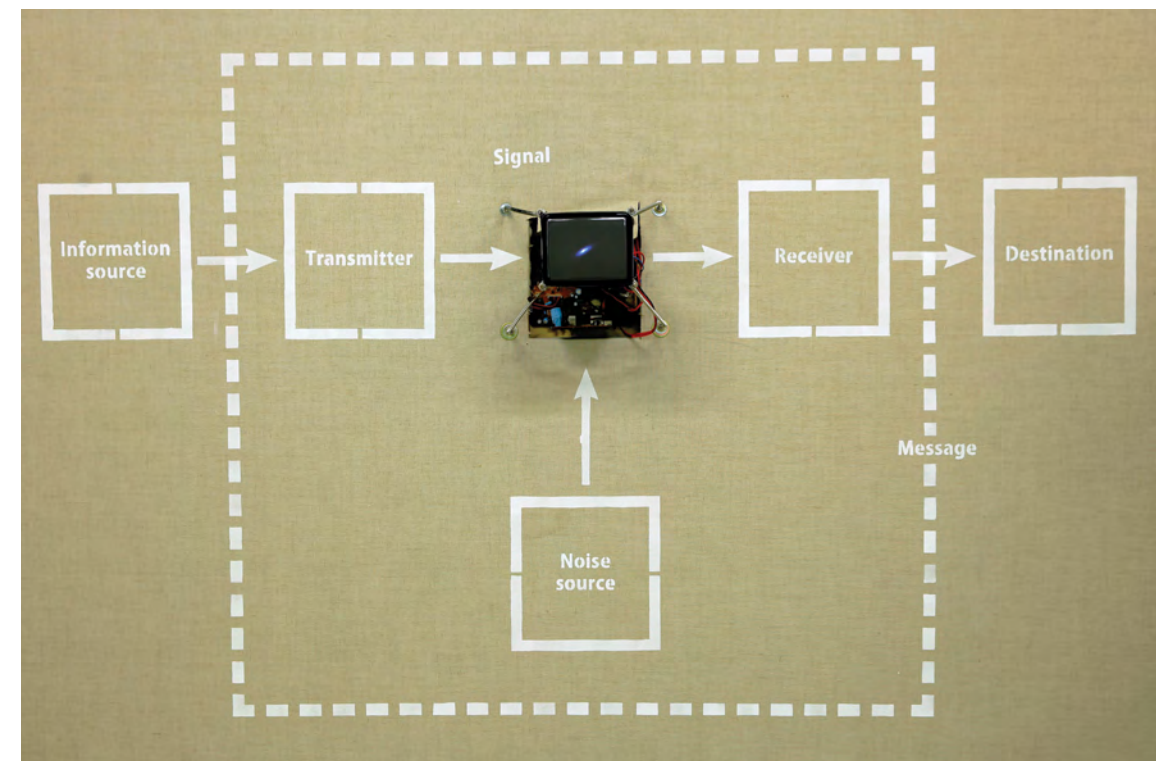
선형적 편린들 #5 ; De-play (detail)_Mixed Media, Interactive Sound Installation(VTR, TV, sensors, arduino, amp, speakers)_70×75×135cm_2014

음대로 만지고 이어붙이고 잘라낼 수 있는 물성을 지닌 매체가 되었다. 나아가 음악에 대한 인식과 관점은 존 케이지와 백남준에 의해 이제 무엇이 음악이고, 음악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만큼 확장되었다.

음악과 미술의 이러한 변화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매체로 다루는 예술 장르인 사운드아트의 출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어쩌면 현대미술과 현대음악의 만남이 필연적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운드아트는 전통적인 (그리고 여전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음악의 정의에 따르자면 비음악적이라 할 수 있는 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그렇지만, 전술한 바 현대음악의 확장된 개념은 노이즈를 비롯한 모든 소리, 심지어 의도된 소리의 부재까지도 포용한다고 전제할 때 현대음악이 사운드아트의 기원과 발전에 끼친 영향은 자명하다. 사운드아트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만들어내고 들려주는 과정과 방식 자체가 작품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므로, 미술과 음악의 영역에 걸쳐 접점을 두고 있는 예술 장르이다. 이러한 특징은 사운드아트가 그 장르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장르 해체적 성격과 함께 복수의 예술 장르가 복합된 장르 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게 한다. 사운드아트 작품은 감상자

에게 소리 자체에 대한 의식적 청취 행위를 통한 적극적인 감각적 수용을 요구하고 그 소리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주제적 인식을 독려한다.

사운드 아티스트 전형산 작가가 주목하는 부분은 노이즈이다. 노이즈는 세상 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소리이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존재로 치부되며 심지어 소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상 생활 속에서 노이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일부터 귀 기울여 주의를 집중하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들려오는 소리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셀 시옹에 따르면 인간의 청취 행위는 소리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인과적 청취와 언어와 같이 그 뜻을 해독하기 위한 체계를 필요로 하는 의미론적 청취, 그리고 인과관계나 의미를 배제하고 소리 그 자체의 성질에 집중해서 듣고자 하는 축약 청취로 나누어지는데, 전형산 작가의 사운드아트 작품은 소리가 발생하는 인과관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감상자에게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감상을 통해 작품에 담긴 의미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청취 행위의 종합적 경험을 선사한다. <불완전한 사



뜻밖의 소리#2 ; 쉐넌(Shannon)과 위버(Weaver)를 위한 드로잉_Mixed Media, Sound Installation(radio receiver, transmitter, CRT monitor, speakers)_가변설치_2015



No-signal_Mixed Media, Sound Installation(TV, watchman, motor)_35x20x8cm_2015



뉴-노멀: 선형적 편린들_사운드 퍼포먼스_더 미디어 THE MEDIUM_2015

실성》연작에서 노이즈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부각시켜 들려주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감각 체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복잡다기한 현상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경로의 접근과 소통 방법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이러한 감각 그 자체에 대한 의심은 〈불가항력적인 지각〉연작에서 개인과 사회의 의사소통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는데, 작가는 음향 재생 매체에 고정된 사운드 인스톨레이션과 달리, 아날로그 기계 장치를 통해 소리를 만들어내고 들려주는 과정을 가시화하여 감각-추론-판단의 기제가 기계적인 작동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은유하며, 판단과 추론의 사유 또한 듣고 보는 행위인 감각의 지각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소리의 생산 과정에 감상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된 방식을 통해 감상자는 피동적인 방관자가 아닌 노동 구조의 일원인 주체가 된다. 이는 관성적으로 작동하는 거대 사회구조 안에 매몰된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어지는 〈선형적 편린들〉연작에서 작가는 일상의 노이즈를 질료삼아 다양한 기계 장치를 통해 소리 객체를 구조화한다. 엄연히 세상 속에 상존하면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경험 이전의 (선형적) 인식 영역에 잠재해 있던 노이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존재감을 획득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작가에게 노이즈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대다수 사회 성원에 대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작업은 사회 구조 안의 개인의 위

치와 역할에 대한 성찰이 된다. 컴퓨터를 배제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소리를 생산하는 기계 장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물화된 사회 시스템으로, 시스템과 그 안의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성찰은 작가의 일련의 작업을 관류하는 중요한 테마이다. 그의 작업은 시스템의 파괴나 변혁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시스템의 성원인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데, 이는 존재감을 획득한 '사유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가능하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이 사회 시스템의 단순 부품이 아니라 스스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임을 자각하고 기능함으로써 시스템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바탕이 필수적이다. 다양성은 그의 작품에서 각양각색의 소리, 뜻밖의 소리, 숨어 있던 소리, 듣지 못했던 소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소리로 표현된다. 작가의 퍼포먼스는 이렇게 다양한 소리, 감상자에게 때로는 익숙하지 않은 소리를 들려주며 그의 작업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체의식을 보다 직관적인 감각의 체험을 통해 소통하고 교감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열린 마당이 된다.

전형산 작가의 작업은 세상 속의 개인, 시스템과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성찰이면서,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작가의 관심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 것인가에 있지 아니하다. 소리가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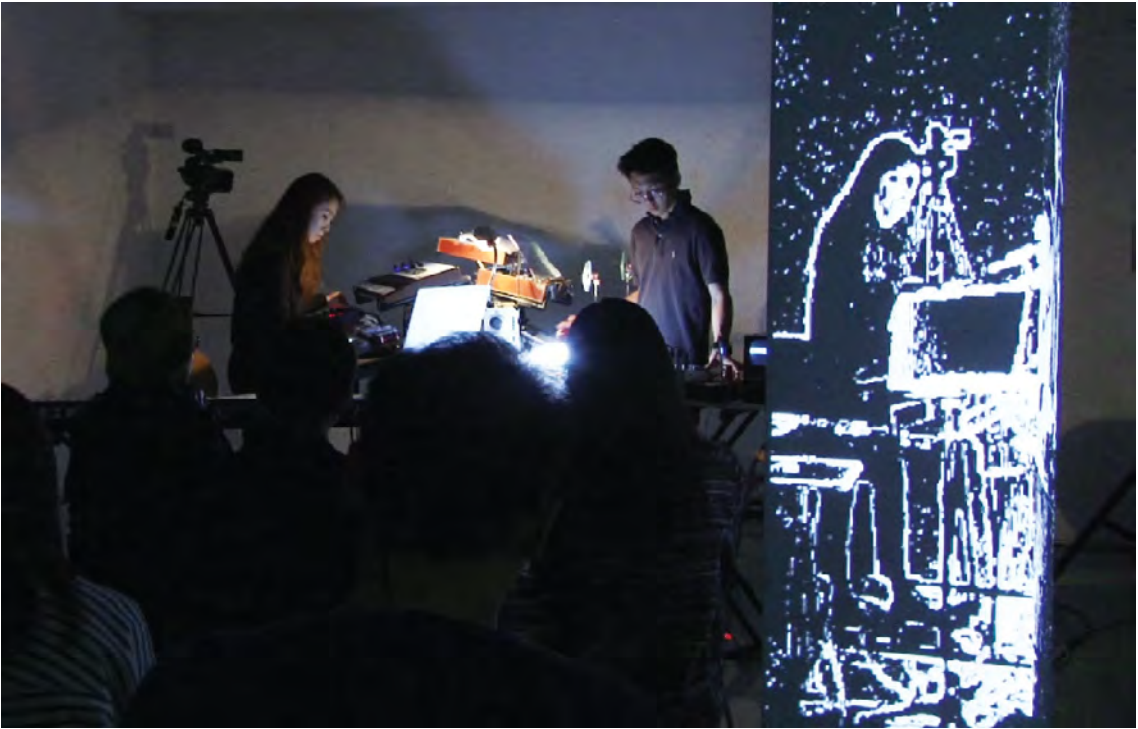
재감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작가는 말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의 작동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이상주의적 태도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갖게 한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건전한 의심을 가로막지는 않는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사유하지 않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개인에게 있는 것일까?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개인의 책임으로 부당하게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 건강하게 작동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도 없는 시스템은 파기와 변혁의 대상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는 직접 대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답을 구하는 것은 감상자인 우리의 몫이며, 그것이 시스템의 성원으로서 사유하는 주체가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것, 거기까지다. 그리고, 작가의 다음 행보에 기대를 걸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



인천아트플랫폼 프리뷰전;비평행적 진화.
전형산+우현주 사운드 퍼포먼스_인천아트플랫폼_2015



관계없는 관계_전형산+우현주 사운드 퍼포먼스_반줄-샬레 BANJUL-SCHALE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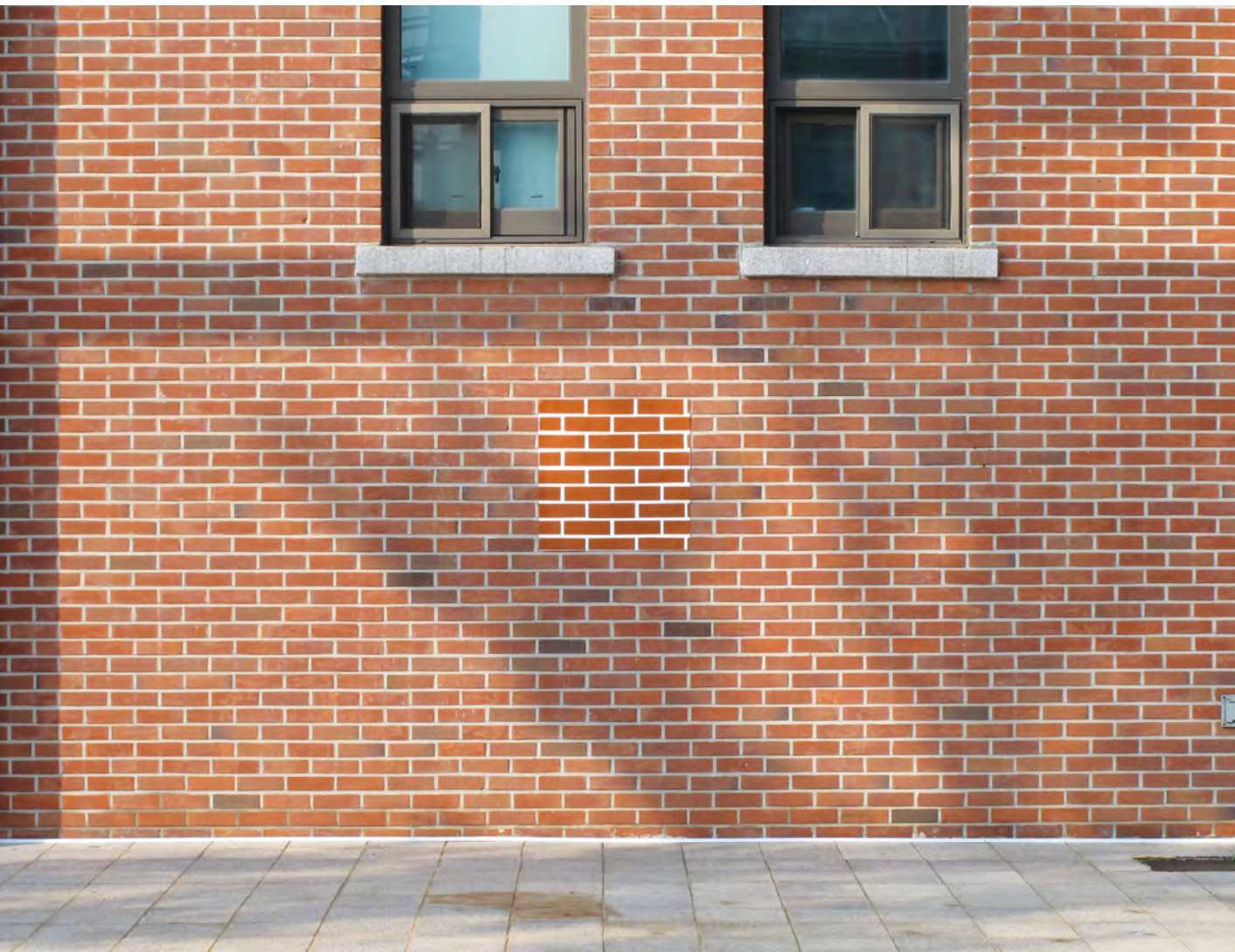
북촌뮤직페스티벌 2015_트라이어드(TRIAD); 우현주x전형산 사운드퍼포먼스_57th 갤러리_2015



전형산 『Beyond Sounds』

백남준 추모 10주기 추모식_유토피안 레이저 TV 스테이션 Beyond Sounds_사운드 퍼포먼스_백남준 아트센터_2016

젯사다 탕트라쿨윙 Jedsada TANGTRAKULWONG



Encoding Workshop for High School Students_Incheon Art Platform_2015

I've been interested in brickwork since 2011. Incheon Art Platform was an ideal place for me to study the brickwork. I visited several areas of the city and examined the structural form and pattern of the old brick buildings. <Encoding and Decoding Workshop> was a workshop that I conducted to high school students; they are trained to observe their surroundings and started noticing the beauty of architectural details. <(Dis)appear Series> is a series of site-specific installations that integrated with the architectural structures of the Incheon Art Platform's buildings.

Jedsada TANGTRAKULWONG

2011년부터 나는 벽돌작업에 관심이 있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바로 그 벽돌을 연구하기에 이상적인 공간이었다. 나는 도시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오래 된 벽돌건물들의 구조적 형태와 패턴을 연구했다. 작품 <인코딩과 디코딩>은 고등학생들과 함께 했던 워크샵이었다. 학생들은 워크샵에서 그들을 둘러싼 주변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비로소 건축의 세부적인 면면이 가진 아름다움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디스)어피어 시리즈>는 특정 장소에 설치된 작업 시리즈로 인천아트플랫폼 건물들의 건축 구조물들에 통합되었다. [P](#)

젯사다 탕트라쿨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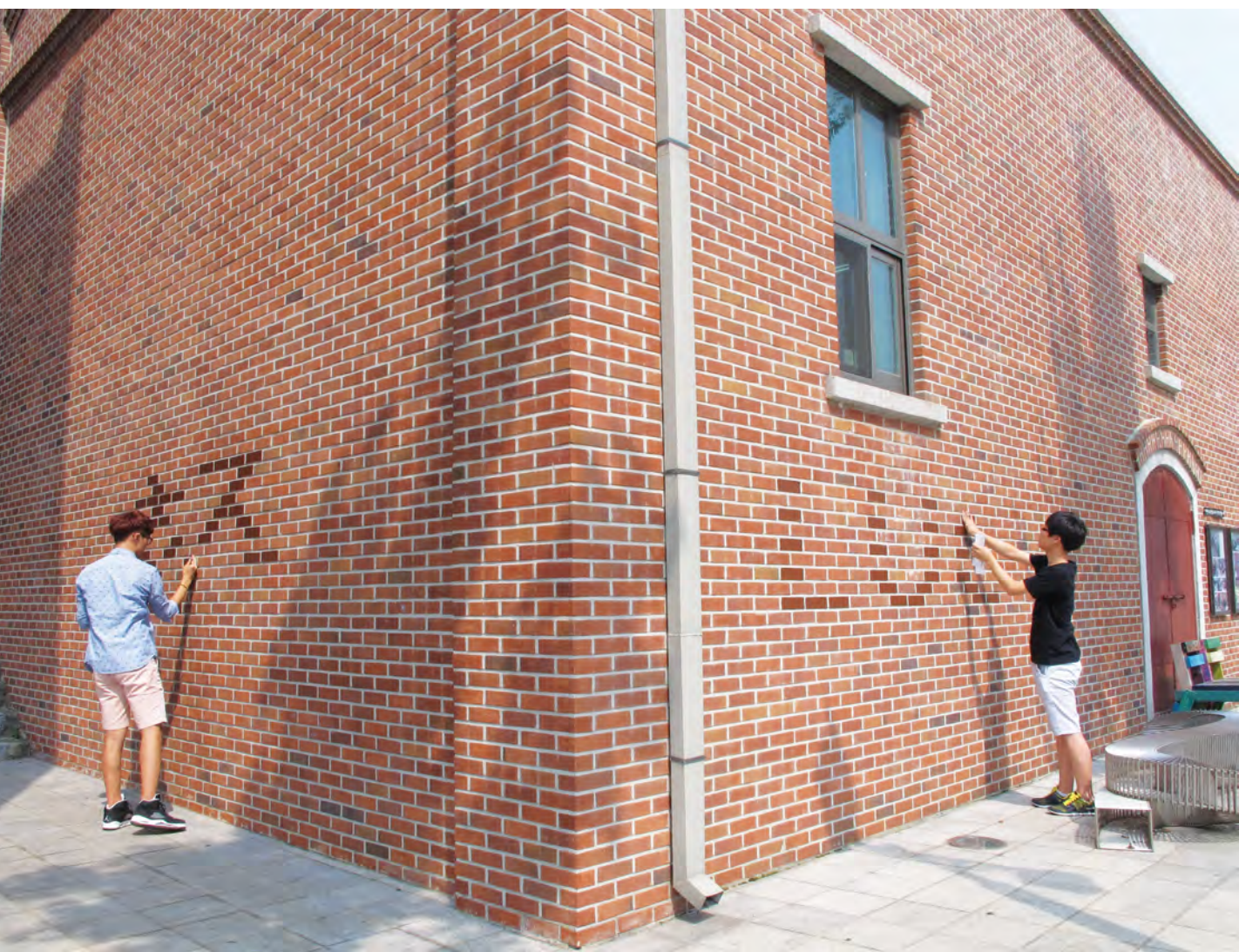
Encoding Workshop for High School Students_Incheon Art Platfor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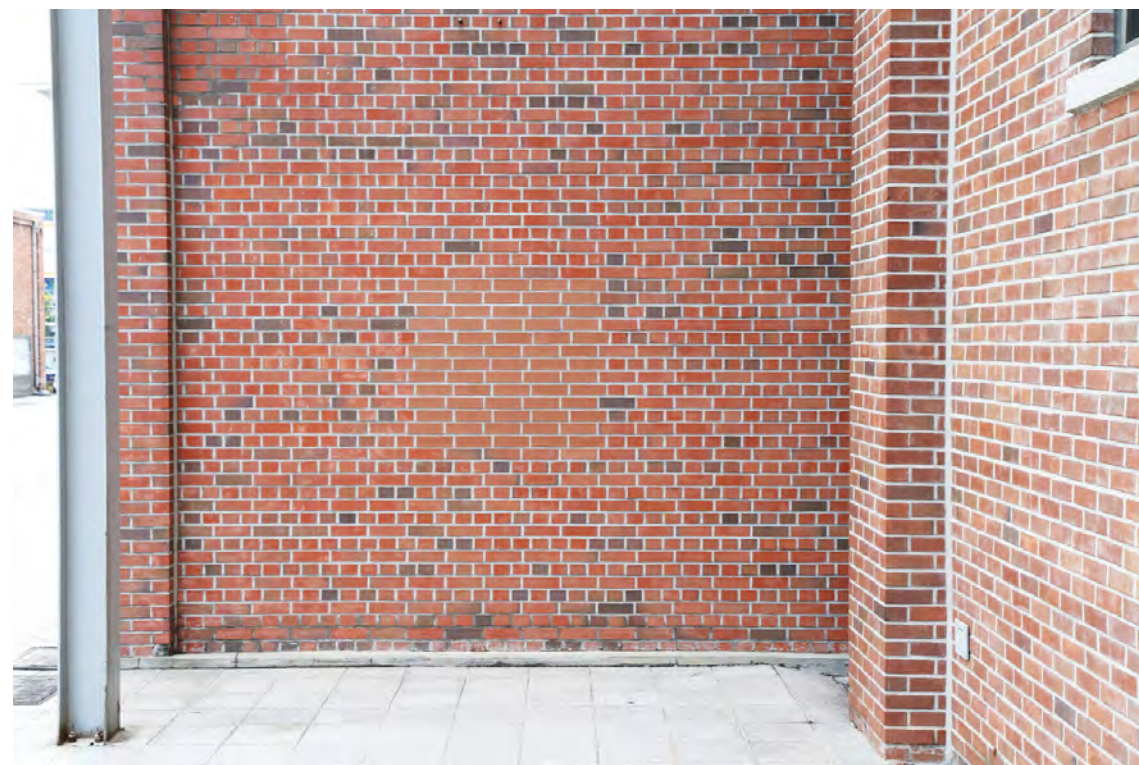
Decoding Workshop for High School Students_Incheon Art Platform_2015



Decoding Workshop for High School Students_Incheon Art Platform_2015



Decoding Workshop for High School Students_Incheon Art Platfor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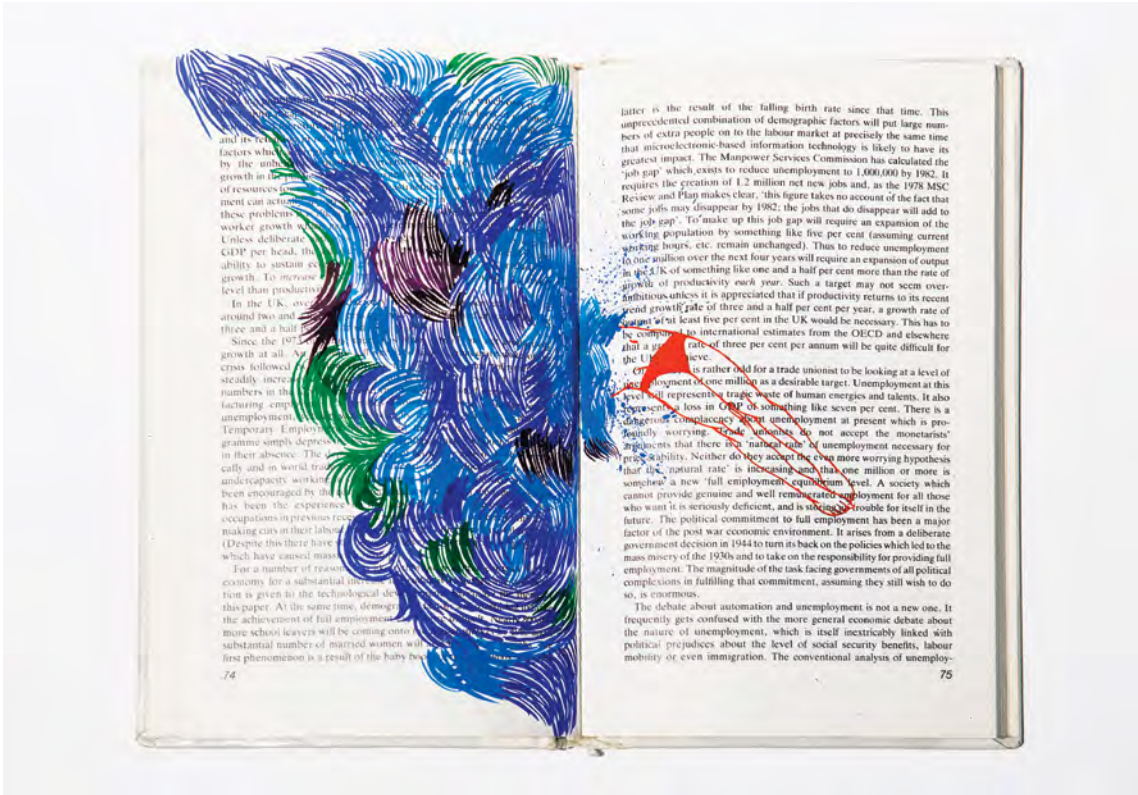
(Dis)appear 01 from the (Dis)appear Series_Site-Specific Installation, Adhesive Stickers on Brickwalls_88.5×109.5cm_2015

지도가 곧 영토인 시대. 종이책의 죽음을 환영하다.
- 지희킴의 북드로잉 작업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펴낸 국어사전은 '낙서'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사람이 벽이나 종이에) 글씨나 그림을 장난이나 심심풀이로 함부로 쓰다.' 그렇다면 도서관으로부터 버림 받은(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책에 미술가가 정성껏,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을 낙서라 부를 수 있을까? 그러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가지런히 인쇄된 문자열 위에 그려진 그림은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우리는 책을 신성한 것이라 배웠다. 개중에는 너무나 너무 신성한 책도 있다. 성경이나 꾸란이 그렇다. 애초에 아랍어로 씌어진 꾸란은 아예 번역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예언자의 말씀을 일점

일획도 바꿀 수 없어서 그렇단다. 문장은 번역할 수 없고 오직 의미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판 꾸란은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어 있다. 아랍어 이외의 다른 언어는 다 같은 처지다. 기독교의 성경 역시 그 정도는 아니지만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성경책으로도 컵라면을 놀려놓는 것은, 그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딘가 꺼림칙한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책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밑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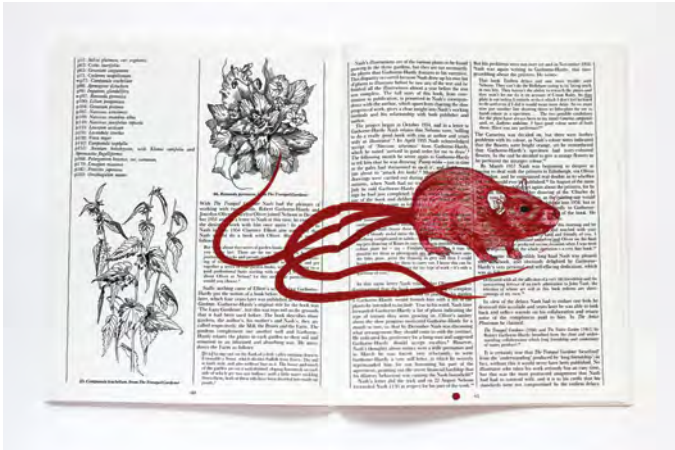
5%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과슈_21.8×27.3c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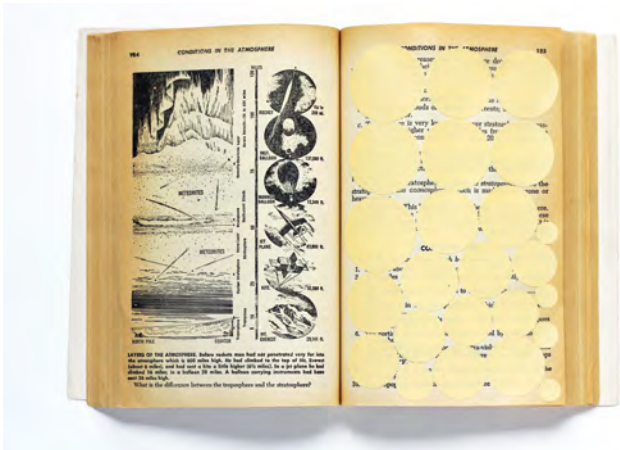
Always Away Sick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색지, 콜라주_22.2×29.2cm_2015



새벽을 헤엄치는 드로잉 시리즈 설치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연필, 과슈, 잉크, 콜라주, 스티커_가변크기_2015



양치는 목동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과슈_25.5×41.4cm_2015



우주여행_기부받은 책 페이지에 색지_15.3×19.4cm_2015

을 곳거나 귀를 접거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다. 예전엔 책을 귀한 재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 잘 보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지금은 책을 여행과 같은 일종의 경험재라고 생각한다. 읽는 순간에 큰 의미가 있을 뿐, 지나면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영원히 읽을 일이 없는 책이나, 읽었으나 아무 인상을 남기지 못한 책에는 미련이 없어졌다. 책은 너무 많이 생산된다. 도서관들은 아무도 대출해가지 않는 책들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고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장마다 책들이 쌓여 있다. 그러나 아직도 책은 곳곳에서 물신적 숭배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고서적 경매에서는 유명 작가의 친필 서명본이 고가에 낙찰된다. 영국의 한 작은 서점은 '서가 인테리어 컨설팅'으로 돈을 번다. 이 서점의 주요 수입원은 새로 생긴 호텔이나 식당 등의 서가에 어떤 책을 채울 것인지를 자문해주는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책에 대해 매우 복잡한 심경을 갖게 되었다. 책은 아름답고 진실하며 신성하며 소장한 사람의 지성을 보증하

는 물건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희킴은 책에 그림을 그린다. 그가 작업하는 책들은 이미 물신적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주로 도서관에서 기증 받은(좋게 말해 그렇지 실은 버린) 책이다. '읽히는 책'으로서의 효용을 이미 다한 책들이니까 아무 대가 없이 기증을 받았을 것이다. 폐지로 팔려가기 직전의 책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책은 다음 생을 얻게 되었다. 미술가의 오브제로서의 삶이다.

'책의 죽음'은 지희킴의 작업을 말할 때, 피해야 할 수 없는 지점이다. 책에 그림을 그려버리면 더는 읽을 수가 없게 된다. "도대체 책에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한 관객이 작가에게 항의하듯 물었다고 한다. 책은 너무 오랫동안 신성시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책을 오래 버



Young&Old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과슈_23.8×31.9cm_2016

려둔 부모나 친척에게 그러듯 모종의 죄책감을 느끼나 보다. 지희킴은 '책의 죽음'을 직시하게 만든다. 불편하다. 불편한데, 아름답다. 아름답기 때문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보면 '내가 버린 책들'을 떠올리게 된다. 책이 죽었다는 생각, 책의 시대가 끝났다는 생각에 급 우울해진다. 변화는 스트레스니까. 왜 하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책의 장례를 치러야 하나. 책이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잠깐 잠들어 있을 뿐, 곧 깨어날 거야. 보란 듯이 깨어나, "봐, 내가 언제 죽었다고 그래?"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움베르토 에코는 종이책이 바퀴나 면도기처럼 한 번 발명되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종이책을 읽기 위해서 전원이 나 배터리, 모니터 같은 2차 도구가 필요하지 않다. 저장 규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쓸모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VHS 비디오나 플로피 디스켓과는 다르다. 많은 책들이 보존만 잘 된다면 몇 백 년이

지나서도 읽을 수 있다. 나는 움베르토 에코에 동의한다. 종이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책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이 책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예전의 책은 오직 종이 책만을 의미했다.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책 안에 묶여 넣으려 노력했다. 지금은 세상 전체가 책이 되어가고 있다. 이야기와 지식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그것들을 보려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전광판, 모니터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즉각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한다. 세상은 읽을거리로 넘쳐나고 있다. 볼거리와 읽을거리의 구별도 사라졌다. 보르헤스는 우주가 도서관이라고 상상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꽂이로 가득한 벌집 같은 방을 '보르헤스의 우주'라며 그렸다. 하지만 보르헤스가 어렵게 이해한 것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일지도 모른다. 세상은 이미 거대한 책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다. 우리는 문자와 문자, 이미지와 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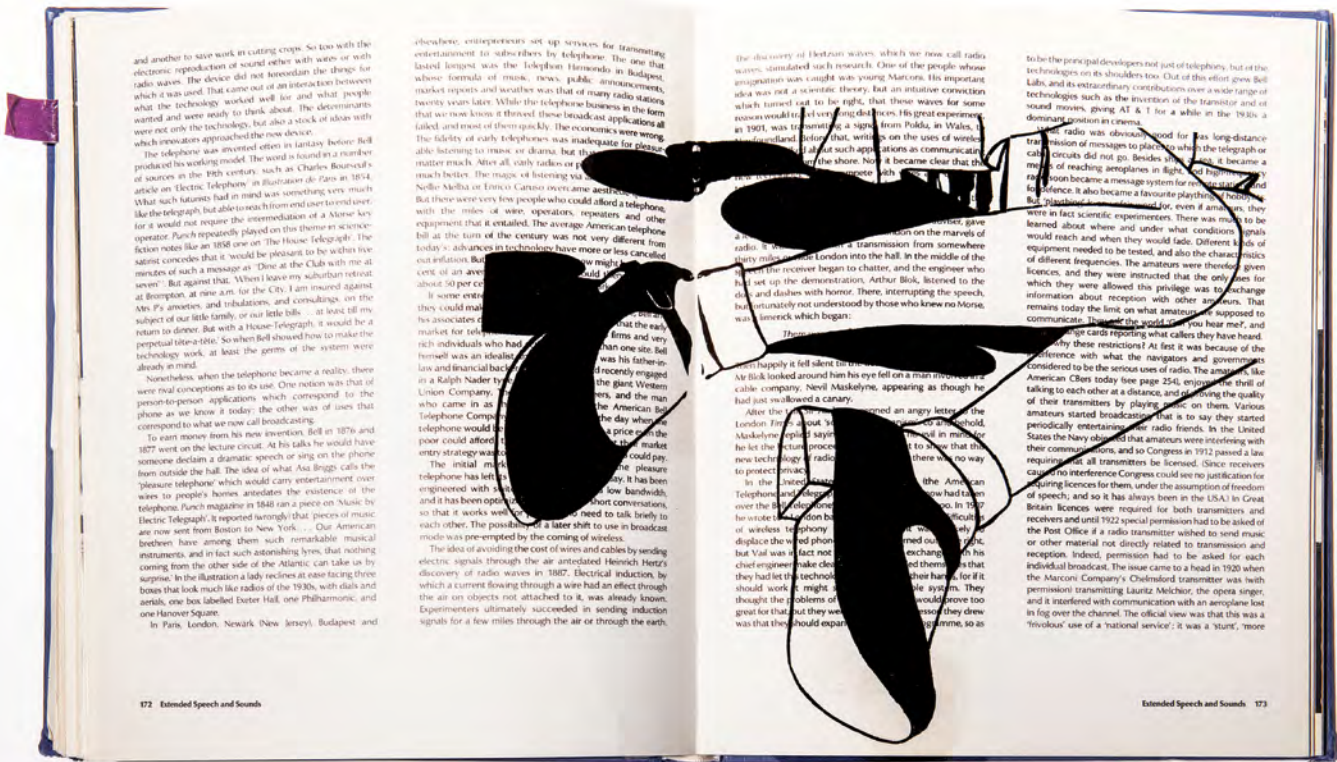


불가능한 열망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수집된 잡지 이미지_가변크기_2013~2014

지 사이를 지나 학교나 회사에 간다.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읽거나 본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멍하니 차창 밖을 바라보는 버스 승객은 이미 이상해 보인다.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어 더 이상 휴대폰을 읽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잠깐씩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다가 잠깐씩 일한다. 미셸 우엘벡은 『지도와 영토』에서 지도와 영토를 비교한다. 당연히 지도는 영토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서 축척이라는 게 필요하다. 500:1 이나 100,000:1 같은. 그런데 만약 1:1의 지도가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더 이상 지도라 부를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영토가 아닌 지도 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한 권의 거대한 책이라면 우리가 책을 더 이상 책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한 권의 책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지희킴의 작업은 의미심장하다. 한 권의 종이 책은 화가가 마음껏 뭔가를 그리기에는 너무 작은 사물이

다. 그것은 이미 책이 아니라 책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다, 일종의 기념품이다. 그 책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전히 폭력적으로 느껴진다. "이봐, 장의사 양반. 그분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다고!"라고 외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지희킴은 계속 작업한다. 기증 받은 책에 그림을 그려 책을 재맥락화한다. 그 책이 원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었던, 『사냥개 기르는 법』이든 중요치 않다. 지희킴은 종이 책이 갖고 있었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중이다. 바로 '물성'이다. 세계가 책으로 변해버린 후, 책의 물성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지도가 영토와 크기가 같을 때, 즉, 영토가 곧 지도일 때, 지도는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저 지도 위를 걸어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책이 세계이고, 세계가 곧 책인 세계에 던져진 불운한 독자들이다. 더욱 불운한 것은 우리가 아직도 종이 책의 물성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다. 잉크의 냄새, 손 끝에 만져지는 종



Formula of Public_기부 받은 책 페이지에 실크스크린_27.2x43cm_2016

이의 질감, 책장을 넘길 때 들리는 사각사각 소리, 아름답게 장식된 표지, 단단하게 인쇄된 활자의 느낌,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확고한 인상. 지금도 물론 종이 책은 우리 삶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읽고 있는 책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에 나는 지희킴이 종이책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작가는 종이책의 죽음을 은밀히 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문득 보니 기증 받은 책의 저자가 거의 대부분 남성이라구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작가는 말했다. 그렇다. 종이 책의 시대는 남성의 시대였다. 그들은 책과 논문을 썼고 그것을 출판했다. 출판된 책은 권위가 되어 도서관과 특급 호텔과 부잣집 서가를 장식했다. 지희킴은 그런 남성적 권위의 상징 위에 그 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가 그리고 싶은 것들, 남성들이 그닥 사랑스러워할 것 같지 않은 이미지들, 사타구니에서 피를 흘리는 여성이나, 해부대에 오른

개구리, 눈에서 눈물인지 광선인지를 발사하는 여자의 얼굴, 아예 얼굴이 없는 여자의 뒤통수를 그린다. 작가는 종이책 시대를 추억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선전포고로 책을 사용한다. "영국 유학 시절, 영어로 써어진 책을 읽어야만 했어요. 어느 순간, 책이 책으로 보이지 않고 글자의 덩어리로, 하나의 이미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책이 이미 책이 아니라면, 글자가 이미 글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녀는 그때부터 책 위에 자기만의 '낙서'를 시작했다. 그림으로써 읽을 수 없는 책이라도 존중 받던 시대, 책이 단지 책이라는 이유로 숭배 받던 시절이 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

EXERCISES B

In each of Exs. 1–4, a numerical quadrature formula is specified for approximately evaluating $\int_{-h}^h f(x) dx$. In each case: (a) compute the truncation error for $f(x) = x^4$, $n = 0, 1, 2, 3, \dots$, and (b) find the order of accuracy of the formula, using Taylor's formula with remainder, assuming $f(x)$ to be analytic.

1. Simpson's rule: $S[f] = \frac{h}{3} [f(-h) + 4f(0) + f(h)]$.

2. Cotes' rule: $C[f] = \frac{h}{4} \left[f(-h) + 3f\left(-\frac{h}{3}\right) + 3f\left(\frac{h}{3}\right) + f(h) \right]$.

3. Weddle's rule:

$$W[f] = \frac{h}{10} \left[f(-h) + 5f\left(-\frac{2h}{3}\right) + f\left(-\frac{h}{3}\right) + 6f(0) + f\left(\frac{h}{3}\right) + 5f\left(\frac{2h}{3}\right) + f(h) \right].$$

4. Hermite rule: $H[f] = h[f'(h) + f'(-h)] - \frac{h^2}{3} [f''(h) - f''(-h)]$.

5. (a) By expanding in Taylor's series about each point, show that if $h = (b-a)/n$ and $x_i = a + ih$, then

$$\int_a^b f(x) dx = h \sum_{i=0}^{n-1} \left[f(x_i) + \frac{h}{2} f'(x_i) + \frac{h^2}{6} f''(x_i) \right] + O(h^4).$$

(b) By using the preceding formula on $f'(x)$, show that

$$\int_a^b f(x) dx = h \sum_{i=1}^{n-1} f(x_i) + \frac{h}{2} [f(x_n) + f(x_0)] - \frac{h^2}{12} \sum_{i=0}^n f''(x_i) + O(h^4).$$

(c) Applying the result of (a) to $f''(x)$, show that

$$\int_a^b f(x) dx = \frac{h}{2} \sum_{i=0}^n [f(x_i) + f(x_{i-1})] - \frac{h^2}{12} [f'(b) - f'(a)] + O(h^4).$$

6*. In Ex. 3, find weighting coefficients w_k such that the approximation

$$w_0 f(-h) + w_1 f\left(-\frac{2h}{3}\right) + w_2 f\left(-\frac{h}{3}\right) + w_3 f(0) + w_4 f\left(\frac{h}{3}\right) + w_5 f\left(\frac{2h}{3}\right) + w_6 f(h)$$

to $\int_{-h}^h f(x) dx$ has a maximum order of accuracy. Compare with Weddle's rule.

7. Use Eq. (17) to estimate the difference

$$\ln 2 - \left[\sum_{k=1}^{10} \frac{2}{19+2k} - \frac{1}{800} \right].$$

Use Eq. (17), with $h = 0.2$, to evaluate the following numbers, approximately:

8. $\ln 2 = \int_0^1 dx/x$.

9. $\arctan 1 = \int_0^1 dx/(1+x^2)$.

10. $\int_0^1 \sqrt{1+x^4} dx$.

11. $\int_0^1 \sin(x^2) dx$.

12. Show that, if $|F''(x)| \leq \epsilon$ on $[a, b]$, the error in the midpoint quadrature formula is bounded by $\epsilon(b-a)|\Delta x|^2/24$.

6 TRAPEZOIDAL QUADRATURE

The formula for

$$T_n[f] = \frac{h}{2} [f(x_0) + f(x_n)]. \quad (20)$$

We have seen that the midpoint problem, as discussed in trapezoidal quadrature, is a special case of the

$$(21)$$

defined by the function $R(x) = F(x) - L(x)$. The error in the trapezoidal approximation is

Now consider a single interval of length h . Translate coordinates so that (x_1, x_2) becomes the interval $(-k, k)$. We have

$$R(x) = \int_{-k}^k G(x, \xi) d\xi$$

in which $R(x)$, defined as above to be the error in the trapezoidal approximation, and its trapezoidal approximation $T_n[F]$ are given by

$$G(x, \xi) = \frac{1}{2} (x - \xi)^2$$

The error in trapezoidal quadrature is

$$T_n[F] - \int_{-k}^k F(x) dx$$

Substituting for $R(x)$ the integral representation, the order of integration in the error is

$$T_n[F] - \int_{-k}^k F(x) dx = \int_{-k}^k \left\{ \int_{-k}^k G(x, \xi) dx \right\} F''(\xi) d\xi.$$

But by direct calculation, $\int_{-k}^k G(x, \xi) dx = (k^2 - \xi^2)/2$. Hence

THEOREM 6. The error in trapezoidal quadrature is exactly $\int_{-k}^k (k^2 - \xi^2) F''(\xi) d\xi$.

Further

M

$$h^3/12.$$

Time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다 - 최영을 위한 몇 개의 단상

한은형 소설가

이 글은 최영을 설명하기 위한 그야말로 몇 개의 단상들에 지나지 않는다. 최영과의 짧은 문답을 바탕으로 했으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소거되거나 축약되거나 확대되면서 원의가 훼손되었음을 밝혀둔다.

1. 현란

최영의 초기 작업은 현란하다. 현란한 대상을 그렸거나 대상을 현란하게 보이게 그렸거나 아니면 현란한 대상을 더 현란하게 보이게 그렸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현란이란 무슨 뜻인가? 현란(眩亂). 아찔할 ‘현’, 어지러운 ‘란’.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한다.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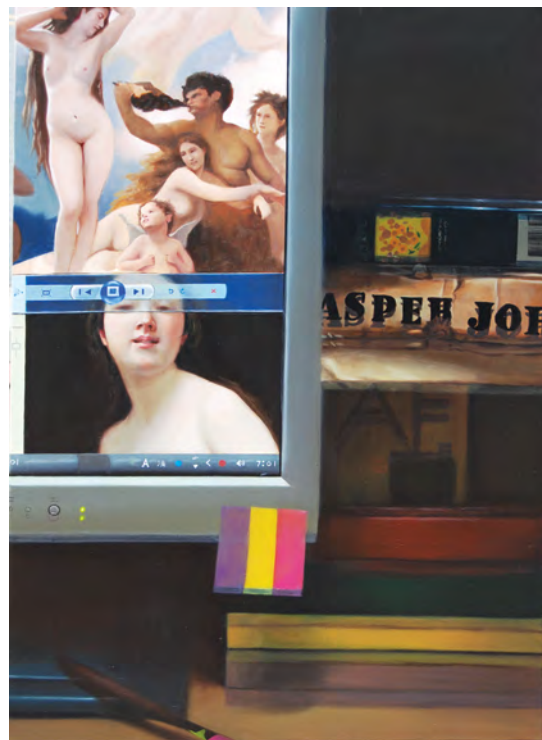
이제 묻자. 최영은 왜 아찔하고 어지러운가? 왜 그런가? 일단 대상의 문제. 몸이다. 그는 벗은 몸을 그렸다. (벗은 몸은 현란한가? 꼭 그런가?)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는 벗은 몸을 어떻게 그렸나? 재현의 문제다. 최영은 클로즈업했다. 풀린 눈, 벌어진 분홍빛 입술, 벌겋게 상기된 남자의 성기 같은 것이 잘 보이도록 말이다.

2. 클로즈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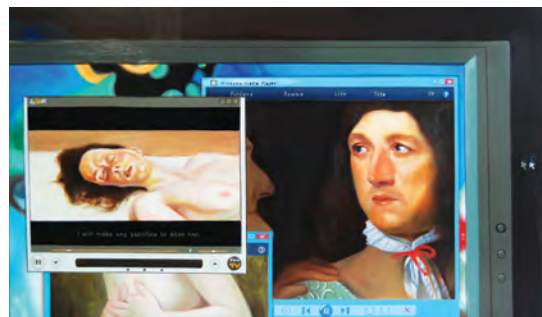
노출된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것은 포르노그래피가 사용하는 주된 기법이기도 하다. 한 사전은 클로즈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으로 연기의 일부를 확대해 보여 주거나 사물을 확대해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¹ 확대하려면 선택해야 한다. 대상을 선택한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대상을 배제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강조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최영은 무엇을 강조하나? 다시, 대상의 문제다.

3. 불러다 준 그림

최영은 벗은 몸을 그렸다고 1.에서 말했다. 누구의 누드인가? 루시앙



불러다 준 그림_Oil on Canvas_80×117cm_2009



불러다 준 그림_Oil on Canvas_90×60cm_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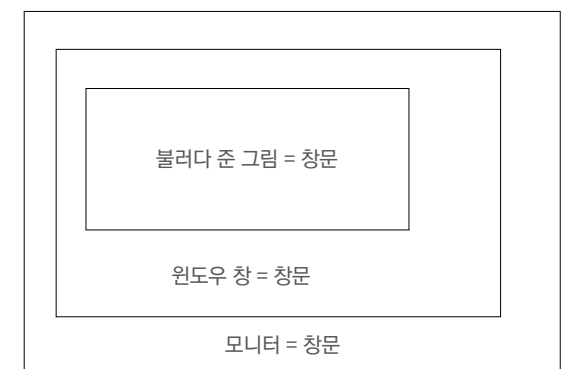
불러다 준 그림 2_Oil on Canvas_164×60cm_2009

프로이트, 윌리엄 부게로, 마네, 쿠르베가 그린 누드를 다시 그렸다. 어떻게? 그의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이트, 부게로, 마네, 쿠르베의 ‘그림’을 보고 그렸다. 그런데 이 ‘그림’을 정말 프로이트, 부게로, 마네, 쿠르베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나? 원본 그림을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고, 그것은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져 웹에 업로드된다. 웹에 게시된 이미지는 우리의 컴퓨터로 옮겨오면서 다시 변형된다. 우리의 모니터 해상도, 색온도, 사양 등등의 개별적이고 상이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영은 이런 ‘그림’을, 원본으로부터 여러 차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림을, 〈불러다 준 그림〉이라고 부른다. ‘본다’라는 행위에 질문을 던지면서 작업을 시작한 작가답게 최영은 자신의 첫 전시 제목을 〈불러다 준 그림〉이라고 붙인다.

4. 창문과 윈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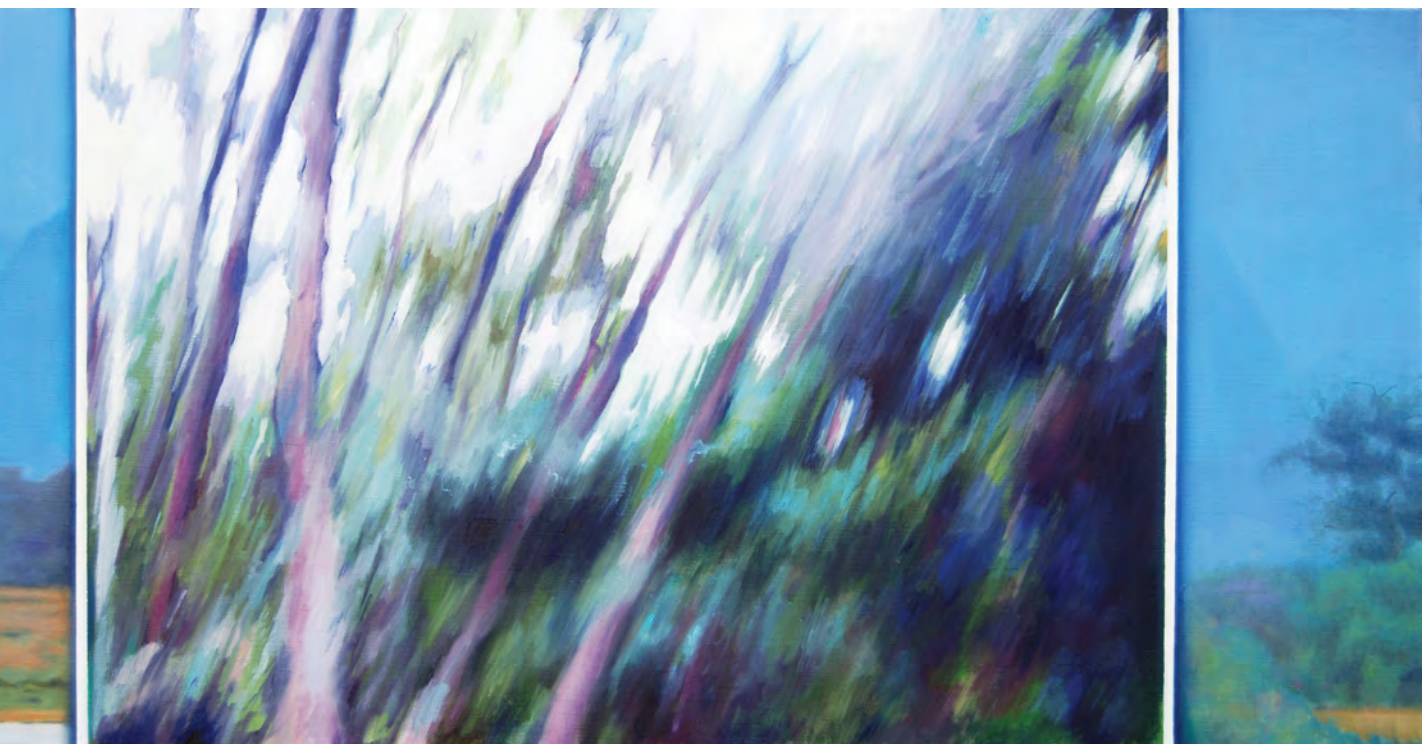
〈불러다 준 그림〉에 최영은 일종의 ‘액자’를 그렸다. 프로이트, 부게로, 마네, 쿠르베의 〈불러다 준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액자까지 말이다. 그러니까 윈도우 창이다. 이 시리즈 중 한 점에는 윈도우 창과 그 윈도우 창밖의 컴퓨터 모니터까지 그렸다. 이쯤에서 최영의 말을 참고하기로 한다. “과거에 그림은 일종의 창문이었다. 사람들은 창문 대신 풍경을 걸어놓았다. 현재는 윈도우가 그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모니터 화면을 그렸다.” 재미있는 말이다. 이

말의 위계를 정리하자면 이렇다. 그림 = 창문 = 모니터 = 윈도우 창.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최영의 그림을 벽에 거는 행위는 세 개의 겹 창문을 벽에 내는 일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는 세 개의 그림 혹은 세 개의 창문 혹은 세 개의 윈도우 창이 있게 되는 셈이라고. 순환반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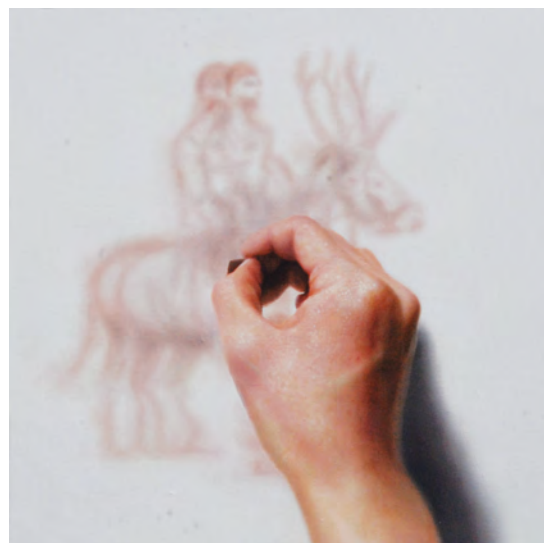
1 『영화사전』, propaganda,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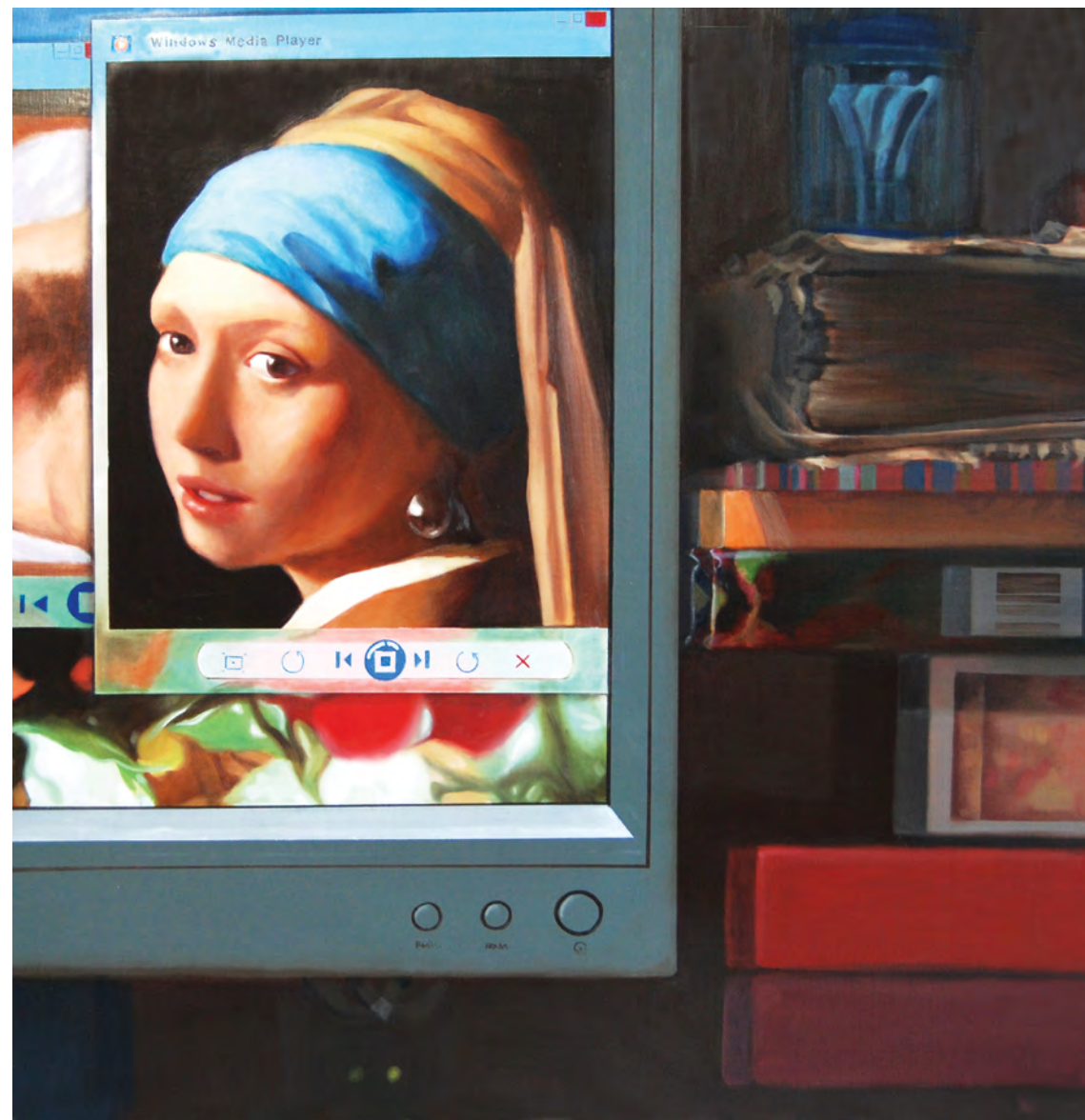
불러다 준 그림_Oil on Canvas_113×60cm_2009

5. '본다'는 문제

최영은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지속한다. 보이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나?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덜(혹은 못) 보나? 보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 눈으로 보는 것과 두 눈으로 보는 건 어떻게 다른가? 두 눈으로 보는 것과 카메라의 렌즈로 보는 건 어떻게 다른가? 두 눈으로 보는 것과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양안시차(Binocular Disparity)'라는 현상 때문이다. 최영은 한동안 '양안시차'에 집착한다. 그에게 '본다'는 것은 곧 '그린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은 보는 것을 그렸고, 그리는 것을 봤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했다. 그는 몸을 써서 보고, 손을 써서 그린다. 몸은 손이 되고, 손은 몸이 되고, 몸은 다시 손이 된다. 끝이 없다. 끝과 시작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시, 순환반복이다.



나의 오른손_Oil on Canvas_41×41cm_2015



불러다 준 그림_Oil on Canvas_100×100cm_2009

6. 끝과 시작

왜 이렇게 최영은 어지러운가? 그의 최근 작업 〈Parallax〉 연작을 보고 그 실마리를 얻었다. Parallax, 시차(視差)라는 뜻이다. 내가 본 〈Parallax〉 연작은 두 점이었는데, 하나는 꽃, 다른 하나는 가시 식물을 그린 것이다. 그냥 관습적으로 그랬을 리는 없고, 앞과 뒷면을 겹쳐지게 그렸다. 질문이 들었다. 앞의 상(象)에 뒤의 상을 겹친 것인가, 아니면 뒤의 상에 앞의 상을 겹친 것인가? 그리고 이런 질문도.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지? '앞'을 '앞'으로 '뒤'를 '뒤로 부를 뿐이지 '앞'은 '앞으로', '뒤'는 '뒤로 불릴 필연성이 없지 않나? 그리고 이런 질문도. 그렇다면 '시작'과 '끝' 사이의 논리도 파괴되어야 한다. '시작' 뒤에 '끝'이 온다는 것은 관습에 지나지 않으며, '끝' 이후에 '시작'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끝은 시작이 되고, 시작은 끝이 되고, 끝은 다시 시작되어 영원히 순환한다는 것. 이것이 최영의 세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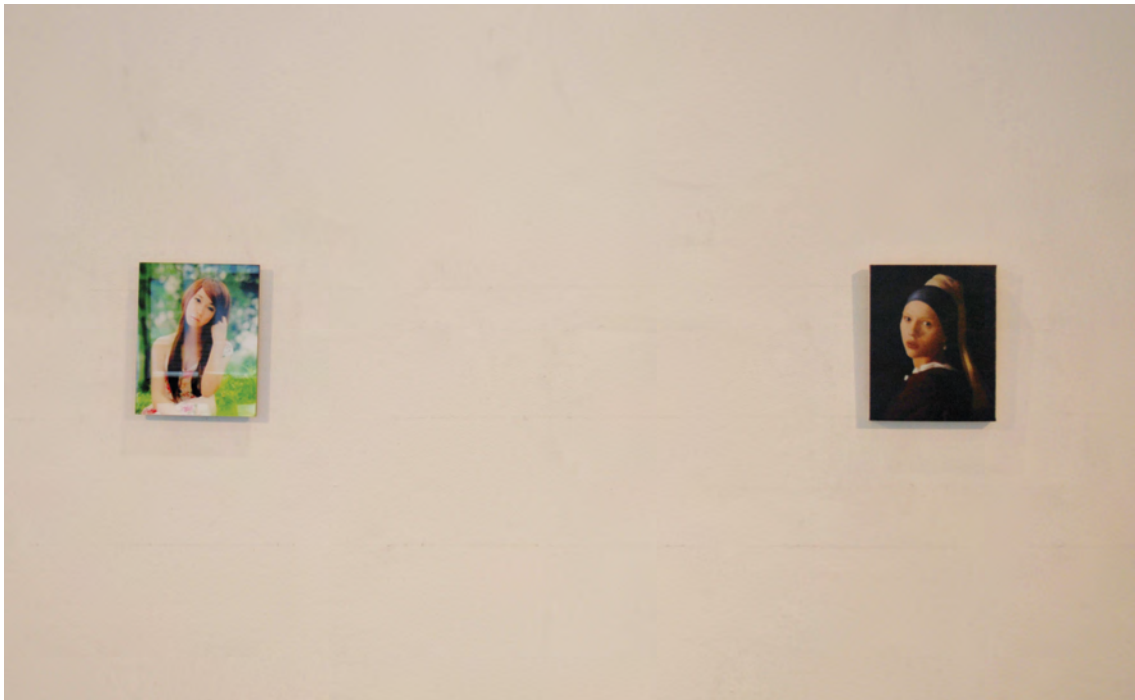
Parallax_Oil on Canvas_120x120cm_2016

7. 스테레오타입 혹은 클리셰

최영은 핀란드 사진작가 펠릭스(Felix)와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명은 '말 옮기기 게임'. 최영에게 들은 걸 자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미지는 어떻게 복제되고, 원본은 어떻게 훼손되고, 복제본은 원본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며, 애초에 원본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으며 시작한 작업으로 보인다. 최영과 펠릭스는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인 최영이 생각하는 서양 여자 이미지를 펠릭스에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고, 서양인 펠릭스가 생각하는 동양 여자 이미지를 최영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는 그들이 주고받은 이미지를 각자의 작업방식으로 변환하여 다시 주고받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비물질적이며 동시에 물질적인 이들의 대화에 진지한 흥분을 느낀다.



Parallax_Oil on Canvas_120x120cm_2016



〈말 전달놀이〉설치 전경



〈말 전달놀이〉설치 전경



펠릭스_Stereotype_디아섹_16×20c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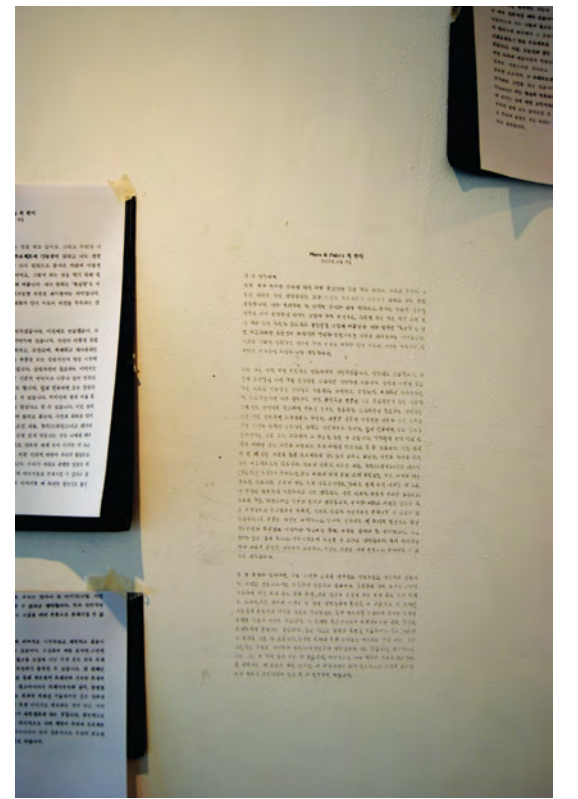
최영_Girl with a Pearl Earring_Oil on Canvas_16×20_2015

8. 팰린드롬과 이조그람

팰린드롬(palindrome)은 앞뒤 어느 쪽에서 읽어도 같은 글을 말한다. 회문(回文)이라고도 한다. ‘카프카’를 앞으로 읽어도 카프카, 뒤로부터 읽어도 카프카가 되는 것 같은 문장구조가 팰린드롬이다. 이조그람(isogramme)은 동일한 철자로 구성되는 문장이 띄어쓰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기법이다. 이를테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 가신다’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같은 것. 팰린드롬과 이조그람은 수사학적 장난이다. 이 장난은 재미에서 시작해서 그 너머의 것을 겨냥한다. 문법을 흔들거나 깨뜨리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거나 혹은 또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최영은 ‘팰린드롬’의 길을 지나 ‘이조그람’의 세계를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부기)

‘말 옮기기 게임’의 말은 ‘말(馬)’인가 아니면 ‘말(言)’인가? (나의 상상을 제한받기 싫어서 최영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馬라도 그럴 듯하고, 言이라도 그럴 듯하다. 부디 ‘말’이 자유를 얻기를. ♪



〈말 전달놀이〉설치 전경

클라라 페트라 사보 Klara Petra SZABO

I practice the lifestyle of the contemporary travelling artist as professionally as I practice watercolour painting. This lifestyle, which includes moving from one residency program to the other, is intimately connected to my thematic and stylistic interests. I use of various materials, while also exploring the possible ways of 'intermedializing' traditional watercolour techniques.

For the work of <UNDER THE SAME SKY>, I combined together my watercolor paintings with lenticular lenses. The shape of the work is a paper box, which symbolize my life. I can collect my memories, my clothes into boxes. I'm always traveling, so mostly I put my stuffs into paper boxes. Outside ordinary, but inside full with memories. There is a self-portrait in the middle of the box and moving because of the lenticular lens. When I open my eyes, the background is my hometown in Hungary, when I close my eyes, the background is Korea.

My another work during the IAP Residency <BETWEEN THE FOUR WALLS> is a carefully hand painted watercolor animation. I resolves this by carefully painting as many frames on day to day basis - striving to communicate my intimacy. Used of watercolor which challenges perceptions of painting as a domestic craft and recasts it as a tool of critical investigation and self discovery.

Hide and show the memories, our identities through different ways, research and reflect their meanings in an interactive way, this is my third work the <MEMORANDUM>. I took photos from the people of Incheon. I met them day by day during my stay, like the lady from my favorite restaurant or the boy who is selling fruits on the Sinpo Market. Used Fuji instant photos for my installation and cover them by a special thermo paint, what is normally black, but becomes transparent if its temperature rises. When the viewer watch my work, a moving sensor turn on a special heating system behind the photo and because of the heat, my work become visible. In this way I can repeat the process of the recall again and again. Like when we remember our memories. I invite the viewer to get involved with the artwork, that's why I use the thermo paint.

Klara Petra SZABO



Between the Four Walls_Watercolour Animation



Screening View of <Between the four walls>_Incheon Art Platform_2015

나는 수채화를 그리는 예술가이다. 동시에 전문적으로 여행을 하는 현대예술가이기도 하다. 내가 수행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은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을 옮겨 가며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이 점은 나의 작품 주제 및 스타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수채화 기법들을 현대로 가져오는 방식들을 탐색한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에서 나는 수채화와 렌티큘레 입체 사진을 조합했다. 작품은 종이상자의 형태를 띄며 이는 곧 나의 삶을 상징한다. 나는 나의 기억이나 옷가지들을 상자 속에 넣곤 한다. 언제나 여행중인 바람에 대부분의 물건들을 종이상자에 넣기 때문이다. 상자의 겉 모습은 평범하지만 내부는 기억들로 가득하다. 상자의 한 가운데엔 자화상이 있는데 렌티큘러 렌즈로 움직임이 있다. 내가 눈을 뜨면 배경은 형가리의 내 고향마을이지만 눈을 감으면 한국이 배경이 된다.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기간 중 만든 또 다른 작품은 〈네 개의 벽 사이에서〉로 섬세하게 수작업한 수채화 애니메이션이다. 이 작업을 위해 나는 하루하루 가능한 많은 프레임들 그려내기로 결심하며 나의 내면과 소통하는 데 애쓰기로 했다. 그 결과,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는

일은 과거 가내 공예품에 불과했던 회화에 대한 인식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비평적인 연구와 자기발견의 도구로써 새로이 제시되었다.

기억을 숨기고 또 내보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각기 다른 길을 통과하는 동안, 그 상호 작용 속의 의미들을 연구하고 반추하는 것. 이것이 나의 세 번째 작품 〈MEMORANDUM〉이다. 나는 인천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다. 머무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식당의 여종업원이나 신포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소년이 그랬다. 설치작품은 후지 즉석 사진들로 구성했는데 이 사진들에 특별한 안료를 덧발랐다. 이 재료는 보통 때에는 평범한 검정색이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투명해진다. 따라서 관객들이 나의 작품을 볼 때면, 움직이는 센서가 특별한 전열 장치를 켜게 되고 그제서야 내 작업이 보이게 된다. 이 방식을 통해 나는 다시 불러오는(recall) 작업을 반복할 수 있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억을 되살리듯이. 나는 관객들을 초대해 이 예술작품들과 관계맺기를 희망했고 그러한 이유로 이 특별한 안료를 이용했다. ✿

클라라 페트라 사보



<Between the Four Walls> 작업과정



Screening View of <Together Alone>_Incheon Art Platform_2015



Under the Same Sky



Under the Same Sky

폴 주커 Paul ZUERKER



Mixed Plate_Digital Print, Latex, Acrylic Plates_22×30cm each_2015



함부르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폴 주커(Paul Zürker)는 미디어를 비롯해 드로잉, 회화, 미디어 설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업을 한다. 그는 매체를 단순한 미학적 오브제가 아니라 관객이 자신의 몸과 상상력과 정신을 통해 작품의 또 다른 주체로서 작품의 공간으로 개입하도록 만든다. 그는 이런 작업을 위해 발명가의 태도를 가지고 작업한다. 예를 들면 원근법과 같은 미술의 역사에서 발명된 최고의 형식적 장치들과 인간의 지각이 조우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각적 인식의 변화가 공간에서 인간적 현실이라는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환기시키는가와 같은 지각과 인식의 문제들을 예술을 통해 끌어내려고 노력한다. 특히 그의 미디어적인 관심을 통해 작품과 관객의 관계는 이 세계의 다양한 사유의 형식들을 존재의 형식적 관찰로 전환시키고 또 확장적으로 재구성하는 계기적인 성찰적 상황들로 변화한다. 이런 면에서 그의 작품에서 예술작품의 제작과 의미의 기호적 상황들에 관한 해석의 과정이 중요한 예술적 의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작가 자신만의 개성적인 예술적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P](#)

글 정용도



Length of Product Line_Mixed Media_ca. 4m_2015



Reg Exp_Towel, Latex_50×100cm_2015



www.etymonline.com/index.php?term=touch_
Towel, Latex, Food, Glass_120×120×120cm_2015

함정식 HAM Jeongsik

다르게 기도하기

박준상 송실대 철학과 교수

함정식은 메시지 전달을 자신의 작업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철학적 차원에서든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든 예술적·미학적 차원에서든 ‘주장해야 할’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관념이나 사상(思想)도 설정해 놓고 있지 않다. 영상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 젊은 작가는 이미지의 물질성 자체에 대한 탐구에 전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의 작업의 의도는 정식화될 수 있는 어떤 의미(내용)를 제시하는 데에 있지 않고, 어떤 상황의 다양한 측면과 층위를 표현하는 데에, 그에 따라 사람들 각자에게 그 상황에 대해 반추해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데에 있다. 그가 내용을 무시하는 형식주의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그가 미리 정립되어 있거나 사람들에게 주입시켜야 할 어떠한 관념도 내세우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나의 상황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그 상황의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어떤 관념을 ‘전시(展示)’해놓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 그것은 함정식을 비롯한 작가 일반의 몫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또는 원칙적으로 작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작품 뒤에 숨겨놓거나 심지어는 무화(無化)시키기를 원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로 작품이 현시시키는 어떤 정념이나 느낌을 어떠한 명제로도 쉽게 규정되지 않을 ‘비밀’로 ‘드러내기를’ 원할 것이다. 문학에서든 미술에서든 영화에서든 무릇 좋은 작품은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아펙트(affect)를 전해주지만, 그러한 만큼 하나의 해석으로 손쉽게 한정되지 않고, 또한 그러한 만큼 지속적으로 의문거리로 남는다. 먼저 함정식의 작업 결과물들이 내게 물음표를 던져 주었고 물음표로 계속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특히 기독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의 최근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작업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또한 나는 그 해석이 단순히 해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응답이나 웃음으로, 응답의 웃음으로, 웃음의 응답으로 될 수 있는 지점으로 향해 있기를 원한다.

함정식은 내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었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 그만두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그러한 말을 염두에 두면서 한국의 기

독교가 주제로 설정되어 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단편 영화 〈기도〉를 주의 깊게 보았고, 그러면서 그에게는 기독교가 중요한 문제이자 지속적인 성찰의 대상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의문들이 들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성(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후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은 거의 무관하지 않은가? 교회로부터, 또한 사실상 기독교로부터도, 보다 정확히 말해 ‘한국’ 기독교(‘한국’ 기독교, 왜냐하면 함정식의 궁극적 탐구 대상은 종교 자체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이곳에서의 사회적·실존적 현상·상황으로서의 기독교이기 때문이다)로부터도 이미 발을 뺀 것처럼 보이는 그가 왜 다시 그 문제로 되돌아갔는가? 한국 기독교 문제에 대한 그의 천착의 총결산인 그 단편 영화의 제목은 왜 〈기도(祈禱)〉인가? 그렇다면 그는 또 다른 종교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함정식 자신이며-“나는 오랜만에 기도드렸다”-, 이는 이 작품 자체를 일종의 기도로 보게 만든다. 그에게는 이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도이며, 그는 이 작품을 보는 어느 누가 자신의 기도 소리를, 기도의 침묵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 또한 기독교, 한국 기독교 바깥에서, 서울의 퇴락한 한 지역 동대문구 이문동(〈기도〉와 이 단편 영화에 삽입되었고 그 이전에 독립된 창작물로 발표되었던 〈내게 강 같은 평화〉의 배경이 된 장소)에서, 말하자면 잔인한 광기(신자유주의? 지배자들이지만 근본적으로 천민들이자 노예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극우 정치? ‘헬 조선’?)로 인해 갈거리 찢긴, 그래서 더 초라하고 더 남루하고 더 고독한 우리 사이에서.

〈기도〉는 오후에서 밤까지 하루 동안 이문동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영화의 도입부에 오래된, 대개 80년대에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단독 주택들이 채우고 있는 이문동 거리들의 여러 일상적 풍경이 연이



기도_HD_24'27" _2015



내게 강 같은 평화_HD_03'23" _2012



기도_HD_24'27" _2015

어 나타난다. 그 풍경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 아무거나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찍어대는 습관을 가진 '사진 찍는 여자'가 셔터를 눌러 얻어낸 이미지들이다. 그녀는 애인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와 이문동 거리들을 거닐면서 사소하고 무의미한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내고, 꽃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셔터를 누르고는 "귀여워, 아기자기해"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애인과 함께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그녀는 우연히 지나치게 된 한 주택의 여기저기를 찍다가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나온 조야한 차림과 태도의 불량스러운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 남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증오와 경멸과 원망과 자조·허무가 교차라는 묘한 눈빛으로 커플을 노려보고, 그 눈빛에 위협을 느낀 그녀의 애인은 그와 말없는 실랑이를 벌인다. 그러나 커플은 그 집을 그냥 떠나고, 둘만 남게 된 후 남자는 그녀에게 대단히 불쾌하다고 말하면서 화 난 심기를 내비치고 아무거나 아무나 찍어대는 그녀의 습관을 "굉장히 안 좋고 유지하기까지 하다"면서 그녀를 탓한다. 그러한 원망을 듣고 나서 그녀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고 제안하고, 그는 짧은 말로 동의한 후 그녀를 거리에 남겨두고 가버린다. 그녀는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 혼자 그 집

에 다시 찾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 남자와 다시 마주한다. 이어서 그의 사진을 꼭 찍고 싶다고 요청하는데, 그는 의아해 하면서 거절하고 꺼져버리라는 단언을 남긴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서 자신의 아내가 있는 옥상으로 올라간다. 그의 아내는 거기에 커다란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 하나를 세워놓고 그 옆에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며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본 그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내를 구타하는데, 그녀는 마친 가지로 욕설로 응수하면서 그를 저주한다. 흥분한 채로 텐트 밖으로 나온 그는 자신 앞에서 카메라(스마트폰)를 들고 있는 '사진 찍는 여자'와 다시 마주하게 된다. 둘 사이에 다시 긴장이 흐르고, 그녀는 그를 찍을 준비를 하는데, 이에 극도로 자극된 그는 옷통을 벗어젖히고 "오늘 사람 하나 죽일 일 생겼다"면서 그녀를 향해 달려들려 한다. 그 위협 앞에서 그녀는 그를 향해 셔터를 누른다.

이러한 허구의 이야기 앞뒤로 함정식이 실제로 겪었던, 자막으로 처리된 이야기가 배치된다. 앞에서 우리는 그가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자신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



Mood Light_HD_03'46" _2015

다는 문장들을 읽을 수 있고, 뒤에서, 즉 영화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선선히 응했으며 자신의 실제 번호를 건넸다는 문장들이 지나간다. 이어서 영화의 맨 마지막이 이러한 자막으로 끝난다. "내 걱정과 달리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다. 나는 오랜만에 기도드렸다. 아멘."

왜 함정식은 비록 자막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기도드림으로써 영화를 마무리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기도드리는가? 이러한 물음은 그 자체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가 과거에 교회를 다니면서-형식적으로든 아니든-믿었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는 필자에게 보냈던 메일 한 통에서 이렇게 썼다. "얼마 전까지 저는 '한국의 기독교'와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작업들에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그 반대의 입장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교회)가 존재하는(힘을 발휘하는)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무슨 음악을 듣고 거기서 어떤 감각을 공유하는지 보여주는 작업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와 같이 겉이 두터운 소재를 다룰 때, 작가가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기독교를 찬양하느냐'고 물었고, 누군가는 '한국의 기독교는 역시 별수 없죠'하며 의중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제시했던 <기도>의 줄거리만을 두고 볼 때 함정식은 대체로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화 안에 삽입되어 있고 그 이전에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영상 작업이었던 <내게 강 같은 평화>와 또 다른 영상 작업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보면 그의 입장은 해독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작(前作)은 검은 색 망토의 죽음을 상징하는 악마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악마는 어울리지 않게 손에 불빛을 들고 한밤중에 이문동의 초라한 골목골목을 훑으며 누비고 다닌다. 그 악마는 쇠락한 장소에 잠들어 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빛을 전해주는 악마, 악마가 전해주는 빛이라는 아이러니. 후작(後作)은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 맞추어 느리게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 산발 여인의 뒷모습을 비춘다. 산발 때문에 어쩔 수



기도_HD_24'27" _2015

없이 귀신처럼 보이는 이 여인은 어둠 속에서 자신 앞에 펼쳐지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자연의 영상(영화 「고야니스카시」의 산·하늘·구름·등의 장엄한 이미지들, 그것들은 일종의 초월성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을 응시하면서 기도하고 신의 은총을 갈구한다. 그러나 작가의 시선이 궁극적으로 향해 있는 지점은 초월적이거나 탈세속적인 어느 지점이, 천상의 종교인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의 은총이나 영혼의 구원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다. 그 지점은 기독교 자체와 거의 무관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함정식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에서 취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의 한국 기독교에 대한 탐색은 종교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차원에서 전개된다.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이 작품에 붙인 그 자신의 언급대로, '낙후된 동네 대한 기도'일 뿐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상에서, 이 세상에서 절망한 한 인간이 사실상 하나님이나 자기 자신과 타인들을 향해 내뿜는 탄식일 뿐이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 앞에 쏟아내는 울음, 〈기도〉에서 옥상에 텐트치고 그 안에서 신을 갈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신음도 결국 이문동의 아무개가-궁핍 때문이든, 차별 때문이든, 과도한 노동 때문이든, 어쨌든 종교 자체와는 무관한 이유로-막다른 골목에서 토해내는 절규와 어떠한 점에서도 다르지 않다. 함정식은 다만, 그냥, 어떠한 종교적 문맥도 없이 이문동의 그 아무개를 위해, 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아무개를 향해서 또 다른 아무개의 '아무개'라는 이름과 자격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신론적(無神論的)인, 보다 정확히 말해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단순히 무관한 그의 종교성이 있다.

함정식이 드리는 기도에는 단순한 심오함이 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변절한' 이 청년은 그 나이 또래의 '배교자들'이 흔히 그렇게 하듯 한국 기독교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천민자본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단순히 제단하지 않고, 그들이 한국 기독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들(그것들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종교적이지 않고 정치적·사회적이다)을 성찰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통의 영역(그것 역시 종교적·기독교적이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보편적·일반적이다)을 공유하고 그들과 그들의 고통을 향해 단순하게 자신을 연다. 물론 한국 기독교가 이제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의 산물이자 그 자본주의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공고히 하고 있다는 비판은 그 자체로서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원칙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권력자들과 엘리트들을 향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만약 자본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이문동의 어느 기독교인에게로 향한다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기독교인을 향해 드리는 함정식의 기도는 어떤 관념의 반복-그것이 설사 '비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이 아니라, 무명씨들의 공동의 삶의 구체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행위'라는 점에서 심오하다.



기도_HD_24'27" 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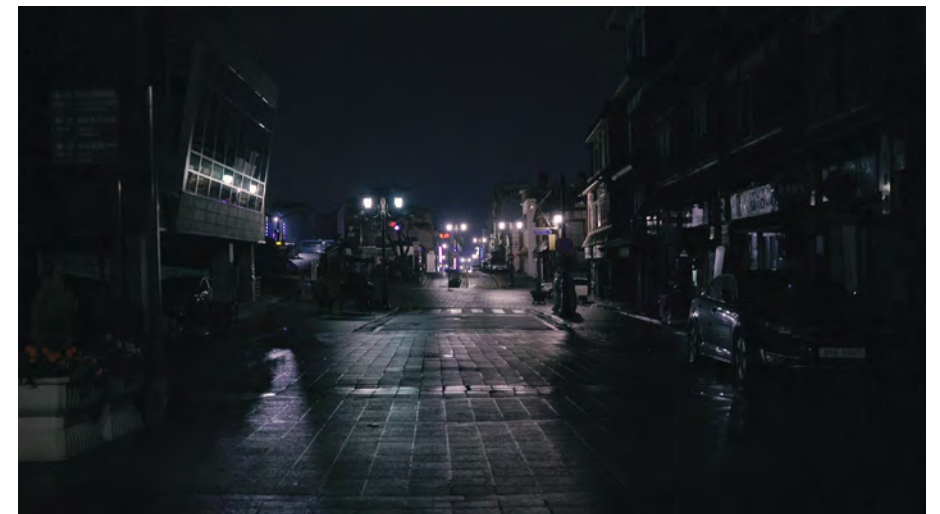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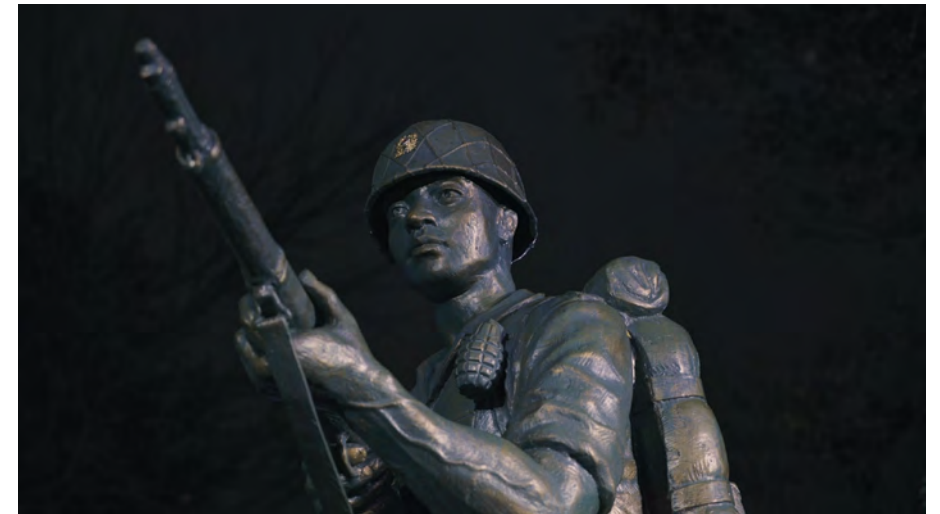
둘째 그의 작업들의 형식적 측면을 되돌려 볼 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의 기도의 심오함이다. 그의 작업들은,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은 조야한, 나아가 '싸구려'의 이미지들과 경박하거나 청송맞은 음악(〈내게 강 같은 평화〉에 삽입된 핑크 디스코풍의 같은 제목의 찬송가, 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서 들을 수 있는 처량하게 편곡된 같은 제목의 찬송가)으로 채워져 있어서, 사실상 기도와 같은 어쨌든 '진지한' 행위를 위한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같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왜 이 작품의 제목이 '기도'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함정식은 거룩한 의식(儀式) 가운데, 성스럽고 장엄한 종교음악을 배경으로, 엄숙하고 심각한 표정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의 기도는 저잣거리에서 드물게 일어날 수 있는 무상(無償)의 행위 하나에 가깝다. 가령 한번 짓는 미소, 우정의 웃음, 한 번의 악수 건넌, 또는 미약하게 번져나가는 눈물, 그것은 검은 구름을 순간 뚫고 나오는, 그러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햇빛과 같아서 그의 작품에 비밀이나 의문거리로 매설(埋設)되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기도〉의 경우 이러한 것이다. 옷통을 벗어젖히고 달려들려는 그 남자의 폭력의 위협 앞에서 셔터를 누르는 '사진 찍는 여자'의 행위. 그것은 시각의 일반적 작용의, 즉 거리를 두고 규정하며 구분하고 분석하고 판결하는 시각의 지적(知的) 작용(본다는 것과 인식하고 구별하는 지적 작용의 동일성, 데카르트의 말대로-정확한 인용은 아니지만 기억에 따라 인용해본다면-"명석하고 판명하게 본다는

것은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의 반대편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것이나 어느 누구를 향해 자신을 열고 다가가는 움직임, 일종의 어루만짐("눈이 더듬는 행위는 촉각적인 쓰다듬음의 특출한 변양이다"라는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말을 되돌려보자), 일종의 악수 건넌, 끌어안기. '사진 찍는 여자'는 이문동의 여러 사물·풍경을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어루만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거친 남자를 쓰다듬고자 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작가 함정식이 〈기도〉라는 작품 바깥에서 실제로 했던 행위 하나, 이미 교회를 떠난 자신에게 다시 교회에 다니라고 종용할 뻔한 의도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할머니에게 그것을 단순히 건네주었던 행위, 그것은 매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행위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거대화된 '천민자본주의'의 저잣거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열림의 몸짓이다. 즉 어쨌든 일종의 기도, 또 다른 기도, 한 무명씨로 향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기도,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찮고 무의미하며 단순하기에 한국 기독교의 거대한 조직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완강한 이데올로기 한복판에 뚫린 구멍을 가리킨다. 진정한 종교성은 '내'가 '나'의 예고를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자본의 욕망과 어떠한 점에서도 다르지 않은 신과 구원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단순히, 단순히 '너'와 '나' 사이에 있을 것이다. ✚



Mood Light_HD_09'46" _2015



풍경(風囀)〈뜨리틀제스처〉 공연의 아웃트로 영상 제작, HD_01'20" _2015



경마 인터뷰_2 Channel Video_06'02"_2016



경마 인터뷰_2 Channel Video_06'02"_2016

인천아트플랫폼
2015 IAP 공연 입주작가 쇼케이스 | 김성배

“일상이 비일상으로 전환되는 즉흥적인 연행,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Ritual

의례

「 part 1 Greeting 영신
part 2 Possession 점신
part 3 Sending Message 공수
part 4 Finale 송신 」

김성배 (Bass)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Contemporary Music Label ILLSOUND 대표
월드뮤직그룹 SE:UM 음악감독

2015.12.12 PM 5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제작 후원: 아프리카(AFRICA) 김영수
인천시 중구 용매동에 위치한 목공소이다. 대표 김영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는 나무로 누구든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아티스트와의 협업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주최하고 있다.

IFAC 인천문화재단
아프리카아트플랫폼
AFRICA

입장료 20,000원

[illegible]

재즈 음악가 김성배는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아트 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풍어제 굿을 새롭게 해석한 프로젝트 〈의례 Ritual〉를 선보였다. 인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풍어제 굿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음악가 김성배는 이 쇼케이스를 통하여 굿의 음악을 국악, 재즈, 사운드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국악 타악연주자 김동원, 재즈 아티스트 김성완, 이하윤, 표진호, 사운드 아티스트 권현우, WYM 등 음악계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프랑스 현대무용 안무가인 셀린 바케(Celine Bacque)가 무용수로 함께했다. 또한,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인 엄지희가 무대 디자인을 맡아 무대에 예술적 완성도를 더했다. 





김성용 KIM Sungyong

린치(Lynch)

김예림 무용평론가

지난 2015년 11월 7일 인천아트플랫폼 A동 크리스탈큐브에서 김성용 안무의 <린치(LYNCH)>의 쇼케이스가 발표되었다. 이번 작품은 한국과 일본의 두 여성 무용수 박은영, 마리코 카키자키(Mariko Kakizaki) 두 사람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것으로,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춤색을 지닌 무용수의 만남으로 주목되는 참신한 프로젝트의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 쇼케이스는 10월 26일부터 한국(대구와 인천)에서 두 명의 무용수와 함께 창작의 시간을 가지며 제작한 작품 중 25분의 짧은 소품의 형태로 발표한 것으로, 내년인 2016년 상반기 중에는 1시간짜리 작품으로 완성하여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작품 <린치>는 안무가 김성용이 '폭력'을 주제로 안무하는 세 번째 작품으로, 물리적으로 강제되는 폭력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폭력과 그 폭력의 전이에 노출된 나와 집단 그리고 너(당신)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인류가 처해 있는 반복된 폭력의 역사는 점점 더 세계 그 범위를 넓히고 있고, 이런 잔인한 상황 속에서 악의는 없을지라도 주변의 폭력에 침묵하는 다수의 행동은 또 다른 무서운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을 담아낸 작품으로서, <움직이는 폭력 에피소드 Moving Violence Episode 1 & 2>에 이어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안무가 김성용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약한 개인이 대항하기 어려운 구조적 폭력과 그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폭력 에피소드 Moving Violence Episode 1 & 2>에서 남녀 듀엣으로 풀어냈다.

지난 두 작업에서 그는 구조적이고 반복되는 폭력적 상황을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폭력에 노출되어 고통 받는 개인과 집단 속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이를 외면하는 다수의 잔인한 침묵, 불편한 시선, 압박 속에 괴로워하는 '나'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여성 무용수 2명을 등장시켜 풀어냈다.

무용수 박은영은 경북예고와 한양대학교를 거쳐 현재 전문무용수로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일본의 요코하마댄스컬렉션 안무경연대회에서 솔로&듀엣 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서울무용제 대상 작품 <초인>으로 여자연기상을 수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SCF) 베스트 댄서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한국현대무용진흥회가 주최한 댄스비전의 Best Dancer를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예술가는 현재 한국 현대무용계에서 최고의 기량과 매력을 인정받고 있는 무용수이다.

일본 무용수 마리코 카키자키(Mariko Kakizaki, LEV Dance Company)는 1988년 일본 가가와현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는 리듬 체조를 전공하다가 18세에 무용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Shun Project>에 참여하게 되고 2011년에는 한국국제현대무용콩쿠르에서 신타로 하라하라 안무작에 출연하여 1등상을 수상하게 된다. 2012부터 2014년까지 바체바 앙상을 무용단에서 활동했으며, 2015년 현재



LEV 댄스컴퍼니에서 활동 중이다.

오하드 나하린(Ohad Naharin), 샤론 이알(Sharon Eyal), 다니엘 아가미(Daniel Agami), 신타로 히라하라(Shintaro Hirahara), 카르멘 웨너(Carmen Werner), 세트수코 야마다(Setsuko Yamada) 등의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에 무용수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더불어 다양한 영역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형식의 작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제3회 예루살렘 국제무용축제에서 작품 〈Golem Couple〉로 3위 수상을 하였다. 2009년부터는 매년 새로운 작품을 고향인 가가와현에서 발표해오고 있다. 더불어 2013년 가가와현 신진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무자인 김성용은 2014년부터 인천아트플랫폼 공연분야 입주예술가로 활동 중이며 꾸준히 국제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대에 유려한 춤 기량으로 주목받는 무용수였던 김성용은 일찍이 안무가로 데뷔하여 30대부터는 '젊은 안무자 창작공연', '대한민국 무용대상', '서울무용제' 등 굵직한 안무경연에서 수상하며 국내 무용계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0년대 일본 무용계와 활발한 교류를 해오다 최근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 진출로를 넓히고 있는데 그의 해외 진출은 자신의 레퍼토리를 공연하는 단순 교류가 아니라 장기간 머물며 안무작업과 춤의 전수를 위한 워크숍 등 레지던스의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린치〉는 낙엽으로 그려진 큰 원형 안에서 푸른 가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무용수가 담담한 시선을 주고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사람의 대치와 경계, 접촉과 의지의 다양한 감정 변화는 퀄리티 높은 춤동작으로 충실히 채워져 간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두 신체는 같은 동작을 다르게 소화하기도 하고 각자의 개성 있는 신체성을 보여주며 여성미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낙엽 테두리를 온 몸으로 흐트러뜨리는 두 사람은 마치 억압된 사회 규범에 온 몸으로 맞서는 나약하지만 강렬한 인간 개체를 표현한다. 무용수로 시작하여 한국의 무용계에 안무가로 자리를 잡으며 겪었던 안무자 김성용의 경험과 오랜 시간 무용수의 삶을 살아 온 두 무용수의 감성이 만나 만들어낸 이야기인 〈린치〉는 아름다운 춤 뒤에 숨겨진 상처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의지 등 예술가의 삶을 엿보는 한편의 에세이이자 시 같다.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에서 주는 상처라는 양면성은 자연에서 가져온 소품으로 대변되었다.

2014년 8월 김성용은 일본무용가 츠요시 시라이와의 공동 안무작 〈Sleep on the Kill〉을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교토조형예술대학 무대예술연구센터'(예술감독:야마다 세츠코)가 주최하는 국제 공동 창작 작업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과 일본의 'HiWood(하이우드)' 기획사가 주관하는 가운데 무용가 김성용과 시라이 쓰요시가 완성작을 위해 2년간 주기적으로 만나 완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2013년 기획되기 시작하여 2014년 2월(교토)과 4월(인천)에서 워크숍을 진행했고, 두 번의 쇼케이스 중 하나는 8월 인천에서, 나머지 하나는 2015년 3월 교토에서 발표되었다. 그 완성작은 지난 9월 <원색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 '춘추좌'에서 공연되었고, 2016년 2월 도쿄 세타카야 리퍼블릭 극장에서 재공연되는 등 투어도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현대춤 역사에 큰 선을 긋는 이 작업에 인천아트플랫폼이 참여했다는 것은 예술의 지역안배에 좋은 예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공동창작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창조적인 영향을 주는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의 문화나 풍습의 차이로 발생하는 요소들을 결합하거나 두 무용수를 비교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현재 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2명의 무용가가 서로의 예술성에 다가서는 것이고 여기에 젊은 안무가의 작가적 시점이 더해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무용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더욱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한일 대표 무용수의 만남! 이는 양국의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다. ♡



사진 김정엽

배 인 숙 BAE Insook

배인숙의 작업

박진홍 아동문학가

배인숙의 작업은 문학적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찾아낸 소리 재료를 재치 있는 상황과 맥락으로 풀어내는 감각은 마치 시인이 하는 작업 처럼도 보인다. 배인숙은 소리를 가지고 놀며 소리 자체와 시적인 순간들, 상황들에 직관적으로 집중한다.

작품 〈듣기〉는 배인숙의 작업이 얼마나 문학적 상황에 가까운지 잘 드러낸다. 전시장에 놓인 전화기는 ‘듣기’만 가능하다. 이 전화기는 작가의 작업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일정한 기준 없이 달라지고, 관람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관람자에게 우연하고 시적인 경험을 준다. 배인숙은 스토리텔링

을 빌어 억지스럽게 문학과 소리를 결합하는 방식이 아닌, ‘엿듣기 놀이’라는 기발한 방식으로 흥미로운 문학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또한, 배인숙의 작업들에는 어떤 유머가 공통되게 깔려있다. 작품 〈맛있는 소리〉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내게 가장 먼저 와 닿은 것은 소리가 아니라 시큼한 막걸리 냄새였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그 다음에야 소리가 들렸다. 피글피글, 아주 작은 공기 방울이 터지는 소리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은 것이 막걸리가 담긴 항아리에서 났다.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웬지 모르게 조금 웃기고, 재미있었다. 나는 하마터면 그에게 ‘이런 거 다 걸어치우고, 술이나



〈맛있는 소리〉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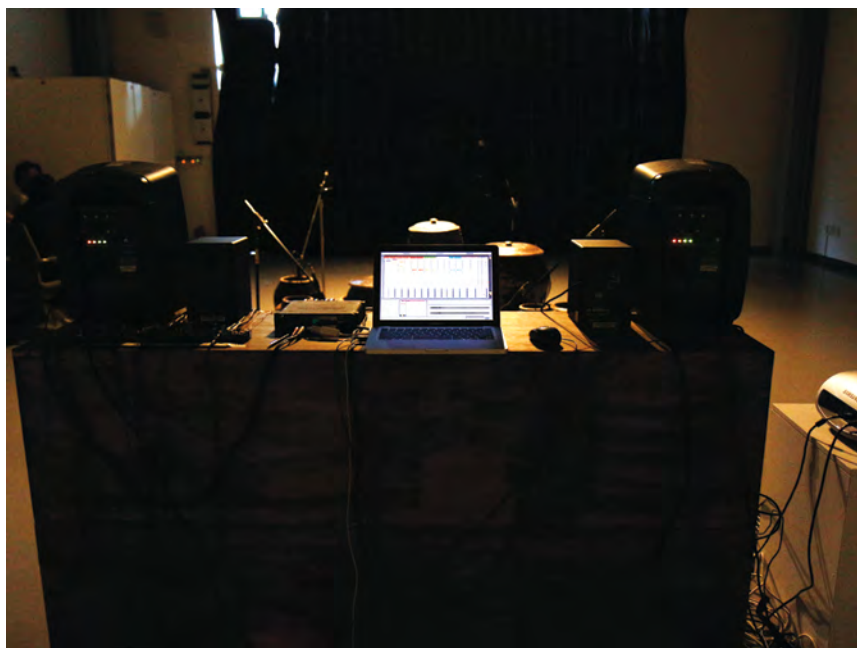
〈맛있는 소리〉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마시자’라고 할 뻔했다.

그냥 ‘sound on’이라고 하면 이해할 텐데, ‘mute off’라고 해서 사람을 헛갈리게 만드는 일이 찾아져 짓게 된 개인전 제목 〈mute off〉나 찰리 채플린의 웃긴 영화를 보기 위해선 억지웃음을 지어야만 하는 작품 〈leap off〉에서도 배인숙만의 유머를 읽을 수 있다. 그에겐 조금 이상한 유머 감각이 있다.

배인숙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소리와 관련된 일반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소리를 내는 장치를 직접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음악을 만들 때의 일반적 고정관념을 떠올려보자.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 (혹은 영감이라고 부르는)가 떠오르고, 그것을 악기나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뒤, 조금씩 다듬어가며 곡을 완성한다. 그러나 내가 곡을 만들 때를 떠올려보면, 머릿속에 어떤 것이 생기기 이전에 기타를 집어 들고 의미 없이 연주하는 과정에서 노래가 만들어지는 일이 잦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재미있는 것은 어떤 기타를 선택하는가 하는, 그 물리적 매체의 종류와 질이 노래를 만드는 데 의외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악기를 오랫동안 연주한 사람들, 특정 악기에 굉장한 애착을 보이는 작곡가들에게서 이런 상황에 관한 증언이 수없이 많다. 사람이 아니라 악기가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이다. 그럴 때 작가의 역할은 머릿속 관념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 장치들이 스스로 굴러가면서 예측 못한 결과가 나오도록 배치하는 사람이다.



〈맛있는 소리〉 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맛있는 소리〉 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맛있는 소리〉 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배인숙은 그런 역할을 매우 잘 해낸다. 우선, 작업에 필요한 소리 장치를 잘도 만들어낸다.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놀면서 말이다. 그런 뒤 그는 그 소리 장치들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우연하고 재미있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작업물로 만든다. 그것을 전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소리와 어우러지는 공연에 쓰기도 한다. 〈하울링〉이라고 이름한 정기공연이다. 이 공연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와 악기, 장치, 악기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소리가 나는 물건과 그만큼이나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매우 흥미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아주 오래전에, 나는 배인숙과 서로 다른 밴드에서 다른 음악을 하며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밴드에서 리드 기타를 쳤다. 솔직히, 그 밴드의 노래는 그저 그랬다. 하지만 그의 기타 연주는 내게 무척 새롭고, 단순하고 솔직하게 들렸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니, 내가 당시 그의 연주에서 느낀 것은 바로 '어린이 같은 유쾌함'이었다.

현재 배인숙의 작업들도 마찬가지다. 배인숙이 소재를 포착하고 상황을 배열하고 기계를 만들어 내고 공간을 설정하고 소리를 재생하는 모든 과정에 그런 것이 녹아 있다.



〈맛있는 소리〉진행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우리가 소홀히 했던 소리들을 감각적으로 되찾고, 새로운 예술로 나아가고자 하는 배인숙은 자신의 작업이 또 다른 형태의 현학적인 세계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어린이 같은 유쾌함'으로, 소리를 장난감 삼아 재미있는 놀이를 한 판 벌일 뿐이다.

배인숙은 꾸밈이 일절 없다. 허상에 의존하지 않으며 매우 솔직하다. 당연하게도 그의 작업 또한 복잡하지 않다. 무겁지 않다. '소리로 하는 예술'이라는 관념 속으로 함몰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는 그의 작업이 지나치게 직관적이라거나 단순하다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 배인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배인숙의 손과 그의 작업 사이에 다른 복잡한 것들이, 어려운 의미들이 많이 끼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이 특히 즐겁다. 이 얼마나 유쾌한가. ♡



〈맛있는 소리〉설치 전경_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_2015. 08. 21-23

앤드씨어터 A.N.D. Theatre

막다른 골목, 그러나 다시 하기 앤드씨어터 〈창조경제〉

김소연 연극평론가

“나의 창조활동이 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앤드씨어터 〈창조경제〉는 이 문장에서 출발한다.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원대하다면 원대하다. 누구의 보호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인간이라면 제 삶은 제 스스로 꾸려가길 바란다. 아니 바람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 삶을 꾸려내는데 경제는 삶의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소박하다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창조활동’이 걸린다. 우리 사회가 창조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했던가. 혹은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던가. 온갖 열정노동들이 떠오르며 머릿속이 어지럽다. 그래서 이 공연은 어떻게 창조활동과 경제활동의 그 넓은 간극을 메우겠다는 것인가. 착심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벌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겠다는 것인가.

출발은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였다. 극장은 오디션 쇼 현장이 되고 배우들은 참가자가 되어 각자가 준비한 창작물을 보여주고 관객들의 평가로 우승자를 뽑는다. ‘경쟁’과 ‘보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그런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첫 번째 난관은 ‘보상’.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우승’이라는 명예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작비는 ‘0원’. 상금을 걸고 싶어도 걸 돈이 없다. 그래서 짜낸 공여지책이 극단이 우승자가 실행하는 프로젝트에 ‘천만 원 상당’의 기획 제작 홍보를 투자하겠다는 것. 그런데 잠깐. ‘천만 원 상당’이 아닌 ‘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앤드씨어터가 기획 제작 홍보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단원들의 노동력이 투자되는 거잖아? 첫 단추부터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난관은 우연찮게 일단 고비를 넘긴다. 해화동1번지 페스티벌에서 제작비 2백만 원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 제작비를 우승자의 상금으로 쓰기로 한다.

자 이제 ‘보상’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쟁’은 여의치가 않다. 내가 우승자가 되어 2백만 원을 갖게 된다! 그럼 통장 잔고가 얼마가 되지? 노트북을 살까? 캄보디아에 아이들을 보러 다녀올까? 나는 알바를 하니까, 단원들이랑 나눠쓸래. 2백만 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동료들을 이겨서 우승을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쟁’에 서로 합의했던 것인가? ‘경쟁’을 하는데 무슨 합의가 필요하지? 단원들이 참여하지 않겠다면 참가자를 따로 모집하겠다. 그럼 우린 뭐야? 연출이 자본가 같잖아! 토론은 계속



아날로그와 디지털 극단
Analog & Digital Theatre





새로운 문제들로 이어지고 답 없는 질문과 갈등 앞에서 리허설은 중단된다. 서바이벌 게임 참가자들의 개인 프로젝트도 진전이 없다. 아, 어쩌지? 하지만 막은 오르고 이들은 관객들을 앞에 둔 무대 위에 서 있다.

연극의 마지막 장을 보면 <창조경제>는 프로젝트를 지속할 동력이 소진하고 실패가 자명한 그 순간 태어난 것 같다. 연극은 혼란에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난다. 마치 이들의 리허설 과정이 그랬던 것처럼 연극은 결론 없는 질문과 갈등 앞에서 중단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한다. “나의 창작활동이 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기롭게 외치지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며 모순 속에 놓여 있는 자신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호킨스 『창조적 경제』를 뒤적이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보지만 창조경제는 점점 모호해지고 ‘창조경제란 게 창작물을 만들어서 알아서 돈 벌라는 채찍질 아니야’라는 막연했던 생각이 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란 걸 부인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그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 막다른 골목이다. 리셋. 다시 호기로운 외침. 막다른 골목. 리셋.

연극은 이처럼 난관에 난관을 거듭하는 결절의 보고서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 연극이 리허설 과정을 다시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장면장면들에서 불거져 나오는 목소리들, 차마 뱉지 못했던 말들, 미처 말조차 되지 못했던 단상들이 이 실패의 보고서를 이끌어 간다.

무대에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의 참가자들은 물론 연출과 조연출까지 이 작업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과정을 복기하면서 그것을 본다. 그리고 객석의 관객들은 복기되는 이들의 리허설 과정과 그것을 바로보고 있는 무대 위의 이들을 본다. 해결되지 않을 질문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의 오프닝은 계속 미뤄진다. 연극이 중반을 지나 드디어 서바이벌 리얼리티쇼가 시작되어서도 예의 불거져나오는 목소리는 계속된다. 그리고 또다시 막다른 골목. 리셋.

리셋(reset). 초기화. 처음부터 다시. 이 연극이 해답 없는 질문과 갈등에 빠져들면서도 계속되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답을 구할 수 없어도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또 다른 막다른 질문들에 다다른다. 답은 없다. 리셋. 다시 처음부터.



이 실패의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자명한 실패 앞에서도 다시 시작한다는 점이다. 창조경제라는 요란한 구호, 학맥과 인맥으로 얽혀 있는 예술제도, 예술가들이 도시 활성화에 동원되고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등등 지금 이 젊은 예술가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느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비단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다. 한편으로 예술제도에 대한 비판에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 그 제도 속에서의 인정욕구 또한 떨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판과 거부가 다른 한편에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마치 내 안의 두 자아처럼 싸우고 있다고 할까.

“나의 창조활동이 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출발점은 순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모순을 돌파하는 장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존과 생존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던 셈이다.

〈창조경제〉는 ‘서바이벌 리얼리티쇼’라는 가장 핫한 문화산업의 형식을 끌어들인다. 그러나 이 형식을 끌어들이는 순간, 연극이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편한 것인가가 금방 드러나고 만다. ‘내 동료가 작업하는 거면 우리 극단 일이니깐 으쌔으쌔하면서 하지, 왜 내가 천만원 상당의 기획 제작 투자에 참여해야 해?’라는 질문, ‘내가 연극을 하는 건 함께 하는 게 좋아서인데 왜 경쟁을 해야 하지?’라는 질문. 극단의 새 작품인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 창조경제〉의 연습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은 이러한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다.

‘나의 창조활동이 나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하는 많은 이들은 연극을 하기 위해 연극 외의 경제활동을 한다. 많은 배우들이 편의점 등등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로 생존을 버틴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실존과 생존을 분리하는 것일까? 창조활동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지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일까? 창조활동이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일까?

이들은 이 모순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답은 없다. 막다른 골목. 그러나 이들은 다시 시작한다.

연극하기, 혹은 답 없는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절박한 생존의 정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일까. 〈창조경제〉는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답을 구하기를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다. 더 정확히는 실패하기를 포기했다는 말이 맞겠다. 막다른 골목. 난제가 막아서는 순간 이들은 리셋, 다시 시작한다.

그렇다고 이들의 다시 시작하기가 실패의 유예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외치는 리셋은 이 대답 없는 질문, 해결할 길이 없는 갈등에 대한 직시의 순간에 나온다. 실패했다. 답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리셋. 다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는 실패의 보고서는 아니다. 어쩌면 이들이 다시 시작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료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들이 연극을 하는 이유는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나. 그러니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의 ‘경쟁’마저도 이것이 우리가 함께 하는 과정이고 작업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러니 막다른 골목이 앞을 가로막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달리고 달리고 달린다. ♡

얼라이브아츠 코모 alivearts como

팰름시스트 Palimpsest

15분, 누군가의 삶을 만나는 시간

전강희 드라마터그, 공연비평가



팰름시스트 Palimpsest-1을 위한 공간 설치 프로젝트_인천아트플랫폼(스튜디오 E-21)_2015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팰름시스트’는 여러 번 사용한 양피지를 뜻한다. 식물로 만든 종이인 파피루스와 달리 동물이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값비싼 재료였기 때문에, 효용이 다하면 표면을 깎아 내고 다시 사용하였다.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된 양피지가 바로 팰름시스트이다. 종종 고대의 팰름시스트에 적힌 내용을 복원하는 중에 예상치 못한 낯선 이야기가 흔적을 드러내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라이브아츠 코모의 김지현과 홍은지는 팰름시스트를 작업의 제목으로 삼았다. 스스로를 ‘순간 채집가’ 혹은 ‘시간 수집가’라고 명명하는 이들과 제목이 썩 잘 어울린다. 공연은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E-21에서 있었다. 이 장소는 공연장으로 쓰이는 공간은 아니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작업실이, 공연을 올리는 단체에게는 숙소로 쓰이기도 하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이 공연에서 팰름시스트가 되는 것은 공간 자체가 아닐까라는 선입견이 생길수도 있겠다. 유의해야할 점은 얼라이브아츠 코모의 작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지점은 공간이 아닌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김지현과 홍은지의 공연은 전통적인 블랙박스 극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년에 보았던 <벗/어나/기>도 전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전시장을 두 군데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는데 한쪽은 일반적인 미술관의 화이트큐브로, 다른 한쪽은 블랙박스를 닮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다. 때문에 공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설치미술로도 보였다. 배우 또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작업이 공연이었던 이유는 배우의 역할까지도 꺼안게 되는 관객이 있기 때문이었다. 얼라이브아츠 코모는 관람 관객을 매 회 단 한명으로 제한한다. 이들에게 공간은 한 명의 관객이 작품을 관람하는 동안,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조건으로써 고려해보는 대상이다.

Check-in을 하고 나면

<팰름시스트>는 12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15분 간격으로 이루어졌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등록 카드를 작성한 후, 공간 배정이 끝나고 나면, 소지품 하나를 맡기고 열쇠를 받는다. 해당 방으로 찾아가 15분간 혼자서 머무는 것이 공연의 전부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 4개의 2층 침대가 있다. 한 침대를 제외하고 세 침대의 1층에는 몇 가지 오브제들이 놓여있다. 관객은 비어있는 침대에 앉거나, 눕거나, 또는 방안을 서성이며 오브제들을 관찰할 수 있다.

한 침대 위에는 어릴 적 동네 빵가게에서 팔았던 버터크림 케이크가 놓여있다. 침대 앞에 놓인 사이즈가 각기 다른 신발 다섯 켤레로 보아 한 가족이 모여 파티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맞으면 침대에는 만화책이 잔뜩 놓여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보던 『아기와 나』도 보인다. 또 다른 침대에는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린 채로 있다. 놓여있는 신발 중에서 드레스 차림에 어울릴만한 예쁜 것이 눈에 들어온다.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쳐 이제 어른이 되었나? 드레스의 주인은 또 어디로 갔을까? 다른 누군가의 흔적을 따라가다 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시간의 주인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성인 필자 자신에게로 감정을 이입하여 과거의 기억들이 불러온다. 어린 시절 가족과 먹던 케이크 앞에서는 울컥하는 순간도 있다. 이렇게 과거의 시간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는 와중에 어그러지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난다.

선적인 시간 구성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소리이다. 방안에 있는 스피커에서 과거의 한 순간으로 추측되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소리 역시 기억 속에 있던 익숙한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할머니가 말하는 방식, 어린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등 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있을 법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들이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듣고자 귀를 기울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목소리의 고저를 제외하고는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지도 알지 못할 수 있다.

소리를 자세히 알아듣기 위해 벽면에 투사된 영상에 멎은 이미지와 겹쳐서 생각해 본다. 추구를 하는 것 같은 영상으로, 처음에는 한 아이가 등장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여러 명의 모습이 보인다. 이 또한 정확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이미지는 아니다. 마치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는 영상이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이 영상으로 해독해 내려 했지만 두개의 시간이 한 점점으로 만나기란 쉽지 않다. 두 개의 이야기는 서로 빛나가고 있다. 매체 각각이 다른 두 이야기를 하고 있

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치되는 것이 찾아지지 않자 익숙하던 매체마저도 어느 순간 낯설어진다. 갑자기 방안에 놓인 신발들이 침대 위의 오브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질서정연하다 여겼던 이미지가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면서 결국에는 단절된 이미지로 공간에 쌓인다.

과거의 시간들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나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간다. 오브제, 소리, 영상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해내기에는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기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물질로서 공간 안에 존재한다. 이제 이미지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질서정연한 이미지들 사이를 흐르던 선형적인 시간은 단절된 이미지들 사이에서 방향을 잃고 비선형적인 시간으로 흐른다. 관객인 나는 이제 나의 입장을 정해야한다.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시작, 중간, 끝이 없는 이 사건을 종결지를 결정적인 역할은 관객인 나에게 있다.

관객, 더 멀리 보는 사람

독일어로 관객(zuschauer)은 ‘더(zu)’와 ‘보다(schauer)’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관찰자, 목격자, 참여자 등 여러 가지 관객의 역할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성질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보는 사람’이라는 데에 반론을 제기할 누군가는 없을 것이다. 김지현과 홍은지가 몇 가지 장면들을 유기적인 관계없이 나열해 놓고서 관객이 보기를 바란 것은 무엇이었을까? 〈팰름시스트〉에서 병렬구조로 나열되어있는 장면을 인지하기 위해서 관객은 보는 방식을 익숙하지 않은 지각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인터넷 서핑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속도를 늦추고 무언가를 깊게 들여다볼 의지를 다지고 시간을 내기란 쉽지 않다. 〈팰름시스트〉는 관객이 자세히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연출되어 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에 더 가깝다. 본인의 속도와 이해 정도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다시 뒤로 돌아가 페이지를 열어볼 수 있듯이 공연의 구조가 짜여 있다. 느린 템포로만 가능한 관극이다. 김지현과 홍은지가 의도한 ‘보기’란 ‘체험하기’, 혹은 ‘경험하기’라고 여기는 것이 적절하다. 느리게 체험하는 것, 자신만의 속도로 15분을 경험해 내는 것이 보기의 다른 말일 것이다.

적극적인 보기가 요구되는 공연은 관객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창작자의 역할이다. ‘적극적으로 경험하기’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

들어진 공연에서 관객은 단순히 참여자의 역할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관객은 병렬로 배치되어 있는 것들 중 자신을 가장 두드리는 감각에 반응한다. 이때부터 공연은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총돌하는 기표들 속에서 의미를 해석해 내고, 감각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은 관객이 수행한다. 해당 공간을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행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은 관객에게 달려있다. 연출가는 예견할 수 없는 것으로 제안자의 역할에 만족해야한다.

15분 동안 만나는 삶의 주체는 누구일까? 결국 타인의 삶을 바라봄으로써 완성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서사가 아닐까. 공연 밖에 있는 나의 삶이 공연과 만나는 순간이 발생한다. 팰름시스트에서, 예술가가 배치해 놓은 기호들 사이에서, 흔적을 드러내는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다. 공연은 이렇게 허구를 넘어 실제 사건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얼라이브아츠 코모는 check-out을 하는 관객들에게 공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메모를 요청했다. 관객들은 15분 동안 자신들이 창작해 낸 결과물을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짧은 순간 경험한 감각의 세계가 그들의 몸속에 기입되었기를 고대해 본다. 연극학자 마리 마들렌은 관객은 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이 흐른 후 기억의 지층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자라고 언급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관객은 공연 바로 그 순간이 아닌, 공연 전이나 그 이후에 무언가를 행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몸 속에 기입된 감각의 기억이 삶에 작은 파동을 만들어 내는 것을 상상하며 이 글을 마친다. **R**



팰름시스트 Palimpsest-1을 위한 공간 설치 프로젝트_인천아트플랫폼(스튜디오 E-21)_2015

우현주 WOO Hyunju

우현주

원일 작곡가, 연주자, 화엄음악제 총감독

바하와 모차르트 그리고 최신 EDM을 하나의 스마트폰 디바이스에서 감상한다. 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이노와 라디오 헤드와 같은 지적인 대중음악 작업자들의 음악과 아이유와 빅뱅, 악동뮤지션과 소녀시대의 음악은 물론 현대음악 작곡가 토마스 아데스나 진옥숙처럼 전세계 클래식 콘서트홀의 가장 인기 있는 현대음악 프로그램 목록에서 각광 받는 작곡가들의 음악들도 모두 한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감상이 가능해진 시대이다. 물론 나의 스마트폰 음악 목록을 예로 든다. 이제 전통적 음악의 역사는 분류를 위해서만 존재할 뿐, 모든 음악은 개인의 취향이 허락하는 한, 모두 다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실 내가 우현주 작가를 아티스트로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주도하는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21세기로 접어들어 테크놀러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히 문화의 변화와 생활 환경을 규정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현대의 새로운 기술은 거의 모두 전자적 에너지 동력의 활용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속도와 분류 능력에 기반하고 있으니 말이다. 빅 데이터에 의존하는 검색처럼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진 스마트함은 정보 처리의 속도와 거의 비례한다. 해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견했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을

비롯한 진보적 미래학자들의 미래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예견은 그것이 일시적 상상이 아닌 매일 매일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실감케 한다. 그러나 한편, 이제는 하루라도 컴퓨터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것이 매우 불편해진 현대인들의 행동과 사고는 의외로 다양성보다 동일성의 틀 안에 갇혀 있음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수많은 소설을 통해 미래의 디스토피아적 우울함을 멋지게 묘사했던 '필립-k 딕'의 SF소설들의 세계가 묘사했던 것처럼 두뇌를 지닌 인간이(그의 소설에서는 자주 사이보그의 자아 성찰 문제로 나타나지만) 자신을 둘러싼 이 세계를 인식하는 철학적 존재로서 사고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끊임없이 재탐구하고 환기하고 감지된 어떤 특정 문제의 대안적 해결책을 찾아보고 질문해야 하는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지닌 지식인들에게 언제나 양날의 검처럼 필수적이다. 지하철에서 쉽게 마주하게 되듯, 이어폰을 끼고 자신의 스마트폰만을 쳐다보며 음악과 영상을 감상하거나 열심히 카톡질과 페이스북을 하는 동일한 군중들을 마주할 때면 마음 한 켠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과 함께 자신 역시 이 군중 속에 속해 있음이 당혹스럽게 자각될 때가 있다. 이때의 자각을 굳이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폴 고갱의 작품 제목이 적절하게 떠오른다 :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예술가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성의 거울을 제시하는 작업을 통하여 이른바 '거울 속의 거울'을 설치하는 작업자들과 생각한다. 그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예리하게 관찰하는 눈과 귀 그리고 연장이 필요하다. 그 연장이 펜이든 악기이든 전통적 파인 아트의 손 기술이건 모두 자신 안에 투영된 비가시적인 실체를 밖으로 토해내는 해석의 도구요, 표현으로서의 연장이다. 만약 여기에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적 능력이 더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인 셈이다. 기술의 시대에 테크놀러지를 숙련된 솜씨로 다룸으로써 세상 구석에 존재하거나 잊혀질 뻔 했던 어떤 대상은 다시 유령처럼 거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던 상(像)들이 예술가의 정밀한 사고와 만나 작업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진정성에 근거한 컨템포러리 아츠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우현주 작가를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로 인식하고 주목하는 이유 역시 이와



〈뜻밖의 소리〉사운드 퍼포먼스(피아노 즉흥연주)_반줄 샬레_2015. 7. 18
<Unexpected sound> Sound Performance_Banjul-Schale_2015. 7. 18



〈Astronomia〉TIMF Ensemble Composing Factory_유종아트홀_2015. 1



〈코리아인 사운드 온 스테이지〉- 우현주 작곡발표회_국립극장 별오름극장_2016. 2. 10-11
<Korean Sound on Stage> - Hyunju Woo Composition Recital_National Theatre, Byeol-oruem Theatre_2016. 2. 10-11





아트센터나비 로봇파티 - 로봇밴드B.B.B 음악 작곡_아트센터나비_2015. 12. 17
Art Center Nabi Robot Party - Robot Band B.B.B Music_
Art Cernter Nabi_2015. 12. 17

같다. 그녀의 작업들이 예술 장르에서 가장 비가시적인 영역인 음악과 소리를 다루며 그것들을 전자 음악의 메카니즘을 활용하여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사운드 시물라크르 작업의 일환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놓고 보면 전통과 현대, 기술과 표현, 사회성과 자아의 투영이 모두 현대적 자화상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얼굴과 이름만을 아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우현주 작가가 처음 내게 깊이 각인되었던 계기는 작곡 발표 때 하나의 순수한 음악 작품 〈바람, 지동치듯불다〉를 통해서다. 이 작품을 들으며 전통적 악기의 음향 조합을 통하여 새로운 음을 일깨우는 환기 능력이 본능적으로 살아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이후, 그녀의 음악 작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 은근히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 시절에 그녀는 이제는 좀 식상한, 그러나 좋은 뜻을 지닌 ‘온고이지신’과 ‘범고창신이라는 말을 지당하게 믿고 열심히 음악을 배워나가던 학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물(?)에 근거하여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작품을 기대하면서도 고전적인 아카데미 풍의 작곡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던 듯하다. 학교와 사회, 국가가 모두 일정 정도의 (때로는 심한) 통제와 법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외로 현대 사회의 단순하고 단단하고 동질성의 틀을 재인식하게 되곤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정당하고 제대로 된 세계일까?”라는 질문을 하는 자들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다. 이 중에서 예술가들은 말을 통해서 그것에 대하여 대답하는 대신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한다. 컨템포러리 예술가들이 작품 이전에 개념적으로 가장 많이 사유하는 부분 역시 사회성과 작품 간의 관계이다. 예술에서 퍼포먼스가 필요한 이유 역시 근원적으로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려는 순수 유아적 표현 욕구와 사회적 소통의 욕구가 인간종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탄생이후 지금까지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역시 인간에게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멜로디가 필요하고 춤출 리듬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현생인류의 탄생 때부터 이미 뇌의 용량과 가능성은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개발되고 있는 과정일 뿐인 것이다. 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컨템포러리적 콜라주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우현주 작가의 장점 중 하나는 그녀가 자신이 구상하고 표현하려는 작품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욕심과 가능성을 숨기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그것을 모색하고 있다는 지점에 있다. 개념과 ‘몸성’이 유리되어 있지 않은 작품을 사유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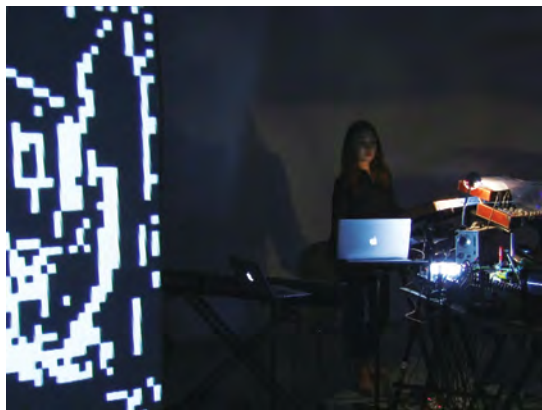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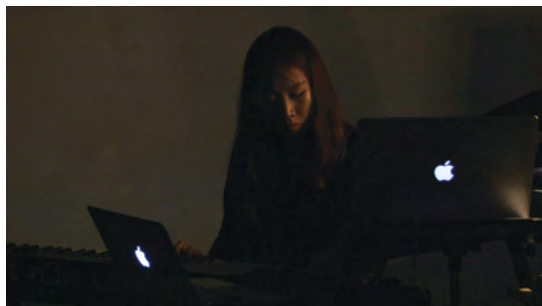
나는 우연한 계기로 우현주 작가와 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악보모음집〉프린트_인천아트플랫폼_2015. 10
<Score Series> Print_Incheon Art Platform_2015. 10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과 퍼포먼스에 대한 구상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때 이야기 중에 대중음악 뮤지션으로서 활동하며 소박하게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참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직접 해볼 것을 권유하기까지 하였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에게서 결코 단순하고 소박한 음악만을 기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음악 장르에서건 내가 그녀의 작품에서 들었던 음악적, 음향적 에너지가 살아만 있다면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해도 우현주작스러운 특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얼마 후 대학원에서 미디어아트를 전공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영국으로 혈혈단신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이후로는 더욱더 기대와 관심의 폭이 커지게 되었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고, 도달하는 자는 목마르게 갈구하는 것이 있는 자인 셈이니 재능 있는 음악가인 그녀가

운신의 폭을 넓혀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우현주 작가가 현재에도 만들어 내고 있고 앞으로 창작해 낼 작품들이 지닌 그 ‘차이’는 표면적으로 보면 동시대성에 대한 욕구와 전통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기반한다. 그렇지만 그녀가 펼쳐보였으면 하는 가능성과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미래를 상상해보자면 더욱 넓고 넓고 광기어린 작품이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다. 날카로움이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시선이 성숙해지고 깊어질 때 절로 발현될 것이며, 광기란 그녀의 행동과 실천 능력에 대한 기대에 근거한다. 하지만 나의 이러한 기대감은 착오가 될지도 모른다. 깊이 있는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지 못한다면 감각적 재능에 머무르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트라이어드〉사운드 퍼포먼스(작곡, 연주)_ 57th 갤러리_북촌뮤직페스티벌
_2015. 9. 12-13
<TRIAD> Sound Performance_57th Gallery_Bukchon Music Festival
_2015. 9. 12-13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아시아적 세계관의 사유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도 근원적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음양오행'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 바라봐 왔던 이 근원적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한국 전통 음악의 세계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근원적 원리이자 사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현주 작가의 예술적 깊이가 전통 음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은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욱 큰 근원적 바탕을 깔고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한 소재적 차원의 접근에서 멈추게 된다면 아무리 첨단적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작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깊이(인문적)가 확대되지 못한 작품의 철학적 기반은 정제되고 말 것이며 이는 전통을 이용한 소재주의적 전략으로 머무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전통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문제의 핵심이 되어 왔고 항상 작업자들에게 '양날의 검'처럼 여겨져 왔다고 생각한다. 대중적이고 쉽게 참여를 유도하는 작품일수록 사유는 깊어져야 할 것이다. 농담은 아이러니와 역설에 대한 이해로 부터 피어난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에 못지않게 소리를 컴퓨터 데이터 기술 변환으로 활용해서 생산되는 작품들에 있어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지점은 에너지의 결여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작품에서 '광기'와 인터랙션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부재하는지의 핵심이다. 에너지가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 이는 동시에 우현주 작가다운 작품이나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사회 안에서 생명력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자기다울 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다움'이란 끊임없이 멈추고 다시 사유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자기다움을 의미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우현주 작가가 밟아온 과정이 이와 같았다고 생각한다. 현대성을 표현하는 예술작품이 유토피아적 낙관과 디스토피아적 우울한 전망을 담아내기 이전에 세계는 오로지 '참 나'라는 필터에 의해서 해석될 때에만 작가의 에너지가 수용자들에게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현실은 그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티스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필터링 작업을 전개해가며 또 생산해 낸 작품 안에 담겨 있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동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현주 작가의 사운드와 미디어 작품들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끊임없는 지적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감하게 '길'을 바꾸어 갈수 있는 유목적 행동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작품과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내게는 여전히 매우 유니크한 감흥을 준다. ✿



〈디지털 종묘제례악〉미디어 퍼포먼스_인천아트플랫폼_2015. 12. 18
<Digital Jongmyo Ritual Music> Media Performance_Incheon Art Platform_2015. 12. 18

이영주 LEE Youngju

인천_이영주_2015

정성일 영화평론가

고다르는 에두아르 마네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건 50밀리 표준렌즈로 그린 그림이군요. 나도 똑같이 흉내 내서 이영주 작가의 작업에 대해서 말할 생각이다. 내가 좀 더 유리한 것은 이영주의 영상 작업을 중심으로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영주의 작업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이건 클로즈업 할 때마다 노출 값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터치로 그려진 스크린이군요. 이영주는 약간 클로즈업 페티시즘이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다가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종종 1930년대 고전 영화들이 정한 금지의 거리 안쪽까지 들어가서 상대방과 동거하고 있는 기분 이상으로 때로는 만지고 싶어 한다는 접촉의 감각을 가져본다. 터치하기 직전에 멈춘 거리. 나는 단지 그게 이영주가 스크린을 캔버스로 오해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영주의 영상작업은 모두 자신이 촬영을 했고 때로 많은 클로즈업들이 줌 렌즈로 잡아 당겼다가보다 정말로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험적 진술처럼 여겨지는 순간들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화면은 흔들리고 카메라는 꿈틀거린다. 나는 걱정스럽게 덧붙이고 싶어진다. 당신은 그렇게 하면 이미지들을 갇아먹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영주는 그렇게 한다.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상관없다. 이 말을 반복하고 싶다. 갇아먹은 이미지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불만한 무엇이 남는 것일까. 나는 그 대답을 위해서 우회를 할 것이다. 하나의 가정. 경계를 사이에 놓고 두 종류의 작업이 있다. 아니, 차라리 두 종류의 경기 종목이라고 부르고 싶다. 동일한 바탕. 다른 규칙. 하나는 영화를 미술 쪽으로 잡아당기려는 구심력의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미술이 영화 쪽으로 이끌리는 원심력의 작업이다. 물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위계질서도 없다. 이영주는 이 두 개의 벡터 사이에서 양쪽을 번갈아 오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원을 예로 든 것

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영주의 작업은 그렇게 왕복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구멍을 뚫는다는 인상을 준다. 인상이라고 했나요?(아직은) 그렇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단어를 사용할 것이다. 구멍이라는 인상. 그런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안에 우글거리는 개미들. 개미들?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듯 보이면서 일사불란하게 무언가를 한다. 개미들의 행로. 이영주는 그 행로를 대책 없이 따라가면서도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떤 믿음? 자신이 이 세계의 여왕개미라는 믿음. 물론 모든 예술가들이 자기가 만든 세상의 창조주를 꿈꿀 것이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상할 정도로 이영주의 작업에는 퇴각의 이미지가 있다. 그런 다음 재빨리 구멍 안으로 숨어 버린다. 우리는 곤충들의 철학자 스피노자의 현명한 조언에 따라 도주가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도주의 역량. 이영주는 영화에서 그걸 배운 다음 실천하고 싶어 한다. 잠시만 이영주의 퍼포먼스 작업을 둘러보기 바란다. 이 끈질긴 복장도착자의 반복적인 시도. 이를테면 〈불특정 다수〉. 나는 이영주의 작업을 의식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이게 불명확했는데 다음 작업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더 그 힘이 확실해지고 있다. 구멍은 언제나 우리에게 원의 이미

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영주는 그걸 형상화시킬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녀의 방점은 '뚫다', 라는 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싶어 한다. <더 말해 주세요, 그레이스>는 목구멍으로부터 말을 끄집어내어 귓구멍을 통과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때 말은 진술이 아니라 두 개의 구멍 사이를 연결하는 힘의 이동이다. <한 컷의 눈>에서는 잘라내고 또 잘라내면서 눈이라는 구멍을 낸다. 두 번째 이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영토를 만든 다음 그걸 점점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 이때 확장의 위장술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그저 겉으로는 작은 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구멍. 입구는 점점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점점 커질 때 생겨나는 비대칭의 깊이. 하나의 점을 찍은 다음 거기서 점점 넓혀나갈 때 원보다 더 적절한 전술은 없다. (내가 본 이영주의 첫 번째 영상작업) 〈노출〉은 그렇게 진행된다. <기계적 갈망, 완벽한 기다림>은 에드워드 머브리지 1879년에 사진을 연속적으로 늘어놓은 것처럼 두 개의 걸어가는 말 그림을 나란히 놓은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한히 진행되는 것처럼 시작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 진행은 마치 판타스마고리아처럼 회전하고 있는 원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고정점에 대한 갈망이며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기다림이다. 직선으로부터 원으로



노출(Exposure)_2012



노출(Exposure)_2012



더 말해주세요, 그레이스(Tell me more, Grace)_2013

의 변형. 그렇게 회전하면서 점점 커지는 부피.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한 정감의 양상이다. 우리는 원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영주는 자신을 그렇게 고립시킨다. 이것이 자신을 바깥으로부터(그런데 어떤 바깥?) 스스로 방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격리된 자신을 재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영주는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를 원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세상의 일부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싶어 한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울함의 흔적들. 이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원은 자기의 입구를 열어 주지 않는다. 이영주의 작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난처하게 그 입구에 서 있는 내게 이영주는 친절하게 약간의 지표를 알려주었다. 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데이빗 린치, 김기덕의 영화를 좋아해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노출>은 마치 타르코프스키와 김기덕에게 보내는 오마주처럼 보일 정도이다. 물 위에 떠 있는 하얀 집을 바라보면서 <섬>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떠올리지 않기로 오히려 힘겨운 일이다. 혹은 불타오르는 조개와 여항의 이미지 안에서 <노스탤지어>와 <스토커>가 활동한다. 다행한 일은 이 이미지들이 조금도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베와 루시라는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는 두서없이 진행되고 장황할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이미지들은 약간 몸부림친다. 이영주는 여기서 이미지들에 영화의 기계적인 터치를 해본다. 뭐랄까, 그게 과잉하면서 <노출>에서는 테크놀로지의 노출증이 느껴질 정도에 이른다. 포지(陽晝)와 네가(陰晝)를 번갈아 오가기도 하고 종종 자막만 오르면서 '사일런

트'로 진행되기도 한다. 여러 종류의 질감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화면은 갑자기 서로 다른 4개(의 쇼트)로 분할되기도 한다. 의도적으로 화면에서 초점이 나가 이미지는 흐릿해지고 때로 그게 몽개지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차라리 이영주의 자리에서 말하자면 수채화처럼 흐릿하게 지워지기도 하고 유화처럼 몽개지기도 한다. 이미지들은 반복해서 손상 받고 화면에 선 아베는 무언가를 쉴 사이 없이 말하지만 그녀는 자주 목소리를 빼앗긴다. 이때 영화의 터치는 화가의 붓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지워진 화면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몽개진 이미지에겐 기쁨이 고이지 않는다. 그때 나는 질문하고 싶어진다. 영화는 어디에 있나요? <노출>과 일 년 후에 작업한 <좀 더 말해주세요, 그레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갤러리에 가고 싶어 하고 후자는 극장에 가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단지 <좀 더 말해주세요, 그레이스>가 분명한 서사의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서도 이영주는 매체의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섞어간다. 핵심은 이 작업이 어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갤러리에도 어둠은 있다. 하지만 42분이나 되는 작업을 불편한 벤치 같은 의자에 앉아서 보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나는 이 말을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고 싶다. <좀 더 말해주세요, 그레이스>는 소파(couch)가 필요한 영화이다. 환자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자신을 고백하는 의자. 나는 당신이 이 작업을 볼 때 그런 자세를 취하기를 권한다. 비스듬한 시선. 그 시선의 경사 각도. 이영주는 여기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빗 린치를 사모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는다. (원한다면 루이스 캐롤을 여기에 더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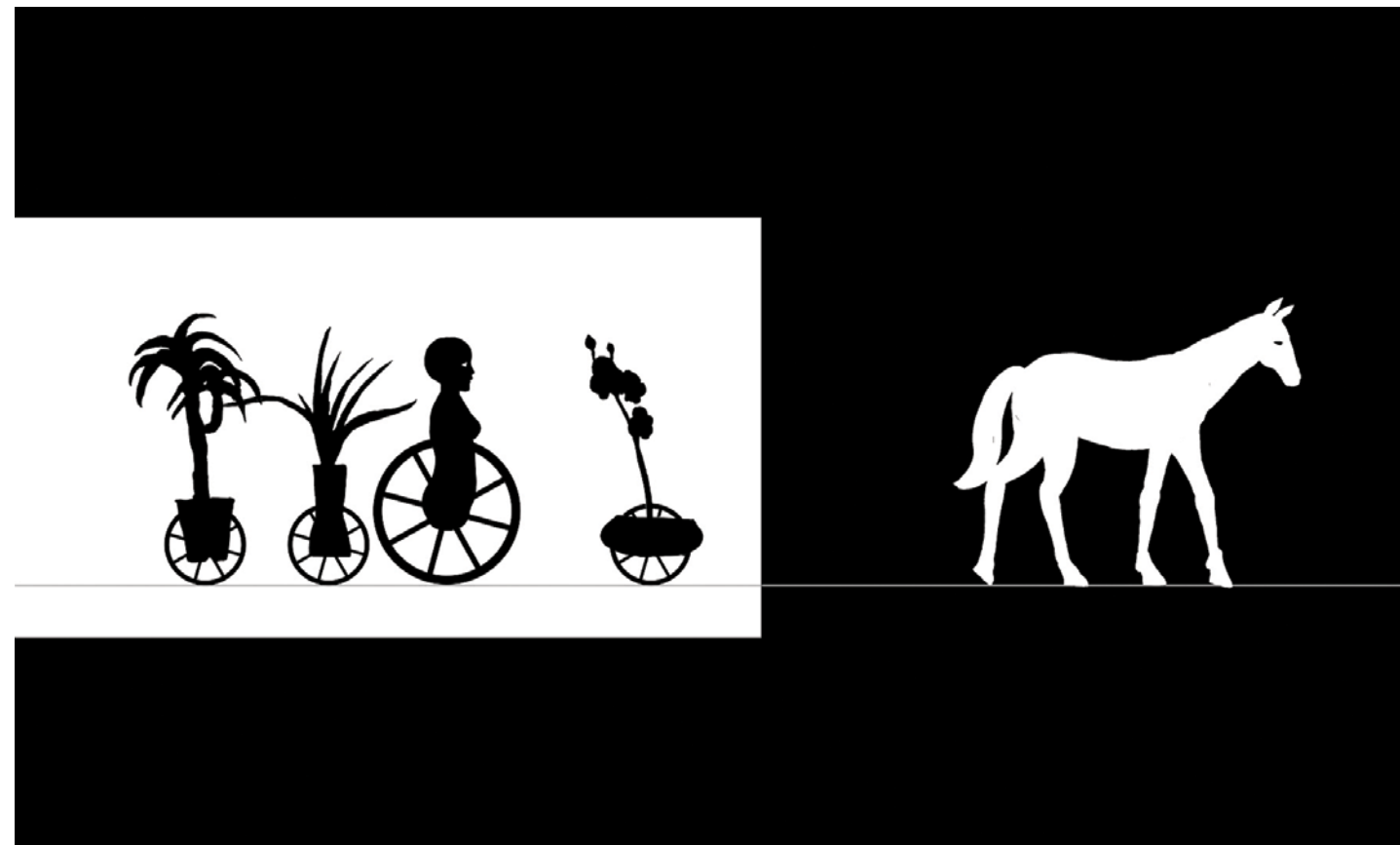
한 컷의 눈(Shot of an Eye)_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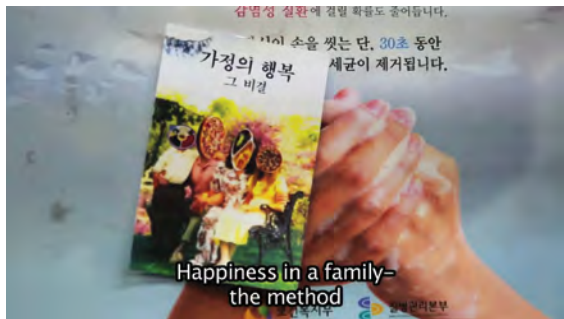
생존자들(Survivors)_2014

수 있다.) 1843년을 무대로 한 살인사건에 관한 그레이스의 고백을 유도하면서 이영주는 이 작업에서 목소리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쓴다. 나는 이미 두 개의 구멍을 말했다. 목구멍과 귓구멍. 이때 신체기관을 따라 말이 내려가 닿으려는 곳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재미극이다. 마치 1920년대 표현주의 영화처럼 보이는 흑백 화면들과 미장센. 하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 연도를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보아주길 바란다. 아직 프로이드 박사는 태어나지 않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웅성거림. <좀 더 말해 주세요, 그레이스>에서 이영주가 찍고 싶어 하는 것은 말이다. 그때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최면술이 동원된다. 최면술이라니! 약간 비명을 지르고 싶어졌다. 물론 영화에서 최면술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나는 지금 <칼리가리 박사의 말실>을 떠올리고 있는 중이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자아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라진 시간. 그 반대의 힘으로 강제로 되돌려진 시간. 기억의 저편으로 들어가는 길. 마치 그림자놀이처럼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은 말의 그림자처럼 보인다. <좀 더 말해 주세요, 그레이스>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최면술로 진행된다. 이영주가 최면을 거는 것은 그레이스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당신이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때 무의식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따라가

야 한다. 이제는 알겠다. 문득 여기서 이영주의 모든 작업이 일관되게 고백과 연결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이라는 수다스러운 개미들. 재미극에서는 누구나 길을 잃을 것이다. <좀 더 말해 주세요, 그레이스>의 마지막 장면은 몹시 인상적인 클로즈업으로 끝난다. 여기서 이 클로즈업은 얼굴이 아니다. 이미 어둠 속의 가냘픈 빛 아래 감아 먹힌 표정이 거기에 있다. 그 표정은 등성등성 구멍이 나 있다. 눈구멍, 콧구멍, 입이라는 구멍, 귓구멍. 구멍투성이의 표정. 이영주는 이때 영화에서 무엇을 찾은 것일까. 더도 덜도 아닌 고백의 은신처. 이 고백은 웅크리고 숨어있는 자신을 감추기에 가장 좋은 구멍을 발견해야만 했다. 그림은 너무 정확하다. 그러므로 '고장 나기 쉬운 기계인 카메라에 달려간 것이 아닐까라고 가정해보고 싶어진다. 아슬아슬한 가정. 하지만 영화란 얼마나 세상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가. 이영주가 자꾸만 카메라의 정확한 재현을 망가트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싶다. 잘못 건드린 것만 같은 노출. 잘못 계산된 것만 같은 색온도. 오작동이 만들어내는 세상과 영화 사이의 간극. 거기가 내 은신처랍니다. 어쩌면 이런 속삭임이 이영주의 작업에 감돌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인상'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저기엔 인상이 있어"



기계적 갈망, 완벽한 기다림(Systematic Longing, Perfect Waiting)_2014



불특정 다수(Unspecified Individuals)_2014



스카이트크(Skytalk Performance)_2015

오래 전 인상주의 화가들을 빈정거리기 위해서 사용한 문장. 하지만 여기서는 진심으로 긍정하기 위해 이 말을 다시 빌려오고 싶다. 알아 먹는 이미지 뒤에 숨고 싶을 때 내가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란 그저 인상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맥락에서 <생존자들>에서 보는 것은 이영주가 힘겹게 여행하는 사막이다. 거기서는 구멍을 파낼 수가 없다. 모래는 파내려가는 구멍 안으로 쉴 사이 없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숨 막힐 것 같아요. 질식하면서 지르는 소리 없는 비명. 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영주가 온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도피처에 대한 실망을 본다. 갈 데 없음이라는 상실. 그렇다면 나는 변신할 거예요. 같은 해에 작업한 <한 컷의 눈>에서 말을 잃어버린 채 라텍스 코스프레를 하고 인형처럼 작동하는 동작에서 눈을 잘라낸다. 눈이라는 시선, 시선을 작동시키는 신체 기관. 그것을 잘라내야만 해. 그것만이 내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을 거야. 이때 이 가위질이 영화를 잘라내려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을 도려내려는 것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이영주는 여기서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내게는 그렇게 보인다. 다음 동작을 위한 심호흡. 나는 그 다음 동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컷의 눈>을 보고 있으면 무언가 좀 위험해졌다는 오싹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일종의 예감. 나는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얼거렸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나는 예술이 자해행위로 돌입할 때 결국 제로로 수렴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과감하게 맞서야 할 시간이다. 나는 당신의 작업에서 얼굴이 보고 싶다. 생명의 얼굴. 생명의 풍경.

PS(1)_ 여기서 사용한 영어제목의 한글 번역은 모두 이영주 작가 자신의 번역을 따랐다. 번역을 하지 않은 제목은 원제에 따랐다. 부기한 연도는 이영주 작가의 Vimeo.com에 소개된 기록에 따랐다. 별도의 부기가 없는 경우는 연도미상으로 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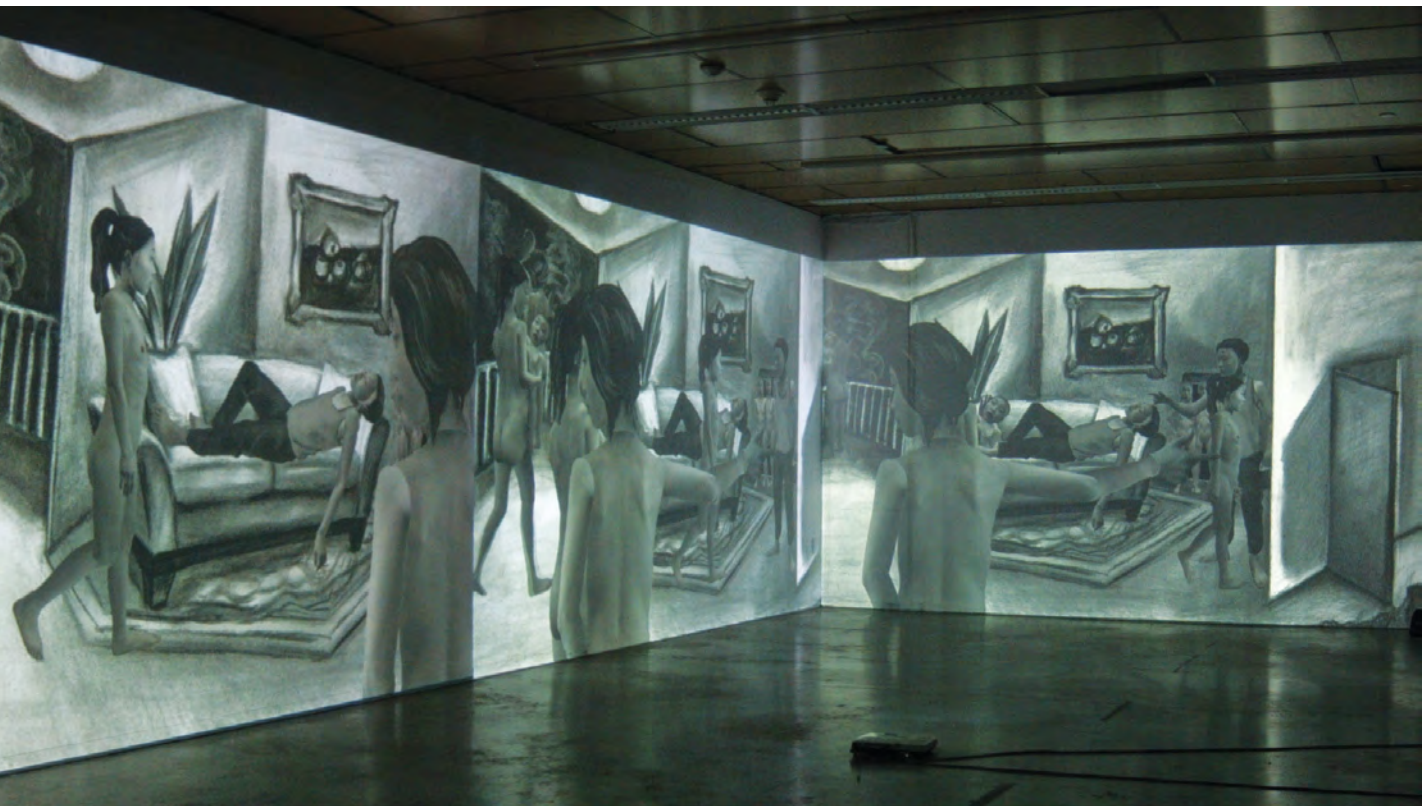
- <노출> Exposure 2012
- <더 말해주세요, 그레이스> Tell me more, Grace 2013
- <한 컷의 눈> Shot of an Eye 2014
- <생존자들> Survivors 2014
- <기계적 감상과 완벽한 기다림> Systematic longing, Perfect waiting (연도 미상)

퍼포먼스 작업은 번역을 단 것과 달지 않은 것이 있다. 번역을 단 퍼포먼스 기록은 다음 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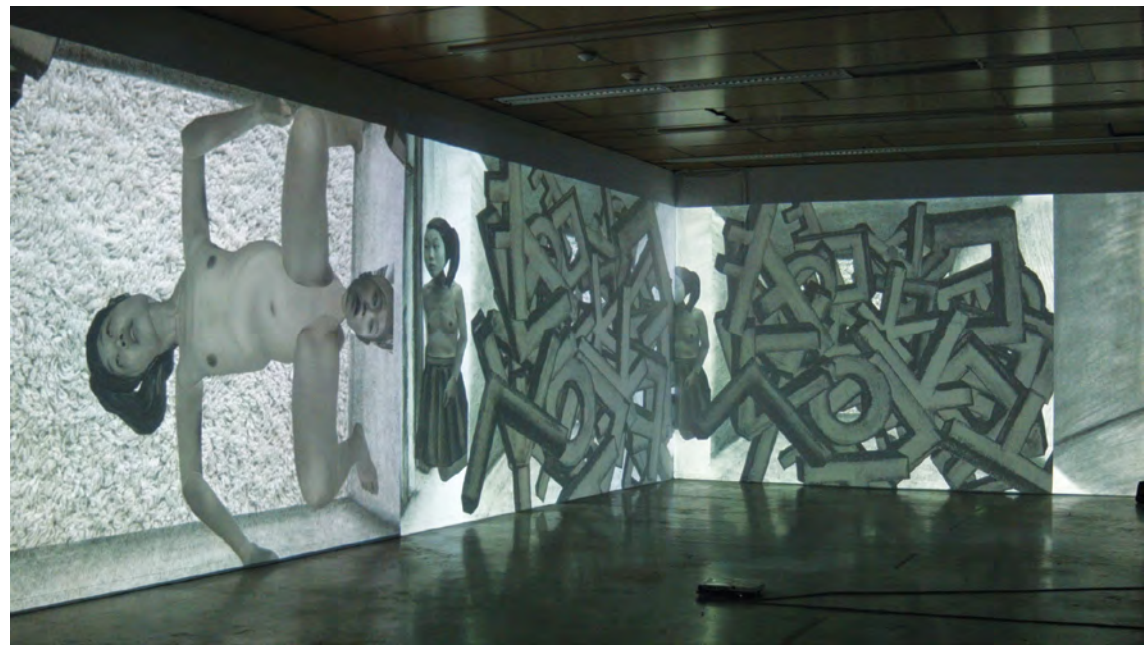
<불특정 다수> Unspecified individuals

번역을 하지 않은 제목은 작가의 뜻을 존중하여 달리 번역을 하지 않았다.

PS(2)_ 의도적으로 행간을 나누지 않았다. 이 글은 하나의 문장처럼 읽히기를 원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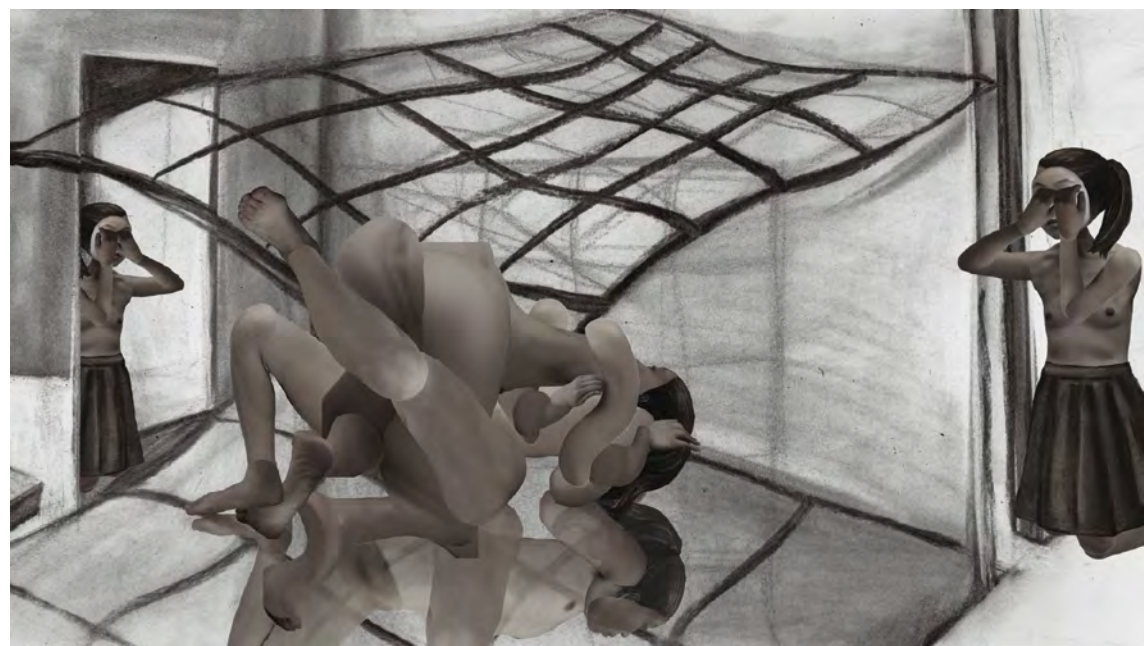
수치스러운 파랑(Disgraceful Blue)_설치전경_2016



수치스러운 파랑(Disgraceful Blue)_설치전경_2016



수치스러운 파랑(Disgraceful Blue)_2016



수치스러운 파랑(Disgraceful Blue)_2016

판소리, ‘하다’ PANSORI, 'HADA'

판소리 만들기 ‘하다’

01. 창작 판소리와 ‘동시대성(同時代性)’

인천아트플랫폼 판소리, ‘하다’ 첫번째 쇼케이스를 전후에서, 그들과 만나서 작업을 지켜보았다.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작업은 흔히 ‘창작 판소리’라고 부른다. 전통 판소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통해서, 판소리가 분명 동시대성이 있는 매체임을 알리고, 더불어서 판소리만의 고유한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작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 판소리 작업은, 일제강점기 박동실을 비롯

한 명창들의 〈열사가〉로 시작해서, 1970년대는 박동진 명창에 의해서 〈판소리 예수전〉 등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는 임진택의 〈오적〉, 〈동바다〉와 같은 시대풍자적인 판소리가 대학가 등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임진택은 〈오월 광주〉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백범 김구〉의 창작 판소리를 직접 만들고(대본 및 작창) 이를 왕기석, 왕기철 등 명창 등이 공연하면서, 지난 세기 창작 판소리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윤충강 국악평론가

이런 창작 판소리는 결국 판소리가 전통의 바탕에 머물고 있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것이며, 특히 〈동바다〉, 〈오월광주〉 등은 판소리로 담아낼 수 있는 근현대사적인 작업이며, 이를 통한 판소리의 ‘동시대성’의 회복으로 풀이된다. 판소리 만들기 ‘하다’를 이야기함에 앞서, 그간의 창작 판소리 작업을 길게 소개하는 것은, 그들의 판소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다.

02. 젊은 판소리와 동시대성

창작 판소리가 특정한 국악인 혹은 문화인의 작업이 아닌, 판소리를 하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자기표현 및 동시대성의 영역으로 온 것은, 2000년대의 초반이다.

2000년대 초반 ‘타루’ 등을 통해서 국악을 하는 젊은이들이 판소리를 통해서 동시대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현재 국악뮤지컬집단 ‘타루’와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그리고 소리꾼 이자람을 중심으로 한 ‘판소리 만들기 자’가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판소리, ‘하다’는 앞의 세 팀, 곧 타루, 바닥소리, 판만재(판소리만들기 자)와 어떻게 차별

인천아트플랫폼 공연분야 입주작가 프로젝트 II

판소리 '하다'

'이야기' 판소리 하다

2015년 5월 30일 (토) 오후 5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앤릭 압센의 '유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두 고전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무관치 않다.
인간사의 사건 사고를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것이 인간일텐데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과 삶의 무게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
사회가 존재하는 한, 생명이 존재하는 한 영원이 사라지지 않을 '재발'들의
관한 이야기.

이것은 2015년 오늘 우리의 신문이다.



판소리, ‘하다’



확되느냐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하다'의 구
성원 3인 중 2인은 타루와 바닥소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03. 판소리 '하다'

판소리, ‘하다’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팀을 만들었으며, 또한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팀을 알리고 있었다.

판소리, '하다'는 “판소리로 ~하다”라는 뜻으로, 판소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판소리, '하다'는 전통 판소리를 근간으로 동시대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다양한 색을 입혀 새로운 판소리를 지향하는 젊은 소리꾼들의 모임이다.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움을 더해 판소리, '하다'만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음악과 극 그리고 사설(이야기) 창작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판소리의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실험을 추구하는 등 다채로운 판소리의 매력을 찾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 예술가로서 <이야기, 판소리하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펼쳤다. 나는 예전부터 그들에 대하여 아는 편이고, 공연을 앞두고 매칭 평론가로서 그들을 만났다. 우선 그들이 나에게 매칭 평론가로서 요구한 것에 감사한다.

04. 인천아트플랫폼과 ‘하다’의 접근방법

판소리, '하다'는 헨리 입센의 '유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창작 판소리로 만들어 공연을 하였다. 서구의 문학작품을 판소리로 만드는 작업은 일단 기존의 판소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단 새로운 창작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표된 작품과 연관해서,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열리는 '바닥소리 페스티벌'에서 판소리극 <안네의 일기>를 선보였다.

이런 작업이 무척 필요한 작업이고, 쇼케이스 형태의 공연이 의미가 있기는 하겠으나, 아직은 무대에서 공연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고전문학을 다루는 극본(창본)의 텍스트가 우선 약했다. 더불어서 그것을 ‘왜’ 판소리로 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부족했다. 판소리의 특성이 부각되어야 하는데, 스토리를 그저 판소리의 운율로 옮긴 듯해 보였다. ‘과정’으로서는 의미를 둘 수 있어도, ‘결과’로서는 취약했다.

05. 판소리 '하다'의 3인에 관하여

판소리, '하다'는 3인 동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간 국악계에서 젊은이로서 주목을 받았고, 특히 '창작 판소리'를 통한 '동시대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그 삼인의 프로필을 소개하면서, 이번 인천아트플랫폼과 그들의 작업의 성과에 대해서 짚어보자.

장서윤, 아역을 벗어난다는 것

판소리를 하는 어린 신동 중에서, 남자에 유태평양이 있다면, 여자에
는 장서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그는 일찍이 주목을 받았다. 장서윤은
1991년 서울생으로, 판소리뿐만 아니라 학업 면에서도 주목을 받았
고, 캐나다 Ness Middle School을 다니면서, 판소리를 통해서 세계
화하는 준비를 했다. 그녀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
학 국악과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국악과 석사 중이다. 그
러니까 판소리 전공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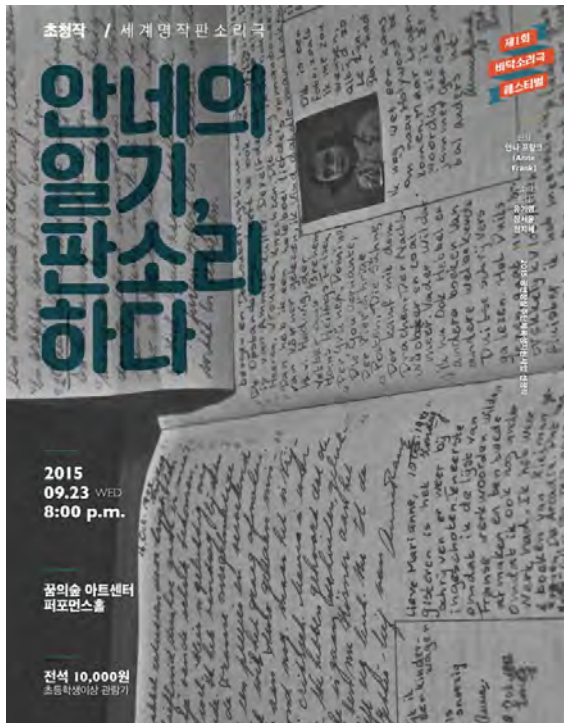
그녀는 일찍이 KBS-FM과 국악방송 등과 연관을 맺으면서, 국악계의 어린 스타로 성장했다. 21세기를 위한 KBS 전통음악시리즈 '엄마와 아기를 위한 우리음악', 국립국악원 '교과서에 실린 우리 민요 서른 아홉 곡', '장서윤의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28 - 아이들 노래'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그는 판소리와 관련한 모든 대회에서 입상하면서, 동년배 중

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2000 서울전국명창경연대회 초등부 최우수상 (판소리협회 주최), 2003 서울가야금경연대회 초등부 대상(사단법인 가야금병창보존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최), 2009 동아 국악콩쿠르 학생부 판소리 부문 1위 (동아일보 주최), 2009 전통예술경연대회 성악부문 1위(한국예술종합학교 주최), 2010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부 판소리부문 2위, 2011 동아 국악콩쿠르 일반부 판소리 부문 1위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관련된 무대에서, 장서윤은 주역을 도맡아했다. 1999 제 12회 KBS 어린이 음악회 출연, 2001 제11회 국립국악원 청소년의 달 기희공연 출연, 2001-2002 국립창극단 두 번째 어린이 창극 <토끼와 자라의 용궁여행> 자라역, 2002 국립창극단 세 번째 어린이 창극 <효녀심청> 심청역 등이 그것이다.

이런 활동은 장서윤과 판소리를 알리는데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무대를 지켜보면서 이런 활동 등이 앞으로의 장서윤 활동에 얼마만



안네의 일기_판소리 '하다' 포스터



안네의 일기_판소리 '하다' _공연사진

큼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서도, 2013 서울대학교 판소리전공 창작 소리극 〈꿈가운데〉 공연(KOUS), 2014 서울대학교 국악과 성악전공발표회 〈세월에 잊힐리아〉 공연(KOUS), 2014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울긋-노다가세〉 본선 공연(국립국악원 예약당), 이와 같은 작업을 하거나 공동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작업들이 그녀 혹은 판소리 혹은 창작 판소리 작업에 얼마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었을까? 나는 그런 성과를 크게 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했던 그녀가 ‘하다’의 일원으로서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가로 참여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새로운 변신을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2015년에 장서윤은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작가선정 〈이야기, 판소리 하다 - 죄와 벌, 유령〉 쇼케이스 뿐만 아니라, 2015 마당극 〈아빠 철들이기〉 심청역(국립극장 KB하늘극장)으로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 인천아트플랫폼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2015 제1회 바닥소리극 페스티벌 초청작 / 세계명작판소리극 〈안네의 일기, 판소리하다〉 작창 및 출연(꿈의숲 아트센터)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창작 작업의 계기는 그녀의 변신을 위한 ‘노력’으로서는 큰 의미를 지녔지만, 그 ‘결과’ 내지 ‘성과’는 아주 크지 못했다는 것이 솔직



안네의 일기_판소리 '하다' _공연사진

한 평이다. 텍스트를 서양의 고전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판소리 텍스트로 만들고자 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었으나, 거기서 판소리의 특징은 잘 살지 못했다. 학구적인 모습은 인정되나, 무대인으로서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그리 돋보이지 못했다.

아직도 그녀에게는 아역 배우와 같은 느낌이 강하다. 이견 단지 선입견은 아닌 것 같다. 그녀가 그간 다루었던 작품에서의 역할을 극복하려면, 점차 청소년 혹은 젊은이 역할에 대해 충실한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갑자기 ‘동화책’을 끝내지 못하고 ‘소설책’을 대하는 느낌이 강했다. 그녀가 진정 이런 작업에 심취하려고 하면, 연극적인 텍스트 분석과 일반 연극에 대한 연기를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하거나, 체화할 필요가 절실하다.

장서윤을 보면, 김민정이 생각한다. 아니, 김민정처럼 되길 바란다. 아역배우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지만, 부단한 노력과 자기변신을 통해서 성인 연기자로 성장한 것처럼, 장서윤도 김민정을 벤치마킹하거나, 늘 옆두에 두면서, 무대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변신시켜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유기영, 어린이극에서 벗어나다는 것

유기영은 제13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일반부 대상, 제34회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을 한 소리꾼이다.

우리소리극단 月樂 창단 동인을 시작으로,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국악 아카펠라그룹 ‘소릿걸’, 판소리공장 ‘바닥소리’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올해도 공연한 〈일곱빛깔 까망이〉(2015.05.21 ~ 2015.05.24,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의 파랑 역할을 맡았다.

그는 창작 판소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경력이 있다. 2008 뮤지컬 〈인당수 사랑가〉를 시작으로 2008 창작소리극 〈엄청난 거짓말쟁이 척척생거〉, 2010 〈a형 남자 유기영의 a형 남자이야기〉, 2010 국악뮤지컬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2011 환경판소리 〈날아라 예코맨〉, 2012 잔혹소리극 〈해님 달님〉 등이 그것이다.

유기영도 앞의 장서윤과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고정된 발성과 연기가 몸에 배었다. 그건 바로 어린이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보는 사람으로서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작업에 있어서는 유기영만의 매력 혹은 특성을 찾기 힘들었다. 분명히 의미를 둘 수 있는 건 역시,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3개월이 그들(유기영, 장서윤)에게 있어서는 ‘아역’ 혹은 ‘어린이극을 벗어나는 탈출구가 되어주긴 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번 ‘하다’의 작업에선 유기영의 역할은 장서윤과 정지혜 역할의 브리지가 되어주는 느

낌이 강했다. 분명 본인이 세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판소리 집단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무대 내, 외적으로 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유기영 자신의 가장 큰 성과인지도 모르겠다.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유기영은 분명 대단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작 판소리 혹은 판소리극에서 보다 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기영이 어린이극 전문 배우와 같은 느낌도 많이 벗어났음을 발견하는 것은 일대일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의 나름의 소득과 성과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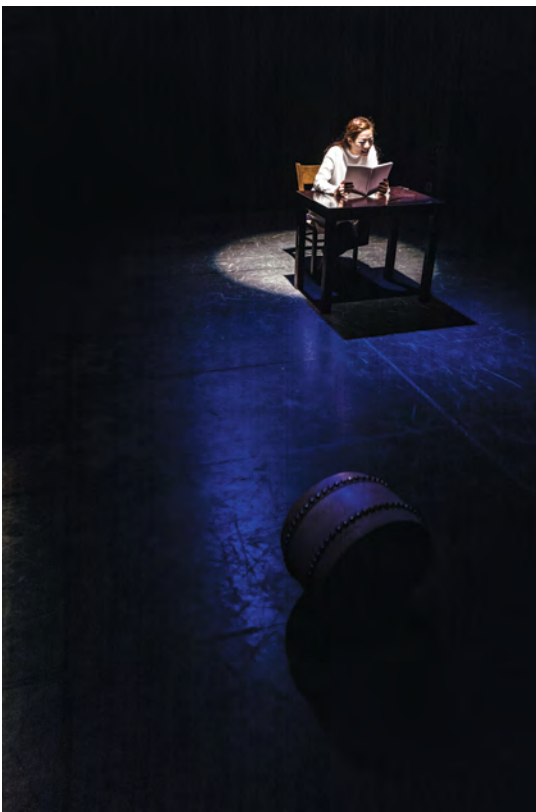
유기영이 롤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배우 안재홍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영화 ‘족구왕’에 출연했고, 요즘 ‘응답하라 1988’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지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사실 이번 인천아트플랫폼의 가장 큰 성과는 정지혜의 발견이다. 아니, 발견이라는 말이 당치 않을 수 있다. 이미 그녀는 창작 판소리에서 든든하게 기반을 다져왔다. 2014년 세종문화회관의 〈창작소리열전〉에서의 성과가 증명한다. 여기서 공연한 작품은 예외적으로 텔레비전 ‘국악한마당’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노부부의 애기와 치매를 다룬 〈내사랑 내결에〉란 작품이었다. 판소리를 통해서 ‘동시대성’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다.

정지혜는 분명 좋은 소리꾼이자, 창작 판소리꾼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지만, ‘정지혜만의 고유한 스타일’ 혹은 ‘매력’을 얘기할 때는 주저하게 된다. 그녀는 사실 여러 면에서 소리꾼 이자람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이자람만큼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연조가 짧다는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무대에서는 무척 잘 하지만 자기만의 캐릭터를 아직 찾지 못한 것 같다. 한국 여배우의 계보를 비교하자면, 박정자로 시작해서 많은 배우가 있는데, 나는 정지혜씨가 배우 ‘오지혜’를 벤치마킹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다. 이름이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러 면에서 오지혜씨가 자신만의 색깔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자신만의 색깔이 되어서 다양한 작업을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지혜는 다양한 악기와 인원을 구사하는 형식보다는 남동생 정치인이 고수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판소리처럼 창자(唱者)와 고수, 2인 무대가 가장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판소리의 특징의 하나가 의성어와 의태어의 활용, 동물 소리와 인물들의 ‘모사’ 혹은 ‘모창’ 등이 기본적인 소통의 수단인데, 이런 면에서 정지혜는 동시대 소리꾼 중 탁월해 보인다. 그러면서 그녀는 ‘재미’뿐 아니라 ‘감동’을 주는 방식을



안네의 일기_판소리 '하다' _공연사진

알고 있었다. 전술했듯이, 국악한마당과 세종문화회관 실내 공연과 야외 공연에서 보여준 그녀의 역량은 높이 살 만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하는 말 “여보 할멈, 붉은 노을이 당신 얼굴처럼 참말로 곱구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나 이런 그녀의 ‘동시대성’이 느껴지는 작품에서는 그녀의 개성이 돋보였지만, 아쉽게도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고전 작업은 왠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거북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특징과 판소리의 특징이 잘 살아났다고 보기 힘들다.

이번 인천아트플랫폼에서 판소리, ‘하다’의 작업은 ‘의미’는 있었으나 ‘재미’가 부족하다. 아울러 ‘과정’으로서는 노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결과’로서의 성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창작 판소리는 ‘동시대성’을 가져야 한다. 이런 동시대성은 서구의 ‘고전’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다. 앞으로 판소리 ‘하다’의 접근방식은 좀 더 현명했으면 한다. 왜 그러한 텍스트를 판소리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이 약하다. 그저 우리의 고전이 판소리가 되었고, 서구의 고전도 판소리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았으나, 관객과의 소통 면에서나, 판소리 특유의 매력을 서구 고전 속에서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인천아트플랫폼에서의 3개월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오랑우탄’과 ‘미래인’이 세계를 뒤집는 방법들
- 강효미의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 『빵이당 VS 구워뜨』를 중심으로

임세화 문학평론가

누군가 ‘인간’의 ‘세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려낼 수 있다면 그 언어와 이미지는 일상의 심상한 한 순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일명 ‘동화’라고 호명되는 특화된 아동문학 장르에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동문학 장르의 주된 독자를 ‘어린이’라고 상정할 때, 어린이를 위한 이 ‘동화’는 그들이 숨 쉬고 머물며 살아가는 특정한 세계의 양식을 창출해낸다. 그 세계는 근대 이래로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할 존재, 미래의 예비 노동자로 호명된 ‘어린이’라는 재구성물로서 현현되며,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를 자기 내면화하는 계기로 (의도치 않게) 활용되기도 한다. ‘어린이’에게 부여된 특수한 위상에 위탁된 자기 정위(定位)의 과정이 아동 교육과 사회화의 기능을 ‘아동문학’의 담당 영역으로 배치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런데 만약 이 ‘아동문학’에서 구현되는 세계가 한 편의 지옥도(地獄道)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출구 없는 세계에 갇힌 인간(어린이)들의 형상에 대한 탁월한 지옥도로써 강효미의 신작 『빵이당 VS 구워뜨』를 거론하는 것은 강효미의 작품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효미는 2007년 『마할기타 우리 속모』라는 중편동화를 발표하며 등단한 이후 『고양이네 미술관』,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엄마 껌딱지』 등의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작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각박한 경제 논리가 내화된 세계상과 그 속에서 성장해나가는 어린이들의 고군분투



『빵이당 vs 구워뜨』 표지



2015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빵이당 vs 구워뜨』 캐릭터 소개

와 좌절, 깨달음, 성장의 우화를 그려온 아동문학 작가 강효미의 작품 활동 선상에서 볼 때 『빵이당 VS 구워뜨』¹는 단연 그 상상력과 문제의식이 정점에 이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발표된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 또한 폭압적이고 견고한 세계 속에서 한 개인으로 서게 된 어린 아이가 어떤 윤리적 판단과 선택 속에서 연대와 가능성을 찾아가는지를 탄탄한 서사로 그려나가고 있다.

강효미는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에 실린 「작가의 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개성’이라는 차원에서 서술한다. “사람들은 평균

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보기 좋다고 생각’하며, “평균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며 눈총을 주고 비웃기”²도 한다는 점에 착목하여 그 ‘차이’의 연원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동화 속에서 그려지는 그 ‘차이’는 단지 외모적인 것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는 ‘우찬’이라는 11살 어린이가 자신의 얼굴과 몸에 수북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털을 보고 자신이 곧 오랑우탄으로 변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이다. 우찬이는 자신이 오랑우탄으로 변한다면 부모님과 친구들과는 함께 살 수

1 강효미, 『빵이당 VS 구워뜨』, 상상의 집, 2015.
2 강효미, 「작가의 말」,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 교학사, 2011,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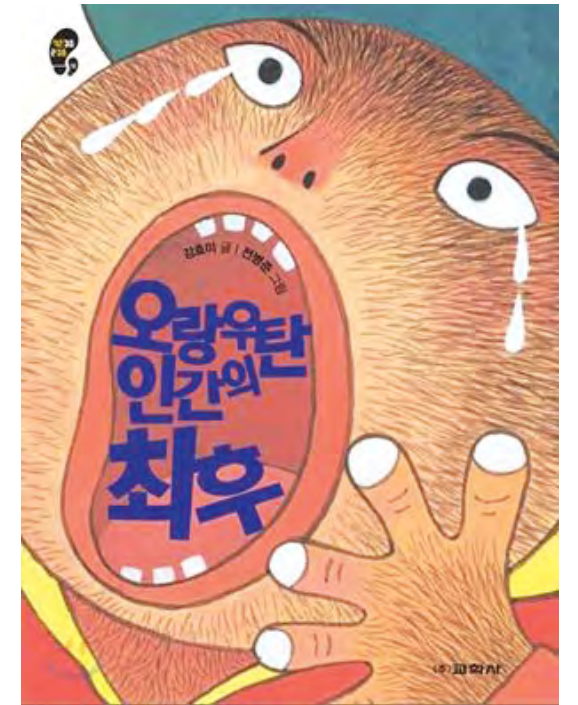


2015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2015년 10월 8일~10일) ©에제 일디림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아이이다. '차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찬이의 이 최초의 결단은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 그 자신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다는 서사의 구조를 가능케 하는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장치이다.

그런데 우찬이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가. 우찬이를 두렵게 하는 차별의 근거에는 어떤 기제들이 있으며, 무엇이 우찬이를 스스로 떠나도록 만들었는가. 강호미는 우찬이의 이 '자연스러운 결단'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작품의 전개와 결말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술했듯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들을 우찬이라는 한 어린이의 행로를 통해 낱알이 묘파하고 있는 것이다.

얼굴을 포함한 온몸에 털이 마구 자라나는 우찬이의 외모를 '다름'의 한 요소로 읽을 수 있다면, 가출한 우찬이가 PC방에서 만나게 되는 할아버지의 '다름'은 '가난'과 '시각장애인'이라는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다름과 신체의 조건들이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삶을 '하층민'의 그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데, 오랑우탄 인간인 우찬이와 할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유대감은 바로 이 각기 다른 '다름'들이 문제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 표지



2015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2015년 10월 8일~10일)

시되지 않는 상태에서부터 연원한다.

할아버지는 우찬이에게 “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졌지. 냄새가 나.”³라고 말하며 우찬이로 하여금 전 재산인 2만 5천원을 내놓도록 하지만, 이 관계는 강탈도 교환도 협박도 아닌 미묘한 관계로 전치된다. 할아버지는 라면이 가득한 찬장을 우찬이에게 열어주고, 우찬이는 눈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라면을 끓이고 설거지를 한다. 이들 사이의 연대는 ‘보이지 않음’이라는 비가시성의 영역에서 실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고, 우찬이는 온몸이 털로 뒤덮여서 인간으로서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들에게 서로의 ‘다름’이란 문제시되지 않는다. 시선의 권력에서 자유로운 위치에 놓인 그들은 그저 ‘원래 그런 할아버지’와 ‘원래 그런 아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름’을 소비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하늘시에 오랑우탄 인간이 찾아왔다는 소식은 편의점의 매출 상승과 시정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재맥락화된다. 이제 ‘다름’은 쓸쓸한 흥밋거리와 정책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축제라는 일시적인 향유의 형식 속에서만 정상화될 수 있는 영역으로 그려진다. 모두가 오랑우탄 털을 뒤집어쓰고 더 오랑우탄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말이다. 그렇다면 일상성의 차원에서 그 ‘다름’은 어떻게 격리되는가.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에서 국가는 ‘특별한’ 오랑우

탄 인간들을 지하 세계에 가두어두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폭압적인 존재이다. 11살이 되면 오랑우탄으로 변하게 되는 이 ‘오랑우탄 인간’들은 일상세계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어 지하 세계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국가의 강제적인 격리 조치에 대해 다수의 무감각과 순응이 있어왔고, 그것이 지하 오랑우탄 세계를 유지시켜주는 체계로 존재해왔으며, 우찬이처럼 그 주어진 시스템을 거부하고 다시 원래의 세계 속으로 뛰어드는 서사의 진행이 강효미의 동화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되고 재현된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와 존재의 긍정이라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국가와 체제의 문제로 전환시키며, 나아가 스스로가 갇힌 틀을 깨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열리는 다종다양한 가능성의 서사를 촘촘하게 그려내는 것이 강효미 동화의 특징점이다.

근작인 『빵이당 VS 구워뜨』에서 강효미는 미래 세계에서 온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그에 대항하는 동네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그려낸다. 201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이 대결 구도는 거대 자본에 맞서서 자신들의 경제 영역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의 그것과도 유비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빵이당 VS 구워뜨』의 서사는 단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문제 제기되는 사안들의 익숙한 축도를 그려놓는 데에 멈추지 않는다. 대



2015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2015년 10월 8일~10일)

3 위의 책, 72쪽.



이양초등학교 작가와의 만남(2015년 12월 3일)

형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객’으로서 과거로 이민을 오게 된 미래인들의 물질 토대와 입지, 욕망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세밀한 전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래인’들은 미래 세계의 하층민 집단인 ‘검은 마을’에서 살던 존재들로서 ‘사람답게 살기’위해 과거로 이주해온 존재들이다. 미래 세계는 하늘에서 비행 자가용이 날아다니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 오염도 해결되었으며, 약 한 알이면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그러나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도래한 혜택은 검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미래에서 온 어린이인 ‘오도독’은 가난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비행 자가용을 타본 적이 없고, 오도독의 어머니는 너무 비싼 암 예방약을 사지 못해 암에 걸렸고, 그보다 더 비싼 치료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서 결국 세상을 떠났다. 과학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가난한 하층 계급의 삶과는 철저히 유리되어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더 발달할수록 빈곤 계층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악독한 정책을 펴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이 부분을 해명해나가는 서사 구조와 인물 형상화의 방식이 강효미 동화의 뛰어난 지점 중 하나일 것이다. 『오랑우탄 인간의 최후』에서와 같이 『빵이당

VS 구워뜨』에서도 그 악독한 분류와 통제의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순응해나가는 존재들은 바로 차별당하는 그 자신들이다. 그리고 그 강고한 틀과 세계의 구도에 균열을 일으키고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존재들도 바로 그 자신들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가의 정책과 방침들,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체제에 수동적으로 복속되어왔던 존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 보이는 이 서사의 구도는 지금여기의 시대정신과도 유비되며 작가 강효미의 명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체제를 완전히 내면화하지 않은 ‘순수한’존재로서의 ‘어린 이’와 그들이 만들어어나가는 수 있는 세계상의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서사의 구도에 내재된 일종의 기시감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넘어서 체제의 논리와 자본의 세계를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힘을 ‘차이’의 다층성에 대한 해명과 계급·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또 각 주체들의 자기정체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찾아나가고자 하는 이 목적인 문제의식이 앞으로도 작가 강효미의 작품들에서 활짝 꽃피워지리라 기대해본다. ✎

느리게, 차곡차곡 쌓는 이야기 김경해에게 듣다

더위가 한창일 때, 인천의 한 카페에서 소설가 김경해를 만났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다. 그녀의 글을 읽기 전이었다면, 한 여름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지금 내 앞에 일관된 취향을 가진 섬세한 중년의 여인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며칠에 걸쳐 글을 읽고 냈더니, 섬세함에 다른 감각이 더해졌다. 바로, 정확함이다.

김경해의 작품 속 인물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없거나 남에게 의존하여 사는 모양새는 아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세상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다. 작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들이 처한 상황을 건조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정주하지 못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불안감에는 깊은 연민을 보인다. 인물들의 정서를 미세한 몸짓으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정확하게 드러낸다.

김경해의 섬세함과 정확함은, 소설 속 공간과 인물, 그리고 이를 표현해내는 스타일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졌다. 아주 느리게 글을 쓴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말로 담아내고자 한다.

전강희 드라마터그, 공연비평가



『공항철도 편의점』, 복인, 2015

공간_유폐되는 곳, 혹은 부유하는 곳

[집]

전강희(이하 전)

소설 속, 배경이 되는 장소가 주로 누군가의 집입니다. 부모님의 집, 남편과 사는 집, 당분간 신세지는 집 등, 여러 집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공간 또는 집에 대한 작가님의 평소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어요.

김경해(이하 김)

소설을 쓸 때, 처음부터 공간을 설치하고 쓰기 시작해요. 어떤 공간에 가보고,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공간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스토리가 엮이는 느낌을 받아요. 『내 마음의 집』을 쓸 때에는 종갓집에 직접 취재를 갔어요. 종갓집이 배경이었거든요. 취재를 하려고 들어선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취재가 끝나고 잠시나마 공간에 머무르다보면, 그 장소에 대한 거리가 조금씩 생겨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잘 알지 못하는 공간이거나,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절대 쓰지 않아요. 꼭 취재를 해요. 『드므』를 썼을 때, 김윤식 평론가에게서 “앉아서 잘난 자기 머리나 믿고 쓴 것이 아닌 발로 쓴 것이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전 『드므』는 작년에 출간한 단편집이지요? 고궁을 배경으로 쓰셨어요. ‘자유로운 영혼이 사는 집’이라는 말이 인상에 남았어요.

김 어떤 이야기를 쓸까 고민하다가 좋아하는 장소인 궁을 소재로 쓴 건데요. 제가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유는 어릴 적 한 집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집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강했거든요.

전 얼마 전에 한 연극배우를 만났는데, 젊었을 때, 술에 취해서 한 밤중에 경북궁 안으로 담을 넘어들어 간 적이 있었다고 해요. 자기 집이라면서요.

김 네 이야기잖아요?

전 여자 친구랑 술 마시고 그랬는데, 혹시 동일 인물이신가요?

김 내가 20년 전에 한 짓인데.

전 작품에서는 집의 소유주가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거의 다 남자인데요. 작품 속 여성들이 대부분 남성의 집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김 그런 점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쓴 거예요. 집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 한 집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답답해서 그 집을 너무 벗어나고 싶어 했고, 새로운 것을 원했어요. 집에 대해서 쓸 때에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남자

가 소유자라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았어요.

전 자유로운 영혼이 살 수 있는 집을 원하셨군요.

[공항철도]

전 『공항철도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 집이건 간에, 어쨌든 집이 있는 상태이지만, 이 작품의 여자주인공은 조금은 다른 상황이지요. 한 장소에 안착하고 있기보다는 어딘가에서 부유하고 있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김 이 글은 제가 마음을 많이 쓴 작품이에요. 여학생은 카이스트에 다니던 학생을 모델로 쓴 거예요. 몇 년 전 그 학교에서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죠. 그 기사를 읽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전 불안정한 여학생과 공항철도,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딱 들어맞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항철도는 계속 어딘가로 움직이는 이미지이고, 편의점도 역시 오래 머무르는 장소는 아니고요. 『공항철도 편의점』은 제목만으로도 이미 인물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공항철도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 중 수정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항철도의 첫차에는 사람이 없다고 썼는데,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시간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더라고요.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놓친 부분이었는데, 이걸 고칠까하다가 우선은 그냥 뒀어요.

전 공항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인천을 소재로 삼고 있는 글을 집필 중이신 것이 생각납니다. 유년 시절도 여기서 보내셨죠?

김 네, 맞아요. 고등학교까지 인천에서 다녔어요. 예전에는 서울에 대해서 썼어요. 홍대 앞, 경복궁, 종로서적, 광화문, 덕수궁 돌담길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인천에 대해서 쓰려고 해요. 인천을 창작재료로서 다시 보려고요. 요즘 인천을 생각하다보면, 영종도를 떠올리게 되고, 그럼 또 공항 이야기를 하게 되요. 공항 자체가 빈부 격차가 극과 극인 곳이에요. 해외 면세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아요.

첫차를 타면, 좀비처럼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모두 그런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공항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치우고, 짐이나 담요를 나르는 사람들이 첫차에 타고 있어요. 최근 인천에 대해서 짧은 글을 쓸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극단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니깐요. 글 안에 과거와 현재의 삶이 모두 놓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을 따라가다 보면 미래도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인물_그 남자, 그 여자

[남자]

전 소설 속의 남자들이 대부분 이름이 없어요, ‘그’라는 대명사로 지칭되는데, 읽다보면 중독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다 ‘그’의 자리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을 차례로 대입시켜 보기도 합니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해당 인물의 사연을 스스로 구축해보는 것 처럼 이요. 이야기를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데, ‘그’를 보면서, 배우라면, 이 역할을 어떻게 연기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 가지 직업을 대입해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김 사람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말라고 하지요. 소설 속에서도 그래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이름을 부르면 작품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요. ‘그’라고 하면 읽는 사람이 나름대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저는 ‘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좋아요.

전 작가님의 ‘그’는 어떤 원형성이 있나요?

김 나의 ‘그’는 이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남자의 이미지, 이루지 못한 사람, 안타까움. 그가 언제나 그리움의 대상인거죠.

전 『드므』에서 그는 멋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는 좀...

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쓴 거예요. 제 글의 모든 그가 한 인물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소설 속에서 분위기와 내용에 맞게 달라져요. 여기서는 이런 그이고, 저기서는 저런 그이고요.

전 그라고 할 때, 그 자체 보다는, 그를 바라보는 여자의 심리가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자를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데도, 작품의 무게 중심이 여성에게로 더 놓이는 느낌이 들어요.

김 글이 태어날 때부터 여성적인 거죠.

[여자]

전 이제 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작가님 작품 속의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부모님이나, 남자에게서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존적이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는 의존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예측된 상태는 아니예요. 저는 이 지점이 흥미로워요. 소설 속 여성도 여러 캐릭터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지요. 이 간극을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요.

김 사실 캐릭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아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 특별하다기보다, 누구나 읽었을 때,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면 좋겠어요. 읽는 것 자체로서 위안 받고 공감할 수 있으면 해요. 특별

한 캐릭터를 구축하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글을 써야겠다, 라고 인식하지는 않아요.

전 글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불안감에 공감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신경증 같은 예민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현실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현실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읽혔어요.

김 우리가 사실은 다 불안하지요. 저는 늘 불안했어요. 이제 불안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 것은 최근이에요. 20대일 때는 어떤 목표가 있어도 아직 손에 닿지 않으니, 언제쯤 잡을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항상 불안했어요. 소설을 잘 쓰는 것이 가장 절실한 바람이었어요. 30대 때에도 그랬어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이는 표정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아등바등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서 그럴 수도 있고요. 소설을 같이 배웠던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한데, 조그만 것 하나에도 예민하게 굴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먼저 등단했는데, 저 친구가 더 잘나가네, 같은 것ियो.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안했었고요. 이런 불안함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스타일_‘나’의 이야기

[문제]

전 글 속에 꽃과 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들이 여자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김 주위에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다니다보면 꽃 얘기를 많이 해요. 꽃은 소설 안에 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나무도 그렇고요. 지금 쓰고 있는 장편소설의 제목도 나무 이름이에요. 『배롱나무』로 붙였어요. 붉은 꽃이 피는 나무예요. 궁궐의 나무에 대해서 쓴 책에서 배롱 꽃을 설명한 부분을 읽었어요. 여름에 빨간 꽃을 피운다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보로니아도 공부해서 알게 된 꽃이에요.

전 글에 보면, 꽃 이름이 정확히 나옵니다. 들에 흐드러지게 핀 꽃 같은 표현은 없어요.

김 저는 소설을 쓸 때, 구체적이지 않은 것은 싫어해요. 만약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하면, 쓴 맛인지 단 맛인지, 컵 안에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해요. 꽃도 그냥 꽃이 아니라 빨간 꽃인지 파

란 꽃인지요. 사람의 표정도 그렇잖아요. 누가 웃고 있다고 하면, 활짝 웃는 건지, 어설픔게 웃는 건지, 웃고 싶지 않은데 웃는 건지,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소설은 이렇게 글로 보여 주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전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김 그냥 꽃이라고 하면 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푸른색이라고 한다면, 그냥 푸른색이 아니라 만년필에 들어있는 푸른색처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 해요. 글이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문장이 따라가기가 쉬워요. 아름답고요.

김 제가 이 글들을 쓸 때만 해도 소설은 스토리보다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문장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생각, 그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야한다는 생각으로 썼어요.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문장에 집착했어요. 처음 소설을 공부할 때, 소설은 문장이라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욕먹어요. 소설이 스토리지, 무슨 문장이냐고요. 지금은 ‘스토리나, 문장이나’라고 했을 때, 스토리를 선택해요. 스토리가 강한 글을 쓰고 싶어요.

전 추구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 잘 읽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초고를 쓰고 나면 많이 고치는 편이에요. 비문을 고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좋은 느낌으로 길게 썼는데 안 읽힐 때도 있어요. 그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분은 포기하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잘 읽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전 아직도 문장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제 문장이 잘 안 읽히는 것 같아서, 소리 내어 읽어봐요. 저는 천천히 쓰는 편인데, 빨리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만큼 고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전 이게 콤플렉스인가 같아요.

전 읽는데 술술 넘어가서 공들여 쓴 것을 알았어요. 엄청나게 고친거구나.

김 소설은 만약에 초고를 쓰는 데에 하루가 걸린다고 하면, 고치는 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초고는 사실 금방 써요. 그것을 제대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계속 고치기도 하고요. 신물 나도록 고쳐요. 장편 같은 경우는 정말 신물이 나요. 보고 싶지 않아서 한 동안 묵혀놔다가 다시 봐요. 그때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전 장편이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김 그런데 단편이 더 어려워요. 단편은 짧지만 앞에서부터 균형을 맞추는 건데, 전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단편이 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일인칭]

전 이 소설의 화자는 모두 일인칭을 취하고 있어요. 일인칭 시점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 저는 무조건 일인칭으로 써요.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인칭이 공감하기 쉬워요. 화자를 나로 쓰면 읽기에도 편해요. 삼인칭 시점은, 다시 말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저는 이 시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말로만 삼인칭인거지, 실제로는 일인칭 아닌가요? 어차피 작가가 쓴 거니까요. 극중 인물로 순이가 등장해도, 이게 말로만 순이일 뿐이죠. 삼인칭이라고 하지만 작가 자신의 관점에서 쓰는 일인칭 순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 삼인칭이 편할 수도 있어요. 일인칭으로 쓰면 한계가 많거든요. 누군가의 과거에 대해서 쓴다면, 화자가 일인칭인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삼인칭일 경우, 과거에 어땠는다고 꼭 묘사하면 되는데, 일인칭일 경우 감수해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단편은 일인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일인칭으로 쓰면, 쓰는 저도 감정 이입이 잘돼요. 앞으로도 단편은 일인칭으로 쓸 것 같고, 장편은 삼인칭으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 앞으로 어떤 소설을 쓰실 생각이세요?

김 로맨스 한 번 써 볼까요?

전 로맨스. 괜찮은데요. ♡

이 하 랴 LEE Haram

머릿글

여행하는 동안 나는 청춘처럼 펄펄 끓다가도 심장이 시리도록 방향했다. 예쁜 꽃잎이 어깨 위로 떨어지고, 갓 베인 풀냄새가 싱그러운 계절을 불러들였다. 내가 일상이라고 여겼던 것들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여행이었다. 늘 가던 카페 대신 낯선 동네에서 맡는 커피향, 그게 여행이었다. 늘 바라보던 것들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도 여행이었다. 버스 타던 습관을 버리고 구석구석 골목길을 밟아보고, 공향이 아닌 버스터미널에 가 심장이 뛰는 만큼 용기를 내어 심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얼마만큼 떠나왔는지는 여행을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 중요한 건 항상 공사 마일리지라 아니라, 내 가슴이 지금 여행중이라는 것이다. 여행을 많이 해도, 떠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없다.

습관처럼 떠난다고 말하는 이들도 그 날이 되면 갈팡질팡한다. 망설이고 고민하고 부딪힌다.

여행의 묘미를 제대로 맛보려면 내가 속한 일상을 먼저 사랑해야한다. 그런 후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시야가 또렷해지는 여행의 각성효과를 느끼는 것이다.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풍경 앞에 선다고 대단한 깨우침을 얻는 건 아니다. 멀리 떠나왔다고, 일상에서 멀어졌다고 더 대단하고 근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풍경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과 바람과 새와 고양이, 골목 담장과 구겨진 계단, 봄꽃과 겨울가지. 공간이 만들어낸 소박한 풍경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하람 여행작가



계단_스페인 세고비아_2015

계단

광장보다 계단이 좋다
시인을 닮은 상상이 모이고
발자국마다 화가의 시선이 되는 계단이 좋다
현관에서 출발하며 내려가고
지하철역으로 퇴장해도 당당히 오를 수 있는 계단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구조물인가

근심가득한 나그네 철퍼덕 앉아 쉬어갈 수 있고
한발 한발 느린 걸음마다
노인이 살아온 세월을 가늠할 수 있는
바퀴를 허락하지 않는 계단의 독심은 얼마나 단단하고 멋진가

너에게 가는 길에도 작은 계단이 놓였으면 좋겠다
한 발씩 오르며 숨이 차는 두근거림으로 너에게 오르고 싶다



색_스페인 세고비아_2015

색

계절에 색이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온도와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향기를 맡지 못해도
색깔만으로 계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먼저 낀 앨범 속 사진을 보면서
“맞아 그 해 가을은 이랬었지” 추억할 수 있다는건 얼마나 찬란한 일인가
덕수궁 길에서 화가의 눈 내리는 그림을 보면서
계절보다 먼저 겨울에 가 있는 마음이란 또 얼마나 낭만적인가



꽃_스페인 말라가_2015

봄꽃처럼

봄은 동백처럼 기다리다가 목련처럼 적극적으로 피어서
 개나리처럼 까르르 웃다가 진달래처럼 수줍게 바라보고
 벚꽃처럼 흐드러지게 고백하고 철쭉처럼 진하게 머물다가
 라일락처럼 아찔하지만 아카시아처럼 은은하게
 봄의 꽃처럼 당신에게 가고 싶다



여행_스페인 말라가_2015

여행

여행은 낯선 행성에서 하루가 열리는 소리를 듣는 일
 승부 뻔한 알람과 씨름할 필요 없고
 출근길 도로 상황 확인할 필요 없고
 최대한 게으르고 평화롭게 아침을 맞는 일
 그래서 아침이 행복 한 것, 그게 바로 여행



골목_스페인 말라가_2015

골목

쓸쓸해야 골목이다

구겨진 대문 앞에 화분이 놓여도

화분에 물 주는 주인 마음은 쓸쓸해야 골목이다

언덕에 있어도 가장 낮은 길

유화보다 수채화를 닮은 길

장에 간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동네 아는 얼굴 기다리는 할머니

낮에는 오줌 줄기도 찾지 않는 가로등

모두 다 쓸쓸해야 골목이다 ♫

인진미 IN Jinmi

서있거나 흔들리는 평행선

김지연 미술비평, 독립큐레이터

1

인진미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이자 감독으로 출발하여 무빙 이미지 작업까지 활동의 영역을 확장한 작가다. 시나리오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10여 년 밀착해 있던 영화 현장에서 한발 뺀 그는 2010년 금천예술공장(서울) 입주를 시작으로 오픈스페이스 배(부산), 토지문화관(원주), 지리산프로젝트 성심원 레지던시(산청), 인천아트 플랫폼(인천) 등 전국 곳곳의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다양한(다양할 것이라고 상상 가능한, 기대할 수 있는) 경향의 예술가들이 한시적으로 모여드는 레지던시에서 흥미를 끌만한 ‘캐릭터’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배반당할 가능성 역시 높지만) 짐작 가능하다. 레지던시 작가들은 1년 안팎의 한시적 시간 동안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임시 공동체를 구성한다. 일상이면서 동시에 일탈

이기도 한 환경을 제공하는 ‘레지던시’는 뿌리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시적 상황’이다. 동일한 공간에 끊임없이 새로운 공기가 채워지듯 하나의 레지던시에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작가들의 새로운 사념이 채워진다.

그는 부유하며 떠도는 레지던시 생활을 5년 남짓 이어오면서 영화 작업을 위한 경험을 축적 중인데, 아직은 영화와 미술의 경계에 적극적으로 걸쳐 있던 2011~12년 무렵 레지던시라는 환경에서 영화의 ‘세트같은 정서’를 발견했다. 배밭이 펼쳐져 있는 산자락에 자리 잡은 레지던시+전시공간인 오픈스페이스 배는 기이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풍광이 전해주는 낯선 정서가 그의 창작욕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동시에 다른 직업군에 비해 예민하게 작동하는 예술가들의 욕망을 발견하는 촉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머뭇거릴 틈도 없

이 그는 오픈스페이스 배에 카메라를 대고 장편영화를 제작했다. ‘창작의 산실’에서 펼쳐진 에피소드로 구조를 짠 〈부귀영화〉는 실재와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며 장르를 특정 짓기 곤란한 작품으로 완성되고 정식 극장 개봉까지 마친다.

당시 함께 생활했던 오픈스페이스 배의 입주 작가, 스테프들이 그대로 ‘배우’가 되어 출연한 영화 〈부귀영화〉에는 레지던시에서 열리는 연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오픈스튜디오, 전시 오프닝과 같은 팩트로서의 행사들과, 그곳을 무대로 벌어지는 실종사건, 살인사건 등의 픽션이 섞여 있다. 등장 인물들은 다큐멘터리 인터뷰의 장면에서처럼 자신의 일상이나 예술관에 대하여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곧이어 문득 죽는다. 그들은 서로서로 진짜인지 허구인지 알 수 없는 갈등과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역시 죽는다. 점프하는 사건들은

기묘하게 연결되어 낯선 정서를 견인한다. 그는 사전에 입주작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그들이 죽는 방식을 결정하고, 각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동기 역시 그들의 고민으로부터 끌어냈다고 했다. 상상과 사유의 파편들이 드러나고 엮여 하나의 구조 안에서 자리를 잡는 상황은, 등장 인물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꽤 흥미롭다. 실재(라고 확정지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와 허구 사이의 퍼즐을 맞추어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등장인물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반응일 것이다.)

레지던시의 연례 행사 속에서 슬쩍슬쩍 발생하는 ‘사건’들, 그것도 ‘죽음’으로 종결되는 ‘허구’로서의 사건들은 일상에 깃들어 있는 공포의 무게에 대한 메시지와 감수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 현실 너머의 현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진미 작가가 기존에 썼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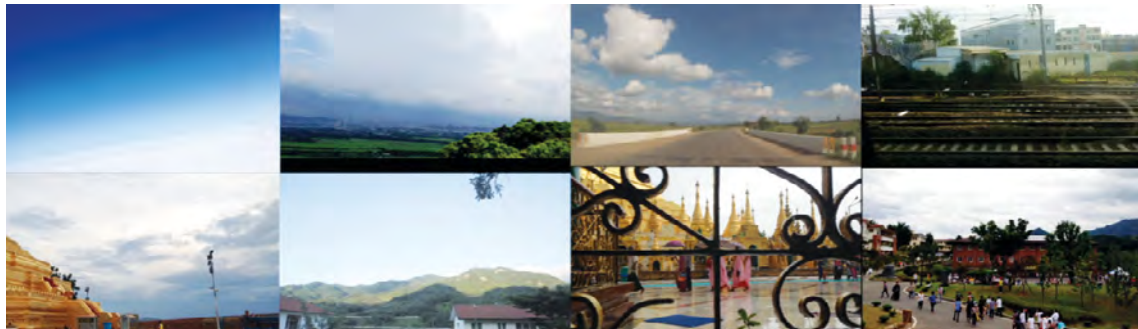
패러렐타임_2 Channel Video_03'30"_2015



패러렐타임_2 Channel Video_03'30"_2015



Parallel SIMULACRUM_2 Channel HD_02'30" _2015



Parallel SIMULACRUM_2 Channel HD_02'30" _2015



Searching for Paradise_HD_03'18" _2015



시물라크룸1_HD_02'00" _2015

련의 시나리오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일상의 공포'는 그가 풀어내려는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시선이 다. 현실과 전환되어 출현하는 상상력으로서의 환상은 은밀한 공포심에 가닿는다. 너무도 담담하게 펼쳐져 생각할수록 오히려 두려운 공포의 정서를 어떻게 영화 안에서 형상화할 것인가가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과제이다.

2

일상에 숨어 있는 공포에 대한 관심과 별개로, 하나의 스크린을 종착점으로 했던 작업방식으로부터 자의든 타의든 벗어날 수 있게 된 작가는 작업의 방식을 다변화했다. 특히, '미술'의 영역과 좀더 친근한 어법을 구사하는 영상 작업들에서는 카메라의 시점과 쇼트간의 속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한번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실험적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패러렐 타임〉, 〈패러렐 시티〉 등 그의 무빙이미지 작업에서는 타임랩스 기법과 화면 분할 방식이 두드러진다. 동시에 2, 3개의 채널로 스크린을 분할하여 공간에 설치하기도 한다. 리얼 타임을 응축시키는 타임랩스 기법은 실제 내 몸이 경험할 수 없는 속도감으로 인해 '현실'의 '현실감'을 제거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방식은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겠다. 타임랩스와 화면분할 방식을 통해 성심원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 담아낸 작업 〈미상〉은 화면의 속도감과 이야기의 조율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감수성과 메시지의 방향을 열핏 드러낸다.

지리산프로젝트의 주요 사이트 가운데 한 곳인 산청 성심원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센인 요양시설이다. 환경이 바뀌면서 한센병이 사라지고, 더불어 그들이 머물던 공간도 비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공간의 정체성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높아진 시점에 시설 가운데 일부를 예술가 레지던시로 오픈한 성심원에서 1년 가량 머물며 그곳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한센인 뿐 아니라 그곳의 직원들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는데, 〈미상〉은 정식



시물라크룸2_HD_04'00" _2015



시물라크룸3_HD_03'00" _2015

다큐멘타리를 제작하기 위한 파일럿 성격의 영상 작업이다.

이 영상 작업에서 작가는 ‘마치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화면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한다. 돌, 냇, 여덟, 열여섯으로 분할되어 점멸하는 화면의 역동성과 타임 랩스로 분절되어 흐르는 시간의 토막들이 어우러진 화면 아래로 “단조롭거든. 생물이. 그날이 그날이야.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나.....”하면서 깔리는 성심원 사람의 목소리는 화면의 리드미컬한 흐름과 엇박자를 내면서 성심원 사람들의 ‘일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들 짐작하는’ 일상과 그들의 심리상태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든다.

그의 작업에 많이 등장하는 ‘parallel’이라는 제목은 화면분할방식을 통해 시각화된다. 두 개 이상의 선이 평행할 때, 둘 이상의 일이 아주 유사할 때, 혹은 병행할 때, 병렬의 관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 패러렐은 그가 떠다녔던 도시풍경의 일상성을 엮어내는 방법론으로 활용된다. 이럴 경우 인진미는 본인이 담고자 하는 대상을 명료하게 확정하여 기록하기보다는 의도와 관점에서 비커션 방식으로 대상 주변에 머문다.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도시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습관이 있다. 이동하는 차 창틀에 아이폰을 꽂아 놓고 아이폰이 풍경을 기록하도록 내버려 둔다. 혹은 고프로를 매단 하이바를 쓰고 돌아다니며 풍경을 기록한다. 타임 랩스로 응축한 시간의 풍경은 분할

된 화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미지 데이터의 잔상을 남긴다. ‘우연’이 포획한 삶의 풍경을 ‘편집’하면서 그는 다른 듯 닮아 있는 지구인의 삶과 시간을 보여준다. 지구상 존재하는 삶의 터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감이 일종의 시각적 빅데이터로 드러나는 셈이다. 그의 ‘패러렐’ 시리즈는 그렇게 내 시야각 안과 밖에서 사정없이 흘러가버린 것들을 기록한다.

3

본인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관찰하는 눈’으로 머무는 그의 카메라가 담은 장면들은, 앞으로 더 많이 쌓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떤 시점을 넘어서는 그 어느 순간, 스스로 발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현재, 작가가 해야 하는 일은 ‘양’이 ‘질’적 전환을 가져오는 그 어느 순간을 만날 때까지 일상생활을 하듯 그렇게 카메라의 눈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다. 그러다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층위의 평행선들이 어떤 매개를 만나 조우하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때까지 ‘축적’의 시간을 누리면 된다. ✿

전강희 JEON Kanghee

극장과 시선: 전강희의 작업에 대해

이택광 경희대 교수, 문화평론가

전강희가 '드라마터그'로 참여한 <비포 애프터>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직설적 화법을 구사한다. 그러나 이 직설은 여전히 상징적으로 극장의 문법을 따른다. 이 문법이 전강희의 언어이다. 세월호 사건을 다룬 이 연극은 나에게 하나의 풍경을 떠오르게 했다. 2009년 독일의 쾰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들뢰즈 컨퍼런스에 참가했을 때, 기조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뒤에 불쑥 청중석에서 손을 들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미국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마친 학생은 지금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아무리 들뢰즈 철학에 대해 어려움저러쿵 논하더라도 들뢰즈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철학은 자신의 삶조차 구원하지 못했다고 보아야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었다. 대체로 컨퍼런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부

류'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한 다소 뜬금없는 문제제기에 대해 통상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질문은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표류해버렸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핵심을 꿰뚫지 않은 질문은 대답할 필요가 없다. 들뢰즈 자신도 세미나 강의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면 빙그레 웃기만 했다지 않은가. 그러나 나에게 이 풍경은 그냥 스쳐 지나기에 복잡한 문제를 던져주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들뢰즈 연구자들이 '들뢰즈의 자살'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에서 문제의식은 제 모습을 드러낸다. 들뢰즈의 자살이라는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진 그 학생은 분명 들뢰즈의 철학

에 대해 잘 아는 처지는 아닐 것이다. 말하자면, 들뢰즈의 자살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를 던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 학생의 질문은 바로 철학의 바깥, 상식의 영역에서 넘어온 것이었다.

그 상식의 영역에서 자살은 나쁜 것이다. 자살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들뢰즈의 자살은 그의 철학을 파산시켰다는 논리가 여기에서 성립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논리는 내재성의 철학을 지탱하는 들뢰즈의 윤리성에 심각한 도전일 수 있다. 따라서 들뢰즈의 자살이라는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다. 만성천식으로 인한 고통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타당한 주장'도 상식의 영역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죽음에 다다른 것만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들뢰즈적 '반전'은 명백하게 상식 '밖'이다. 이 상식의 바깥이야말로 '자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숨어 있는 곳이지만, 또한 이것이 의미화의 바깥에 있는 것이기에 일정하게 특정 사회에서 합의된 자살에 대한 상식으로 설득할 수 없는 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식의 눈은 무엇인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의 그림 <에마우스의 만찬>(Supper at Emmaus)에서 '예수의 부활'이라는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요리사의 모습이 곧 이 상식의 눈이다. 하나의 극장성(theatricality)으로 현시한 이 장면에서 '부활'이라는 상식 밖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선(gaze)은 죽었다 살아난 몸이라는 예수의 실체에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이 시선은 분명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 바깥에서 인입한 것이다.

이 요리사의 '존재'는 들뢰즈가 말하는 "벽에 아로새겨지고 구멍을 통해 나누어진" 공동체의 위계에서 출현한다(TP 178). 그러나 이 요리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얼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전히 그리스도로 '얼굴화'하지 못한 이 요리사야말로 하얀 벽(white wall)에서 배제된 것, 바로 타자(Other)의 검은 구멍(black hole)이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타자의 자리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것의 얼굴(facies totius universi)"이었던 그리스도를 제3의 눈에 위치시킨다. 이 눈의 경로는 외연(reference)의 표면을 가로지른다. 이런 제3의 눈이야말로 이분



비포애프터(사진제공: 두산아트센터)



비포애프터(사진제공: 두산아트센터)



카라바조_에마우스의 만찬_141×196.2cm_캔버스에 유채_1601_런던 내셔널 갤러리 소장

법과 수목형 분류구조(arborescence)를 만들어내는 기준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무수한 ‘얼굴들’이 탄생한다. 이처럼 이 얼굴들은 언어 자체라기보다, 언어의 의미화와 맞닿는 경계에서 출몰하는 가능성의 조건이다.

얼굴의 이항성과 일대일 대응성은 언어, 말하자면, 언어의 요소와 주체의 이항성 또는 일대일 대응성과 같지 않다.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의 경계를 이룬다. 얼굴성 기계가 표현에 대응하는 단일한 실제로 무엇이든지 형성된 내용을 구겨 넣을 때, 그것은 이미 의미를 만들어내고 주체를 구성하는 배타적인 형식으로 그 내용을 종속시켜 버리는 것이다... 얼굴성 기계는 기표와 주체에 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용의 아래에 깔려서 맞닿아 있는 토대이고, 가능성의 조건인 것이다. (179-80)

따라서 이 요리사의 ‘얼굴’이야말로 언어의 조건이다. 그리스도라는 기표와 주체가 등장하는 그 지점에서 의미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토대가 바로 이 요리사의 얼굴이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들뢰즈 컨퍼런스에서 질문을 던진 그 학생의 얼굴이야말로, 들뢰즈의 자

살이라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의미화가 일어나는 장소인 것이다.

없는 것으로 치부 당한 그 학생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들뢰즈의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이미 여기에 대한 대답의 시도는 앙드레 피엘 콜롬바트(André Pierre Colombat)를 통해 이루어졌다. 콜롬바트에게 들뢰즈의 죽음은 ‘사건(event)’이다. 콜롬바트는 들뢰즈의 죽음과 동시적으로 일어난 이스라엘 총리 이차크 라빈(Yitzhak Rabin)의 암살을 비교하면서, 두 사건의 평형성을 사유할 필요를 제기한다(Colombat 235). 모든 사건이 ‘이중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제안은 숙고할 가치를 지닌다. 라빈의 죽음이 ‘평화’에 대한 촉구를 의미한다면, 들뢰즈의 죽음은 ‘다수성에 대한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이미 들뢰즈의 초기 저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들뢰즈의 철학에서 죽음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의 모양새”이다(DR 148). 이런 방식으로 죽음은 현실에서 현실화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현재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사건 되기이며 또한 동시에 미래



비포애프터 (사진제공: 두산아트센터)



활동_비포애프터



활동_네이티브스피커



활동_서울프린지페스티벌



활동_아오병잉페스티벌

의 사건 되기이다. 현재는 곧 과거이자 미래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의 과정성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삶의 실패도 아니고 삶의 나약함과 무기력을 고발하는 것도 아니다(NP 38).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에 역동성과 강밀성(intensity)으로 현시한다. 힘(forces)과 강밀성은 들뢰즈가 “바깥”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도래한다(F 101-3). 이 바깥이야말로 전-개인적인 힘의 강밀성과 형체 없는 물질로 가득 찬 우주이다. 이 우주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용어법 너머에 있는 것이다. 안과 밖도 일단 ‘그리스도의 얼굴’이 만들어져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얀 벽과 검은 구멍의 확산과 나눔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우주는 이 분별의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소용돌이의 세계이다. 들뢰즈의 철학은 이런 맥락에서 삶의 강밀성을 모양새와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까닭에 삶의 모양새는 바깥의 접힘(fold)으로 나타나는 것이다(128). 바깥은 삶 속으로 접혀 들어와 있다. 예술이야말로 이런 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들뢰즈의 생각이다. 들뢰즈에게 예술의 창조행위는 죽음의 선(a line of death)에 반대되는 실행이다(LS 188-9).

올해는 들뢰즈 사후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죽음을 기린다는 것은 죽음을 긍정한다는 것이고, 이 행위는 곧 예술을 의미한다. 이미 죽음이라는 바깥은 안에 있다. <비포 애프터>는 결과적으로 접혀 있는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시간을 나누고 접어서 다시 펼쳐 보이는 전강희의 ‘드라마터지’는 삶의 주름을 세밀하게 더듬는 바깥의 시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

참고문헌

- _____. Deleuze, Gilles.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P, 1995.
- _____. Foucault. Trans. Sean Han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8.
- _____. The Logic of Sense. Trans. Mark Lester and Charles Stivale. New York: Columbian UP, 1990.
- _____. Nietzsche and Philosophy. Trans. Hugh Tomlinson. New York: Columbia UP, 1983.
- _____.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_____. Spinoza: Practical Philosophy. Trans. Rebert Hurley. San Francisco: City Lights Books, 1988.



비포애프터 (사진제공: 두산아트센터)

프리뷰전 :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프리뷰전은 당해 연도 입주예술가들의 기존 대표 작품과 입주 활동 계획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이다. 6기 입주예술가의 프리뷰전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 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가?>는 깊은 연대 의식 없이 개인의 길을 가던 예술가들이 인천아트플랫폼 모여 어떻게 교류하고, 창작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전시였다. 이 전시는 입주예술가들을 소개하는 한편, 개인의 작업 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예술가와 만나 상호 간의 에너지를 교환하며 창작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였다. 더불어 레지던시 공간으로서의 인천아트플랫폼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기 간 2015년 4월 30일(목) - 6월 28일(일)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A, B, H동, 송도 트라이볼 3층

참여작가 6기 입주예술가 9개국(한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태국, 터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8팀

- 시각예술 강우영 / 기술기 / 길다래 / 김유정 / 나나&펠릭스 / 니콜라 마네티 / 로미 아키투브 / 박윤주
박은하 / 백승기 / 사야카 오히타 / 안토니 워드 / 에제 일디림 / 엄지희 / 위영일 / 이주현 / 이창훈
임선희 / 전형산 / 젯사다 당트라쿨웁 / 지희킴 / 최영 / 클라라 페트라 사보 / 폴 주커 / 함정식
- 문학창작 및 비평 강효미 / 김경해 / 우현주 / 이영주 / 이하람 / 인진미 / 전강희 / 판소리, '하다'
- 공연예술 김성배 / 김성용 / 배인숙 / 앤드씨어터 / 얼라이브아츠 코모



부대 프로그램

■ 오프닝 퍼포먼스

: 이영주 <스카이 토크> / 배인숙 <시작을 위한 멜로디> / 전형산&우현주 <improvisation take 3>

■ 전문가 비지팅 프로그램

: 민병직(대안공간 루프 바이스 디렉터) / 반이정(미술평론가) / 백기영(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김소연(연극평론가) / 우연(남산예술센터 극장장) / 고영직(문학평론가)



오픈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는 예술가에게 작업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레지던시 공간(창작 공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다. 입주예술가는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연 1회 3일간 외부에 작업실을 공개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시민들은 시각, 공연,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예술가의 창작 결과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료와 장비, 깊은 고민이 담겨있는 에스키스(스케치) 드로잉 등 창작의 산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접하게 되며, 레지던시 공간으로서의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해 알게 된다. 한편, 예술가에게는 입주 기간 동안의 활동을 스스로 중간 점검해보고, 그 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외부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

기 간 2015년 10월 8일(목) - 10월 10일(토)

장 소 인천아트플랫폼 A, E, G1, H동 및 야외

참여작가 6기 입주예술가 4개국(한국, 터키, 프랑스, 헝가리) 27팀

강우영 / 강효미 / 기슬기 / 길다래 / 김성배 / 김성용 / 김유정 / 니콜라 마네티 / 박윤주 / 박은하 / 백승기
앤드씨어터 / 얼라이브아트 코모 / 에제 일디림 / 염지희 / 우현주 / 위영일 / 이주현 / 이창훈 / 이하람 / 인진미
임선희 / 전형산 / 지희킴 / 최영 / 클라라 페트라 사보 / 함정식



부대 프로그램

1) 오프닝 파티 : 2015년 10월 8일(목), 18:00~20:00, C동 야외 테크

2)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 2015년 10월 8일(목), 16:00~18:00

■ 참여 전문가

공주형(한신대 교수, 미술평론가) / 김연호(아이공 디렉터) / 김원범(극단 아트팩토리 사람 대표) / 김정석(인디플러그 대표)
김지연(독립 큐레이터) / 박성태(정림건축문화재단 사무국장) / 심상용(동덕여대 교수, 미술평론가)
정진우(두산갤러리 큐레이터) / 정현(인하대 교수, 미술평론가) / 정상희(스페이스 아도 큐레이터) / 채은영(독립 큐레이터)
최병국(인하대 교수) / 최태만(국민대 교수, 미술평론가) / 홍경한(경향아티클 편집장)

3) 인하대 미술학과 대학(원)생 연계 작가 연구 프로그램

참여 작가	참여 학생	연구 글
위영일	이수연(미술학부 4학년)	위영일 작가의 작품 세계
임선희	김해성(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1차)	누구나 보고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어떤 것들
김유정	임현준(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 4차)	익숙한 풍경의 이면
박윤주	한바다(미술학부 3학년)	사회와 개인, 항상적인 비극에 관하여
백승기	김민경(미술학부 3학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화려한 영화를 세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고, 간단하고, 싸게 만들겠다.
염지희	류웅선(미술-복수전공 2학년)	짜증의 부스러기



결과보고전 : <2015 플랫폼 아티스트>

결과보고전 <2015 플랫폼 아티스트>는 2016년 2월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인천아트플랫폼에 거주한 6기 입주예술가들이 예술 창작의 결실 중 대표 작품을 시민들에게 전시로 선보이는 자리이다. 입주예술가들은 입주 기간 동안 개인 작업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연구하고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였다. 더불어 예술가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며,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과 시민들의 반응에 주목해왔다.

결과보고전시에서 예술가들은 단순히 개인의 창작 결과물을 공개하는 의미를 넘어, 예술 작품을 매개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고민, 다양한 시각으로 관찰한 사회 현상, 연대의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현실 세계에서의 탈피 등에 관한 이야기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기간 2016년 2월 18일(목) - 4월 17일(일)

장소 인천아트플랫폼 B동, 야외

참여작가 6기 입주예술가 9개국(한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태국, 터키,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5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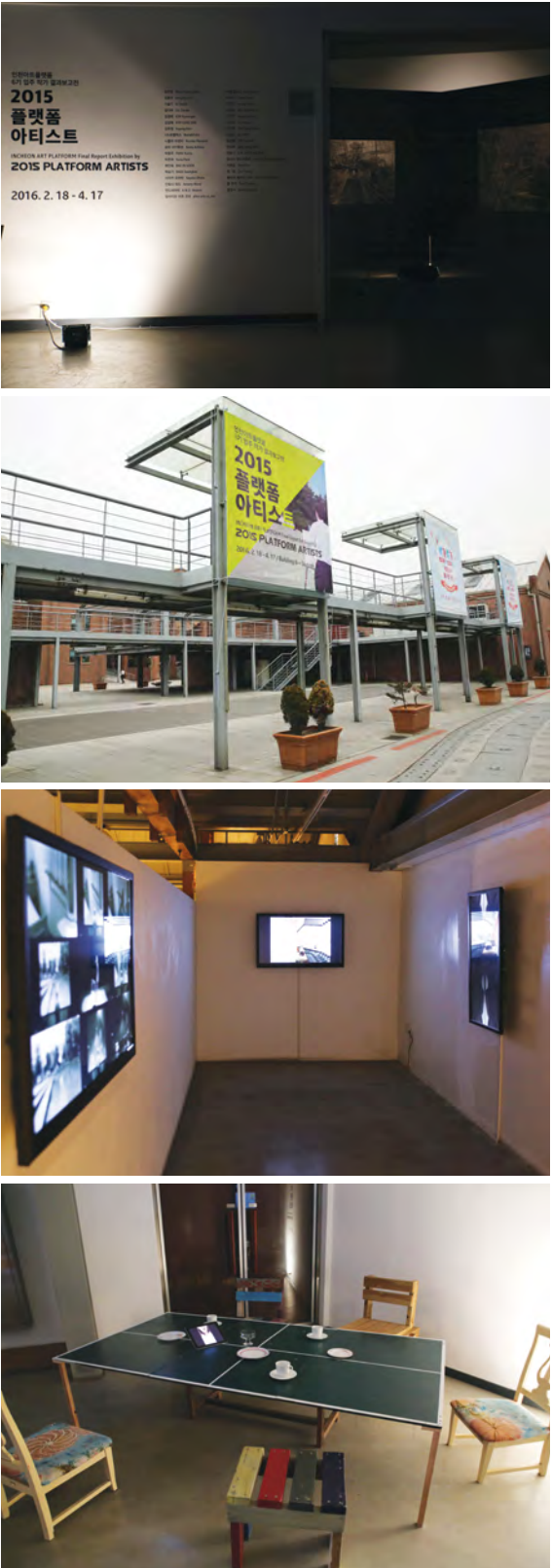
- ▮ 시각예술 강우영 / 기슬기 / 길다래 / 김유정 / 나나&펠릭스 / 니콜라 마네티 / 로미 아키투브 / 박윤주 / 박은하 백승기 / 사야카 오하타 / 안토니 워드 / 에제 일디림 / 염지희 / 위영일 / 이주현 / 이창훈 / 임선희 / 전형산 젯사다 탕트라쿨원 / 지희킴 / 최영 / 클라라 페트라 사보 / 폴 주커 / 함정식
- ▮ 공연예술 김성배 / 배인숙 / 앤드씨어터 / 얼라이브아츠 코모
- ▮ 문학창작 및 비평 강효미 / 김경해 / 우현주 / 이영주 / 인진미 / 전강희

오프닝 프로그램

▮ 전시 연계 아티스트 토크 <예술가의 생존에 관하여>

토크참여자 김유정(참여 예술가) / 박은하(참여 예술가) / 홍경한(미술평론가)

모더레이터 양종남(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지역 연구 리서치

지역 연구 리서치는 국내외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입주예술가들에게 입주 기간 동안 인천을 이해하고, 향후 인천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원활히 진행할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도 지역 연구 리서치는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네트워크를 포함한 프로그램(강연, 투어)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에는 한국 ‘최초’라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이 많은 반면,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장소들도 있다.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강연을 통해, 각국 조계의 형성과 더불어 영국, 일본, 중국, 벨기에 등 타국의 문물이 들어오며 발달하게 된 인천의 산업과 상업, 화폐와 교통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러한 발전이 서울로 이전되는 양상, 현재 인천의 모습, 앞으로의 청사진 등에 대해 고찰하며 한국사에서의 인천의 위치와 위상에 대해 살펴 보았다.

강연과 연계하여 외국인의 산업 발전과 식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최초의 호텔 ‘대불 호텔’터와 ‘근대 은행 거리’, 각국조계의 흔적을 여실히 볼 수 있는 ‘자유공원’, ‘제물포 구락부’와 ‘홍예문’, 개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천 ‘내동 성공회 성당’ 등을 직접 탐방하였다. 더불어 현대사 중 여성노동운동의 중요한 장소인 ‘동일방직’을 둘러보며 역사, 지리, 문화와 더불어 사회사까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	구분	주제	강사
4/3	강연	인천의 개항과 도시 발전	강덕우 인천시 역사자료관 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강연	인천 개항 역사와 의미	김상열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
	강연	인천의 문화 네트워크	원대로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답사	개항장 답사	김윤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답사	송도 답사	양종남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7/10	답사	개항장, 동일방직, 송도 답사	-
9/12	답사	개항장 답사	이하람 5, 6기 입주예술가



플랫폼 살롱

플랫폼 살롱은 입주예술가들이 그간의 창작 활동을 다른 예술가에게 소개하고 작업에 대한 고민과 조언을 상호 주고 받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도 플랫폼 살롱은 입주예술가별 작업 공간에 동료 입주예술가를 초청하는 비공개 오픈스튜디오 방법으로 작업 프레젠테이션, 작품(영화, 영상) 상영,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예술가들은 서로 간의 상이한 창작 활동(장르, 매체, 주제 등)을 자세하게 알아가며, 입주 기간 동안 타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창작과 협업 활동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

일자	시간	발표예술가	장소	일자	시간	발표예술가	장소
2015. 3. 26	13:00~14:10	이영주	E-4	2015. 5. 20	14:00~15:00	인진미	C-공연장
	14:20~15:20	나나&펠릭스	E-18		15:10~16:00	박은하	E-12
	15:20~16:10	폴 주커	E-15		16:10~17:00	지희킴	E-8
	16:20~17:30	안토니 워드	E-14		17:10~18:00	최영	E-11
2015. 4. 8	13:00~14:00	길다래	F-1층	2015. 6. 18	14:10~15:10	강우영	E-10
	14:10~15:00	박윤주	E-1		15:15~16:00	김유정	E-2
	15:10~16:00	전형산	E-6		16:10~17:00	배인숙	E-4
	16:00~17:00	염지희	E-16	2015. 7. 9	13:00~14:00	기술기	E-17
2015. 4. 10	13:00~14:00	함정식	E-20		14:10~15:00	로미 아키투브	E-18
	14:10~15:00	이주현	E-7		15:05~15:55	사야카 오히타	E-18
	15:10~16:00	위영일	E-9		16:00~17:00	젯사다 탕트라쿨윙	E-18
	16:00~17:00	이창훈	E-3		17:00~18:00	김성배	E-5
2015. 4. 16	13:00~13:50	김경해	F-1층	2015. 10. 29	13:00~14:00	니콜라 마네티	E-15
	14:00~14:40	전강희	F-1층		14:10~15:00	에제 일디림	E-18
	14:50~15:40	앤드씨어터	C-연습실		15:05~16:00	클라라 페트라 사보	E-14
	15:50~17:30	백승기	C-공연장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

이론가 매칭 프로그램은 입주예술가와 다양한 분야의 이론가들이 만나 학술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입주예술가의 작품 세계를 밀도 있게 조명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예술가와 이론가의 만남은 작품 제작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의 기회가 되며, 향후 예술가의 작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 입주예술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본 프로그램에는 외부 큐레이터, 미술비평가, 미술사학자 등이 참여하여 입주예술가들의 작품을 독해하였다. 이를 통해 이론가들과 작가 간의 소통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보다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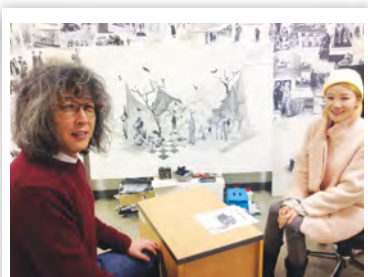
특히 2015년에는 타장르 이론가들과의 매칭을 장려하여 시각예술가와 소설가, 영화감독, 철학자, 공연예술가와 영화평론가, 아동문학가 간의 매칭이 진행됨으로써 프로그램의 형식과 내용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강우영-김종길 미술평론가



길다래-장률 영화감독



염지희-홍경한 미술평론가



이영주-정성일 영화평론가



이창훈-고동연 미술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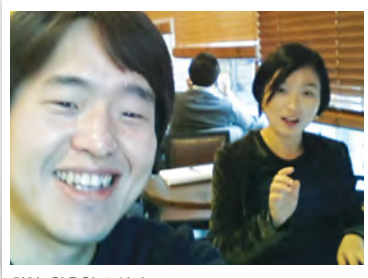
임선희-김종호 뉴욕 두산갤러리 디렉터



전형산-표신엽 미디어 작곡가



지희킴-김영하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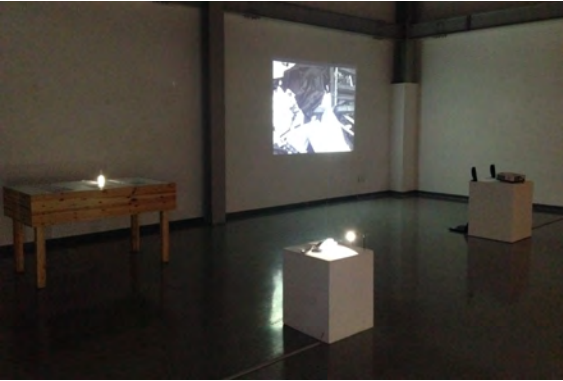
최영-한은형 소설가

분야	입주 예술가	이론가	원고제목
시각 예술	강우영	김종길 미술평론가	하나의 감각(一覺)으로 몰아오는 통감각적 회통의 한 생각
	기술기	심소미 독립큐레이터	프레임으로부터 확장된 다차원의 세계
	길다래	장률 영화감독	2015.11.19.3pm 장률, 길다래 대화
	김유정	정현 미술평론가, 인하대 교수	회색성, 흑백 사이의 가능성
	박윤주	민병직 대안공간 루프 바이스 디렉터	박윤주, 사물의 지향성을 향해
	박은하	전성원 새얼문화재단 기획본부장, 황해문화 편집장	박은하,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에서 찾는 희망
	염지희	홍경한 미술평론가	죽임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
	위영일	정수경 미술사학 박사, 인천가톨릭대학교 교수	회화의 Gamification
	이주현	서현석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영화이론 박사	기억의 기술, 저항의 기술
	이창훈	고동연 미술사가	이창훈의 'Ob_scene'전략 : 미학적 '간섭'들이 던지는 과제
	임선희	김종호 두산 갤러리 디렉터	The Flat
	전형산	표신엽 미디어 작곡가	세상의 모든 소리로 보여주는 세상 속 나의 존재
공연 예술	지희킴	김영하 소설가	지도가 곧 영토인 시대
	최 영	한은형 소설가	아 버 지 가 방 에 들 어 가 신 다
	함정식	박준상 송실대 철학과 교수	다르게 기도하기
	김성용	김예림 무용평론가	린치(LYNCH)
	배인숙	박진홍 아동문학가	배인숙의 작업
	앤드 씨어터	김소연 연극평론가	막다른 골목, 그러나 다시 하기 앤드씨어터 〈창조경제〉
	얼라이브아츠 코모	전강희 드라마터그, 공연 비평가	팸름시스트 - 15분, 누군가의 삶을 만나는 시간
	우현주	원일 작곡가, 연주자, 화음음악제 총감독	공연예술 입주작가 우현주
문학 창작 및 비평	이영주	정성일 영화평론가	인천_이영주_2015
	판소리, '하다'	윤중강 국악평론가	#판소리 만들기 '하다'
	강효미	임세화 문학평론가	강효미론
	김경해	전강희 드라마터그, 공연 비평가	느리게, 차곡차곡 쌓는 이야기, 김경해에게 듣는다
	인진미	김지연 미술비평가, 독립큐레이터	서있거나 흔들리는 평행선
	전강희	이택광 경희대 교수, 문학평론가	극장과 시선 - 전강희의 작업에 대해

창작지원(협업) 프로그램

창작지원(협업) 프로그램은 2팀 이상의 입주예술가의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예산, 공간, 홍보 등)하는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입주예술가들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험적인 창작 활동의 동력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15년의 경우,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 설치, 장르 융합 시도 등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었다. 협업 창작을 통해 참여 예술가들은 여러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기존의 정형화된 틀로부터 벗어나 그간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실험 욕구를 발산해볼 수 있었으며,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참신한 돌연변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 볼 수 있었다.

프로젝트	참여 예술가	프로젝트 발표		
		형태	일자	장소
갈증이 나는 방식	강우영, 박윤주, 배인숙, 이주현	전시	8월 5일(수)~8월 18일(화)	G1동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기술기, 박은하	전시	10월 14일(수)~10월 21일(수)	G1동
three little gesture	길다래, 전형산, 함정식(게스트: 정태호)	퍼포먼스	11월 15일(일)	B동
말 전달놀이	최영, 펠릭스	전시	12월 14일(월)~12월 15일(화)	H동



공연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쇼케이스

인천아트플랫폼의 공연분야 입주예술가 프로젝트 쇼케이스는 공연분야 예술가들이 입주기간 중에 수행한 창작 작업과 연구 성과를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 발표의 장이다. 2015년 공연분야 입주예술가들은 인천아트플랫폼과 트라이볼 공간을 활용하여 형식과 장르의 구애 없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실험적인 창작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공연예술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하고자 노력하였다.

순번	일자	작가명	프로젝트명	세부내용	장소
1	4/30	이영주	스카이 토크	부처와 예수가 스카이프로 현재 동서양의 종교의 흐름에 대하여 위트 있는 대화를 나누는 퍼포먼스	A동
2	5/24	김성배	접신(Possession)	인천 황해도 굿을 음악, 사운드 아트, 무용의 동시대적 감각으로 구현	트라이볼
3	5/30	판소리, '하다'	명작을 만나다	문학 작품 헨리 입센의 『유령』,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을 판소리로 재구성	C동
4	5/31	김성용	Help	Bal Malhada Dance Group과 한국 안무가 김성용의 협업 공연	트라이볼
5	6/4-7	앤드씨어터	한국근대문학극장	한국의 근대문학작품 8편을 각기 다르게 재해석한 연출가가 릴레이 형식의 공연	C동
6	8/21-23	배인숙	맛있는 소리	인천의 막걸리를 익히는 과정을 사운드로 채집하여 설치	G1동
7	11/7	김성용	LYNCH	물리적으로 강제되는 폭력, 보이지 않는 폭력, 그 폭력의 전이에 노출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무용(안무)으로 표현	A동
8	11/21	김성배	죽은 즉흥 예술가들의 사회	17명의 다양한 뮤지션과 무용수들의 즉흥 공연 및 내부 세미나	C동
9	12/11-12	얼라이브 아츠코모	팰름시스트 (palimpsest)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공간, 설치 실험. 관객 참여형 설치 프로젝트	E-21
10	12/12	김성배	Ritual(의례)	5월 진행한 프로젝트 접신(Possession)의 연장 선상에 있는 작업으로 전통적인 굿 의례의 과정을 음악적으로 해석하여 무대화한 것	C동
11	12/18	우현주	디지털 종묘제례악	전통종묘제례악과 디지털미디어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공연	C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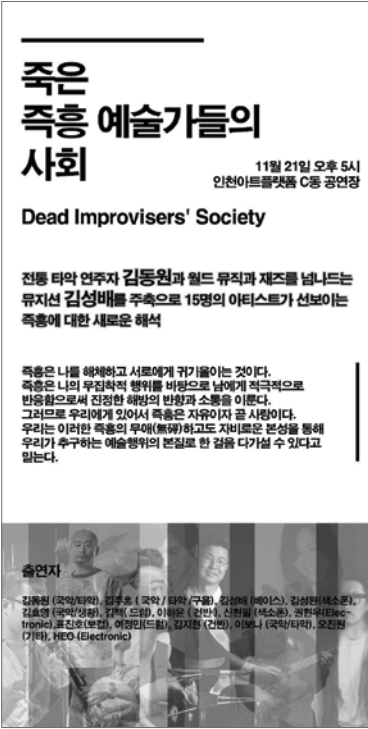
♣ 입주예술가 쇼케이스 포스터



♣ 배인숙_맛있는 소리



♣ 우현주_디지털 종묘제례악



♣ 김성배_죽은 즉흥 예술가들의 사회



♣ 앤드씨어터_한국근대문학극장



♣ 김성용_lynch(lynch)

예술가 참여 교육프로그램

인천아트플랫폼의 예술가 참여 교육프로그램은 입주예술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시민들과 직접 교류하는 문화예술 교육 실험의 장이다.

2015년 교육프로그램은 국내외 입주예술가의 개별 창작 방식과 연계하는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갔으며, 커리큘럼 별 수준을 달리하여 다양한 연령층(초등학생~성인)의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입주예술가의 창작 프로젝트, 워크숍 및 아트플랫폼의 기획 전시 등 다양한 루트로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별 특색을 부가하였다.

인천아트플랫폼 교육프로그램은 참여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교류하고, 본인의 창작을 예술교육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예술교육 현장 속에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자신만의 색깔을 몸소 발견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 명	일시	참여예술가	대상
나도 IAP 예술가! ①	Archikids	4/25~5/16	안토니 워드	초등학생 4~6학년
	상상의 소리보기	4/25~5/30	전형산	
	사운드 : 빌딩	5/23~7/18	배인숙	
	프레스코-이야기 굿기, 담기	6/27~7/18	김유정	
	작품을 어떻게 전시할까?	7/18	김유정, 배인숙	
	결과보고 전시	7/25~8/2	-	
미(味)학 오딧세이	문학 작품으로 본 우리동네 맛보기(개항장 일대)	5/2	이종복	성인
	오래된 음률 영역(신포동 일대)	5/16	오석근	
	우리가족이 먹는 음식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J_Studio)	7/4	정은영	
	우리 밥 먹으로 같까요?(수봉다방)	7/11	박혜민	
	다시 만난 짜장면(차이나타운)	7/18	이수영	
나도 IAP 예술가! ②	아트벽, 암호를 품대!	8/22~8/23	젯사다 탕트라쿨왕	고등학생
세계 책의 수도 선정 기념 미술특별 기획전 연계교육	폴라주로 열리는 나의 세계	9/12~10/17	염지희	고등학생
	결과보고 전시	10/17~11/1	-	
나도 IAP 예술가! ③ - 드로잉, 이미지의 탐닉	드로잉 사이 찾기 - 머리에서 눈으로, 눈에서 손으로	11/14~12/28	지희킴	중, 고등학생
	기억의 방을 위한 드로잉	11/14~12/28	최영	
	결과보고 전시	12/5~12/13	-	



Archikids



폴라주로 열리는 나의 세계



상상의 소리보기



프레스코 - 이야기 굿기, 담기



드로잉 사이 찾기



아트벽, 암호를 품대!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 예술가 약력

강우영 KANG Woo-Young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인터미디어아트전공 석사, 박사졸업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개인전

2015 아간채집,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8 unspoken words, 보충대리공간 스톤엔위터, 안양
2006 unspoken words, TAP2006 Satellite Gallery, 이바라키, 일본

주요 단체전 및 아트 프로젝트

2015 제세동기 除細動器, L153 갤러리, 서울
갈증이 나는 방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아트 프로젝트 울산 2015, 중구 문화의 거리, 울산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오픈스튜디오 10,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14 Nishinomiya Funasaka Biennale, 효고, 일본
공간을 점령하라, 갤러리 정미소, 서울
59.15%/y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워크샵갤러리, 서울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워크샵갤러리, 서울

주요 기획 및 연구

2007~12 Toride Art Project(일본) 연구원
2009 전시기획: Kasiwanoha Crossing, Urban Design Center Kasiwanoha(일본)
2008 국제교류기획: 석수 아트 프로젝트(한국) & Toride Art Project(일본)

수상 및 레지던시

2015 김종영미술관 2016신진작가지원 선정, 서울
2015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인천
2014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2006 TAP2006 Satellite Gallery 전시작가 선정, 일본

강효미 KANG Hyomi

2009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주요활동

2014 아시아창작스토리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2 『돌동아 나와라』(파란정원),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2011 『오랑우탄인간의 최후』(교학사), 2011 문학나눔 우수문학도서 선정
2007 어린이동산 제17회 중편동화 공모전 『마할기타우리속모』로 등단

국내저서

2015 『뽕이당 대 구어뜨』(상상의 집)
『귀는 잘 들으라고 있는거래』(개암나무)
2014 『고양이네 미술관』(상상의 집)
『위조지폐 사기단은 모르는 돈의 비밀』(아르볼)
『신통방통 석굴암』(좋은책 어린이)
『삼바를 추는 축구소년』(한솔수북,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2010 『우리집이 더 비싸거든』, 『엄마껌딱지』(파란정원)

기술기 KI Seulki

2012 MFA Fine Art Media,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졸업
2007 상명 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2005 서울 예술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개인전

2015 Enfolded Order, 스페이스 k, 서울
2013 Unfamiliar Corner, 갤러리 조선, 서울

그룹전

2015 아티스트 파일 2015 : 동행, 국립현대 미술관, 과천
벌어져 Ⅵ 사이가 난 자리, G1 gallery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Artist File 2015 : Next Doors, 국립 신미술관, 도쿄, 일본
읽어오 그림 보여오 - 글과 그림 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Doosan Art LAB 2015, 두산갤러리, 서울
『얼음의 투명한 눈물』 제주 4.3 미술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
『Between』 문화의 거리·아트프로젝트 울산 2015, ww갤러리, 울산
2014 Crystal Lake, Window gallery 성북창작터, 서울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안산
Forest, Wexford Arts Centre, Wexford, Ireland
59.15%/yr,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서울
공간을 장악하라, 아트스페이스 정미소, 서울
고양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INTRO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상황』 한중일 젊은 작가전, 아미도 예술공간, 서울
2013 라운드 업, 서울 시립미술관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NordtArt 2013, Budelsdorf, Germany
PUNK - SALON, Schwartz Gallery, London, UK
THE WOMAN, THE GAZE, THE WORLD, Hanmi Gallery, London, UK.
The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MOPLA, Los Angeles, USA.
2012 The 2012 Peaches & Creams, DreamSpace gallery, London, UK.
2011 CUBE Open 2011, CUBE Gallery, Manchester, UK.
2008 〈사진 비평상〉아트비트갤러리, 서울
2007 제 8회 팀브리뷰 프로그램, 대안공간, 서울

수상 및 지원

2014 전문예술 창작발표 지원선정, 경기문화재단
2013 서울 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선정
2012 The Special Graduate Award, The 2012 Peaches & Creams London, UK
UK Winner, Flash Forward-Emerging Photographers 2012, Magenta Foundation, Canada
2007 제9회 사진 비평상 수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인천문화재단, 인천
2014 고양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길다래 GIL Darae

2008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de Dijon, 프랑스
2006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과
2002 덕원예술 고등학교

개인전

2015 쉬운정원. Easy Garden, 인천아트플랫폼 G1갤러리, 인천
2011 Kind of talking in blue, cafe 홍예문, 인천
2009 수집. Omnibus, Gallery Spielraum, 인천

그룹전

2016 『인천사람..』 2인전, 175갤러리, 서울
2015 미술관 cool 바캉스, 신세계갤러리, 인천
『인천수첩 : 두 각을 이루는 곡선』 2인전, 파란광선, 인천
『비평행적 진화』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B동, 인천
2014 『Reading, visual sound』 협업전시 및 낭독, 파란광선, 인천
2012 1980년대 産-도시의 메아리- 3인전, Lab.39, 서울
『Open Blues』 5인전 기획 및 전시, 파란광선, 인천
2011 『16시16분』 프로젝트그룹 16시, APAP open school, 안양
『You're Incheon』 그룹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8 『Temphography』 그룹전, 갤러리팩토리, 서울
2006 『인천상륙작전』 신진작가전, 스페이스 빔, 인천

협업프로젝트

2015 〈Three little gesture〉길다래x전형산x정태호x함정식, 인천아트플랫폼 B 동 전시장, 인천
2012 〈3 Serenade〉길다래x김온x오혁재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기획, 파란광선, 인천

출판

2015 『인천수첩, Le rayon bleu』(파란광선)
2013 『Rhythm of BlueBlack』(도서출판 작가들)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16 인천아트플랫폼 6기
2013 스페이스 빔

김경해 KIM Kyounghae

2002 여성동아 장편 공모 당선
1998 문학사상 등단

2013 장편소설 『태양의 인사』(자음과모음)
2011 장편소설 『하프라인』(자음과모음)
2010 단편소설 『그녀를 위해 암모』(학산문학, 겨울호)
2009 『내 남자의 가벼움』(텐에이엠, 동인지)
2008 『붉은 사랑』(도서출판 글벗)
2007 『아카시무덤의 우울한 일요일』(동아일보사, 동인지)
2006 『첫번째 프로포즈』(동아일보사, 동인지)
2005 보로니아(한산문학, 여름호)
2003 장편소설 『내 마음의 집』(동아일보사)

김성배 KIM Sungbae

동덕여자대학 특수대학원 수료
Jazz studies & composition 전공

음반이력

2015 Avant Trio
토반, 사이 앨범 프로듀서
2014 SE:UM (2015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연주부분 최우수 크로스앨범 노미네이트)
The Breath (한일 문화교류 사업, 음악감독)
인천 토속음악 프로젝트
2013 김성배 켄텟 (Pepper Man, 2014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연주부분 노미네이트)
김오키 동양청년 (2014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연주수상)

연주이력

2015 한국 프랑스 월드뮤직 프로젝트 그룹 Bae Si Bang 멤버
일본 타카스키 재즈페스티벌 김성배켄텟
반출 자유, 움직임 Free Flow 안무가 Wooguru 와 콜라보 작업및 연주
2014 풍정.각 : 도시공간 무용프로젝트 안무 : 송주원 무용음악 편곡 및 즉흥연주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 오버 부분 최우수 연주부분 수상 (김오키 동양청년)
한국 대중음악상 재즈&크로스오버 부분 최우수 연주부분 노미네이트(김성배 켄텟)
sound string Quartet EBS 다큐프라임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 참여
EBS 공감 김성배 켄텟 출연
2013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김성배 켄텟 참가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 김성배 켄텟 참가
무브먼트 당당의 다큐 퍼포먼스-오래된 이별 음악 연주
프리뮤직 연주자 강태환 Media artist 김형태와 트리오로 연주 club
Golden age
김성배 켄텟 앨범 Pepper Man 발매
Contemporary Music Label ILILSOUND 설립 대표역임
김오키 동양청년 Okinwa Club Tour
2012 해금연주자 서영민 협연
즉흥연주 집단 SMFM 멤버 참가 서강대 메리홀 연주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참여
EBS 공감 SMFM 참여
Media Artist 양민하 작가와 Festival NADA 클라보레이션 작품 참여
Video & Sound art로 참여 (양민하&DAMANSHOW)
2011 한국재즈열전 김성배 켄텟 참가
2010 영화 <체포왕> 영화음악 참여
sound art group DAMANSHOW (electronic musicain HEO & Kim Sung Bae)
2005 타악 프리재즈 연주자 김대환 추모연주 참가

김성용 KIM Sungyong

KIMSUNGYONG DANCECOMPANYMOOE 대표
2014 국립현대무용단 초청 안무가
이태리 Boderline Danza 초청 안무가
미국 Neos Dance Theater 초청안무가
미국 Belhaven University 객원특강교수
일본 교토 퍼포밍아트센터 교류예술가
영남대학교 현대무용학과 교수
2014~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활동

수상경력

2014 국립현대무용단 초청안무가 활동

2013 TV프로그램 댄싱9 파이널 심사위원 활동 경력

제34회 서울무용제대상작 〈초인〉 안무 5개 부문 수상

서울문화투데이 문화예술대상 젊은예술가상 수상

댄스비전 코리아 최우수 안무가상 수상

한국무용예술상 안무상 수상

2011 대한민국 무용대상 BEST5 선정

2008 댄스비전 코리아 대한민국 최고무용수상 수상

최근 주요 공연활동

2016 〈원색충동〉(일본 도쿄 세타가야퍼블릭)

2015 〈원색충동〉(일본 교토조형예술대학교 무대예술센터 춘추작극장)

〈린치(Lynch)〉 쇼케이스공연 (인천아트플랫폼-크리스탈큐브)

2014 국립현대무용단 초청안무가 시리즈 〈KAYA-Unspeakable〉(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엄마와 낯선 아들, 아들과 낯선 엄마〉 (대향로예술극장-한팩 기획공연 선정)

〈FOR〉(부산국제 무용제)

이탈리아 초청공연

_Orizzonti Verticali (2014,7,19)

_Castelo delle Arti in Villa d'Ayala-Valva (2014,7,25)

_Agoropoli Incontro di Danza (2014,7,30)

2014 〈return to return〉(2014 인천아트플랫폼 5기 입주예술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2013 〈초인〉(제34회 서울무용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3 〈Talking〉(창무국제무용제-고양 아람누리극장)

2013 〈Moving Violence〉(베트남 호치민 HCMC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2013 〈숨쉬는 벽〉(문화역서울284)

2012 〈Talking〉(출작가12전-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2012 〈TAXIS〉(김성용 & 프랑스 극단 L' unijambiste 공동프로젝트-프랑스 Musee de la danse)

2011 〈가라앉다 Falling〉(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베이스 캠프-예술의 전당 자유 소극장)

2011 〈해결의 행동〉(서울공연예술제SPAF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김유정 KIM Yujung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졸업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조형예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개인전

2015 생존조건, Survival needs, 갤러리도스, 서울

2014 전도된 풍경, 선광미술관, 인천

2013 침묵의 정원, 이랜드 스페이스, 서울

2012 김유정Fresco전, 신세계 센텀시티 원도우갤러리&VIP라운지, 부산

2011 화본이 있는 풍경, 그림손갤러리, 서울

2011 Upside-downed Inside,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8 Skin of the Roof,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6 중국국제아트페스티벌 부스전, 김유정 Fresco전, 중국

김유정 Fresco전, JM갤러리, 상하이, 중국

Caving the Desire, 스페이스빔, 인천

2005 욕망의 그늘, 신세계갤러리·인도코갤러리, 인천·서울

담을 수 없는 그림자, 갤러리 정, 서울

2003 벽과 그림자 읽기, 관훈미술관, 서울

기획·그룹전

2015 차유의 돌 기획전, 한국예탁결제원 KSD갤러리, 서울

4, 5, 6회 내일의 작가 선정작가 기획전, 겸재정선미술관, 서울

소마드로잉 '무심' 기획전, 소마미술관, 서울

Open Studio,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코리아 투마로우 'i' 기획전, 성곡미술관, 서울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정남진 장흥에 취하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낙원과 실낙원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6기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망각에 저항하기, 안산예술의 전당, 안산

아트페어도쿄, 도쿄국제포럼전시홀, 일본

'비-활성기체, 비-정형 현실' 기획전, 대안공간 둠, 인천

2014 베니핏 옥션, 세빛둥둥섬, 서울

환경테마 반딧불이전, 지오갤러리, 인천

천애약비린전 SoAa, 가온갤러리, 인천

갤러리 지오 개관전, 지오갤러리, 인천

ZIPPO 뮤지엄 개관기념전 LOVE100, 지포뮤지엄, 제주

'별별동행' OCI미술관 현대미술 순회전, 광양, 포항, 영주, 군산 예술의 전당

'INSIGHT' 4인전, 갤러리192, 서울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서울

2013 '내일의 작가' 선정전,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Open studio,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11인의 평론가가 추천한 '오늘의 진경2013',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KIAF, 코엑스, 서울

월로씨의 휴가, 송원아트센터, 서울

환경테마 반딧불이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PAUSE, 정지된 시간, 움직이는 공간, 신한갤러리 역삼점, 서울

플랫폼 창고세일,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프레드로잉비엔날레-공모전, '드로잉, 생각의 시작', 아트팩토리, 헤이리, 파주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여덟 개의 창', OCI미술관, 서울

2012 Brand New 소장가치 기획전, 유진갤러리, 서울

Open studio,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인천

'The Cross' 기획전, In art Space, 서울

'서울 컨템포러리-아트 스타전', 예술의 전당, 서울

Growing_Fresh, 여성문화회관, 인천

존재의 흔적 기획전, 그림손갤러리, 서울

'Push&Pull' 기획전, 토포하우스, 서울

2011 인천 국제 여성 비엔날레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인천

'Give u Love u ART Festival' 텀프리뷰 기획전, 현대백화점, 서울

'Bridge to Bridge' 기획전, 신세계갤러리, 인천

제37회 화랑미술제, 코엑스, 서울

2010 'Beyond the labor' 4인 기획전, 아트포럼뉴게이트갤러리, 서울

일상의 귀환 기획전,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9 삼량성역사문화축제 특별전-강화별곡II 〈千劫, 기억의 울림〉, 신세계갤러리, 인천

그린케익 아트페어, 신세계갤러리, 서울

제3회 'Half n One', 관훈갤러리, 서울

'Homecoming YAP' 기획전, 정갤러리, 서울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소장작품전, 연수갤러리, 인천

제2회 'Reformation' 기획전, 이화갤러리, 서울

2008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소장작품전,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양평프로젝트 '연기된 구름' 기획전, 닥터박갤러리, 양평

한국미술관개관초대 '현대미술동행', 한국미술관, 서울

젊은 기수 기획전, 부평역사박물관, 인천

포아트 갤러리 개관 기념 초대전, 한국 현대미술의 환영, 포아트갤러리, 성남

동북아시아전, 사가현림미술관, 일본

꽃 담은, 꽃 달은 정원 기획전,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7 아시아 오픈아트페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무빙이미지 페스티벌, 신세계 백화점, 분당

야생화전, 신세계갤러리, 인천

NO BOUNDS 기획전, 갤러리 썬컨템포러리, 서울

2006 View Finder of YAP, 갤러리 정, 서울

경향하우징 페어 아트페스티벌, 킨텍스 한국국제전시장, 일산

해랍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

갤러리 다 기획초대전 '빛을 낚는 그림자', 다갤러리, 서울

현대미술 스펙트럼 페스티벌,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다색다감전, 스타일큐브잔다리, 서울

Seeing&Showing전, 구울담갤러리·해원갤러리, 인천

21세기 새로운 도전전, 단원미술관, 안산

공모선정, 수상경력

2016 인천아트플랫폼 7기 입주작가 선정

2015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작가공모선정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선정

2014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작가공모선정

2013 겸재정선 내일의 작가상 수상 공모선정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공모선정

프레드로잉비엔날레 공모선정

2012 서울컨템포러리-아트스타전 공모선정

이랜드 문화재단 3기 작가 선정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공모선정

2010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작가공모선정

2009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4회 등록작가선정

2008 인천문화재단 미술은행 공모선정

2006 인천문화재단 작가육성지원금 공모선정

경향하우징 페어 장려상

1996 구상전 공모전 입선

목우회미술대전 입선

작품소장

OCI미술관, 이랜드문화재단, 주식회사 삼천리, 인천문화재단(2013, 2008), 주식회사 유너모티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외국인기숙사 i-house, 신세계갤러리, 주식회사 더가온, 성문영어사, 청량리 경찰서, SI건설산업주식회사, 유진갤러리, 제일화재, 갤러리썬컨템포러리, 유일번호사사무소, 정갤러리, 소피스갤러리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2012-14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3기 입주작가

나나&펠릭스 Nana&Felix

www.nana-felix.com

Solo Exhibitions

2016 "House of Cards",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South Korea

2014 "The Zone System", Hippolyte Gallery, Helsinki, Finland

2013 "Ways of Seeing", Photographic Centre Peri, Turku, Finland

Group Exhibitions

2016 The Final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Preview, Artist Residency TEMI, Daejeon, South Korea

2015 Mänttä Art Festival, Mänttä, Finland

"Paradise Reopening", Paradise Inn, Incheon, South Korea

"Non-Parallel Evolution of Unrelated Beings",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Relational Extravaganza & Arbitrary Dreams", Lacey Contemporary Gallery, London

2014 "Masters of Arts Unseen", Helsinki Design Week, Finland

Screenings

2015 IAP Video Anthology,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Residencies

2016 TEMI Art Residency, Daejeon, South Korea

2015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2014 Koneen Säätiö Saari Residence, Hietamäki, Finalnd

Grants

2015 Svenska Kulturfonden, Finland

2014 Oskar Öflunds Stiftelse (for "The Zone System"), Finland

Svenska Kulturfonden (for "The Zone System"), Finland

Koneen Säätiö (for "The Zone System"), Finland

2013 Svenska Kulturfonden (for "Ways of Seeing"), Finland

Works in public collections:

2015 Mänttä-Vilppula art collection, Mänttä, Finland

2013 City of Turku, Turku, Finland

니콜라 마네티 Nicolas MANENTI

www.nicolasmanenti.com

Education

2004 DNSEP option art, ENBA Lyon/F

2003 DFJW-grant, Graphic Design class, R.Baur class, HGB Leipzig/D

Residencies

2015 6th term Resident artist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ROK

2012 3rd term Resident artist program, SASG Geumcheon, Seoul/ROK

2011 LAGE_EGAL, Berlin/D

Solo Exhibitions

2015 Suit-Tie Wanderer, Cyart Gallery, Seoul/ROK

Legal Mentions, Incheon Art Platform, Incheon/ROK

SHIFTS, Meinblau, Berlin/D

2012 Black Monday, Cyart Gallery, Seoul/ROK

Wohlfühlgeschäftsverkehr, Stattberlin, Berlin/D

2009 Was kann ich für sie tun, galerieF.M.A.B, Berlin/D

Solarium, AFThotwt, Berlin/D

2007 Galerie Artport, Kolonie Wedding, Berlin/D

LangjährigeUnerfahrenheit, AtelierSeinfeld/Sachsenmaier, Berlin/D

2006 Lange-Wellen, Galerie Cat Food, Berlin/D

Selected Group Shows

2015 IAP Video Antholog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ROK

DIY Exhibition, Schillerpalais, Berlin/D

Non Parallel Evolution of two beings (...), Incheon Art Platform, Incheon/ROK

#TABS Bookstore, Lage Egal, Berlin/D

2014 Drawing Show II: Connecting Dots, LeRoy Neiman Gallery, New York/USA

In diesen Themen werden Sie stark,OpenStudio,Berlin

Drawing Show II: Connecting Dots, aquabitArt Gallery, Berlin/D

2013 #Cluster, Galerie Thomas Cr  mer, Berlin/D
#Jahresgaben, Lage Egal, Berlin/D

2012 The Road Not Taken, Lage Egal, Berlin/D
Nervus Rerum, Galerie Thomas Cr  mer, Berlin/D
Continuous art, impossible communities, SASG Geumcheon, Seoul
Millefeuille, Institut Francais, Berlin/D

2011 Bureaux d  tudes 1- L'esquisse en suspens, Atelier La Mire, Lyon/F
AUS_LAGE, LageEgal, Berlin/D
Why we walk, 91mq, Berlin/D

2010 Le panorama Jeune cr  ation, Bourges/F
Das Sch  nste im Leben, Pilotenk  che, Leipzig/D
Part-time Playtime, 91mQ, Berlin/D
Schwerinblicke, StaatlichesMuseum, SCHWERIN/D

2009 Une valise    Berlin, Institut Francais, Berlin/D
25P, FMAB @ Niagara, New York/US
XIVe Biennale of young artists, BUCEM, Skopje/MK
Apocalypse now, Galerie Artport, Berlin/D

As a Curator

2011 Why we walk, with Sunshine WONG, 91mq, Berlin /D

2010 Das Sch  nste im Leben, with Fr  day MICKEL, Pilotenk  che, Leipzig/D
Part-time Playtime, with Anna MAWBY and C  cile IBARRA, 91mQ, Berlin/D

2008 Anyway the wind blows, Galerie Artport, Berlin/D

2006 Switch on the light before sleeping, with M. BRANTS and R.MICHAELIS, GDK, Berlin/D

Publications and Catalogues

2012 Seoul Art Space Geumcheon 2011-2012, catalogue (EN/KOR)
Millefeuille, collective publication (FR/DE)

2011 Dans l'ordre, in D  grad  s, collective publication, Editions 36 du mois (french)

2010 5eme Biennale de Bourges, catalogue (french)
Schwerinblicke, catalogue (english, german) Article By Claudia Sch  nefeld

2009 XIVe Biennale BUCEM, catalogue (english, macedonian)

2008 La soci  t   du spectacle (...), inBOOK, Lendroiteditions(french)
Missverst  ndnisse, Catalogue (German)

로미 아키투브 Romy ACHITUV

Selected Projects

2015 Cataract Gorge, Mixed-media installation, Bruges Triennial, Bruges, Belgium

2014 Memory Stain, Mixed-media installation, Daegu, South Korea

2013 Jo-gak-bo, Participatory installation, Seoul, South Korea
Husk and Ash, Participatory installation, Seoul, South Korea

2012 Krapp's Last Tape, Multi-media installation, Seoul, South Korea
The Garden Library Data Visualization Project, Created with programmer Andres Calubri

2009 The Garden Library; An open-air library for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in south Tel-Aviv, A production of ARTEAM Interdisciplinary Arts

2007 The Ghetto Fighter's Museum, New Wing Design, Co-designed with Efrat-Kowalski Architects, Tel-Aviv

Solo Exhibitions

2014 Memory Stain,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orea

2008 Landscape Painting, Zendai Museum of Modern Art, Shanghai, China

2007 Other Words, Braverman Gallery; Tel-Aviv, Israel

2003 Romy Achituv – Selected Works 1997-2003,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1995 Homelessness – Architecture of a City, Synchronicity Space, New York; Borochoy Gallery, Tel Aviv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5 Bruges Triennial, Bruges, Belgium
Watch This! Revelations in Media Art, SmithsonianAmerican Art Museum, Washington DC, USA

2014 A Room of His Own, Art Sonje, Seoul, South Korea
Collective Memory, Collective Power, an exhibition commemorating the 2003 Daegu subway fire, Daegu, South Korea

2013 Better Than Universe,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Patent Pending, ZERO1, San Jose, CA, USA
We're Not Alone,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2012 Media City Seoul; Media Art biennale, Seoul, South Korea
On the Edge 2012: Light, Sound, Life, Obrestad Lighthouse, Norway

2010 Signals, Bat Yam Museum of Contemporary Art, Israel
European Media Art Festival, Osnabruck, Germany
Exposi  o Arte Cibern  tica – A  ervo Ita   Cultural, Sao Paulo, Brazil

2009 Biennial of the Canary Islands; Architecture and Landscapes, Tenerife, Canary Islands, Spain
Speed of Light, The Israeli Center for Digital Art, Holon, Israel

2008 Videozone Biennale of Video and Media Art,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The Israeli Pavilion
Intrude366, Zendai Museum of Modern Art, Shanghai, China

2007 Somewhere Better Than This Place, Braverman Gallery, Tel-Aviv, Israel
Works in Translation,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From Flash to Pixel, Martin Gropius Bau, Berlin, Germany
Digital Landscapes, Tel Aviv University Gallery, Tel-Aviv, Israel
Other Words, Braverman Gallery, Tel-Aviv, Israel
LOOP Video Art Fair, Barcelona, Spain
INSERT, Hamburg Kunstverein, Hamburg, Germany
Listen With Your Eyes; a selection from the La Caixa Foundation Collection, La Caixa; Forum, Barcelona, Spain
The Holocaust and Jewish Resistance Heritage Museum, Israel (new wing co-designer)

2006 Time Warner Center, New York, USA
Sensi Sotto Sopra, Rome, Italy
Emo  o Art.ficial, Itau Cultural Institute, Sao-Paulo, Brazil
From Flash to Pixel, Shanghai, China
From Flash to Pixel, Lille, France
DIGITAL TRANSIT, Arco 06 – Highlights of Ars Electronica; Madrid, Spain
Beauty and the Book, The Israel Museum, Jerusalem, Israel

2005 Between Man and Place– an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 from Koreaand Israel; SSamzie Space, Seoul, South Korea (curator and participating artist)
Landscapes, Gana Art Center, Seoul, South Korea
Electroscope; Inauguration show, Zendai Museum of Modern Art, Shanghai, China
The Other Book, WRO Media Art Biennale; National Gallery; Wroclaw, Poland
Hilchot Shchenim,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Translocations, Petach Tikva Museum of Contemporary Art, PetachTikva, Israel

2004 Ars Numerica; International Media Art Festival, Montbellard, France
FILE-04 Electronic Language Festival, Sao-Paulo, Brazil
pOes1s; an exhibition of digital poetry, Kulturforum Potsdamer Platz, Berlin. Germany
Cinemas of the Future, Lille, France

2003 Onufri, International Art Festival, Tirana, Albania
Digital Stadium, NHK, Tokyo, Japan
Romy Achituv – Selected Works 1997-2003, Digital Art Lab, Holon, Israel

2002 Video Zone Biennale, Tel-Aviv, Israel
Hospital; The Lighthouse, Brighton, UK
Creative Digital Culture, Sonje Museum of Art, Kyungju, South Korea
Print On Screen, Sapphire Lisbon, Portugal
WordUp, Zeum, San Francisco, USA
Darklight Digital Film Festival, Dublin, Ireland
Digital Delights; 13th Macau Arts Festiva, Macau, China
VIA Arts Festival, Maubeuge, France
File Conference, Sao Paulo, Brazil
Kwangju Biennale, Kwangju, South Korea
EXT Arts Festival, Creteil, France

2001 Labyrinth of Pleasure, Inaugural xhibition, MOCA Taipei, Taipei, Taiwan
Space Spaciality – Computer Beyond The Screen, Designskolen Kolding, Denmark
KIMAF – Kiev International Media Arts Festival, Kiev, Ukraine
Videotage Microwave Festival 2001, Hong Kong, China
e-phos 2001, Athens, Greece
Media@terra_01: Frankfurt, Osnabruck, Germany; Maribor, Slovenia; Sofia, Bulgaria; Belgrade, Linkovi, Yugoslavia;Vesti, Yugoslavia;Lavrion, Athens, Greece
WRO 01 -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ial, Wroclaw, Poland
ACM1, Beyond Cyberspace, San Jose, USA
Boston Cyber Arts Festival, Boston Architectural Center, Boston, MA
E Domains, Wood Street Galleries, Pittsburgh, USA
Print on Screen; Ars Electronicam, Linz, Austria

2000 Game_Over; Montevideo/Time Based Art, Amsterdam, Netherlands
Digital Alice, Media City Seoul, Seoul, South Korea
New Media, New Faces, New York, NTT InterCommunication Center(ICC), Tokyo, Japan
Viper, International Film and Video Festival, Luzern, Switzerland
IMPAKT Festival, Utrecht, Netherlands
The Future Of The Present 1999, Netcast of Franklin Furnace's Walker Art Center, The Mediatheque Archive

1999 EMAF – European Media Art Festival, Osnabruck, Germany
Viper Int. Festival for Film Video and New Media, Zurich, Switzerland

Commissions

2009 Seoul City Municipality, Seoul, South Korea

2008 The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 Israeli Pavilion

2003-06 The Ghetto Fighters Museum, Israel

2004 Phaeno, Wolfsburg, Germany
The Pittsburgh Children's Museum, Pittsburgh, USA

2001 Shiseido Cosmetics, Inc, New York, Tokyo, Paris
Blatner Brunner, Pittsburgh, USA

2000 Herman Miller, Cicago, USA

Selected Grants/Awards/Residencies

2015 Artist Residency, Yaddo, Saratoga Springs, NY, USA (upcoming)
Artist Residency, MacDowell Colony, New Hampshire, USA
Artist Residency,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2014 Artist Residency, Incheon Art Platform, South Korea

2013 Artist Residency, Seoul Art Space Geumcheon, South Korea

2009-13 WCU research grant;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Harpo Foundation Grant (for the production of The Garden Library Data Visualization Project)
ELMCP 2012 at the Edinburgh College of Art grant (for the production of TheGarden Library Data Visualization Project)

2005 Current Executive member -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Digital Arts&Sciences

2000 EMAF – European Media Art Festival; OLB Critics Choice award(for "TextRain")
I.D. Interactive Media Design Review;http://www.idonline.com(for "BeNowHere Interactive")

1999 Grant, The Greenwall Foundation
New Media Invision Award; Invision design magazine (for "TextRain")

1998 Grant, The Greenwall Foundation
Grant, The Lower Manhattan Cultural Council
Residency, Kampo Cultural Center, New York, USA
Residency, Galapagos Art Space, New York, USA

Selected Collections

The Smithsonian, Washington DC, USA
The Tel Aviv Museum of Art, Tel Aviv, Israel
La Caixa Foundation, Barcelona, Spain
The Israel Museum, Jerusalem Israel
Itau Cultural, Sao Paulo, Brazil
Israel Discount Bank, Israel
Ken Freed, Boston, Massachusetts, USA
Steve Wilson, Louisville, Kentucky, USA
David Teplitzky, Bangkok, Thailand
Sara Lahat, Tel-Aviv, Israel
Jon Leibowitz, BostDon MA, USA

박윤주 PARK Yunju

2013 바우하우스 대학, 공공미술과 현대미술의 책략, 석사, 바이마르, 독일

2008 이화여자대학, 섬유예술 회화판화, 학사, 서울

개인전

2015 동생의 애인의 아버지의 딸, 캔파운데이션 (하우스워밍프로젝트), 서울

2014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보안여관, 서울

2013 취약한 재단들: Venerable altars, 팔레 드 서울, 서울

2012 A Midsummer Night's Dream, 갤러리 빔, 서울

2011 The Islands, 갤러리 빔, 서울(SeMa 서울시립미술관 지원)

그룹전

2015 넥스트 이미지너리 바우하우스, 골기 티어터, 베를린, 독일
아가미 호흡법, 상상마당 기획전, 서울
은혜전, 아마도 예술공간, 서울
갈증이 나는 방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Republic production, 국회의사당, 서울
3sights – 아센터브 갤러리, 베를린, 독일
Ma donna ,amore mio, 갤러리 빔, 서울

2011 Beyond the five plots,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Wattashi6, Alternative art studio bobo, 요코하마, 일본
Showcase exhibition, 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WARARI2, 쌈지농부아트갤러리, 헤이리

2010 〈Stalking project〉at Dumbo art festival. Triangle art association, New York, USA Buggurishitta, Gallery jao, 요코하마, 일본
Les Ombres errantes, 대안공간 반지하, 대전
2009 Project; Ham or egg, Hotel Balum, 베를린, 독일
One point six exhibition, 관훈갤러리, 서울
Unlimited exhibition, 갤러리 그림슨,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 아트 플랫폼, 인천
Alto Artist residency, helsinki, Finland
Triangle art association. New York, USA
Balum modern art centre, Berlin, Germany
Jaio contemporary art (visual art), Osaka, Japan
쌔지농부아트, 홍천

공모선정, 수상경력

2015 베를린 골키 티어터 전시지원 작가
2013 시화호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가
2011 서울시립미술관 SeMA 전시지원 작가
2010 뉴욕 트라이 앵글 예술 조합 작가

개인전

2015 완전한 유물, 미메시스 아트 뮤지움, 파주
2014 완전한 유물,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타이베이, 대만
2012 모르는 얼굴, GYM 프로젝트, 서울
2011 안과 밤, 자하미술관, 서울
2010 이 사람을 보라, 가나컨템포러리, 서울
2008 The Planarian Realm, 관훈갤러리, 서울
2007 Planarian Flood, 진흥아트홀, 서울

개인전

2015 완전한 유물, 미메시스 아트 뮤지움, 파주
2014 완전한 유물,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타이베이, 대만
2012 모르는 얼굴, GYM 프로젝트, 서울
2011 안과 밤, 자하미술관, 서울
2010 이 사람을 보라, 가나컨템포러리, 서울
2008 The Planarian Realm, 관훈갤러리, 서울
2007 Planarian Flood, 진흥아트홀, 서울

특별 기획전

2010 달리는 욕망의 주체들-세오 윌페인팅 프로젝트, 세오갤러리, 서울
2009 新식민주-코스트크-윈도우갤러리, 갤러리현대, 서울

주요 이인전

2015 ‘심감도-박은하, 허수영’, 스페이스K, 과천
2013 ‘신화의 이면-박은하, 편대식’, 백공미술관, 인제
2012 ‘P.S.B. 11기 박은하, 임선희’, 스페이스 캔, 베이징, 중국

주요 그룹전

2016 Contact Chatte,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전사실, 서울
2015 생생화화-시간수집자, 경기도미술관, 안산
폐허에서, 추상해한국문화원, 상해, 중국
소마 드로잉_무심展, 소마미술관, 서울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 인천아트플랫폼 G1갤러리, 인천
읽어요, 그럼 보여요: 글과 그림 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아트 프로젝트 울산, 대안공간 42, 울산
경험의 공간: 고양레지던시 국제교환입주 보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동, 서울
2014 변신하는 아일랜드, NEFS 아트 갤러리, 서울
적재적소(積材積所),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고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페스티벌, 아르코 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서울

NAS(Namu Atist Show) 2014, 나무 모던&컨템포러리 갤러리, 서울
2013 제4회 광주아트비전-고백의 정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정전60년기획 평화미술프로젝트-백령도_525,600시간과의 인터뷰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2 Asia Artist Award 아트 쇼 부산, 백스코, 부산
춘천마임축제, 무빙스페이스, 춘천
2011 서울, 도시탐색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Up-and-Comers: 신진기예展, 토탈미술관, 서울
2010 거꾸로 달리는 시계 展,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New Focus-Korean Contemporary Art, Art Seasons Gallery, 싱가포르
2009 아트 인 부산: 인터시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본전시-가까이 그리고 멀리,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8 정형에 도전하다, 인터알리아, 서울
지각과 충돌-관훈 30주년 기획전, 관훈갤러리, 서울
2007 다색다감: 오색풍경展, 갤러리 잔다리,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16 인천아트플랫폼 6기, 인천
2014 Taipei Artist Village (고양창작스튜디오 교환 프로그램), 타이페이, 대만
2014-15 고양창작스튜디오 10기,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2010-11 P.S.B.(Project Space in Beijing)11기, 캠퍼운데이션, 베이징, 중국
2007-08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모선정, 수상경력

2015 전문예술 창작발표 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
2009-10 제1기 AYAF (Arko Young Art Frontie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제9회 송은미술대상 입선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NArT (New Artist Trend), 서울문화재단

작품소재

광주시립미술관, 대전 대덕연구단지, 미메시스 아트 뮤지움, 백공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등

전시

2016 아오병잉 페스티벌 참가, 서울연극센터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오프닝, 인천아트플랫폼
2014 PNEM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참가(업사이클 라운드업), 네덜란드

전시

2015 맛있는 소리, G1 갤러리
개인전 Respect Audio, 17717
그룹전 웃으면 공이와요, 인디아트홀 공
입주작가 협업프로젝트 갈증이 나는 방식, 인천아트플랫폼 G1 갤러리
2014 개인전 Mute Off, Gallery RAHAN

영상

2015 선유도 - 소리의 정원, 문래예술공장(업사이클 라운드업)

프로젝트

늪었다고 하기엔 너무 젊은 당신, 서교실험예술센터

전시

백승기 BAEK Seungkee

개인전

2015 장편영화 〈시발, 놈 : 인류의 시작〉연출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청)
2012 장편영화 〈순후구〉연출 (제1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후지필름이터나상, 2012마르텔플라타국제 영화제 초청)
2011 단편영화 〈고마워 너구리아〉연출 (주안 스마트폰 영화제 우수상 수상)
2010 저서 〈서른살에 처음 시작하는 영화만들기〉집필
단편영화 〈괴물 -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연출 (민만한 영화제 대상 수상)
단편영화 〈완전체 소녀〉연출 (48시간 영화제 대상 수상)
인디시트콤 〈할 수 있는자가 구하라〉CG, 조연
2008 장편영화 〈출동! 43호〉연출 (e-감성 영화제 관객상 수상)
2007 동네극장 ‘DGV’ 개설
2006 독립영화창작집단 ‘꾸러기스튜디오’ 창단
2005 스페이스 빔 옥상영화제 프로그래머

전시

사야카 오히타 Sayaka OHATA

개인전

2013 DNSEP (MA) / Institut Supérieur des Beaux-Arts de Besançon Franche-Comté, France
2011 DNAP (BA) / Institut Supérieur des Beaux-Arts de Besançon Franche-Comté, France
2007 Master of Fine Arts / TAMA Art University, Science Art Labo: Media Art, Japan
2004 bachelor of fine arts / TAMA Art University, Media Art Field, Japan

Artistic activities: up to 3 years

Exhibitions

2016 Upcoming Exhibition "Words Beyond Grammar" (coll.M-O) / Spectrum Project Space, Perth, Australia
"showcase" (coll.M-O) / aleksanterin linna, serlachius museum, mänttä, Finland
Solo Show "Reported to exist"" (coll.M-O) / Kmutt Art Space, Ratchaburi, Thailand
"Art normal 2" (coll.M-O) / Public space, Ratchaburi, Thailand
2015 Solo Show "Speech Bubbles - Table Concert III" (coll.M-O) / Incheon Art Platform, Gallery A, Incheon, Korea
Solo Show "ad-hoc coding for memory" /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Non Parallel Evolution Of Two Beings Who Have Nothing Whatsoever To Do With Each Other : Why we're going to meet someone?" (coll.M-O) /Incheon Art platform and Tribowl(Songdo), Incheon, korea
2014 "Growth-Behind the Scenes" /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Solo Show "Silent Audacity" (coll.M-O) / Cross Gallery, Taipei, Taiwan
"Turbulence" / Paris 8, Paris, France

Artist in Residence

2016 Serlachius Museums, Mänttä, Finland (coll.M-O)
2015 Tentacles, Kmutt Art Space, Ratchaburi, Thailand (coll.M-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4 Taipei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59 Rivoli, Paris, France (coll.M-O)
Ateliers d'Artistes Rue du Bougney, Besançon, France (coll.M-O)

Artist Talk

2015 Yet Space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coll.M-O)
King Mongkut's University of Technology Thonburi, Thailand (coll.M-O)
Platform Sal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4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Et@t Forum, Taipei, Taiwan

전시

안토니 워드 Antony WARD

개인전

2009 Post Graduate, Central Saint Martin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UK
2008 MA Fine Art, School of Fine Arts of Lyon, Lyon, FR
2006 Exchange at Bezalel Academy of Art and Design of Jerusalem, ISR

Solo Exhibitions

2012 WLS presents... at WestLane South, London, UK
2009 Agnes b. UK, Covent Garden shop, London, UK

Group Exhibitions (selected)

2016 Final Report Exhibition, Incheon Art Platform, KR
2015 We Shape Clay Into Pots, Neue Empirker, Hamburg, DEU
Paradise Reopening, Nakwon Space, Incheon, KR
6th Artists Residenc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R
2014 Jean Chevalier 2014 Prize, Refectoire des Nonnes, Lyon, FR
2013 Urban Dialogues, Red Gallery, London, UK
2012 Rendez Vous 12, South African National Gallery, Cape Town, RSA
2011 Rendez Vous 11,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of Villeurbanne, FR
2010 Atmosphere in the Spectrum, Crypte Gallery, London, UK
2009 Systems and Patterns, Westbourne Studios, London, UK
Enfant du Sabbat X at the Creux de l'Enfer, Thiers, FR

Commissions

2016 Musical mural at l'Ecole de Musique Moderne, Beziers, France
2015 Facade of Casa Morton Subastas, Mexico City, MX
Glass Cube Structure, Incheon Open Port Modern Architecture Museum, Incheon, KR
2014 Your Ad Here, Create London for London Coaching Foundation, UK
2013 Light up the Streets Festival, Lancaster, UK
2010 Art Moves Festival, Galerie Rusz, Torun, PL

Residency

2015 Incheon Art Platform 6th Artists Residency, Incheon, KR

Prize

2014 Nominated for the Jean Chevalier 2014 Prize, Lyon, FR

Grants

2015 Travel Grant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exico, MX
2008 ADERA grant for a post graduation course at Central Saint Martin, London, UK

Curating

2012 Vision, Ben Nathan, painting exhibition at Rosenblatt, London, UK

Publication
2015 Drawings 15, Label Insiztance, Paris, FR
Workshops
2015 Archikids at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R
2014 Workshop Leader during Day of the Dead at the Bargehouse, London, UK
2013 Assistant for print and sculpture workshops at the Dulwich Picture Gallery, London, UK
2010 Our Shop, supported by Camden Council, London, UK

Work Experience
2015 Assistant to artists at the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KR
2013 – 2014 Assistant to Manuela Ribadeneira, contemporary artist based in London, UK
2009 – 2016 Exhibitor for Casa Triangulo at Frieze, ARCO Madrid, Art Basel Miami and Hong Kong

앤드씨어터 A.N.D. Theatre

<p>인천아트플랫폼 6기, 7기 장기 입주 단체</p> <p>해화동1번지 6기 동인</p> <p>서울프로젝트(서울괴담, 극단 청년단, 극단 여행자, 앤드씨어터) 멤버</p>
--

수상
20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학습공동체’ 우수사례
2013 서울연극제 <미래야 솟아라> 연출상

주요활동
2016 화학작용2 오르다편_〈여기는 오디오극〉
2015 본격판매연극 <년 정말 굿 고구마>
〈터무니 있는 연극 X 인천〉
책의수도 인천 주관 초청공연 〈한국근대문학극장〉, 인천아트플랫폼
15분연극제 x 인천, 인천아트플랫폼
자체 기획 〈한국근대문학극장〉, 인천아트플랫폼, 해화동 1번지
해화동 1번지 6기 동인 페스티벌 총제적 난극 〈마라사드〉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선정작 한-일 도시생태 연극
‘메트로폴리스-서울’편 〈주거죽어죽여〉, 서울프로젝트 공동주관,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이십할페스티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학습공동체” 우수사례 〈지역 안에서 예술로 숨바꼭질〉
소품마실축제 참가작 〈층간소음에 관하여〉, 아트홀 소품 마실축제 초청작
인천문화재단 국제교류지원사업 “15분 연극제X인천”, 주최, 공동주관
마로니에 여름축제 참가, 한국공연예술센터
화학작용_선돌편 공동주관
화학작용_선돌편 참가작 〈사천의 선인〉, 선돌극장
연극창작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작 〈사천의 선인〉, 소극장 봄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초이스” 〈한국근대문학극장〉, 인천아트플랫폼
해화동1번지 젊은 연출가 시리즈 “툼” 〈파수꾼〉, 해화동1번지 소극장
2013 서울연극제 “미래야 솟아라” 연출상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냉장고>, 성미산 마을극장
인천아트플랫폼 “플랫폼 초이스” 〈미래도둑〉, 인천아트플랫폼
서울연극제 “미래야 솟아라” 선정작 〈미래도둑〉, 예술공간 서울
2012 프린지 페스티벌 참가작 〈움직이지 마>, 317-9 공동제작, 산울림 소극장
2011 〈미래도둑> 해화동 일번지

2010 〈지구를 지켜줘〉, 가로수길 대안공간 광대연구소
2009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 <69, Fluxus 괴짜들> 창무포스트극장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 <72hours – 사랑이 도착하는 시간> BYOV
무대
2008 창단 공연 <72hours – 편지가 도착하는 시간> 가변무대

엘라이브아트 코모 alivearts como

<p>collectors of moments를 줄인 말로, 순간 채집가들 혹은 시간 수집가들을 의미합니다. 공연예술, 미디어, 사운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협업작업을 통해 공간, 관객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반응하기 위해 예술창작 실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휩쓸려 지나가는 것들 속에 숨은 순간들을 찾기 위해 공간을 발견하거나 기억을 불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을 재생시키기 위해 공간을 탐색하기도 합니다.</p>

2015	팔름시스트 palimpsest
2014	TAKE OFF 벗/어나/기
2009-2011	병어리시인

에제 일디림 Ece YILDIRIM

Exhibitions
2016 "IAP FINAL REPORT EXHIBITION by 2015 Platform Artist"- Incheon Art Platform / Incheon-South Korea
2015 "INCHEONSTAGRAM" 3rd Solo Exhibition-INCHEON ART PLATFORM / Incheon-South Korea
"Preview Exhibition by 6th Resident Artists of IAP"-Group Exhibition- Songdo Tribowl / Incheon-South Korea
"The Little Prince Collectors Book Exhibition" - Group Exhibition / Ankara-Turkey
"20 Days In South Korea" 2ndSoloExhibition-KoreaCaravanDays/ Ankara-Mersin-Kayseri-Konya
"Time Machine"-Turtle Walk Group Exhibition- Gongpyeong Art Center / Seoul-South Korea
"20 Days In South Korea" 2nd Solo Exhibition-Korean Culture Center / Ankara-Turkey
2014 "New York! New York! New York!" -Turtle Walk Group Exhibition-Space WoMB Gallery / New York-USA
"공간을 비우다"-Turtle Walk Group Exhibition- Gongpyeong Art Center / Seoul-South Korea
2013 "Aesthetics of Resistance"- Group Exhibition- ParkArt Gallery / Istanbul-Turkey
2011 "Balletgraphic"-1st.Solo Exhibition - Taksim Art Gallery - Istanbul-Turkey
2010 "Ugur Varli UV Art Galery - Group Exhibitions / Istanbul-Turkey
2008 "Portrait of the Artist"-Group Exhibition-2nd Bursa International Silkroad Film Festival / Bursa-Turkey
2007 "Sana Dün Bir Tepeden Baktım Aziz stanbul"-Group Exhibition-Bahariye Art Galery / Istanbul-Turkey
2002 "The Colors of Istanbul"- Group Exhibition - Topkapı Palace / Istanbul-Turkey

Awards
2008 "Academy Album Album Design Project" Competition - Balletgraphic

Interviews
2008 'Body and Soul Project -Ece Yildirim' – Photograph Magazine / Turkey
2015 '한국을 사랑하는 터키 사진작가' 에제 일디림 - MQDAY Magazine / South Korea

염지희 YEOM Jihee

201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졸업
2010	홍익대학교 영상영화과 졸업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개인전

2015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 인천아트플랫폼 G1동, 인천 (2015 인천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선정사업)
2013	From Hysteria-To the Stage of Drive, 갤러리 이마주, 서울
	From Hysteria-To the Stage of Drive, 갤러리 아트시간, 서울
2008	Hours of malte, 로베르네집, 서울

그룹전

2016	MAKESHOP TOP10 2016, 메이크샵 아트스페이스, 기도
	지금, 바로 여기, 그림손 갤러리, 서울
2015	청년예술100 5주년 특별전, 북경전국농업전람관, 북경, 중국
	인천 세계 책의 수도 미술특별전-읽어요 그림 보여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비평행적 진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4	Gate-opener, Beijing Commune, 북경, 중국
	뽕뽕뽕, 시민청갤러리, 서울
	청춘예찬(한중신진작가 교류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HOMA), 서울
	2014 ART NOVA 청년예술100, SZ 아트센터, 북경, 중국
2013	대구 아트스퀘어-청년미술프로젝트 From I to i, 대구 EXCO, 대구
	구름사이-Between The Clouds, 신미술관, 청주
	아시아프 (ASYAAF), 문화역 서울 284, 서울
	Public Art New Hero 2013: In The Cube, 삼성블루스퀘어 복합문화공간 네모 NEMO, 서울
	㈜코오롱 커스텀멜로우 원데이 아트페스티벌, 대림창고, 서울
2012	오인작전-이미지 가감승제, 아트컴퍼니 G(Art Company GIG), 서울
2011	Best of Best 동방의 요괴들 선정작가전, 상상마당, 서울
	talking in the world, 금산 갤러리(헤이리), 경기도
	인천 여성미술 비엔날레 조울전, 이민사 박물관, 인천
	동방의 요괴들 in the City, 충무갤러리, 서울
	KAWNHOOON Project_Young Artist Contest 2011, 관훈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

프로젝트

2015 RITUAL (인천아트플랫폼 6기 공연일주 작가 김성배 쇼케이스), 무대디자인 협업, 인천아트플랫폼 C 동, 인천

작품소장

201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소장

우현주 WOO Hyunju

2015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전공 석사 수료
2011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한국음악작곡전공 예술사 졸업
2007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한국음악과 작곡전공 졸업

공모선정, 수상경력

2015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플레이어스튜디오 2기 공모 선정.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북촌뮤직페스티벌 (TRIAD) 선정(라인업), 수림문화재단
	TIMF Ensemble Composing Factory 작곡가 선정
2010	국립국악원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작곡부문 금상(문화부장관상) 〈바람, 지동치듯 불다〉, 국립국악원 개최
	전통예술 실험무대 천차만별 콘서트 공모 당선 2010.9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작공모 페스티벌 Mix&Match&Touch 혼이조감(混而感) 복합장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당선
2008	제5회 한국가요제 금상 <노래헤이>, 국립극장개최
	동아국악콩쿨 작곡부문 동상 <봄 즈음>, 동아일보개최

기타경력

2015	백남준아트센터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사운드x아트> 예술강사, 백남준아트센터
	인천 아트플랫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소리의 발견> 예술강사, 인천아트플랫폼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뉴욕필하모닉 협력프로그램 <VERY YOUNG COMPOSERS> Teaching Artist,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국악분야 연주강사 어울림국악관현악단 단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14	북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어울림국악관현악단 단원,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주관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6기 작가 선정

공연·작곡

2016	〈Korean sound on stage> 우현주 작곡발표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2015	미디어 퍼포먼스<디지털 종교제례악>, 인천아트플랫폼, 인천문화재단
	아트센터나비 로보파티 퍼포먼스 음악 작곡, Artcentre Nabi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플레이어스튜디오 선정작 미디어퍼포먼스 <디지털종교제례악> 쇼케이스. 기획, 연출, 작곡, 연주, 명보아트홀,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북촌뮤직페스티벌 선정작 〈TRIAD〉작곡,연주, 57h 갤러리, 수림문화재단
	사운드 퍼포먼스 건반즉흥연주 <뜻밖의 소리>, 복합문화공간 반줄살레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진화〉, 영상 아카이빙, 송도 트라이볼
	사운드퍼포먼스 건반즉흥연주 <Improvisation Take3〉, 인천아트플랫폼
	프리뷰전 오프닝 퍼포먼스, 인천아트플랫폼
	사운드퍼포먼스 건반즉흥연주 및 vocalized text sound collage, 더 미디어움
	〈Astronomia〉작곡, TIMF Ensemble연주, 유중아트홀
2014	사운드퍼포먼스 거문고 즉흥연주 제65회 달울림 즉흥음악사운드 콘서트, 공간 달울림
2012	여수엑스포 주제공연 해상쇼음악 작곡, 런던로알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녹음
	여수엑스포 기업관 중 현대관 쇼 음악 편곡
	〈물빛〉작곡, 조이양상블연주, 국립국악원 우연당
2010	〈태풍안〉, 〈거문고탱고〉, 〈바람, 지동치듯 불다〉작곡, 졸업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천차만별콘서트 그룹<후> 단독공연 작곡,음악감독,연주, 북촌창우극장
	〈바람, 지동치듯 불다〉작곡, 전통예술원 창작전공 정기공연 제7회 창작

발표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2009 <날 그림자> 작곡. 전통예술원 창작전공 정기공연 제6회 창작발표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극장

<바람, 숲을 만나다> 작곡

2008 <춧불, 빛이 되어 날다> 작곡

<봄 즈음> 작곡, 동아콩쿨, 세종문화회관

드라마 · 필름 · 뮤지컬

2013 콘서트드라마 <서른을 그리다> 작곡, 음악감독,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2011 단편화 <사라진밤> 작곡, 음악감독, 제5회여성인권화제 파움초이스, 제9회 서울국제사랑화제 코이노니아 대상, 제15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판타스틱단편결작선, 제7회 인천여성화제 초청상작, 제16회 인도포럼 신작전, 제10회 미장센단편화제 비정성시, 제13회 서울국제여성화제 아시아 단편경선 특별언급, 제24회 동경국제화제 코리안 시네마 위크 2011, 한국 여성감독 최신 화 쇼케이스, 제17회 Festival Brasileirode Cinema Universitario(수상) NARRATIVECONSTRUCTION, 2011NewTaipei City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tudent film Golden LionAward(수상) 은사자상(SilverLionAward)

연극 <십이야> 작곡, 음악감독, 극단여행자 양정웅 연출, 명동예술극장

2011 인형극 <무사마마이> 연주, 윤정섭 연출, 아르고예술소극장

연극 <모로코 사람들에게로 가기> 음악감독, 연주, 이대웅 연출, 공간 극단여행자

연극 <상사용> 작곡, 음악감독, 극단여행자 양정웅 연출, 남산예술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정기공연 음악극<산적> 작곡, 지휘, 음악감독, 김만석연출,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극장

음악극 <루미먼데이>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2010 연극 <갈증>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연극 <plays>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복합장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곡, 연출, 연주, 한국예술종합학교 대극장

연극 <날라리들>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소극장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연극 <날라리들> 음악감독, 가톨릭청년회관

연극 <데이트>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음악극 <메디아, 악녀에관한증언> 작곡, 연주,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뮤지컬 <삼마미야> 작곡, 연주,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2009 연극 <죽음과 소녀> 음악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무대

2008 뮤지컬 <안녕, 마이레인보우> 편곡, 건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대극장

위영일 WEE Young Il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2016 戮를 읽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5 Anonymou–Colors,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3 Who knows?!, 갤러리 비원, 서울

2012 Guinness Desire, 카이스갤러리, 서울

2009 Planet wee012 All–Star, 인사아트센터, 서울

주체로의 욕망, Void Gallery, 서울

2007 그들만의 리그 II, III, 노암갤러리, 서울

그들만의 리그 I, Espacej Gallery, 상하이, 중국

그룹전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Open Studio,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읽어요 그럼 보여요 – 글과 그림 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프리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4 공간을 점령하라, 갤러리 정미소, 서울

Open Studio, 금천예술공장, 서울

Gift,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입는 한글 전, DDP, 서울

2013 Animamix Biennial 2013–2014, 대구미술관, 대구

Open Studio ‘삼일야화’, 경기창작센터, 경기

토끼와거북이, 양평 군립미술관, 경기

what's on, 경기창작센터, 경기

Portfolio Archive Lounge,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2 판타스틱 미술백서, 세종문화회관, 서울

이미지의역습,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경기

이것이 대중미술이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경남고성공룡엑스포, 고성공룡엑스포 아트갤러리, 경남

희망을 입자! ART–Shirts, 롯데 갤러리본점, 서울

2011 Being with you, behive, 서울

명화에 대한 명화, 일현 미술관, 양양

난지Open Studio(Retro),난지 창작스튜디오, 서울

Festive Korea, 파오 갤러리, 홍콩, 중국

Fun + POP 유쾌한 현대미술, 과천시민회관, 경기

로봇시티판타지공의대화展, 315 아트센터, 창원

Bring into the World, 난지 갤러리, 서울

LOOK UP, force 798갤러리, 북경, 중국

레지던시 교류전(난지& 대전), 이공갤러리, 대전

2010 ATU, 상삼당, 서울

Korea Tomorrow, SETEC, 서울

월간퍼블릭 아트New Hero Fly in Heyri, 갤러리 한길, 헤이리

한국현대미술의흐름 III – POP ART,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New Focus”, ART SEASONS, 싱가포르, 대만

방어기제, TN Gallery, 북경, 중국

프리스타일 : A Dialogue Between Art and Design, HOMA, 서울

강진Celadon Art Project, 강진도자기 박물관, 전남

스마일코드, 가일미술관, 가평

2009 Animamix Biennial 2009–2010, Shanghai MOCA, 상하이, 중국

스펙터클과현대미술, 텔레비전 12 갤러리, 서울

슈퍼 히어로, 구로문화재단, 서울

창동 Open Studio(cuel), 창동스튜디오, 서울

봄나들이 야외 조각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Playground, 카이스 갤러리, 홍콩, 중국

2008 젊은 모색 I AM AN ARTIST,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7th Funny Funny, 세출갤러리, 서울

Microart 69,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7 B612 묘한이야기, 경기문화재단, 수원

천태만상, 도문미술관, 상하이, 중국

2005 한·일 문화교류전 쓰고레미기, 코엑스 태평양홀, 서울

중앙미술대전선정작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공모선정 · 수상경력

2015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기금 수혜

2014 예술인 파견사업 수혜

2013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기금 수혜

2009 ‘NArt’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수혜

2008 송은 미술대상전

2007 소마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

2005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6–17 인천아트 플랫폼 장기입주작가 프로그램, 인천

2015–16 인천아트 플랫폼 장기입주작가 프로그램, 인천

2014–14 금천예술공장 장기입주작가프로그램, 서울

2013–13 경기창작센터 중기입주작가 프로그램, 경기

2010–11 난지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프로그램, 서울

2008–09 국립창동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프로그램, 서울

이영주 LEE Youngjoo

2017 예일대학교 조소과, 풀브라이트 교류 학생 (2017년도 졸업 예정)

2013 프랑크푸르트 슈테델 학교 마이스터 솔러 졸업 영상과 (Film)

2009 홍익대학교 회화와 학사 졸업

전시

2016 2015 플랫폼 아티스트: 6기 입주 작가 결과 보고전, 인천아트플랫폼

2015 Gates are open, Green Gallery, Yale school of art, New Haven, 미국

오토세이브, 커먼센터, 서울

프리뷰전, 인천아트플랫폼 & 트라이볼, 인천

두개의방, 스페이스원, 서울

2014 상대참조, 교역소, 서울

Fake Hikers, MMCA 창동 레지던시, 서울

Synthetic Zero Event, Bronx art space, 뉴욕, 미국

Cycle, IBUGartfestival, Westsächsisches Textilmuseum, Crimmitschau, 독일

The Survivors, BasisProjektraum, 프랑크푸르트, 독일 (개인전)

Systematiclongingperfectwaiting,OpelvillenLabor,Rüsselsheim, 독일 (개인전)

2013 Curitiba International Biennial of Art, MusA, 쿠리치바, 브라질

Lummerland2, KostkaGallery, MeetFactory, 프라하, 체코

LIMBO, GaleriaProjecto, CerveiraBiennial, Cerveira, 포르투갈

Screening, In Bewegung, KUB Arena, Kunsthaus Bregenz, 오스트리아

All day breakfast, Filmklasse Frankfurt, Krems Kunsthalle, 오스트리아

Say my name say my name, Absolventenausstellung, MMK Zollamt, 프랑크푸르트

2012 2012:REFLEXÕES SOBRE O FUTURO, Museum of Contemporary Art of Paraná, 쿠리치바, 브라질

It, NoMad, Projekt–DisplayWindow, 프랑크푸르트, 독일 (개인전)

Lichter Fim Festival / Lichter Art Award, 프랑크푸르트, 독일

Lumminale, Collective Video Bohai, 프랑크푸르트, 독일

SONiK Fest 5& Synthetic Zero Event, Ran Tea House, Brooklyn, NY, USA

2011 Into Her, Atelier Frankfurt, 프랑크푸르트, 독일 (개인전)

Open Doors, Atelier Franklurt, 프랑크푸르트, 독일

Testing Stages, HAU2, 베를린, 독일

Lummerland 1, Toves Gallery, 코펜하겐, 덴마크

Synthetic Zero Event Film& Performance, Bronx Art Space, 뉴욕, 미국

2010 Synthetic Zero Event Film& Performance, Bronx Art Space, 뉴욕, 미국

Haarzauber, Elisabethenstr. 11–13, 프랑크푸르트, 독일

2008 Scope, Hongik Arts Univ. 서울, 한국

Movement, Zero Field, 798 Arts District, 베이징, 중국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상경력

2015–17 풀브라이트 예술 장학금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단기 공연 입주작가

2013 아티스트 레지던시, Curitiba Biennial, Curitiba, Brazil

아티스트 레지던시, MeetFactory, Prague, Czech Republic

헤센 영화기금, 애니메이션 (HessischeFilmförderung,Animationsfilm)

2010–12 독일학술교류센터, 예술장학금 (DAAD Künstler Stipendium)

그 외 프로젝트 및 워크샵

2016 Yvonne Rainer workshop, Yale school of drama, New Haven, USA

2015 Artist talk, RAT school of art, Black Sheep lecture, 서울, 한국(예정)

2013 파라나 주립미술대학 (UFPR) 방문 작가 워크샵, 쿠리치바, 브라질

2011–2013 프로덕션 디자인, Kulturzeit (Music video program), (Zwischen Mobbing und Libelei) (Escape from Camp14), ZDF (Second German TV broadcast)

2011–12 Projekt–Display–Window 전시공간 운영, NoMad, Frankfurter Kunstverein

이주현 Yi Joohyun

Master of Fine Arts, Studio program,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Bachelor of Fine Arts, 서울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개인전

2014 GlitchedRecordings,17717갤러리, 서울

2009 “O_vum”, 서울대학교 우석홀, 서울

단체전 및 스크리닝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 인천

갈증이 나는 방식, 인천아트플랫폼 G동, 인천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인천아트플랫폼 B동, 인천

2013 DigitaltoAnalog,WHotelinpartnershipwithExpoChicago2013, 시카고

MFA Show, Sullivan Gallery, 시카고

2012 OpenStudio & Screening, SAIC, 시카고

2011 Luminal,BettyRymerGallery, 시카고

2010 AnyformsotParadise,WildProjectGallery, 뉴욕

제4회 국제 디지털 무빙이미지 페스티벌, YWCA 마루 아트홀, 서울

2009 Moveme,그림슨 갤러리, 서울

2008 Shift-isAT2008,아트 앤 테크놀로지 국제 심포지엄, KARTS 갤러리, 서울

TimeandSpaceastheObject, 우석홀, 서울

2007 De–Montage,2007KOSIAM추계 컨퍼런스와 전시, 안단테 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상경력

2015 인천아트플랫폼 시각예술분야 6기 작가

2009 그림슨 갤러리 신진작가 전시 지원 선정

이창훈 LEE Chang-hoon

2009 독일 슈투트가르트 쿤스트아카데미 Aufbaustudium (Prof. Udo Koch) 졸업

개인전

2014 칠하거나 저우기, 경기창작센터 기획전시실, 안산

2013 매우 길거나 짧은,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2012 게릴라영상프로젝트-between V and R, 신촌로터리 옥상전광판, 서울

2010 타인의 방,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09 2001–2009_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노암갤러리, 서울

2008 nothing, Stuttgarter Kunstverein,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4 Stein, (Stein) ..., Stuttgarter Kunstverein,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9 A Planned Square, 웅전 갤러리, 서울

그룹전

2015	2015 생생화학-시간수집자, 경기도미술관, 안산 보통의 기억, 갤러리 로터스, 파주 소마 드로잉_무심 無心, 소마미술관, 서울 아시아현대미술전 2015, 전북도립미술관, 원주 읽어오 그림 보여오 – 글과 그림 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IAP 비디오 앤솔로지 2,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아트프로젝트 울산 2015, 문화의 거리, 울산
2014	반거창리(半居創離), 경기창작센터, 안산 오래된 명령과 새로운 수행, 철학아카데미, 서울 적재적소,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오십개의 방, 오만가지 이야기, 경기창작센터, 안산 공간을 점령하라!,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정미소, 서울 INTR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건축적인 조각-경계면과 잠재적 사이, 소마미술관, 서울
2013	DJANGO 주재환, 대안예술공간이포, 서울 버려지고 흩어진 것에 아쉬워하는-전시와 흔적, 금천예술공장, 서울 UP-AND-COMERS 신진기예:新進氣銳, 토탈미술관, 서울
2012	말없는 언어, 스페이스몸미술관, 청주 Real / Unreal, with Space gallery, 베이징, 중국 경기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2 미술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생각여행-길 떠난 예술가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예술의 바다, 2012 여수 EXPO, 여수 인간 서식지, 경기창작센터, 안산 아트에디션 2012, 코엑스, 서울 굴방아트필름영화제, 교동아트스튜디오, 전주
2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5기 오픈스튜디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언어구이 페스티벌, 추계예술대학교, 서울 백년몽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서울 대전-난지 레지던스 교류전, 이공갤러리, 대전 p.182 발췌,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서울 제10회 송은미술대상전,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Urban Landscape, 박여숙화랑, 서울 SeMA 2010 이미지의 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0	5th intro,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교수작품전, 해람문화관, 강릉 하슬라 국제 예술심포지엄, 하슬라아트월드 미술관, 강릉 2009 ARKO 작가-중심 네트워크: DECENTERED,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아르코미술관, 서울 Spling, We will spring!, 갤러리 이마주, 서울
2009	미디어 이야기, 푸르씨 창작공간, 고양 lange Nacht der Museen, Ausstellungshalle-Kunstakademie, 슈투트 가르트, 독일
	frische Kunst-Markt, Renitenztheater,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8	o.T., Kunstverein Ludwigsburg, 루드비히스브루크, 독일 KUBOSHOW, Flottmann-Hallen, 헤르네, 독일 Einschleichen, Projekt im oeffentlichen Raum, 슈투트가르트, 독일 Celeste Kunstpreis, Ehemalige Patzenhofer Brauerei Fridrichshoehe, 베를린, 독일 Kabel BW-Kunstwettbewerb, Kabel BW, 하이델베르크, 독일
2007	FOTOSOMMER 2007, Ausstellungshalle-Kunstakademie, 슈투트가르 트, 독일 Kunstbewegt, Mediathek, 네카스울름, 독일 Freischwimmer, Kunstzentrum Karlskaserne, 루드비히스브루크, 독일 nachtschicht III, Dinkel Acker,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6	Kunstsommer 2006, Galerie Tedden, 오버하우젠, 독일 FRUEH BLUETE, im Bunker unter der Diakonissenplatz, 슈투트가르트, 독일

	nachtschicht II, Dinkel Acker,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5	Promenadenmischung, Kunstverein Wilhelmshoehe Ettlingen, 에틀링 엔, 독일 The Flip Book Show, Kunsthalle Duesseldorf, 뒤셀도르프, 독일 17. Bundeswettbewerb Kunststudentinnen und Kunststudenten stellen aus 2005, Kunst und Ausstellungshall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본, 독일 Between, Ausstellungshalle-Kunstakademie, 슈투트가르트, 독일/ 흥 익대학교, 서울
2004	International Flipbook Festival Solitude, Akademie Schloss Solitude, 슈투트가르트, 독일 Guten Tag, Bellingweg 21, 슈투트가르트, 독일 Lebensspure, Kunstpreise der Dioezese Rottenburg-Stuttgart, Stadthaus, 울름, 독일 Dioezesanmuseum Rottenburg, 로텐브루크, 독일 Pe-li-ko-ita-ru-chi, Silbernetz,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3	Dinkelacker, Ehemaliges Dinkelacker Areal, 슈투트가르트, 독일 Reis zum Fruehstueck, Rathaus, 게어링엔, 독일
2000	새는 앞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강릉문화예술회관, 강릉 ? !/?, 덕원갤러리, 서울 억음전, 서경갤러리, 서울 Relay Relay, 인사갤러리, 서울
1999	중앙미술대전, 호암아트홀, 서울 호호탕탕 일월영축 청년작가 초대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BODY전, 도올아트센터, 서울
	억음전, 강릉문화예술회관, 강릉
1997	지변조각전, 강릉대학교문화관, 강릉
1996	뉴코아 장학공모전, 뉴코아백화점, 과천 MBC구상조각대전, 예술의 전당, 서울 미술세계대상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전시기획

2015	제세동기除細動器 (공동기획: 신형섭, 이원호), L153 Art Company, 서울
2014	공간을 점령하라! (공동기획: 이은주, 이원호), 아트스페이스 갤러리 정미 소,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4	고양창작스튜디오, 고양
2012-13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2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0-11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주요수상

2015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
2013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선정
2012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전시지원 선정
2010	제10회 송은미술대상 장려상
2009	서울시립미술관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선정
2008	STIBET-Stipendium des DAAD (DAAD STIBET 지원금), 슈투트가르트, 독일 Kabel BW-Kunstwettbewerb (카벨 BW-미술공모전), 하이델베르크, 독일
2006	2. Preis Kuenstlerischer Ideenwettbewerb fuer die Gestaltung des Kreisverkehrs Greven (그레벤시 교차로 조형물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2등상), 그레벤, 독일 3. Preis Kunst im Kreisverkehr Ebersbach (에벌스바흐시 교차로 조형물 공모전 3등상), 에벌스바흐, 독일
2005	Foerderpreis fuer Bildende Kunst der Bundesministerin fuer Bildung und Forschung (독일연방 교육부장관 조형예술 후원상), 본, 독일

2004	Lobende Erwaehnung der Jury von International Flipbook Festival Solitude (솔리투스 국제 플립북 페스티벌 심사위원장), 슈투트가르트, 독일
2003	Foerderpreis von Rotary Club (로타리 클럽 후원상), 슈투트가르트, 독일

이하람 LEE Haram

2014-현재	KBS 1라디오 <손미나의 여행노트> 작가
2015	MBC every1 웹드라마 <연금술사> 구성 KBS <2TV 아침> ‘굿모닝월드’
2014	5, 6기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작가 개인전 ‘두근두근인천산책’ , 인천아트플랫폼 개인전 ‘어떤여행’ , 헤이리솔로우아드, 파주헤이리 장미갤러리 HD다큐 이하람의 3Go 제작 (인도,시킴,부탄,서울, 인천, 파주 등 13편)

국내저서

『그 여자의 여행가방』(랜덤하우스(RHK) 2009.8)
『두근두근 서울산책』(RHK, 2010. 10)
『떠나라, 외로움도 그리움도 어쩔 수 없다면』(중앙북스 2011.8)
『떠난 뒤에 오는 것들』(상상출판 2013,11)
『두근두근 인천산책』(RHK 2014.9)

해외저서

『首尔漫步』(2014.5, 중국)
『不要吵醒青春的悲伤』(2013. 8)
『서울산책』(2014. 10. 대만)

인진미 IN Jinmi

영화

2013	부천판타스틱 영화제 It project선정 <그대와 함께> 연출
2012	독립장편영화 <부귀영화> 편집,연출,감독
2002	영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각본 및 조감독
2000	영화 <거짓말> 조감독
1999	영화 <남자의 향기> 어시스턴트 아트디렉터
1998	영화 <죽이는 이야기> 제2 조감독
1997	영화 <베이비 세일> 스크립터
1996	영화 <투캅스2> 스크립터

개인전

2015	SIMULACLUM,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13	PARALLELS CITY- 2013, 관두미술관, 대만

그룹전(미디어 아트, 영상)

2015	낙원의 뚝모, 낙원상가, 서울 Soul-blindness, beginning,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 안산 ‘한국공예-사람, 장소, 이야기’ 영상편집, 벨기에, 독일, 영국 한국문화원 패러렐 타임, 소울랑 아티스트빌리지, 타이난, 대만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 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인터스페이스,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부산
2014	지리산 프로젝트-우주예술집, 산청 성심원, 경남 AYD.KYD기념 신라성지 특별전시 ‘들의노래’ , 다블뤼주교기념관, 당진
2013	트라이앵글, 금천아트캠프, 서울
2012	도시문제 리서치 ‘그 밖에 달리 꿈꾸는 법’ , 금천예술공장, 서울

	‘따스한 채움터 특별전’영상연출, 서울
2011	대전, 금천레지던시 교류전, 우연갤러리, 대전 보이지 않는 섬,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사랑을 품다’ 기획전, 금천예술공장, 서울 ‘봉화, 그 할매 박차식(19분)’영상, 기획, 연출, 편집, 경북 ‘봉화아트스테이 발전 세미나’ 총괄기획, 도록편집, 경북
2010	박능생 개인전 ‘금천, 소설’전, 영상촬영, 편집, 금천예술공장, 서울 풍부한 무질서, 금천예술공장,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인천
2014	지리산프로젝트, 산청
2013	‘관두미술관’ 타이페이, 대만
2012-3	금천아트캠프, 서울
2012	토지문화관, 원주
2011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2010	금천예술공장 1기, 서울

임선희 LIM Sun Hee

1999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200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회화/판화 전공 졸업
201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박사과정 졸업

개인전

2015	The Flat, 인천아트플랫폼
2013	장미빛 인생, 갤러리 조선, 서울
2012	장미빛 인생, 스페이스 밌, 인천
2011	바람, 쉼, 스페이스 15번지, 서울
2008	숨은그림찾기, 갤러리 은 기화 초대전, 서울 in the Bag, Art Cube, 서울
2007	Intersection, 연수갤러리, 인천
2006	Wonder_people, 창동 미술스튜디오, 서울
2004	‘Wonder_self’ 벨트선정작가전, 나화랑, 서울
2003	‘Hello, I’m Sunhee’ 공모기획전, brainfactory, 서울

그룹전

2015	세마 살롱 Salon de SeMA,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인천아트플랫폼, 트라이블 IAP 비디오앤솔로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지리산 프로젝트, 지리산 실상사, 남원 소마드로잉 무심, 소마 미술관, 서울 국경을 넘는 그림자, 서울대학교 문화관 1층, 서울
2014	여가의 기술, 문화역 서울 284, 서울 아트에디션 홍콩, 마르코폴로호텔, 홍콩 당신은 말한다, 스페이스 15번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일상의 발견, 갤러리 147, 서울 원, 투, 쓰리, 팔레드 서울, 서울 For Sound, 갤러리 지오, 인천
2013	거울 사이: 무한 가역성, 이화아트센터, 서울 박수근 미술관에 들다, 박수근 미술관, 강원 판화의 유쾌한 변신,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2012	아르코미술관 프로젝트2012 : 언바운드 아카이브, 아르코미술관, 서울 UP-AND-COMERS신진기예, 토탈미술관, 서울 산책, 박은하.임선희 2인전, Space CAN Beijing, 베이징, 중국 채용신과 한국의 초상미술-아상과 허상에 꽃피다, 전북 도립미술관, 전주
2011	데카메론, Space CAN Beijing, 베이징, 중국

2010	Beyond the memory, 갤러리 차, 서울 일상의 귀환, 인천 신세계갤러리, 인천
2009	ARKO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Observation, 김홍식, 임신희 2인전, 갤러리 차, 서울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So Close Yet So Far Away, 인천 아트플랫폼, 인천
2008	창원 아시아 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송은미술대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Contemporary Korean Art, Korean Cultural Centre UK, 영국 내 마음에 그린 얼굴, 더 컬럼스 기획, 역삼 1 문화센터, 서울
2007	프라하현대미술페스티벌-“CITY FABLES” , Eco-Technical Museum, 체코 인천-이스탐블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 이스탐불 현대미술관, 터키 디지털그전, 구 서율역, 서울
2006	short term long journey, 창동 미술스튜디오 전시실, 서울 made in Korea, Le Cube a Issy-les-Moulineaux, 프랑스
2005	inter-space, 갤러리도스, 서울 f 선상의 미디어,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아트페어, 프랑크푸르트, 독일
2004	Stream, 경기문화재단 Standard / Deviation, 이화여대미술관, 서울 Funny Sculpture-Funny Painting III 전, 갤러리 세줄, 서울 Art Seoul 전, 예술의 전당, 서울 총돌과 흐름 전, 서대문 형무소, 서울 Making Money, 조흥갤러리, 서울
2003	Book Project- 사람을 닮은 책, 책을 닮은 사람, 금호미술관, 서울 서울여성영화제, 동송아트센터, 서울 crosstalk,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인디비디오 페스티벌, 아트큐브 일주아트하우스 외 다수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상경력

2015	인천아트플랫폼 입주작가
2012	인천문화재단 기금 수혜 (개인전지원)
2011~2012	PSB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베이징
2008	문예진흥기금 수혜 (개인전지원) 송은미술 대상전 선정작가
2007	인천문화재단 기금 수혜 (개인전지원)
2006	국립창작스튜디오 창동 레지던스 프로그램 입주
2004	“BELT 2004” 선정작가,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2003	개인전 공모선정, Brainfactory
2001	서울필름아카데미, 디지털 필름 워크샵 참가
2000	New York Center for Media Arts, Education Program, 뉴욕 특선 수상, 〈한국현대판화공모전〉
1999	특선 수상, 〈한국 디지털 미술협회대상전〉

전강희 JEON Kanghee

공연예술비평가/드라마터그

2011~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예술전문사 (MFA) 수료 2007~2009 전남대학교 대학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MA) 졸업 1997~2004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영어교육과 졸업
단행본
2015 상암에서 만난 프린지1, 기획, 편집, 공동저자
2014 환승+극장, 프린지, 기획, 공동저자

2013	국립극단 박사, 기획, 편집
2011~12	CONTOUR, 1~4권, 문화계간지, 편집인, 필진
2010	Weehiya! 위하여, 전남대학교 출판부, 공동번역

공연

2016	아오병잉(아시아-오프-병맛-잉여)페스티벌, 서울연극센터/소극장 혜화당, 기획 〈네이티브 스피커〉, 문화역 서울 RTO, 드라마투르그
2015	〈비포 애프터〉,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드라마투르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프로그래머 누군가는 듣고 있어-극단VaQi 제2회 워크숍페스티벌, 공간VaQi 소소한 극장, 기획, 드라마투르그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프리뷰전 〈안전가족〉,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드라마투르그
2014	AYAF(ARKO Young Art Frontier,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분야 선정자 공동기획, 프로그래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프로그래머
2014	〈브레인 컨트롤〉, 선돌극장, 드라마투르그 내가 믿는 이것-극단VaQi 워크숍페스티벌, 공간VaQi 소소한 극장, 기획, 드라마투르그 〈햄스터 살인사건〉, 국립극단, 드라마투르그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극장편〉,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학술연구
	아오병잉(아시아-오프-병맛-잉여)페스티벌, 서울연극센터, 기획
2013	〈나무빠밀리로망스〉, 연우무대, 드라마투르그 〈새석관시장展〉, 퍼포먼스/전시, 드라마투르그

기타

2016-	서울변방연극제 드라마터그/사무국장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2013-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밤, 편집인 http://indienbob.tistory.com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로상 수상

전형산 JUN Hyoung San

2015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미디어아트 전공 수료
2011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2002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개인전

2015	드로잉 릴레이 프로젝트# 전형산 개인전_Unexpected Sound/ 뜻밖의 소리, 반줄-살레, 서울 엘리스 온:뉴스트림2014_개인전 New Normal; a priori bits / 뉴노말: 선형적 편린들, 더미디어, 서울
------	--

그룹전

2015	제15회 서울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_뉴미디어아트 전시제 레인보우 큐브 갤러리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프리뷰전_비평행적진화 전, 인천아트플랫폼A
2014	DAILY REFLCTIONS ; 한.일 미디어아트 교류전, 토탈미술관
2013	Brainstotming 전,경기지방중소기업청 미디어아트 Impression of the Moment, 광진교 8번가
2011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예술미술관 Mullae Resonance 결과보고전, 문래예술공장 내일을 향해 씩라!!4, 대안공간 충정각

2010	추계예술대학교 졸업작품전, 갤러리 라메르 2010 아시아프, 성신여자대학교 파이름 MYA 전, 관훈갤러리 작가교류 ‘시사회’전, 대안공간 팀프러뷰
2009	‘Let’s Play Starbucks’ 전, 스타벅스 북아현 프로젝트 ‘골목에서 주름잡기’참여-주름펴기, 북아현동
2008	베이징 ‘작은 작품 미술제’ , 북경,천진
2005	그룹전 ‘Fo-rm’ 기획 참여, 추정아트홀

그룹 ZERObyte+ 프로젝트

2012	춤추는 대과수사선 쿤스트독 프로젝트 스페이스 난지 제12회 서울국제뉴미디어아트페스티벌_서우울의 봄: On the High//way,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우울의 봄 결과보고전 섯셋장대 장항페스트벌 공장미술제 슈퍼로봇대전 대항월시 3.건설; 최충희, 서교예술실험센터 슈퍼로봇대전 대항월시대 2.대전; 비디오 프로젝트선, 북아현동 재개발구역
2011	슈퍼로봇대전 대항월시대 1.입성; 페이퍼 아트, 북아현동 재개발구역

퍼포먼스

2016	백남준 10주기 추모식_유토피안 레이저 TV스테이션_‘Beyond sounds’ 사운드 퍼포먼스, 백남준아트센터
2015	IAP 협업 프로젝트 〈three little gesture〉사운드 퍼포먼스 참여, 인천아트 플랫폼 B동 북촌뮤직페스티벌2015_TRIAD_우현주x전형산 사운드 협업 퍼포먼스, 57th갤러리 〈Unexpected Sound〉오프닝_사운드 즉흥 협업 퍼포먼스, 반줄_살레 공연장 인천아트플랫폼_비평행적 진화전_오프닝 사운드 즉흥협연 퍼포먼스, 인천아트플랫폼 A동 〈New Normal; a priori bits 〉오프닝_ 사운드 즉흥 협업 퍼포먼스, 더 미디엄
2014	제65회 닷울림 사운드 즉흥 음악 연주회 참여, 공간 닷울림
2013	뉴미디어 퍼포먼스- ‘뉴모에이션:에피소드1being’ 아키텍처디렉터, 문화역서울 284 RTO 제 38회 닷울림 사운드 즉흥 음악 연주회 참여, 공간 닷울림 제 37회 닷울림 사운드 즉흥 음악 연주회 참여, 공간 닷울림 즉흥음악페스티벌 ‘닷울림픽2012’ 사운드즉흥협연 참여, 문래예술공장 춤추는 대과수사선 ; 남마주의 과수해부 퍼포먼스, 쿤스트독스페이스; 난지 서우울의 봄 :off road express 경계드로잉 퍼포먼스, 서울지리적경계 슈퍼로봇대전 다항월시대 :달분양 퍼포먼스, 서교예술실험센터 슈퍼로봇대전 대항월시대 :땅따먹기 퍼포먼스, 북아현 뉴타운재개발구역내
2011	‘Sound Rips’사운드즉흥협연,SPACE_’ id’ ‘The Happening : TOURISM, 서울도심일대 ‘Mullae Resonance’ 사운드 즉흥협연 참여, 문래예술공장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상경력

2015	제15회 서울국제뉴미디어 패스티벌_아이공상 수상, 서울 인천아트플랫폼_시각예술부문 6기 레지던시 입주, 인천
2013	엘리스온 어워드_‘2014뉴스트림 아티스트’ 사운드아트부분 선정
2011	제 10회 한성백제 미술대상전_최우수상 수상

특기사항

2011	Project Group ZERObyte+ 창단멤버, 대표
2013	엘리스온 뉴미디어아트 렉처 시리즈 〈New STREAM 2014 : 뉴미디어 아트의 역할와 경계에 관한 질문〉〈실험적 편린들:노이즈〉강연
2014	KIST 실감교류로보틱스 - 대형투명디스플레이 사업 연구 연수 학습 공동체 (창작공동체 물오름) 초청 강연 [MAKE!] Physical-computing instrument#1, 2 아르떼 미디어아트 교육 시범사업 예술강사(송인중학교_상상의 소리공간) 참여

2015	인천아트플랫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예술강사(소리의 발견) 참여 아트센터 나비_창의인제동반사업 _멘티 참여 백남준아트센터_아트 살롱 강의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운드x아트〉예술강사 아트센터 나비_E.I lab / 로봇 설계 및 제작 참여
------	--

참조

2011	미술실기교사자격증
------	-----------

젯사다 탕트라쿨왕 Jedsada TANGTRAKULWONG

MFA Fine Art with Distinction, The Slade School of Fine Art,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2006 BFA, San Francisco Art Institute, San Francisco, USA, 1999

Solo Exhibitions

2016	Adjust - La Chambre Blanche, Quebec, Canada
2015	Clutch - Gallery Seescape, Chiang Mai, Thailand
2014	Swing - Tadu Thaiyarnon Contemporary Art, Bangkok, Thailand Shatter - H Gallery Chiang Mai, Chiang Mai, Thailand
2013	Downfall - Bangkok University Gallery, Bangkok, Thailand
2012	Remove - Jamjuree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2011	Twist - H Project Space, H Gallery, Bangkok, Thailand
2010	Look-Overlook - The Art Center, Chulalongkom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09	Stand and Fall - KunstDoc Project Space,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2007	Passage - Tadu Contemporary Art, Bangkok, Thailand Off The Frame - Hof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Incheon Art Platform Final Report Exhibition- Building B,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Art Normal 2: Toyburi - Public Spaces, Muang District, Ratchaburi, Thailand
2015	Distance Between The Journeys: Surface Arts, Sluice Art Fair - Bargehouse, Oxo Tower Wharf, South Bank, London, UK Beyond Walled Enclosure: the 9th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 Taehwagang Grand Park, Ulsan, Korea Non Parallel Evolution of Two Beings Who Have Nothing Whatsoever To Do With Each Other- Incheon Art Platform andTribowl,Incheon,Korea Secret Archipelago -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Distance, Between the Journeys - Tadu Thaiyarnon Contemporary Art, Bangkok, Thailand Truth - Art Gallery, Faculty of Fine Arts, Chiang Mai University, Chiang Mai, Thailand Art Stage Singapore - Southeast Asia Platform, Marina Bay Sands, Singapore
2014	Growth: Behind The Scenes - Treasure Hill Artist Village, Taipei, Taiwan Walking A Tightrope - Tang Contemporary Art, Bangkok, Thailand Monologue Dialogue 3 Fragility and Monumentality - Bangkok art and Cultural Centre, Bangkok, Thailand Hotel Art Fair 2014 - H Gallery, LUXX XL Hotel, Bangkok, Thailand Kala Samannayya Festival - Shilpgram Complex, Panjabari, Guwahati, Assam, India
2013	Nave 13 - Espacio de Creacion Contemporanea, Cadiz, Spain 12th Silpa Bhirasri Creativity Grants - Silpakom University Art Gallery,

	Wang Tha Phra, Bangkok, Thailand
	Non-Being By Itself -TheArtCentre,ChulalongkornUniversity,Bangkok,Thailand
	Riverscapes IN FLUX - Metropolitan Museum of Manila, Philippines
	Riverscapes IN FLUX - Langgeng Art Foundation, Yogyakarta, Indonesia
	The Hua Krathi Project -SchoolofArtGallery,RMITUniversity,Melbourne,Australia
	So Many Minds II -ChiangMaiUniversityArtMuseum,ChiangMai,Thailand
2012	Mobility and Identity: RE-culture 1/Art In Progress - Argyri Market, Patras, Greece
	Riverscapes IN FLUX - Fine Arts Museum, Hanoi, Vietnam
	Riverscapes IN FLUX - Cactus Contemporary Art, Ho Chi Minh City, Vietnam
	Riverscapes IN FLUX - g23 Gallery, Bangkok, Thailand
	On Paper - Sanamchandra Art Gallery, Silpakorn University, Nakhorn Pathom, Thailand
2011	Sounds of Dust -943Studio,Loft1919,Kunming,Yunnan,China
	Chuxiong Yi Ancient Town Installation Festival - Chuxiong, Yunnan, China
2010	Utopia Project 2006-2010 - Institute of Contemporary Greek Art, Athens, Greece
	Salon Für Kunstbuch. An Artwork as enterprise - Museum of Contemporary Art Leipzig, Germany
	Exterritory Project -Mediterraneanex-territorialwaters,CyprusandIsrael
2009	Emerging Talents - Bashimi Art House, Salzburg Gallery, Salzburg, Austria
	Beyond Taboo - Dukwon Gallery, Seoul, Korea
2008	Krungthep 226: The Art from Early days to the Imagined Future - Bangkok Art and Cultural Centre, Bangkok, Thailand
	Wanderlust -ArtGallery,Srinakharinwirot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07	Abstract Art - Chiang Mai University Art Museum, Chiang Mai, Thailand

Grants/Awards

2012	12 th Silpa Bhirasri Creativity Grants, The Art Centre, Silpa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09	Asia Pacific Artist Fellowship Program,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Commissions/Sponsor

2016	<i>Adjust</i> supported by Bangkok Art and Cultural Center, La Chambre Blanche, the 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and the Entente MCC/Ville de Quebec, Canada
2015	<i>Traverse</i> supported by WTF Gallery, Bangkok, Thailand
	<i>Waterfall</i> commissioned by the 9th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Korea
	<i>Swing</i> commissioned by National Heritage Board, Singapore
2014	<i>Hill</i> supported by the British Council and UCL Development and Alumni Relations Office, UK
2013	<i>Downfall</i> supported by Bangkok University Gallery, Thailand
2012	<i>Chi River</i> commissioned by Goethe-Institute, Bangkok, Thailand
2011	<i>Edges</i> commissioned by Chuxiong Yi Ancient Town Tourism Business Trade, China
2008	<i>Gradual</i> commissioned by Bangkok Art and Cultural Centre, Thailand
2007	<i>Fence</i> commissioned by Bangkok Zen Department Store, Thailand

Projects

2014	RMIT-3ACP: RMIT Austral-Asian Archive of Contemporary Practice, RMIT University School of Art Galleries Project, Melbourne, Australia
	Non-Being By Itself: Kamin Lertchaiprasert with Cultural Activist and

	Young Artists, Southeast Asia Platform, Art Stage Singapore, Singapore
2012	100 Curators 100 Days project, selected by Brian Curtin, Saatchi Online UK
2010	artschool/uk and its Observer,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artschool uk Phrase I, Cell Project Space, London, UK

Collections

	Silpakorn University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943 Studio, Kunming, China
	Chuxiong Yi Ancient Town Tourism Business Trade & Conference Exhibition Co., Ltd, China
	Chiang Mai University Art Museum, Chiang Mai, Thailand
	Hof Art Gallery, Bangkok, Thailand
	Athens School of Fine Art, Rethymno, Greece
	Private collection

지희킴 Jihee KIM

2013	골드스미스 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 석사과정 졸업, 런던, 영국
2008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2006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개인전

2014	Between the lines,cueB Gallery, 런던, 영국
2013	Daytime Sleepwalking, The Crypt Gallery, 런던, 영국
2009	Sleepless Night,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2007	Finding my other self ,진홍아트홀, 서울

그룹전

2016	Muses,Galerie DOHYANG LEE,파리, 프랑스 (forthcoming)
	뉴 드로잉 프로젝트,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양주 (forthcoming)
2015	SeMA 컬렉션 〈소개이스〉, 북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소마 드로잉_무심 無心,소마미술관, 서울
	PLATFORM b.,아마도 예술공간/연구소, 서울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주목 할 만한 시선, 금호미술관, 서울
	사물이색,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4	The Great Artist, 포스코 미술관, 서울
	테이크 아웃 드로잉 기획전시 ‘파국 이후의 삶’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서울
	Perfect Skin_지희킴&전상욱 2인전, 샘표 스페이스, 인천
	누구나 사연은 있다, 경기도 미술관, 안산
	헬싱키 물산_ Summer,Thrusday,Library, 스페이스 오뉴월, 서울
2013	The Pool Exhibition,골드스미스 대학, 런던,영국
2012	Off the s(h)elf , 스톡홀름 스튜디오, 런던,영국
	Interim Show, 골드스미스 대학, 런던, 영국
	Works on Paper, GX 갤러리, 런던, 영국
2011	여성 작가전,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2010	Korea Tomorrow, SETEC, 서울
	21세기의 첫 심년, 서울 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 서울
2009	서교난장, 텔레비전12, 서울
	NO,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News, K옥션, 서울
2008	INTRO, 국립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
	송은 미술 대상전 , 인사아트센터, 서울
	A’s Paradise, 성곡 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 수상경력

2016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문예진흥원 문예진흥기금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타이페이, 타이완 (forthcoming)
2015~16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장기 입주작가
2014~15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013	소마 미술관 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작가
	골드스미스 대학 Wardens Purchase Prize 수상
2009~10	서울 시립미술관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47기 장기 입주 작가
2009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 활동 지원금 지원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미술 창작스튜디오 5기 단기 입주 작가
2007~08	금호미술관 이천 금호창작스튜디오 3기 입주 작가
2008	제8회 송은 미술대상전 입선

협업

2013	Flow District, (로와정&지희킴 협업) 서울 스퀘어 미디어 파사드, 서울
------	--

작품소장

2015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14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과천
2013	골드스미스 대학교, 런던, 영국
201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2010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2009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
2008	하나은행 본점, 서울

최 영 CHOI Young

2015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2013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 졸업
2009	대구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2015	안구조작의 기술, 영은미술관, 경기
2014	두 눈으로 본 그림, 아트팩토리, 경기
2013	두 눈으로 본 그림, 윤 디자인 연구소, 서울
2012	두 눈으로 본 그림, 이랜드 문화재단, 서울
	Stereoscopic, 공평아트센터, 서울
2010	망막에 비친 그림, 사이아트 갤러리, 서울
2009	볼라다 준 그림, 구울 담 갤러리, 인천
	Mind content, 소헌 컨템포러리, 대구

그룹전

2016	Real Eyes, Gallery CAUTION, 일본, 도쿄
2015	되돌아보는 발자취, 영은미술관, 경기
	군산 레지던시 창작 페스티벌, 군산시청, 군산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視 界, 아트팩토리, 서울
	읽어요 그럼 보여요(글과 그림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나는 우리, 우리가 그리는 인식처, 아트팩토리, 서울
	7회 아트로드77, 아트팩토리, 헤이리, 경기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들의 비평행적 진화 : 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Time Machine, 검재정선 미술관, 서울
2014	진경공원,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창작의 내일,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 서울
	대구아트페어특별전, 대구의 젊은 시선 10人, 대구
	예술로 Burn:짐,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두근두근 인천산책,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Residence Program 2014,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화이부동和而不同, 공평아트센터, 서울
	회화정신 ,대구대학교 갤러리, 경북
	Design Art Fail 2014 ,한가람미술관 7전시장, 서울
	6회 아트로드77, 아트팩토리, 헤이리, 경기
	MONO(观物) ,Shun 갤러리, 상해, 중국
	INTERSECTION ,Spielplatz Hahn, 서울
	대구대학교발전 기금마련 동문초대전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대구
	첫 만남 ‘팅 빈’ 우정의 시작,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신진 작가전 ,일현미술관, 강원
	Neo-Inscription, 아트스페이스 H, 서울
	청마시대, 롯데갤러리 본점, 서울
	행복 나눔 특별전, 아트스페이스 H, 서울
2013	나에게 보낼 그림들, 유네스코에이포트
	거북이 걸음 정기전, 예술의 전당 B1 7갤러리, 서울
	백령도~525,600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3인 3색, Spielplatz Hahn, 서울
	YMCA, 갤러리 이마주, 서울
	Car Story, 아트팩토리, 헤이리
	The Metamorphosis, Shun 갤러리, 상해, 중국
	Small Masterpiece, 롯데갤러리, 서울
	마음의 여백에 작은 꽃씨 하나, 국회의원회관 갤러리, 서울
	Addis Ababa, N 갤러리, 분당, 경기
	Moving Mind, 빛 돌 갤러리, 분당, 경기
	성신 난우 · 난원전, 한중문화원, 인천
2012	인천 평화미술프로젝트 ‘평화의 바다-물 위의 경계’ ,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2011	245 & 386, 공평아트센터, 서울
	인천, 터키 현대미술 국제 교류전,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2010	Fn art Vision Award, 세종문화예술회관, 서울
2009	Exposition d’ Art Contemporain “dpi” , 파리, 프랑스
	Wonderful Pictures, 일민미술관, 서울

레지던시 프로그램

2015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장기입주, 인천
2014~15	영은미술관 레지던시 중기입주, 경기
2014	National Gallery of Indonesia Artist Residence Program 단기입주,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4	인천아트플랫폼 5기 중기입주, 인천
2013	Rising School Young Artist 1개월 단기입주, 일현미술관, 강원
2009	대구 미술광장 창작스튜디오 6개월 중기입주, 대구
2009	l’espace des arts sans frontieres 3개월 단기입주, 파리, 프랑스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인천문화재단, 이랜드문화재단, 삼공제약, 영은미술관

클라라 페트라 사보 Klara Petra SZABO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Ericsson Gallery, Solo Show, Budapest, Hungary
	VILTIN Gallery, Behind the rose-tinted glasses, Budapest, Hungary
2013	Yallops Gallery, Indigo, Norwich, UK
2012	Hungarian Institute of Tallinn, Work in progress, Estonia
2011	VILTIN Gallery, Sweet Melancholy, Budapest, Hungary
2009	VILTIN Gallery, Art & Style project, Budapest, Hungary

Selected Group Exhibition

- 2014 Super Romantics, Daegu Art Factory, Daegu, South Korea
Und Du? Wie lebst Du?, Kunst an der Grenze, Jennersdorf, Austria
- 2013 Reality, Perspectives and Encounters, SeMA Nanji Exhibition Hall, Seoul, South Korea
Esterhazy Art Award, Museum of Fine Arts, Budapest, Hungary
Derkovits- NOW, Kunsthalle, Budapest, Hungary
- 2012 Mino AIR, Mino Washi Paper Museum, Mino, Japan
MEGACOOOL 4.0 jugend und kunst, Kunsterhaus k/haus Vienna, Austria
Tradition reconsidered, Ernst Museum, Budapest, Hungary
- 2011 Hungarian Institute of Paris, Embellissez-moi!, Paris, France
Galerie De Meerse, United in Art, Hoofddorp, The Netherlands
Krinzinger Projekte, Vienna, Austria

Residency

- 2014 KunstQuartier Atelier Program Salzburg, Austria
Kunst an der Grenze AIR, Jennersdorf, Austria
- 2013 Seoul Museum of Art Nanji International Residency, South Korea
Outpost AIR, Norwich, UK
- 2012 Mino AIR, Mino Paper Village, Japan
Polymer AIR, Kultuuritehas Polymer Tallinn, Estonia
Academia Non Grata AIR, Parnu, Estonia
- 2010 Krinzinger Projekte Artist in Residence Petomihalyfa, Austria

Workshop and Festivals

- 2014 Gongju International Art Festival, LimLip Art Museum, Gongju, South Korea
- 2012 Mino Lantern Festival, Mino, Japan
Culture Polymer Festival, Tallinn, Estonia
NON STOP MEDIA VI., Kharkov City Art Gallery, Ukraine
- 2011 A3.FORMAT, Do it yourself workshop, Serbia

Scholarships

- 2014 KunstQuartier Atelier Program Salzburg, Austria
Rudnay Gyula Scholarship, Hungary
- 2013 Derkovits Gyula Scholarship, Hungary
- 2011 Derkovits Gyula Scholarship, Hungary
- 2008 The Royal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Scholarship, Denmark

Memberships

- 2014 ACoA Gallery, Tokyo, Japan
- 2011 Diarchy Collective with Florian Lang (A)
- 2009 Represented by VILTIN Gallery, Budapest, Hungary
- 2007 Studio of Young Artists Association

판소리, ‘하다’ Pansori, ‘HADA’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작가

- 2015 인천아트플랫폼 공연분야 입주작가 프로젝트 세계명작과 함께하는 ‘이야기, 판소리하다’ 공연 (헨릭 입센-유령, 도스토예프스키-죄와 벌)
제1회 바닷소리극 페스티벌 초청공연 세계명작판소리극 ‘안네의 일기, 판소리하다’ 공연 (안네프랑크-안네의 일기)

폴 주커 Paul ZUERKER

- 2004-11 Diploma Illustration and Communications Design at HAW Hamburg:
"Zeichnung - zeichnen", illustrated book and installation about the theory and praxis of drawing from the Renaissance until today
- 2008/09 Fine Art, B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 2003/04 Architectural Studies, Technical University, Berlin

Solo / Two Person Shows

- 2016 alien - identity, CJAS, Cheongju, South Korea
- 2015 "this is the subject we have", collaborative installation with Yoon Hee Kim and Saskia Senge, Frappant Gallery, Hamburg
me:alien, G1 Galler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Lights from the River Flow, with Yoon Hee Kim, Zaha Museum, Seoul, South Korea
- 2014 asymmetry, with Yoon Hee Kim, Alfred Gallery, TelAviv, Israel
- 2013 I know who you were last summer, with Chantal Maquet, City Hall, Hamburg, Germany
- 2012 decalCOmania, Frappant Gallery, Hamburg, Germany

Selected Group Shows

- 2016 Final Show, 6th Artists in Residency Show,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Neue Empiriker - Station, Zaha Museum, Seoul, South Korea
Neue Empiriker - WE SHAPE CLAY INTO A POT, Frappant Galerie, Hamburg, Germany
Preview Show, 6th Artists in Residency Show,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Junk Art, Jeollabuk-do Provincial Hall, organized by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South Korea
Here is where we meet, Square Gallery, Seoul, South Korea
- 2014 Warhol and Friends (collab with Luna Jungeun Lee), Jean Gallery, Seoul, South Korea
no member remember, E 127, Iksan, South Korea
Drawing Exhibition, W Museum, Iksan, South Korea
exhibition for Emy-Roeder-Price 2014, Kunstverein Ludwigshafen, Germany
disassembling, Joao Cocteau, Berlin
- 2013 glasklar milchig, FORUM factory, Berlin, Germany
BILD.MOTIV.WAGNER.2013, Kunstverein Bayreuth, Germany
- 2012 Betriebsausflug, Kaufhaus Held, Leipzig, Germany
Neros Puppets, Linda Galerie, Hamburg, Germany
Pudel Art Basel, Golden Pudel Club, Hamburg, Germany
- 2011 Felicitas, Frappant Hamburg, Germany
"i guess...it is genius", Frappant, Hamburg, Germany
100% Frappant, Frappant, Hamburg, Germany
- 2010 The Big Draw Berlin, Berlin
Exemplarische Verschiebungstendenzen, Galerie Speckstraße, Hamburg, Germany
Körper/Teile, Frappant-Kaserne, Hamburg, Germany
- 2009 Alltag – ein deutsch-israelischer Austausch in Wort und Bild, Goethe Institute Jerusalem, Israel

Artists's Residencies

- 2016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South Korea
- 2015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South Korea
- 2014 Iksan Cultural Foundation, Iksan, South Korea

LECTURES, WORKSHOPS etc.

- 2015 Hannam Universität, Daejeon, Südkorea
Square Gallery, Seoul
- 2012 visual programming workshop with Paul Scheytt, HAW Hamburg
- 2007 Commentary to Jörg Gleiters lecture "Materialisierter Schlusstrich? Das Mahn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at the conference "Perspektiven der integralen Stadtkultur" by Heinz Paetzold

함정식 HAM Jeongsik

-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 졸업

상영

- 2015 인천아트플랫폼, 비디오앤솔리지, <ring> <내게 강 같은 평화> 상영
- 2014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 필룩스, '비디오 릴레이 탄산' 씨네코드선재, <기도> 상영
-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돌꽃예술제 <I'm The Best> <강 같은 평화> 상영
- 2010 KEAF 초단편영상제 <ring> <십> 상영

전시

- 2015 인천 세계 책의 수도 선정 기념 특별전 '읽어요 그럼 보여요 - 글과 그림 사이'
단체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리뷰전
- 2014 단체전 '미래가 끝났을 때' 하이트 컬렉션
- 2013 단체전 '작은별' 공아트스페이스

협업프로젝트

- 2015 'Three little gesture' 길다래x정태호x전형산x함정식,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레지던시

- 2015-16 인천아트플랫폼 6기 입주

발 행 인 김윤식 KIM Yunsik
발 행 일 2016년 4월
발 행 처 인천문화재단-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중구 제물량로218번길 3 (우편번호 : 22314)
Tel. 032)760-1000, Fax. 032)760-1010
www.inartplatform.kr
편 집 이영리 LEE Young-ri
디 자 인 도서출판 다인아트

2015 인천아트플랫폼 Staff

팀장 양종남 YANG Jongnam
시각예술 담당 이아름 LEE Ah-reum / 이영리 LEE Young-ri
공연예술 담당 양수연 YANG Suyon
교육프로그램 담당 송예진 SONG Yeajin
행정 및 설비 담당 오병석 OH Byongsuk

© 2015 인천아트플랫폼
이 책은 2015년 인천아트플랫폼 6기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 자료집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 작가와 인천아트플랫폼에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15 Incheon Art Platform
This book is a report catalogue about 6th Artist-in-Residence Program of Incheon Art Platform in 2015.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